

인문한국(HK)지원사업 · 소통 · 치유 · 통합의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14회 국내학술심포지엄

문학치료를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

일시 2013년 2월 23일(토) 09:30~18:20

장소 건국대학교 인문학관 교수연구동
401호 교수회의실

주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 프로그램 】

개회식 (09:30~10:20)

사회 : 김종군(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등 록 (09:30~10:00)

개회사 / 김성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

축 사 / 김석회(한국문학치료학회장, 인하대 교수)

제1부 문학치료학의 연구 경과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 방향 (10:20~12:10)

좌장 : 박일용(홍익대 국어교육과 교수)

기조발표 / 정운채(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발표 1 / 하은하(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토론 / 이민용(강원대 인문치료사업단 HK교수)

발표 2 / 강미정(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토론 / 김정경(서강대 대우교수)

점심 12:10~13:30

제2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작품론 (13:30~16:20)

좌장 : 신동훈(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발표 3 / 조홍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토론 / 홍나래(이화여대 강사)

발표 4 / 김정애(건국대 강사) · 토론 / 한순미(전남대 감성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휴 식 14:50~15:00

발표 5 / 방유리나(건국대 강사) · 토론 / 고정희(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발표 6 / 박현숙(건국대 강사) · 토론 / 심우장(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휴 식 16:20~16:30

제3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방법론 (16:30~18:20)

좌장 : 엄은열(청주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

발표 7 / 박재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토론 / 정충권(충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발표 8 / 나지영(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토론 / 장만식(상지대 외래교수)

발표 9 / 김종군(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토론 / 이영의(강원대 인문치료사업단 HK교수)

이 발표집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NRF-2009-361-A00008)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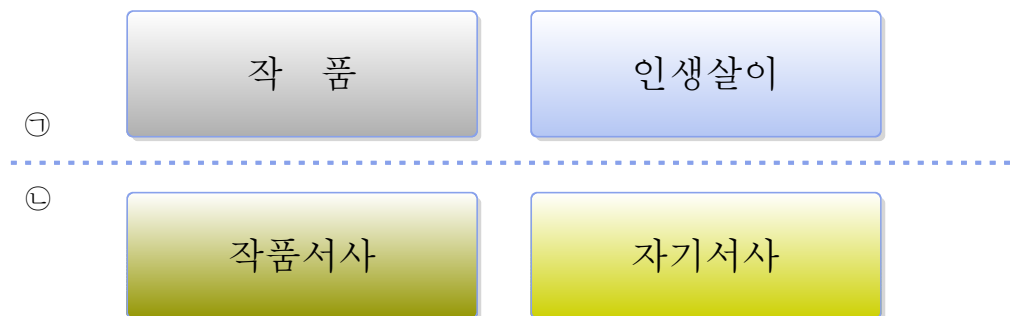
기조발표 : 문학치료학과 역사적 트라우마	1
정운채,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발표 :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학치료연구 현황	9
하은하,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2발표 : 경험담의 문학치료학적 분석과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이론적 전망	21
강미정,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제3발표 : 북한지역의 설화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고찰	33
조홍윤,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제4발표 : 설화 <구렁덩덩 신선비>를 통해 본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탐색	51
김정애, 건국대 강사	
제5발표 : 영화 <고지전>을 통해 본 분단서사와 그 극복 가능성 전망	63
방유리나, 건국대 강사	
제6발표 : 여성 전쟁체험담 사례를 통해 본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과 대응방식	77
박현숙, 건국대 강사	
제7발표 :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 특징과 그 문학치료 가능성	93
박재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제8발표 : 탈북 청소년의 적응 문제와 분단서사	113
나지영,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제9발표 :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에서 찾는 분단 트라우마 극복 방안	135
김종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차례>

1. 문학치료학의 기본 개념
2. 역사적 사건의 충격과 트라우마
3.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

1. 문학치료학의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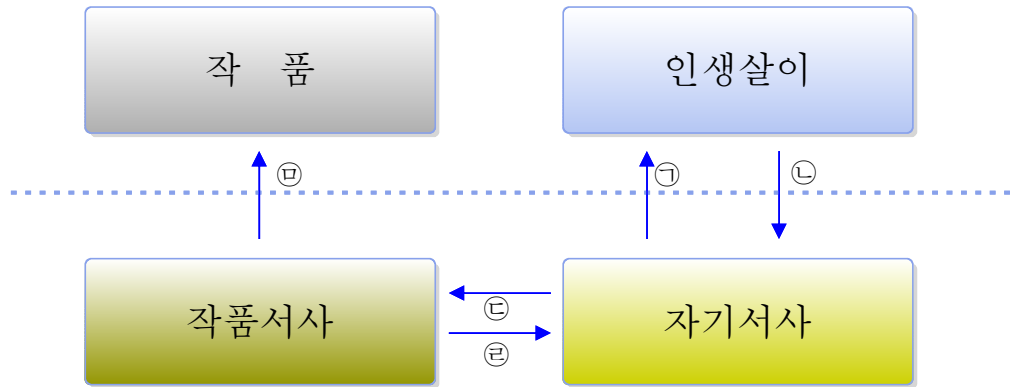
<그림 1>



㉠ 외면, 텍스트

㉡ 내면,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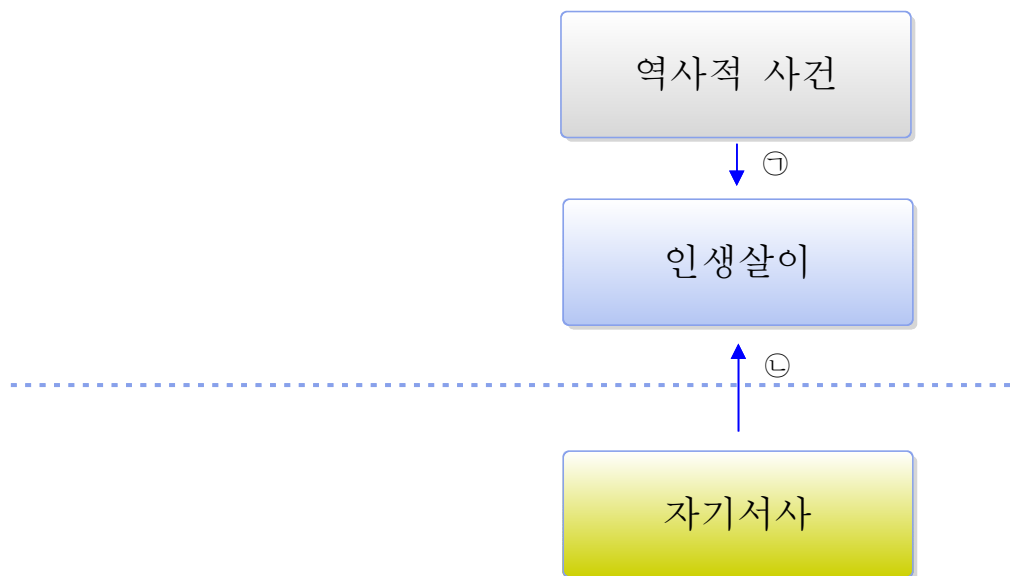
<그림 2>



- ㉑ 자기서사에 의한 인생살이 설계 및 운영.
- ㉒ 인생살이의 돌발요소에 의한 자기서사의 조정.
- ㉓ 자기서사에 의한 작품서사의 구성
- ㉔ 작품서사에 의한 자기서사의 조정.
- ㉕ 작품서사에 의한 작품의 창작 및 해석.

2. 역사적 사건의 충격과 트라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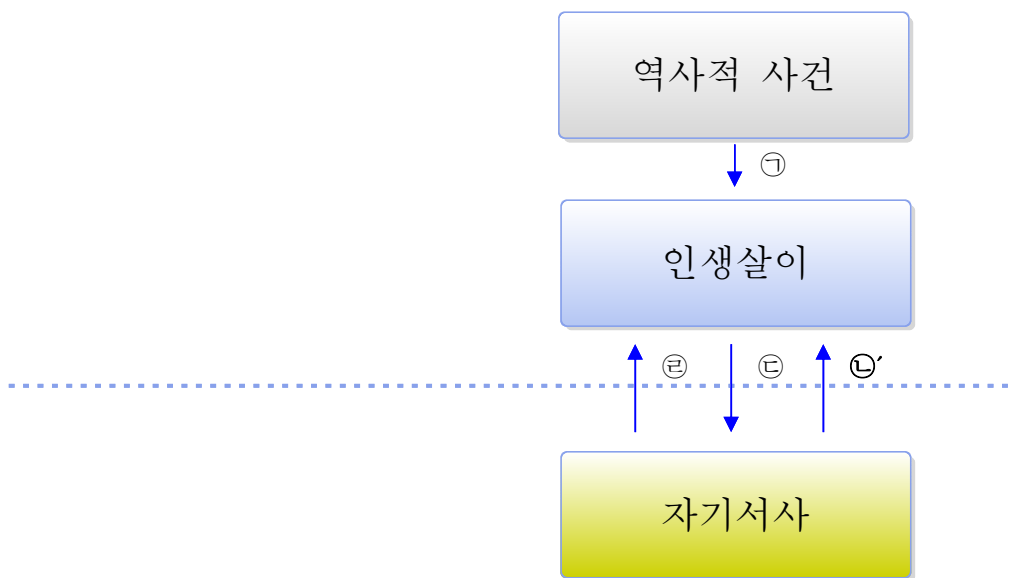
<그림 3>



㉠ 역사적 사건에 의한 인생살이의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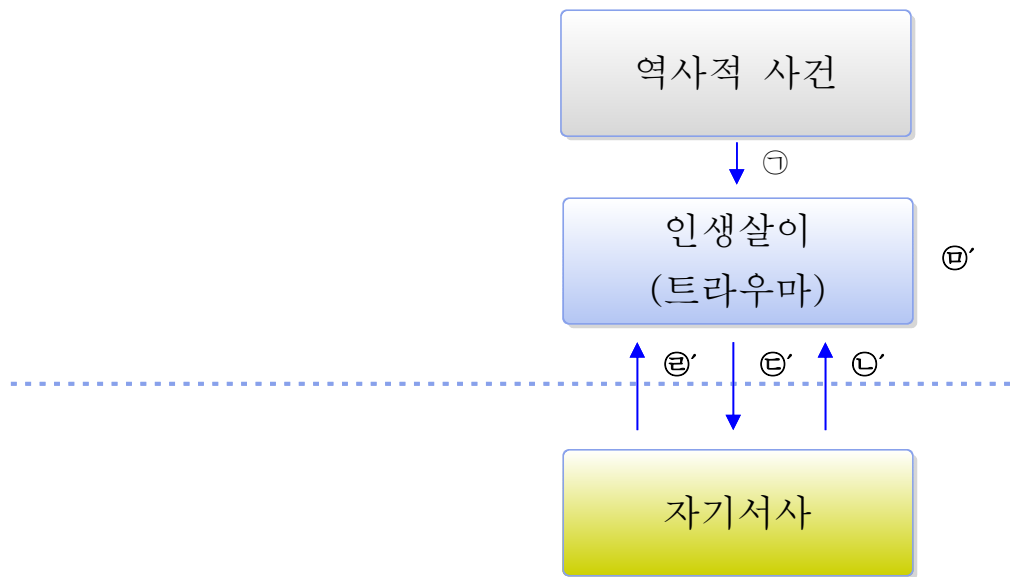
㉡ 자기서사에 의한 역사적 사건 해석 및 인생살이 재해석.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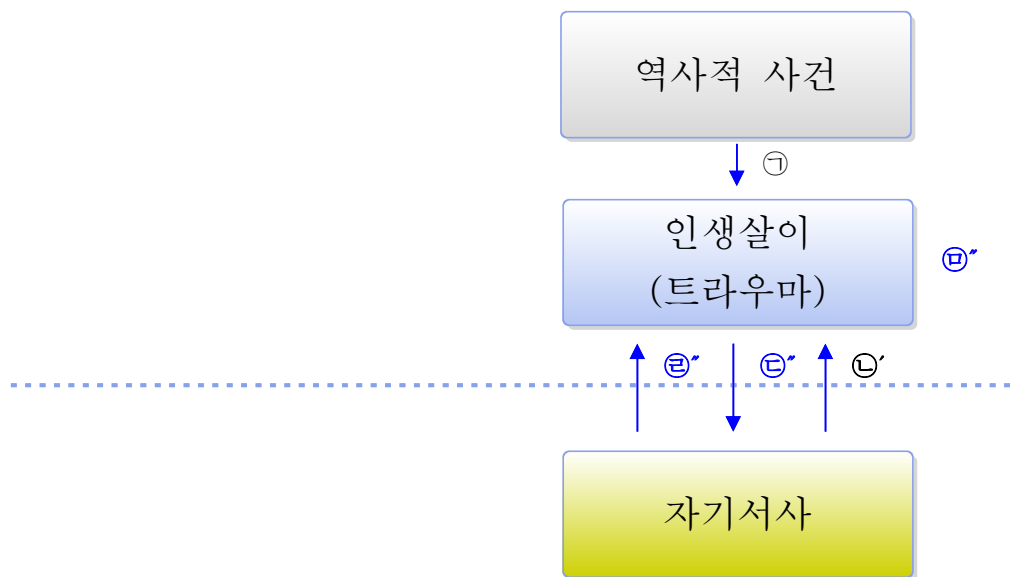
- ㉠ 역사적 사건에 의한 인생살이의 충격.
- ㉡ 기왕의 자기서사에 의거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및 인생살이에 대한 재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 ㉢ 인생살이의 충격에 의한 자기서사의 조정.
- ㉣ 조정된 자기서사에 의한 인생살이의 역사적 충격 재해석.

<그림 5>



- ㉠ 역사적 사건에 의한 인생살이의 충격.
- ㉡ 기왕의 자기서사에 의거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및 인생살이에 대한 재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 ㉢ 인생살이의 충격에 의한 자기서사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음.
- ㉣ 자기서사가 인생살이를 장악하지 못하고 부조화인 채로 표류함.
- ㉤ 인생살이와 자기서사의 부조화에 의한 트라우마의 형성. 이 트라우마는 기왕의 자기서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인생살이의 용종에 해당됨.

<그림 6>



㉠ 역사적 사건에 의한 인생살이의 충격.

㉡ 기왕의 자기서사에 의거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및 인생살이에 대한 재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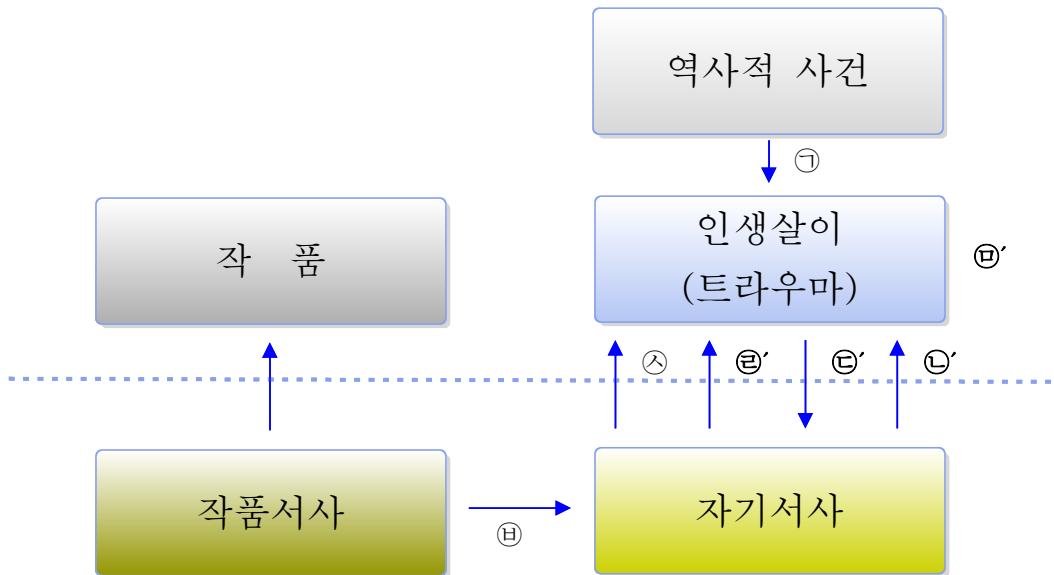
㉢ 인생살이의 충격에 의하여 자기서사가 조정되기는 하나,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가 형성됨.

㉣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가 인생살이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설계함.

㉤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의 영향으로 불합리한 신념이 형성됨. 이 불합리한 신념 역시 트라우마에 해당됨.

3.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

<그림 7>



㉠ 역사적 사건에 의한 인생살이의 충격.

㉡ 기왕의 자기서사에 의거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및 인생살이에 대한 재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 인생살이의 충격에 의한 자기서사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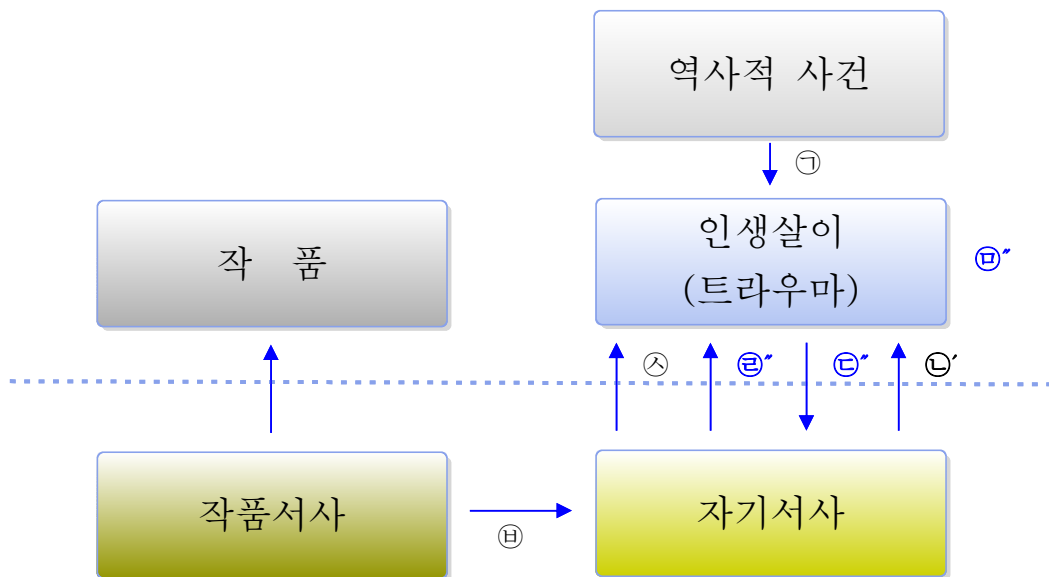
㉣ 자기서사가 인생살이를 장악하지 못하고 부조화인 채로 표류함.

㉤ 인생살이와 자기서사의 부조화에 의한 트라우마의 형성. 이 트라우마는 기왕의 자기서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인생살이의 용종에 해당됨.

㉥ 작품서사에 의한 자기서사의 조정.

㉦ 조정된 자기서사에 의한 인생살이의 재해석. 그 결과 용종에 해당되었던 트라우마가 이해 가능한 인생살이의 구도 속에 용해됨.

<그림 8>



㉠ 역사적 사건에 의한 인생살이의 충격.

㉡ 기왕의 자기서사에 의거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및 인생살이에 대한 재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 인생살이의 충격에 의하여 자기서사가 조정되기는 하나,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가 형성됨.

㉣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가 인생살이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설계함.

㉤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의 영향으로 불합리한 신념이 형성됨. 이 불합리한 신념 역시 트라우마에 해당됨.

㉥ 작품서사에 의한 자기서사의 조정.

㉦ 조정된 자기서사에 의한 인생살이의 재해석. 그 결과 불합리한 신념에 해당되었던 트라우마가 합리적인 인생살이의 구도 속에 용해됨.

<차례>

1. 서론
2. 문학치료 개념의 태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역사적 트라우마
3.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연구 현황과 역사적 트라우마
4. 문학치료학 방법론의 연구 현황과 역사적 트라우마
5. 결론

1. 서론

이번 학회의 목표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문학치료학을 통해 극복해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을 바꾸면 문학연구가 한반도의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의 본래적인 기능이 치료에 있다고 보고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학치료학의 연구 동향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허구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만이 아님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을 치료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세상은 내 버려둔 채 개인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다스리고자 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님도 밝히고 싶다.

이를 위하여 문학치료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문학치료 태동기에 해당되는 연구 현황들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문학치료학의 핵심적인 서사이론의 성립 과정과 문학치료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 현황들을 선별하여 요약하기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를 통하여 문학치료학의 연구 현황에 잠재하였으나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방안에 관해 전망해 보려는 것이다.

문학치료라는 개념이 학계에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1999년이며, 학술지를 발간한 것은 2003년이니 지금까지 꽤 많은 연구 업적들이 쌓여있다. 그 중에는 직접적으로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한 단면을 분석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작품을 분석한 연구들¹⁾도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과 방법론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본질적으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작품론의 연구 현황에 관한 소개와 평가는 다루지 않는다.

*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미정,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본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분단서사 극복전망; 강서영, 새터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 김혜미, 홍길동전에 담긴 상생의 문제; 나지영,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본 탈북 청소년의 자기서사 진단 사례 연구; 정운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서사」, 『인문학논총』 제 47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정운채, 「정몽주의 암살과 복권에 대한 서사적 이해; 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역사적 실제 규명을 위하여」, 『통일인문학논총』 제 53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성정화·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 방유리나, 영화 <무산일>에 나타난 두 가지 시선과 그 서사적 의미

2. 문학치료 개념의 태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역사적 트라우마

문학치료라는 개념이 학계에 처음 보고 되던 시절은 그야말로 문학치료학의 맹아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연구들 중 주요한 것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사회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치료학을 위한 전망」
2. 「<춘향가>에 나타난 두 권력과 그 문화론적 의미」
3. 「<만복사저포기>의 문학치료학적 독해」
4. 「시교설(詩敎說)」의 문학치료학적 해석

이 가운데 「사회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치료학을 위한 전망」이라는 논문에는 ‘문학치료(文學治療)’라는 개념을 학계에 제안하게 된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정운채는 이 논문에서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무한경쟁)에 종속되고 있는 사회 풍토 속에서 문학 내지 문학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문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던 과거제도에서 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야 말로 문학에 대한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시절의 문학에 대한 기대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자료로 시화집을 분석한 결과, 작품의 효과는 정신 영역에 생겨난 병을 치료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을 통한 치료적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 「시교설(詩敎說)의 문학치료학적 해석」이란 논문에서는 동양의 대표적인 문학론인 공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교화(敎化)됨을 알 수 있으니, 그 사람됨이 온유돈후하면 시교(詩敎)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성룡이 주목했던 흥(興)과 원(怨)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문학치료적 방법론을 분석해 내고 있다. 정운채는 유성룡이 주목한 흥(興)은 억압된 기억을 일깨우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고 또 일깨워진 기억이 다시 시의 문맥 속에 들어가 재해석되면서 서사적 진리를 얻는 것과는 관련된다고 했다. 원(怨)에 대해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뒤틀린 인간관계에서 연유하는 바 원망을 통하여 중국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해석하면서 흥은 문학치료의 방법론으로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고 원은 문학치료가 감당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위 두 논문에서는 문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문학의 본래적인 기능인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을 통한 치료란 한갓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바른 관계 회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사회 전체가 건강성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현재의 문학치료학에서도 변함없이 또한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학의 치료적 기능이라고 본 문학치료학의 입장에서 역사적 트라우마²⁾는 당연히 회복시켜야 할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 트라우마는 집단 전체의 외상이면서 동시에 집단 구성원간의 인간관계가 뒤틀린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박영균·김종균, 「코리아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방법론」, 『코리아의 역사적 트라우마』, 통일인문학연구총서 008, 선인, 2012, 37쪽.

3.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연구 현황과 역사적 트라우마

■ 원초적 사건과 서사

이 시기에는 문학이 치료적 기능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발휘해 왔는지에 대한 실례를 들어 보여주었다.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의 치료적 기능을 소극적인 기능과 적극적인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극적 치료 기능이 작가 혹은 사회의, 심리적 장애를 증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치료 기능이란 심리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극적 치료 기능과 적극적 치료 기능의 예로 『삼국유사』 <도화녀 비형랑>조 기록을 들고 있다. <도화녀 비형랑> 설화는 <용춘(龍春) 관련 사건>에 대한 문학적 처리인 바, 이 사건의 충격이 신라인들로 하여금 <비형랑 주사>와 <비형랑 설화>를 형성화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때 <비형랑 주사>는 당대의 심리적 장애를 소망충족적인 대리증상으로 만들어 간 것이고 <비형랑 설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자초지종을 밝혀 재생시키면서 그 경험을 반복하는 동시에 이해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결국 신라인들은 두 개의 작품을 통해 대리증상을 만들거나 외상과 관련된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서서히 사건과 관련된 충격을 치료를 해 나갔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마치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에 간혀있던 원초적 사건을 기억해 냄으로써 증상을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신분석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기억을 재생시키고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증상을 없애는 치료 과정에 문학 작품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다가 좀 더 독자적인 문학치료학의 체계화를 시도하게 되는 데 그것은 서사이론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작품서사와 자기서사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 방법론」 「구운몽과 자기서사」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

먼저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에서는 고전작품은 배우는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자극을 주는 것인바 고전문학 교육의 목표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성의 회복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 여부는 학습자들이 현재 힘들어 하는 문제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학적 실마리’의 적절성과 충분함의 여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부터는 심리적인 문제를 여전히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 외에 학습자나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서사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던 것이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와서는 ‘문학치료학의 가장 큰 성과로 문학을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만 이해하던 것을 ‘인간 활동’ 그 자체, 더 나아가 ‘인간’ 그 자체가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게 한 관점의 전환’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문학작품과 인생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려는 것인 바, 문학작품은 그 심층에 있는 서사가 원인이 되어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이고 인생도 또한 내면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서사 탓에 특정한 인생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표층과 심층을 구분하고 삶이라는 표층을 떠받치고 구조화하는 ‘근원으로서의 서사’를 상정하는 것은 다소 문학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는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서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실은 각각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서사에 의하여 구조화되고, 사람들은 이미 구조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³⁾고 보아서 삶보다 서사가 선행하는 것이라 본다.

이제 문학치료학에서 서사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첫째 현상의 심층에 존재하는 것이며 ②둘째 인간관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③ 셋째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시작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이 서술되어 있어야 하며 ④넷째 특정 장르나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며 ⑤다섯째 텍스트에 구속되지 않고 텍스트를 이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이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은 애초에 모든 관심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의 존재이유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의 삶을 문제 해결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이니 인간에 대한 서사 역시 그 기반을 인간관계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문학은 삶에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문제의 시작에서부터 해결의 지점까지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어야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태의 자초지종(自初至終)과 앞뒤의 맥락(脈絡)을 구성해 내는 것이 서사인데 서사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며 중국에는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특이한 서사 기법을 구사하고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며 상이한 장르를 사용하는 텍스트의 전략에 구애 없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면 구성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는 인생의 내면 존재하는 서사를 자기서사로 작품의 근원에 존재하는 작품서사라고 보는 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서사는 한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사회나, 집단의 자기서사로도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 사회가 어떠한 방향을 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해석해낼 수 있게 한다고 했다.⁴⁾

이제 이와 같은 자기서사 개념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어떤 새로움을 열어줄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앞에서 이미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는 우리들의 삶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사적으로 구조화되어 개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역사학자 가운데 문학치료학의 서사인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역사학자가 있어 해당 글을 먼저 인용해 보겠다.

화이트는 자신의 이론을 메타역사, 또는 역사시학이라고 부른다. 그는 역사적인 저술들을 서사적 산문의 담화 형식으로 다루고, 특정한 역사적 설명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는 시적인 심층 구조를 탐구한다. 모든 역사 서술은 현저한 비유의 형식과 여기에 수반되는 언어학적 규약들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메타역사적인 기반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역사와 문학, 진실과 허구 사이의 근본적 차별성과 위계화된 이분법을 해체하고, 역사적 사실주의의 허구적이고 미학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문학사가나 예술사가들이 “사실주의 예술의 ‘역사적’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면, 그는 “사실주의 사학의 ‘예술적’ 요소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 서사 이론은 이처럼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띠는 뿐 아니라, 학문의 연구 대상과 존재 근거와 그것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사고방식 자체를 의심하고 분석한다.

화이트에게 있어 역사가의 이데올로기와 윤리적 관점은 담화의 여러 형식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중심 요소이다. 역사

3) 정운채, 「토도로프와 채트민의 서사이론과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고전문학과교육』 제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08, 309~330쪽.

4) 정운채, 「정몽주의 암살과 복권에 대한 서사적 이해 : 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하여」, 『통일인문논총』 제53집, 인문학연구원, 2012.05, 371~403쪽.

란 연대기나 편년사와는 달리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흐름에 어떤 구조를 부여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행위의 산물인데, 이때 사건들의 선택과 배열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집필하는 역사가의 시각과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이트의 서사 이론은 이야기를 만드는 자로서의 주체의 위상과 그 이데올로기적·윤리적 성격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도 구조주의 서사학을 넘어선다.⁵⁾

위 인용한 글에서 역사학자 화이트는 연대기(年代記)나 편년사(編年史)와 역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연대기나 편년사와 달리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흐름 어떤 구조를 부여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했다.⁶⁾ 심지어 화이트는 이야기가 없이 역사가는 어떤 역사적 서술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⁷⁾ 이야기에 따라 사건의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사실(事實) 이전에 존재하는 역사가 머릿속의 이야기란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자기서사, 작품서사와 유사하다. 역사가의 이야기는 역사적 기술에 앞선다 라고 한 것은 문학치료학의 서사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인 즉 서사는 모든 현상의 심층에 존재한다는 것과 서사는 매체와 장르에 구애되지 않고 그 넘어 존재한다는 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또 역사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는 사건의 선택이나 배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나 기승전결이 있다는 점은 문학치료학의 서사가 삶의 문제 발생에서부터 해결까지 완성된 형태의 서사인 점과 닮아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도 우리 삶의 모든 활동처럼 서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운영된다는 관점을 포용하게 되면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체험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며 서사가 트라우마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한 사실을 찾고 사실과 사실들의 관계를 따지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 사실들을 선별해 내고 트라우마화 하는 방식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심층적인 원인으로서의 트라우마서사(일종의 이상심리서사)의 실체가 드러나야 세대를 거듭해서 역사적 트라우마가 전이되고 감염되는⁸⁾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 문학치료학의 방법론의 연구 현황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

그렇다면 역사적 트라우마의 심층에서 작용하고 있는 서사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트라우마를 고착, 강화시키는 서사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문학치료학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상호 조응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제 문학치료학에서 심층 서사들을 분석해내는 방법과 작품서사를 활용하여 자기서사의 변화 성장시켜 가는 원리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해 가면서 아울러 역사적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서사를 극복해 나갈 전망을 그려보도록 하자.

먼저 문학치료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심층에 작동하고 있는 서사들의 분석 방법부터 살펴보자. 문학치료학

5)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이론」, 랜덤하우스중앙, 2004, 204~205쪽.

6) 화이트는 19세기 대표적인 네 명의 역사가들이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구제도의 몰락이라는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를 구성해내었다고 보았다.

7)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人文論叢』 vol 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41쪽.

8) 라카프라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관계하는 특정 집단 내부에서 전이되는 감염체계를 가진, 후천적이면서 이차적인 트라우마화라고 했으며, 에히리 프롬은 이차적 트라우마화의 기반을 전이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의 욕망 구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문학치료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특정한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특정 사회를 움직이는 자기서사나 작품서사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에서는 인생의 심층에 자기서사를, 작품의 심층에는 작품서사를 상징해 두고 둘을 구분한다. 그런데 작품서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텍스트에 구현된 인간관계에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사의 주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삶의 문제를 짐작하고 텍스트의 전개 과정을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까지 구성해 내면 되는 것이다.⁹⁾ 물론 이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문학치료학의 서사는 텍스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메워 넣어야 작품서사가 될 것이다.

반면, 자기서사의 전모는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해낸 작품들을 분석해서 얻은 작품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다.¹⁰⁾ 문학작품의 작품서사는 자기서사가 반영된 것이니 자기서사를 얻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서사를 수집하여 자기서사의 전모를 밝히려 할 때에는 민족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차이보다는 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¹¹⁾ 그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서사라면 공통점을 기반으로 서로 상호 조응해 가면서 자기서사를 탐색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보편적인 서사의 탐색을 위하여 작품서사를 하나씩 수집해가는 귀납적인 방식 외에, 연역적인 틀도 함께 만들어 병행했다. 연역적인 틀은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모두가 말미암을 수 있는 기초서사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문학치료학의 서사는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것인 바, 기초서사 역시 우리들이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 중 근저가 될 수 있는 가족관계¹²⁾로부터 네 가지를 우선 범주화하고 그 뒤에는 관계를 주도하는 주체의 입장 그리고 주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16가지로 서사영역으로 세분화 하였다. 그런 뒤 각 서사영역에 기준이 되는 작품서사를 내세워서 자기서사진단도구를 개발하는 등 자기서사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파악해 내려는 노력을 피했다. 이 외에도 자기서사의 특수한 국면까지 밝히기 위해 8 종류의 이상심리를 유발하는 이상심리서사를 논리적으로 추출해 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이상심리서사진단도구도 개발하였다. ¹³⁾

이제 현상의 근원에 서사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서사의 대체적인 모습과 일반적인 특징을 간파할 수 있고 건강성의 정도까지 파악해 낼 수 있게 되었다면,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학치료학에서는 초창기부터 작품서사를 통하여 자기서사를 보충, 강화, 통합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또 작품서사와 닮은꼴의 자기서사가 내면에 형성되어 있을 때 작품서사에 대한 공감은 가능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적고,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일치도가 낮을 때는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는 대체적인 밑그림을 두었다. 그러다가 자기서사의 보충과 강화,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다음 논문들로부터이다.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서사접속 및 서사능력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위 논문들 가운데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에서는 자기서사의 성장은 자기서사와 거

9)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 『영화와문학치료』 제3집,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0. 02, 315~335쪽.

10)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개발에 따른 고전문학 연구와 교육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제1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07, 201~226쪽.

11) 문학치료학에서는 동일한 작품서사가 다른 장르로 형상화될 수 있다고 본다.

12) 자녀서사, 남편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를 이른다.

13) 정운채 외, 『이상심리와 이상심리서사』, 문학과치료, 2011, 1~265쪽.

리를 확보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기서사에 대한 거리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같은 논문에서는 작품을 감상하거나 창작하면서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사이에 불일치를 확인할 때, 자기서사와 인생살이의 사이의 괴리를 느낄 때, 서사의 주체를 달리하여 서사를 새롭게 구성해 봄으로써 주제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때, 서사의 분기점(分岐點)에서 다른 갈림길을 선택하면서 달라진 가능성을 비교 검토하게 될 때 등 네 가지 종류의 자기서사와의 거리 확보가 가능한 지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간극 혹은 인생과 자기서사의 불일치와 괴리는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겠지만, 서사 주제와 서사의 분기점이라는 용어들은 여전히 낯설 것이다. 이에 먼저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 이 용어들의 의미와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서사의 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논문을 잠시 인용해 보겠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아직까지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서술자나 서술시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문학치료학이 텍스트의 차원을 넘어서서 서사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텍스트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주인공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고, 서술자나 서술시각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텍스트의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사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할 때에는 주인공을 넘어서서 다양한 등장인물들 주목해야 하고 서술자나 서술시각의 제한을 넘어서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사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논의하였다. 첫째, 서사의 주체는 등장인물의 수만큼 설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 속에 잠복되어 있는 여러 개의 서사를 분석해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독자가 동일시하고 있는 서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석함으로써 독자 수용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서사의 주체가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¹⁴⁾

위 인용문에서는 서사의 주체가 텍스트의 등장인물들을 칭하는 다른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런데 굳이 등장인물이라는 용어대신 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문학치료학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의도는 텍스트에서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롭게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주체라는 용어가 서사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는 일은 텍스트를 넘어서 서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짐작 가능하다. 따라서 문학치료학에서는 등장인물의 수만큼 서사의 주체는 설정될 수 있고 또 그 수만큼 텍스트 내부에는 잠복되어 있는 서사들이 있어서 서사 주체를 중심으로 잠복된 서사를 새롭게 떠오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처럼 서술자가 배제했던 작품 속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입장을 모두 구성해 봄으로써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서사의 종류도 많아져 자기서사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서사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서사의 분기점에 관해 탐색해 보아야 한다. 분기점이란 말 그대로 갈림길을 말한다. 문학치료학에서는 모든 서사 내에는 몇 개의 분기점들이 있고 그 분기점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선택의 갈림길이 열려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들이 만나는 서사들에서는 다른 선택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서술자가 서술시각이나 여러 서술 기법들을 동원하여 매우 철저하게 다른 선택들을 배제시키면서 아주 특별한 선택만을 한 결과 지금과 같은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서사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갈림길들에 대해서 ‘서사의 다기성(多岐性)’이라고 부르고 있다.

14)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제」, 『영화와문학치료제3집』,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0. 02, 315~335쪽.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다기성이 자기서사의 변화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데, 그 까닭은 다른 선택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길만 있다고 보게 되면 특별한 하나의 선택만 고집하게 되고 특정한 서사에 고착될 수밖에 없게 되지만 다른 서사와 견주어 비교하게 되면서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사의 이동도 가능해 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기서사의 변화는 서사의 분기점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갈림길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런 변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건강한 서사란 융통성이 많고 이런 서사에 의거하여 살게 되면 전망이 밝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¹⁵⁾

이제 이런 자기서사의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서사와의 거리 확보, 서사의 주체에 따라 새로운 서사 구성, 서사의 다기성을 활용하여 다른 서사에 접속하는 문학치료학의 방법이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새로움을 열어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보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 그 내용부터 간략히 인용해 보겠다.

문학치료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건강한 자기서사를 확립하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누락된 자기서사를 보충하고, 미약한 자기서사를 강화하며,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자기서사를 통합하는 문학치료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의 자기서사도 그러하거나 집단적 자기서사도 그러하다. 문학치료학이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근간이 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통일인문학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남과 북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분단서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물론 그러한 서사가 어디로부터 유래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깊이 있게 천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짐작컨대 남과 북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남과 북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통일서사가 무엇인지 찾는 일이다. 그러한 서사는 현재 남과 북을 움직이고 있는 서사 가운데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고, 파편화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전에 잊혀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고 통일인문학의 관심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현재 남과 북을 움직이고 있는 서사가 무엇이며, 그 서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와 모순을 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다. 어쩌면 통일인문학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일 것이다. 남과 북이 과중하게 떠안아야 할 문제와 모순이 현재 남과 북을 움직이고 있는 서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자각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서사들이 통일 서사로 대체되면 그 문제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설득해 낼 수 있을 때 통일인문학은 그 존재 이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위 논문에서는 우선 자기서사가 개인의 자기서사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집단에게도 자기서사는 존재하고, 역사-사회적인 집단마다 각각의 자기서사가 있다고 했다. 그런 뒤 개인의 자기서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미약하거나 분열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갈 문학적 실마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집단의 자기서사도 강화, 보충, 통합의 단계를 거쳐야 건강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문학치료학이 기여할 바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서사를 바꿀 수 있는 서사를 발굴하고 그것을 강화, 보충, 통합해 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트라우마를 강화하는 서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터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서사의 길이라고 오해하거나, 다른 선택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익숙한 길에 고착하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서사의 다기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모든 서사에는 수많은 갈림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의 길만이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것이라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칫 매우 배타적인 것임을 자각하게 될 때, 그래서 다른 서사의 길들 또는

15)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입각한 창작이론」, 『문학치료연구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

16) 건국대학교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 인문학』, 통일인문학연구총서 001, 선인, 2009, 87~88쪽.

트라우마와는 다른 서사들은 오랫동안 기억에서 잊혀졌거나, 감추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작품서사를 찾아내어 구축해 갈 때 비로소 집단의 자기서사는 변화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구축한 다른 선택의 서사들이 진정으로 그 집단의 자기서사로 자리 잡게 되어야 역사적 트라우마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치료학에서는 건강한 서사란 ‘흥관군원(興觀群怨)’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본다. ‘흥(興)은 서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문학치료학의 초기에는 흥은 단순히 억압된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이제 흥은 서사가 떠오른다는 것으로 특히 작품서사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말을 바꾸면 그것은 인간 삶의 문제가 시작되고 해결되는 지점까지를 갖춘 하나의 세상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觀)은 작가의 자기서사, 독자의 자기서사, 세상 사람들의 자기서사를 통찰하여 이해한다는 것을 말한다. 군(群)은 동일한 서사, 접속이 가능한 서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으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소통 가능한 자기서사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원(怨)은 애초에는 뒤뜰된 관계 바로잡는 정도로만 새겼지만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의 세상을 추구하는 서사의 폐단을 다른 지향의 서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억울해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이처럼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모습의 세계를 떠오르게 하여 독자가 비교하면서 체험하게 되고 어떤 서사가 어떤 서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서사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독자들의 심층에 그 서사와 비슷한 또는 그 서사를 허용할 수 있는 자기서사가 자리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동일한 자기서사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서로 공유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고 싶어 하면서 결국에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움직여 가는 서사가 지닌 폐단을 탓하고 그것과는 지향을 달리하는 서사로 이동하는 통로를 열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층의 자기서사에 내면화된 서사는 결의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트라우마의 극복을 실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17)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입각한 창작이론」, 『문학치료연구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학치료연구 현황」에 관한 토론문

이민용*

본 발표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학치료연구 현황」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학치료학의 연구 동향을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핵심을 잘 짚어 정리하였으며, 문학치료학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해보겠다는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에도 잘 부응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문학치료 연구가 단순히 허구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나, 문학을 치료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세상은 내 버려둔 채 개인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다스리고자 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원초적 사건과 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가 연대기(年代記)(annals)나 편년사(編年史, chronicle)와 역사(history narrative)를 구별하는 점을 강조하고 history narrative로서의 역사에 문학서사를 연관시키고 그 치유적 가능성을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한 사실을 찾거나 사실과 사실들의 관계를 따지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그런 사실이 있게 한 시작에서부터 과정을 거쳐 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서사가 구성 되어야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며 서사의 구성이야말로 문학치료학의 자기 서사, 작품서사의 개념을 통해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본 발표의 핵심으로 귀기울여 들을 만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 문학치료 용어가 등장한 1999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문학치료학계에서 참으로 많은 이론과 방법론을 다지고 활동을 많이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몇 개를 토론 거리로 적어봅니다.

1. 역사적 트라우마 치료에서 의욕을 앞세운 과도한 문학치료 중심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문학치료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잘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그 구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역사적 사건이 트라우마가(외상)되는 것은 사건 자체에 내재된 비극성에 있다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트라우마화 하는 서사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5쪽),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는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4쪽),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은 우리의 삶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사적으로 구조화되어 개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4쪽) - 그 뒤에 인용한 H. 화이트의 글에서도 그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것들의 서사화가 중요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이에 관한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서사학에서는 내러티브(narrative: 서사, 이야기)에는 스토리와 플롯, 스토리와 담화/담론의 핵심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서로 구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스토리와 구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서사, 작품서사라는 용어가 이런 구분을 염두에 두고 쓰인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문학치료학에서 다루고 있는 서사의 개념이 지닌 특징 5개를 언급하는 다음 장면에서는 서사가 아니라 스토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 “①첫째 현상의 심층에 존재하는 것이며 ②둘째 인간관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③ 셋째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시작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이 있어야 한다. ④넷째 특정 장르나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그 넘어 존재한다. ⑤다섯째 텍스트에 구속되지 않고 텍스트를 이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스토리가 추상적인 줄거리라면 서사는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인칭, 시각, 관점, 어투/문체,

*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 HK교수

시간, 공간을 통해 디스크스 된 구체적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화이트가 말한 사실(事實) 이전에 존재하는 역사가의 머릿속 이야기란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자기서사나 작품서사와 유사하다.”라는 발표자의 표현에 있는 “머릿속 이야기”나 이와 유사하다고 하는 자기서사나 작품서사의 ‘서사’ 모두 내러티브(서사)와 구별되는 스토리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어떨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문학치료를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례>

1. 서론
2. 경험담 연구로부터 찾는 치료 과정의 단서
3. 경험담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분석과 그를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 전망
4. 결론

1. 서론

지금까지 경험담에 관한 연구는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규명과¹⁾ 경험담 구연 현장의 발화를 통한 내면 탐색,²⁾ 경험담 구연을 통한 치유의 전망³⁾ 등의 맥락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에 따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나 역사적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린 이야기 문학으로의 경험담,⁴⁾ 전통 이야기 문화와 관련되면서도 첨단 이야기문화를 선도하는 경험담,⁵⁾ 다양한 이야기 형태 속에 다사다난한 구체적 경험이 담긴 작품⁶⁾ 등으로 분석된 바 있다. 최근에는 경험담의 구연 과정 자체가 치유적인 힘을⁷⁾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경험담은 개개인의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특히 이야기치료의 주요한 치료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야기치료에서는 경험담 자체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라 부정적 성향을 지닌 문제적 이야기가 긍정적 성향을 지닌 대안적 이야기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달리 문학치료학에서 경험담은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 그에 따라 경험담의 이해는 작품의 기반이 되는 작품서사를 탐색하는 작업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1)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 2)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77면.
- 3) 김종균,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01.
- 4) 신동훈,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149~180면.
- 5) 신동훈,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149~180면 ; 신동훈, 「현대 구비문학과 전파매체」,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143~175면.
- 6)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한정훈,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2011.3 ; 김종균,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211~232면 ;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233~256면 ; 신동훈, 「역사 경험담의 존재 양상과 문학적 특성-6.25 체험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23호, 국문학회, 2011, 7~61면 ;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호, 2012, 277~312면.
- 7) 구술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대상자의 생애 경험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연들로 점철된다는 점을 살피고, 그로부터 구술자들의 트라우마의 실체와 그를 위한 치유방안을 모색한 경우로는 다음 논문을 들 수 있다. 김종균,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01.

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험담으로부터 작품서사를 탐색하면 그 경험담이 어떤 서사에 기반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경험담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특별히 치료 영역과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논문을 자료로 삼아 경험담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분석과 그를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에 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⁸⁾ 활발하게 채록되고 있는 경험담 자료가 아닌 경험담에 관한 연구논문을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모험이다. 하지만 방대한 경험담 자료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우선 경험담에 관한 연구물 중에서 치료영역과 관련되어 보이는 논지를 살피고, 그 다음으로 문학치료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그 다음에는 경험담의 문학치료학적 분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 잠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의 방안은 이론적 전망이므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험담에 관한 연구 성과가 문학치료학과 조우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험담 연구로부터 찾는 치료 과정의 단서

경험담 연구의 흐름을 이야기치료 및 문학치료학적인 입장에서 살피기 앞서 경험담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인 ‘자기 서사(self-narration)⁹⁾와 문학치료학의 중요한 개념인 ‘자기서사(the epic of self)’의 개념 차이를 정리해본다. 경험담 연구에서 말하는 ‘자기 서사’는 자전적 이야기 또는 자기 이야기를 화자가 직접 행위자로서 그리고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생 이야기 또는 인생 이야기의 부분들을 가리킨다.¹⁰⁾ 그래서 경험담 연구에서의 ‘자기 서사’는 화자가 직접 체험한 것의 사실적 발현에 초점을 맞춘다.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자기서사’는 인간의 내면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가리킨다. 그 이야기는 경험했거나 하지 않았어도 존재하는 것이다.¹¹⁾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추동하는 것이다. 문학치료학에서 인생살이-자기서사, 작품-작품서사로 구도를 잡고, 인간이 곧바로 작품과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서사적 속성을 갖춘 자기서사-작품서사로 조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 문학작품이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저변은 확장된다.¹²⁾

8) 이를테면, 경험담 구연 현장에서 발화된 자료는 연구자가 분석을 통하여 서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로 탈바꿈하고,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연구논문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면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글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선행 연구물 읽기는 논문을 썬만 하고, 썬았던 연구자라면 그간 반복적으로 해온 연구사 정리 작업에 불과해보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엽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진 연구동향에 관한 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경험담 연구물의 치료적 위상에 대한 탐색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연구흐름이 본격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이면에 내재한 치료적인 맥락을 짚어보고, 그를 실마리로 삼아 문학치료학으로의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좀 과장되어 보일지 모르나 경험담 연구가 문학치료학과 관련가능성이 있음을 찬찬히 풀어갈 수만 있다면 이 글은 학문간 접촉에 관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다.

9)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77면.

10)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77면.

11) 그간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에 관하여 심층에 잠겨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있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서사’라고 살펴야한다는 전제에 따른 부담과 관련될 것이다. 그렇지만 의의로 ‘자기서사’는 단순하기도 하다. 이를테면, 동일한 현상을 접하여도 각기 달리 해석하고 다르게 수용하게 되는 것은 ‘자기서사’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말할 수도 있다.

12) 자기서사-작품서사의 조우는 영화 <매트릭스>와의 연결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볼 수도 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네오와 스미스의 대결은 네오에게는 매우 힘겹게 전개된다. 처음엔 스미스가 확실히 강하다. 하

이와 같은 자기서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운채는 자기서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이고, 마련되어 있어도 미약할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않고, 현실의 여러 측면을 바라보는 서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¹³⁾ 그리고 ‘자기서사’라는 개념은 개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¹⁴⁾

경험담 연구에서의 ‘자기 서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는 표지를 강조하는 듯하다. 그래서 ‘자기 서사’는 경험담이란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경험담의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표지를 담당하는 ‘자기 서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의 보고를 통하여 치료효과까지도 기대하는 이야기치료와 가깝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이야기치료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개념은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삶의 이력을 가리킨다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이제 다음에서는 경험담에 관한 연구물 중에서도 특히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와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를 중심으로 논의해본다. 이와 같이 여성생애담을 논제로 삼고 있는 논문들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험담에 속하면서 연속적이고 반복 구연되는 특징을 지닌 것이 생애담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서사(self-narration)’나 이야기치료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자료도 그간 생애담으로 분류된 자료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담에 대한 연구로 지칭하지 않고 경험담에 관한 연구로 지칭하는 것은¹⁶⁾ 시집살이담이나 여성생애담의 주요내용이 생애의 연대기가 아니라 힘들었던 특정 기간에 관한 토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생애를 다룬다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경험담의 범주로 불리는 것이 무리하지 않은 듯하다.¹⁷⁾

청자가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서사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자가 객관적 관찰자로서 행동적 코드에 따라 일반적인 질문을 했던 박란엽 화자의 텍스트는 자기 은폐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박란엽

-
- 지만 네오가 스미스도 기호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임을 깨닫는 순간 스미스를 이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승세는 프로그램(네오의 실제 몸은 모피어스의 함선에 있고,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어 매트릭스에 잠입한다)과 인간(스미스)의 대결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대결임을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 13)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초기에 ‘자기서사’ 개념을 정립한 논문 한 편을 소개해본다.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8, 159~176면.
- 14)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 『겨레어문학』 제39집, 겨레어문학회, 2007.12.30, 87~105면.
- 15) “이야기의 전개 :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일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반짝이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문제로 가득한 상황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이야기란 삶(living)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경험하는 삶이다. 의미, 희망, 두려움, 이해, 자극, 계획, 좋은 감정 등을 삶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삶이야기는 곧 우리의 인생이다.”(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143면)
- 16) 경험의 구체적 내용이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니와 그 내용을 분류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되기 쉽다. 개개인의 구체적 경험이란 본질적으로 특수하고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험담을 내용에 따라 세분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신동훈,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62면 /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157~182면.)
- 17) 이와 관련하여 다음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현대의 구술문화에서 여성화자들에게 가장 일반화된 텍스트가 시집살이 이야기이다. 이들 이야기는 경험의 단편을 일회적으로 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극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억되는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갈무리하여 레퍼토리화 해둔 것으로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구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집살이 이야기가 비록 사실에 입각하고 있지만 구술문화의 주요 텍스트로 지위를 확보하는 지점이라 하겠다.”(김종균, 「가족사 서사로서 시집살이담의 성격과 의미」,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268~269면.)

화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청자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를 대답하기 보다는 대답을 은폐하거나 왜곡 또는 지연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청자가 주관적 논평자로서 해석학적 코드에 따라 행위의 동기를 찾아낸 강복금 화자의 텍스트는 자기 합리화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강복금 화자는 청자의 논평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청자의 논평을 수용할만한 논거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심리적 동기를 탐색한다. 주목할 것은 두 경우 모두에서 화자가 청자의 질문이나 논평에 단순히 반응하여 자기 서사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서사를 자기 은폐의 유형으로 혹은 자기 합리화의 유형으로 구성하는 것은 청자의 논평과 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다. 한편 이처럼 역동적 상호작용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 하나의 동기 유발사건이 구성/발견된다. 화자의 자기 서사는 생애의 어느 한 기간에 고착되기 일쑤이며, 핵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공백의 의미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어떠한 행위 혹은 사건을 둘러싼 청자의 논평과 화자의 부인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텍스트에 가장 빈번하게 지속 또는 반복되는 자기 서사의 이러한 동기유발사건에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 받는다. 또한 화자는 이러한 과거 사건의 새로운 의미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재규정한다.¹⁸⁾

위 글은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위에서 밑줄 그은 부분들은 특히 이야기치료의 과정에 따라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다. 먼저 ‘청자가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서사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은 이야기치료과정의 치료자가 내담자와의 작업 시 초점을 맞추는 경청¹⁹⁾ 단계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치료자(경험담 구연현장에서의 청자)의 개입 여부와 어떤 질문을 구사하는지에 따라 내담자(경험담의 구연현장에서의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풍부하고 진지하게 발화하는지의 차이가 드러남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자의 자기 서사는 생애의 어느 한 기간에 고착되기 일쑤이며, 핵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공백의 의미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어떠한 행위 혹은 사건을 둘러싼 청자의 논평과 화자의 부인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은 이야기치료과정의 치료자가 내담자와의 작업 시 초점을 맞추는 해체 단계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야기치료과정에서 해체는 탈구성을 의미하는 데, 탈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내담자가 발화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다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²⁰⁾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과거 사건의 새로운 의미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재규정한다’는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은 이야기치료과정에서 내담자가 대안적 이야기를²¹⁾ 찾은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야기치료과정에서 대안적 이야기는 개개인이 풀어내는 문제로 가득한 이야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발휘한다.²²⁾ 정리하자면, 위의 논지에 나타난 경험담 구연의 과정은 질문의 형식을 통한 이야기치료의 과정과 비견

18)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96면.

19) “호기심의 자세에서 나오는 경청, 질문의 촉진이나 명료화는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때때로 단지 이 같은 치료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 대해 앤더슨과 굴리시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말하지 않은 것을 확대하거나 말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발달, 대화를 통해 새로운 주제와 이야기, 새로운 역사 창조에 대해 말한다”(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97면.)

20)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요약하기 위해 잠시 멈추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의미가 그들이 의도했던 의미와 일치하는 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의 질문과 조연을 고려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험하지 않을 수 없다.”(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100면.)

21) 대안적 이야기는 기억에 남아 있는 좋은 기억의 되살리기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상세하며 의미 있는 대안적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제시카와 나(질 프리드먼)는 제시카가 그녀의 인생에서 폭행의 영향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구획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었지만 매우 훌륭하고 풍부하게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다.”(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168면.)

22)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대화 후에 리자, 잔과 마거릿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면담을 시작하였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이와 같이 경험담의 연구의 논지를 이야기치료의 치료과정과 견주어 본 것은 경험담이 치료과정의 산물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험담 연구의 이야기치료와 관련성을 시작으로 문학치료학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경험담 연구와 이야기치료와의 관련성은 문학치료학적 분석과 연결하기 위한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3. 경험담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분석과 그를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 전망

시집살이담, 전쟁체험담, 탈북체험담 등 개인의 고통의 역사를 토로하는 경험담 등은 고통스러운 역사에 관한 보고로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담도 발화를 위하여 장기간의 기억을 되살리고 한 편의 이야기로 전승될 수 있는 서사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런 점에서 경험담은 개인의 역사에 따라 구성된 픽션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기억은 세대 간의 경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기억의 차이에 따른 경험담은 당연히 내용상의 차이도 있다. 세대 간의 기억과 그에 따른 내용 전수의 차이에 대한 것은 다음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억이란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경험, 이미지, 환상 등을 재형성한 것이다. 기존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기억도 사회적이다(Halbwachs, 1980).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 태도, 시공간 관념 등에 따라 특정과거가 선택, 왜곡, 망각되기 때문이다. 세대를 만하임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세대에 따라 기억이 달라질 것이다. 세대라는 집단이 공유한 특정한 사회 역사적 맥락, 지식경로의 유사성, 공통의 문화적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의 공통목표가 개인의 기억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onway, 1997). 세대 간 기억 전수는 특정 과거가 세대 간에 어떻게 전달되고, 유지되고, 망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²⁵⁾

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자문해 보았다. “지난번 우리가 만났을 때 두려움이 코치했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습관이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대안적 대화를 시작하면 자신이나 관계 혹은 현재 싸우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그 사람의 지각이 바뀌므로써 아주 빨리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서술하였던 치료 면담 사이에 그녀는 두려움이 습관을 코치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몇 가지 습관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감을 잡았다. 그녀는 대안적 의미와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대안적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러한 대안적 이야기의 삶을 살게 되자, 더 이상 리자를 두려움이 많고 불안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리자를 문제로 보지도 않았다.”(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택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309면.)

23) “우리는 각자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지배적 담론의 영향을 받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살아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배적인 이야기의 영향에 얽매어 빈약한 이야기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며, 그 이야기를 해체하고 새롭고 풍부한 이야기를 쓰도록 돕는 작업이 이야기치료의 핵심인 것이다.”(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택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4면.)

24)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논의이다. “화이트는 사실과 허구라는 잣대로 역사와 픽션을 이항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서사의 형식을 취하는 한 역사는 불가피하게 픽션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서사형식에 대한 화이트의 분석은 이야기와 플롯구조에서 서사와 픽션의 형식이 그대로 일치함을 잘 보여준다. 픽션의 형식을 빌지 않고 역사를 서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물론 화이트는 역사가가 다루고자하는 역사적 사건은 실재하는(real)것으로서 픽션의 가상적인(imaginary)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역사와 픽션을 구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미 살쾜듯이 역사서술의 대상은 역사가의 비유적 언어를 통해 비로소 지각 가능한 것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기(construct)’ 때문이다.”(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人文論叢』 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35~75면.)

25) 권기숙, 「세대간 기억 전수 : 4·3의 기억을 중심으로」, 『韓國社會學』 38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04, 54면.

위 글을 통하여 세대 간 기억이 달라질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시대의 차이와 억압의 차이에 따라 세대 간에 기억하는 이야기의 추이가 달라질 것도 예상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외현적인 현상이며, 근원적인 흐름은 어찌면 일치되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생각은 다음 논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여성생애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온 김정경은 1920년~1930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당시에 시집살이를 경험한 여성들의 생애담을 통하여 이야기 속 화자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바 있다.²⁶⁾ 그 과정에서 김정경은 그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들의 경험담에는 가족들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된 서사가 담겨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험담에 관한 논지는 역사의 굴곡 속에서 살아간 여인들의 공통의 트라우마를 짚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생애담은 시대의 이픔을 감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친정에서 굶게 컸던 소녀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고통의 상황으로 발을 내딛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기억은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고령의 할머니들의 구술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어찌면 현실의 삶이 고달플 때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고 반추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덜어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로부터 억압된 시대의 고통이 침투되어 사람들의 삶에 상흔처럼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²⁷⁾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적 상황은 비단 유사한 고통의 이야기의 반복 출현뿐 아니라 좋은 내용이 희소화 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억압을 당한 세대의 기억의 특성 중에서 미담사례가 현저히 적은 현상에 대한 보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망각되고 있는 사적 기억 중 다른 하나는 미담이다. 억압세대가 미담으로 들은 사례 중 다른 생명까지 고려한 경우는 불과 7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 주민의 총살을 면하게 한 이장”등이 그것이다. 물론 실제 사례가 적을 수도 있지만, 사건 중에 겪었던 억울한 죽음 등에 관한 기억 이주로 반추될 때, 미담 등은 상대적으로 망각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²⁸⁾

고통스러운 경험이 좋은 이야기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역사적 트라우마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각종 현상들이 우리 내면에 잠재한 서사에 상흔을 남기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사태를 직면하거나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뒤따른다. 또한 위의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하여 트라우마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치료할 때에 앞서 논의한 이야기치료나 문학치료학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적합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신불리 말하기는 어

26) “이 시기에 태어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없으며 생활공간 역시 대개 가정 또는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공적인 발화의 장이란 따로 존재할 수 없었고 자연히 그들의 삶과 경험은 문학과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읽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로는 구술 생애사 즉 생애담이 유일하다.”

27)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분석 대상은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공통으로 겪은 집단의 무의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의 트라우마’하면 ‘6.25 전쟁’이나 ‘빨치산 투쟁’등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만을 떠올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6.25 전쟁의 트라우마’를 다룰 때 참전용사들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하여 전쟁의 트라우마에 주목하며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고문후유증과 같은 경우들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체험한 트라우마는 ‘빅 트라우마’로 이미 자아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는 집단적 트라우마화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프로이트’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을 공유하는 집단의 욕망이 좌절-억압되면서 가지게 된 트라우마이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것은 한민족 전체이며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체험이다”(박영균,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방법론」,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인, 2012, 36~37면)

28) 권기숙, 「세대간 기억 전수 : 4·3의 기억을 중심으로」, 『韓國社會學』 38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04, 68면.

려우나 만약 좋은 이야기의 기억이 미미한 상태라면, 이야기치료보다는 문학치료적 접근이 더 용이할 듯하다. 이는 치료적 과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한 언급이다.

이야기치료는 자기 이야기의 구성-해체-재구성을 통하여 대안적 이야기로²⁹⁾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안적 이야기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삶의 빚나갔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은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지만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끌어 올리는 데에는 좋지만, 정말 좋은 시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힘겨운 주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문학치료학에서는 자기서사에 없는 서사의 보충과 자기서사에 있지만 미미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서사의 강화, 서로 다른 자기서사의 충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사의 통합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자기서사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아름다운 기억이나 좋은 기억 자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충을 치료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또 한편으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주요한 과제는 과거사 청산이다. 이와 관련되어 다음 논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몽주의 암살과 복권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새롭게 밝히기 위하여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몽주의 암살과 복권 사이의 관련 문제가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의하여 실마리가 풀릴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남북 분단 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³¹⁾

위 논문에서 희망하고 있는 정몽주의 복권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은 역사적 현상을 현재의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사들의 작동에 따라 그와 같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는지 이해해보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정몽주의 복권에 관한 위의 논지는 과거사 청산을 기반으로 하여³²⁾ 역사의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 방향과도 함께 볼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엄찬호는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득권에 의하여 자행된 여러 가지 압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트라우마에 관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임을 강조한 바 있다.³³⁾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정몽주의 복권이 필요했던 이유는 정몽주의 암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된다.

특히 위 논문에서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이미 일어난 과오와 관련되는 서사는 무엇이며, 그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서사는 무엇인가를 고민한 것은, 문제적 상황으로 들어가 해결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극복은 이미 진행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 속의 고통이 새로운 시도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29) 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309면.

30) 물론 이 때에 무턱대고 좋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주입하는 것은 무리수를 부른다. 개개인의 취향이 동일하지 않듯이 자기서사의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좋은 작품의 소개나 주입에 대한 역효과는 작품수용의 거부나 이해의 왜곡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31) 정운채, 「정몽주의 암살과 복권에 대한 서사적 이해-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하여-」, 『통일인문학논총』 53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373~374면.

32) 정몽주처럼 역적으로 몰렸다가 훗날 충신으로 복권이 되는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당대에 곧장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몽주의 암살과 복권에 대한 상황은 과거사 청산의 신속한 처리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김종서만 하더라도, 그의 충정이 정몽주와 다를 바 없다는 논의는 연산군 때에나 이르러 나타난다.(연산 30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3일(정미) 1번째 기사 : 사초 사건에 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참고)

33) “지금까지 추진된 과거사청산의 성과와 한계점을 되짚어 보고, 일제 강점하 행해진 궤박, 한국전쟁과 그 전후의 이념대립 과정에서 행해진 수많은 집단학살, 독재정권이 자행한 국가 폭력과 수많은 인명살상,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 곧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인문과학연구』 33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6, 266면.)

것인가, 그에 따라 경험자의 내면에 있는 서사를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얼굴이 우뚝지 몰랐어요’ ‘암것도 몰랐어’ ‘아버지가 결혼하러니까 그냥 했어요’ 집안이 넉넉했던 가난했던 민머느리든 데릴사위든 어떤 경위로 결혼을 했든지 모든 할머니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나는 아무 것도 몰랐다 한마디로 할머니들은 이 커다란 변화에 결혼이라는 사건에 시집이라는 낯선 장소에 내던져진 것이다 나카라 이제부터는 거기가 너희집이다 라는 선언 아무 준비도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이러한 명령에 이들은 한없이 어리둥절할 뿐이다.³⁴⁾

위의 글은 김정경의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논문에는 1920년대~1930년대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당시에 시집살이를 사셨던 할머니들의 경험담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할머니들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이처럼 시집살이 이전의 최초의 상황은 친정에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할머니들은 이 최초의 상황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낯선 공간으로 던져진다...친정에서 나와 시집으로 들어간 이들은 누군가의 아내 자격으로 새로운 환경에 머물게 되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짐작과는 달리 시어머니와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관계를 맺는”³⁵⁾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시집간다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평안했던 친정으로부터 낯선 공간으로 떨어지고 남편과의 관계보다 시어머니와의 힘든 관계가 이어지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김정경은 이러한 고단한 삶을 감내했던 할머니들은 실질적으로는 수동적인 희생자에 불과하지만, 그들 자신이 비극적 현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희생적 역할에 대한 적극적 가치부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지탱하는 것인 양 가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³⁶⁾

위의 글을 통하여 할머니들의 경험담과 연결 지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설화를 떠올려 볼 수 있다. 할머니들의 삶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영문도 모른 채 나무꾼과의 결혼생활이 시작되고, 나무꾼과의 삶에 대한 고단함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자신을 따라 올라온 나무꾼과의 결혼생활도 잠시, 다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상에 내려갔던 나무꾼이 결국 어머니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 헤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와 연결될 듯하다. 물론 할머니들의 경험담의 원문 자료와 <나무꾼과 선녀>와의 내용을 꼼꼼하게 대조하고 그 유사성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 글에서는 친정에서 살 때는 유복했지만 시집을 가면서 못남 남편으로 인하여 불행해졌다는 문제의식의 유사성과 할머니(아내)-남편-시어머니, 선녀(아내)-나무꾼-나무꾼의 어머니(혹은 친척 아주머니) 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유사성에 기대어 <나무꾼과 선녀>이야기를 할머니들의 경험담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서사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실의 할머니들은 선녀처럼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가정을 지키면서 희생적인 삶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삶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전달하는 풍요롭고 안락했던 친정에 대한 회상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선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³⁷⁾

34)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95면.

35)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95면.

36)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113면.

37)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의 화자인 여섯 분의 할머니들은 모두 결혼 전의 삶을 짝막하게 요약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결혼 후 삶의 이야기를 펼친다 할머니들의 친정 이야기는 결혼 후 삶의 고단함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짝막하게 제시될 뿐이다 특히 친정에서는 자신들이 귀한 딸이었다는 말은 하나의 전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다”(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93면.)

또한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에서 자기 은폐의 서사를 담지하고 있었던 박란엽 화자의 삶도 <나무꾼과 선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읽어 볼 수 있다. 박란엽 화자는 노름과 주색에 빠진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가 친정식구와 함께 월남하였고 뒤따라 내려온 남편과 해후하였지만 남편은 사라지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친정으로 갔다. 이처럼 친정에서의 삶과 남편과의 만남과 이별의 교차가 박란엽 화자의 삶에 점철되어 있다.³⁸⁾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과 만나고 헤어짐의 반복은 마치 선녀가 나무꾼을 만나고 헤어지고, 천상으로 자리를 옮겨 만남이 이어져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 또 한편으로 박란엽 화자가 그의 생애 가운데 결혼 후 오년간에 집중된 이야기인 아이 둘을 데리고 피난 다니던 때의 상황에 머물러 있던 것도 <나무꾼과 선녀>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천상으로 옮겨가는 선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³⁹⁾

이와 같이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할머니들의 경험담과 관련짓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할머니들의 다채로운 경험담의 공통맥락의 서사를 밝히고, 그 서사와 구체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설화와의 대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문학치료학적인 트라우마 극복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경험담은 일상 특히 개개인의 고통의 역사,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제적 상황과 가장 밀착되어 있고, 과거를 현재의 시점으로 펴 올리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경험담을 연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주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치료학적인 분석은 가장 생생한 현실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경험담의 작품서사를 밝히고 그를 기점으로 다른 서사로의 옮겨짐과 확장을 가능케 하면서 의미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삶은 각각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된다. 그렇지만 각기 달라 보이는 경험담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작품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면, 그를 통하여 새로운 작품의 제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경험한 문제의 지점에 고착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 나설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⁴⁰⁾

4. 결론

38)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99~202면.

39)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185면.

40) 이런 전망은 생경한 것도 아니다. 이미 경험담을 유사한 내용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경우에 경험 속에 점철된 좌절의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 전망한 바도 있다. 이를테면, 서술방식과 서술의식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을 시집살이 노래나 시집살이 전승담 등과 비교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고난의 삶의 수용과 극복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다룬 바 있다.(서영숙,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 노래의 비교」, 『시집살이 이야기연구』, 2012, 92면.)

참고문헌

- 권기숙, 「세대간 기억 전수 : 4·3의 기억을 중심으로」, 『韓國社會學』 38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04.
- 김성민, 「인문학자는 왜 통일을 사유해야 하는가?」, 『인문학자의 통일사유』, 건국대학교인문학연구원통일인문학연구단, 선인, 2010
-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자기생애 의미화 방식 연구 -자리매김과 자기반성적 연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김종균,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5.
- 김종균,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치유방안-『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 박영균,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방법론」,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선인, 2012.
- 서영숙,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 노래의 비교」, 『시집살이 이야기연구』, 2012.
- 신동훈,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 신동훈, 「현대 구비문학과 전파매체」,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 신동훈, 「구전 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비교문학』, 비교민속학회, 2002.
-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 경기도 양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 신동훈, 「구술 여행담의 문학적 성격과 교육적 의의-임철호 화자의 <금강산 여행담>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신동훈, 「여성 생애담의 성격과 조사연구의 방향」, 『인문과학논총』,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 신동훈,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 신동훈, 「시집살이담의 담화적 특성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11.
- 신동훈, 「역사 경험담의 존재 양상과 문학적 특성-6.25 체험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23호, 국문학회, 2011.
-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호, 2012.
-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人文論叢』 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 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인문과학연구』 33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6
-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정운채, 「정몽주의 암살과 복원에 대한 서사적 이해-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하여-」, 『통일인문학논총』 53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 한정훈,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2011.3.
- Michael White 저, 이선휘 · 정슬기 · 허남순 공역, 『이야기치료의 지도』, 학지사, 2010.
- Jill Freedman · Gene Combs 공저,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공역, 『이야기치료-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학지사, 2009.

<경험담의 문학치료학적 분석과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이론적 전망>에 대한 토론문

김정경*

논문 <경험담의 문학치료학적 분석과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이론적 전망>은 경험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문학치료학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험담에 대한 연구가 문학치료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본 논의의 전제에 동의하며, 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야기 치료와 문학치료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목표

“경험담은 개개인의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특히 이야기치료의 주요한 치료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야기치료에서는 경험담 자체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라 부정적 성향을 지닌 문제적 이야기가 긍정적 성향을 지닌 대안적 이야기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달리 문학치료학에서 경험담은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 그에 따라 경험담의 이해는 작품의 기반이 되는 작품서사를 탐색하는 작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험담으로부터 작품서사를 탐색하면 그 경험담이 어떤 서사에 기반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이야기치료는 부정적 성향을 지닌 문제적 이야기가 “대안적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문학치료학은 경험담이라는 작품이 “어떤 서사에 기반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야기치료는 경험담을 불완전한 것으로, 문학치료학은 경험담을 완전한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문학치료학에서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경험담이 어떠한 서사에 기반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곧 연구의 목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야기치료의 “대안적 이야기”와 문학치료학에서 탐색하는 “작품(경험담)의 기반이 되는 작품서사”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대안적 이야기”로의 재구성 단계에서 화자 혹은 청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 또는 듣고 있는 이야기와 유사한 “작품서사”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대안적 이야기”와 “작품서사” 각각의 개념 및 이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자기 서사self-narration’와 ‘자기서사the epic of self’

경험담 연구에서의 ‘자기 서사’는 화자가 직접 체험한 것의 사실적 발현에 초점을 맞춘다.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자기서사’는 인간의 내면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가리킨다. 그 이야기는 경험했거나 하지 않았어도 존재하는 것이다.(2장)

이러한 경험담도 발화를 위하여 장기간의 기억을 되살리고 한 편의 이야기로 전승될 수 있는 서사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런 점에서 경험담은 개인의 역사에 따라 구성된 픽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억은 세대 간의 경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기억의 차이에 따른 경험담은 당연히 내용상의 차이도 있다.(3장)

*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2장의 인용을 보면 경험담 연구의 ‘자기 서사’는 사실성 또는 역사성을,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는 허구성 또는 서사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장의 인용문을 보면 ‘자기 서사’ 역시 본질적으로 허구적일 수밖에 없음을 선생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 듯합니다. 기억은 이미 어느 정도의 허구화 또는 서사화를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서사’와 ‘자기서사’의 관계가 다소 모호해지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대안적 이야기/작품 서사, 자기 서사/자기서사를 개인적인 것/집단적인 것, 사실적인 것/허구적인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분이 적절한 것이지요.

3. 이야기치료와 문학치료학

또한 위의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하여 트라우마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치료할 때에 앞서 논의한 이야기치료나 문학치료학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적합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선불리 말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좋은 이야기의 기억이 미미한 상태라면, 이야기치료보다는 문학치료적 접근이 더 용이할 듯하다. 이는 치료적 과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한 언급이다.

이야기치료와 문학치료학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동일한 자료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치료가 행해진 다음에 문학치료학이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이야기치료와 문학치료학은 대등한 관계인가요 순차적인 (이야기치료의 다음 단계로서의 문학치료학) 관계인가요.

4. 트라우마 극복의 구체적인 방안

이와 같이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할머니들의 경험담과 관련짓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할머니들의 다채로운 경험담의 공통맥락의 서사를 밝히고, 그 서사와 구체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설화와와의 대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문학치료학적인 트라우마 극복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할머니들의 경험담과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대비시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나무꾼과 선녀>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할머니들의 소망이 형상화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무꾼과 선녀>를 통해 이 설화를 향유한 여성들의 소망 또는 억압된 욕망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4장에서 “문학치료학적인 트라우마 극복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극복의 방안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경험담에 대한 연구가 문학치료학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례>

1. 서론
2. <마십굴> 전설 개관
3. <마십굴> 전설의 서사에 투영된 분단서사의 일면과 그 극복
4.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작용하는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5. 결론

1. 서론

1988년 해금조치 이후, 북한 문학과 관련한 출판물들이 간간히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것은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후 북한의 설화와 설화관에 대한 소개나 연구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바 있다.¹⁾ 그러나 북한의 설화에 대한 남한의 연구들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것임을 표방하면서도, 그 체제옹호적인 특수성에 주목하여 남한과 얼마만큼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다. 물론 설화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성과들이 가치로운 것임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차이’의 확인 과정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은 오히려 남북의 학문적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²⁾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북한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쌓아가고, 그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경향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통의 가능성을 회의하게 하는 그러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1) 김화경, 「북한 설화의 변개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17권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김화경, 「북한의 설화 연구 실태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논총』 1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김문태, 「북한의 설화 연구-북한설화집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6호, 인천가톨릭대학교, 1999; 이복규, 「북한 설화에 대하여-관련자료집의 현황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김의식, 「북한 설화에 나타난 주제론 연구-조종련계 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권,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김영희, 「북한에서의 구전설화 전승과 연구」,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한정미,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4; 김문태, 「북한의 구비문학 장르 인식과 관점 연구」, 『어문연구』 33권 3호, 한국어문연구학회, 2005; 김종균,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호, 국문학회, 2010; 은현정, 「설화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과 소통 가능성의 전망-열 설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50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목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등이 있다.
- 2) 북한의 신화 연구에 대한 논의를 결론짓는 다음 언급을 보면 그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유물사관에 의한 철저한 고증과 주도면밀한 어원적 고찰을 통해 포착해 낸 역사적 사실들은 소박하기는 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많아 세부적인 사항은 남한의 신화연구에서도 참고를 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주체사상이 파행의 국면에 접어들면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흐름에 병행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돌연변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정통성의 입증이라는 의도에서 남한 신화를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양한 건국 신화를 포괄적으로 품지 못하고 신화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한 편견이 북한 문학계를 바라보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분단서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에 대해 김영희는 북한의 설화 전승과 연구 태도의 ‘다름’을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경향에 경종을 울리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였다.³⁾ 그러한 점에서 ‘열(烈)설화’에 대한 남북의 인식을 비교하여, 다소간 성 차별적 시각을 바탕으로 두었다고 할 수 있는 ‘열(烈)관념’에 대해 ‘품성’의 문제로 풀어낸 북한의 관점을 긍정하고 있는 은현정⁴⁾의 연구나, <주몽신화>에 대한 북한의 연구에서 ‘모성’의 의미를 찾아낸 박재인⁵⁾의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주목된다. 이들 연구가 보여준 성과가 그러하듯이, 북한의 설화 연구가 체제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양상에 낯설음을 느끼게 됨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고 고개를 가로젓기보다 그러한 포장 이면에서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북한의 설화에 대한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연구의 과정 속에서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착시키고 있는 분단서사를 극복하고 통합서사로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북한지역의 설화로서, 북한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마십굴>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설화이고 그에 대한 북한의 논의들도 우리에게 낯선 것이지만,⁶⁾ 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서사가 지닌 보편적 의미를 찾아 낼 수 있다면 남북한의 설화연구가 소통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부의 이별’이라는 <마십굴> 전설의 서사적 상황은 현재의 남북한이 지닌 분단서사의 일면과 연결 지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마십굴> 전설에 관한 북한의 연구를 참조하여 그 서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마십굴> 전설에 투영된 남북한 분단서사의 일면을 드러내어, 그 극복 가능성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가 북한의 설화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하나의 제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마십굴> 전설 개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료의 개관 및 기본형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이야기의 각편 자료들은 북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현 상황으로 인해 그 존재여부나 실제의 텍스트를 접하기가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 남한에 들어온 출판물이라 해도 그 목록이나 개별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것 중 실제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① <수안 성동의 마십굴> - 이흥기, 『조선전설집』, 조선출판사, 1944.

(재출간, 이복규, 『이흥기의 조선전설집 연구』, 학고방, 2012.)

② <마십굴> -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46.

③ <도하동의 마십 부부>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재미나는 옛이야기』 3

3) 김영희, 「북한에서의 구전설화 전승과 연구」,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4) 은현정, 「설화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과 소통 가능성의 전망-열 설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50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5)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목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6) <마십굴> 전설은 분단 이전에 채록된 3편과 『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1편을 통해 남한에서도 전해지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권, 근로단체출판사, 1986.

④ <말썽굴> - 임석재, 『임석재전집』 3권, 평민사, 1987(1932년 채록 자료).

⑤ <마십굴> - 리진록 외, 『조선민간전설』, 조선민족사, 1990.

⑥ <마십 이야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4책.

이 중 ①, ②는 분단 이전에 발간된 것이고 ④도 분단 이전에 채록된 자료가 남한에서 발간된 경우로서 모두 남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이다. ⑥의 경우 경상남도 하동에서 채록된 자료이지만 황해도 지역의 이야기는 전체를 하고 구연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설이 광포되어 다른 지방에 정착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⑤의 경우는 북한에서 출간되었지만 남한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밖에 더 많은 이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의 보충은 이후의 문제로 남겨두고 확인 가능한 텍스트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편의 제목은 관련 증거물인 굴의 명칭과 관련하여 <마십굴>, <말썽굴> 등으로 붙여지거나, 서사 주체의 이름과 관련하여 <마십 이야기>, <마십 부부> 등으로 붙여지고 있다. 이처럼 각편 마다 제목이 제각각이지만, 북한에서는 <마십굴>이라는 제목을 이 전설에 대한 보통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마십굴> 전설이라 지칭하는 것이 혼선을 피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전설의 경우 관련 지형지물의 명칭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마십굴> 전설이라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우선 제시된 텍스트를 살펴 <마십굴> 전설의 기본형을 정해본다. 각편들은 서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 지역에서 출간된 ③, ⑤의 경우는 윤색된 흔적이 짙고, ⑥의 경우는 멀리 전파된 영향인지 결락된 화소가 있어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④의 경우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어느 것이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나, 서사적으로 보다 완결성을 띠고 있는 ④를 중심으로 각편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형을 제시한다.

- ㉠ 사람들로부터 바보취금을 받던 나무꾼 마십이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 ㉡ 나무하러 산에 갔던 그가 사냥 중에 조난당한 원님 아들을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다.
- ㉢ 마십 내외의 구원으로 살아난 원님 아들은 몸이 다 나아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마십의 아내를 탐내 그녀를 유혹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 ㉣ 어느 날 마십이 자리를 비우자, 원님 아들은 지위와 재물로 마십의 아내를 유혹했지만, 그녀는 그 유혹을 거부했다.
- ㉤ 집으로 돌아갔던 원님 아들은 사령들을 이끌고 와서 마십의 아내를 끌고 갔다.
- ㉥ 마십이 원님 아들의 배은망덕을 원망하자, 원님 아들은 바위산에 50리 되는 굴을 뚫는 다면 아내를 돌려주겠다며 놀렸다.
- ㉦ 그 말을 곧이들은 마십이 바위산에 굴을 파기 시작하자, 동네사람들은 “백날 파면 뚫릴 것이다.” 하며 마십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 ㉧ 그 말도 곧이들은 마십은 동굴 벽에 하루 한 개씩 금을 그어가며 작업을 계속했다.
- ㉨ 99일이 지나도록 작업은 크게 진척이 되지 않았지만 마십은 열심히 굴 파기에 몰두했고, 마침내 100일이 되자 맞굴이 뚫리며 단번에 50리 길의 굴이 만들어졌다.
- ㉩ 굴에 들어가 보니 그 끝이 동헌의 후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 ㉪ 마십이 “내 색시 데리고 간다.” 하고 외치며 아내와 함께 굴속으로 들어가자, 이 소리를 들은 원님 아들은 사령들로 하여금 내외를 쫓게 했다.
- ㉫ 사령들은 들어가자마자 무너진 굴로 인해 다 죽음을 맞았다.
- ㉬ 원님 아들이 맞은편 굴 입구가 있는 쪽으로 가 불을 지르니 굴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불을 꺼버리고,

원님 아들은 그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다.

㉟ 이 동굴 안에는 지금도 마십이 굴을 뚫으며 그었던 금이 그어져 있고, 굴 입구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마십굴>은, 주인공인 마십이 원님의 아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여 다시금 아내를 되찾는 점에서 <왕이 된 새쌈이>나 <우렁각시> 등과 같은 관탈민녀형(官奪民女形) 설화 유형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⁷⁾ 그러나 남편의 잘못에 의해 부부의 고난이 촉발되고, 아내를 되찾기 위한 남편의 과제 수행에 아내의 지시가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왕이 된 새쌈이>나 <우렁각시>와는 달리, <마십굴>은 부부의 이별에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할 만한 마십의 잘못이 없다는 점,⁸⁾ 이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십의 주도적 노력이 돋보이는 점에서 변별된다.⁹⁾ 이렇게 여타의 관탈민녀형 설화와 변별되는 지점에 <마십굴> 서사의 특질이 있다고 하겠다.

최초의 결합과정에 마십의 잘못이나 금기의 위반이 없다는 점에서, 이 서사는 부부의 결합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온전한 부부의 결합이 타의에 의해 깨어진 이별의 상황에 집중된다. 또, 문제의 해결이 마십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서사는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십의 행동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지점도, 서사의 주체인 마십이 당면한 이별의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십의 행동방식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3. <마십굴> 전설의 서사에 투영된 분단서사의 일면과 그 극복

3.1. 마십 부부의 이별상황과 그에 투영된 분단서사의 일면

<마십굴>은 부부의 결연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서사의 시작이 부부의 결연 과정으로 되어있는 <왕이 된 새쌈이>나 <우렁각시>와 차이가 있다. <마십굴>이 온전한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던 부부가 이별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서사라면, <왕이 된 새쌈이>와 <우렁각시>는 개체인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불안정한 결연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여 온전한 결연을 다시 이루어내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십굴>이 이별과 극복의 문제에 대한 서사라면, <왕이 된 새쌈이>나 <우렁각시>는 결연 그 자체의 문제에 대한 서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 <왕이 된 새쌈이>는 그대로 <마십굴>의 서사구조와 병치될 수 있으나, <우렁각시>의 경우에는 기본화소에 관탈민녀형 화소가 붙어 부부의 재회로 결말을 맞게 되는 유형에 한정한다. 이에 대한 남한의 주요 연구로는, 최래옥, 「관탈민녀형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장덕순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81; 이수자, 「<우렁각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7집, 이화어문학회, 1984; 노영근, 「민담과 ‘아내 찾기’ 화소」, 『어문학논총』 20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1; 김종균, 「<왕이 된 새쌈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등이 있다.

8) <왕이 된 새쌈이>에서는 주인공인 새쌈이가 높은 신분의 미인 아내를 얻고서는 아내를 바라보느라 일을 등한시하는 상황이 설정된다. 이에 남편을 면려하기 위해 아내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어 일을 내보낸 것이, 그 초상화가 바람에 날아가 왕에게 아내의 미모가 알려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렁각시>에서도 때가 되지 않았더라 결연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우렁각시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연을 고집한 주인공의 금기위반이 문제가 된다.

9) <왕이 된 새쌈이>에서는 석삼년을 공부한 후에 새털 옷을 입고 결인 잔치에 와서 자신을 되찾으라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 부부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우렁각시>에서도 새털 옷을 입고 찾아오라는 아내의 지시를 따르거나, 아내의 신이한 능력에 의해 원님과의 내기에서 승리하여 아내를 되찾는다. 이처럼 두 설화에서는 부부의 재회에 아내의 능력과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십 부부의 이별에는 그들의 행위나 의사가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원님 아들이라는 항거할 수 없는 타율적 힘에 의해 부부의 이별상황이 발생하며, 부부는 아무런 잘못 없이 원하지 않는 이별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 없이 온전하던 결합이 깨어지게 된 상황은 이후의 서사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잘못이 없기에 그 서사는 언제나 부부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연 과정에 금기의 위반을 상정하고 있는 <우렁각시>의 경우에 많은 각편이 부부의 재결합이 실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이수자는, 금기를 잘 지킨 부부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지만, 대부분 제시된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급하게 결혼하여 불행을 겪게 되고, 이야기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거나 시련과정을 거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며, 금기의 제시와 이행에 따라 이야기의 전승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¹⁰⁾ 이처럼 <우렁각시>의 경우 남편의 금기 위반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하게 됨으로써 이후의 서사가 부부의 재결합 실패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반면 그러한 금기 위반이 없는 <마십굴>의 서사는 언제나 부부의 재결합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온전한 결합을 통해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결합의 깨어짐으로 인해 결합의 구성원인 마십과 아내의 존재성이 훼손됨을 의미한다. 이별의 상태로는 온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부부는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금 온전한 결합의 상태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¹¹⁾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는 이별은 이후의 재결합을 약속하는 한편으로 이별 당시의 비극성을 더욱 짙게 한다. 오히려 목숨을 구해준 선행의 대가로 받게 된 마십 부부의 고난은, 서사 주체인 마십을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부부의 이별과 그 이별의 상황을 만들어낸 원님 아들의 불합리성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마십굴>에 대한 북한의 논의가 원님아들의 부조리에 의한 부부의 이별상황에 주목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설은 이 굴을 통하여 어진 마십의 불우한 생활처지를 보여주고있으며 인민들에게 가혹한 불행과 악덕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짓밟는 고을원의 아들놈에 대한 반인민적죄상을 폭로하고 그 멸망을 선고하고 있다.¹²⁾

전설은 이와 같이 환상적이며 낭만적인 형상속에서 원의 아들의 전횡을 폭로하고 마십부부가 당한 억울한 처지를 보여주면서 착취자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구현하고 있다.¹³⁾

여기에는 마십이 겪게 되는 이별이 전적으로 그들 부부의 문제가 아닌 부조리한 외부적 힘, 즉 원님 아들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엿 보인다. 원님 아들은 당대의 부조리한 절대 권력자를 대표하는 인물 형상으로서 구시대의 낡은 질서를 상징한다. 따라서 <마십굴>의 이별 상황은 온전한 결합을 이루고 있던 부부의 관계를 끊어 놓은 부당한 구시대의 질서에 의한 것이며, <마십굴>의 서사는 그러한 부당한 질서의 힘을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 해방’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마십 부부의 이별 상황은, 남북한의 분단 과정이 보여주는 모습과 유사하다. 제국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쓰는 중에 강제적인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민족이,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대

10) 이수자, 「<우렁각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7집, 이화어문학회, 1984, 166쪽.

11) <우렁각시>의 경우 재결합의 실패로 이어지는 각편의 경우에 부부가 죽음에 이르는 유형이 있다. 남편이 홀로 늙어 죽거나 자살을 하든지, 부부가 죽어 남자는 새가 되고 여자는 나무가 되었다는 결말이다. <우렁각시>의 부부 결합은 어느 정도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말이 나타나는 것은 그 결합의 깨어짐이 그들의 존재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부부의 존재태가 온전한 한 단위였다고 할 수 있는 <마십굴>의 경우 재결합의 실패는 필연적인 비극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12)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11쪽.

13)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77쪽.

가로 맞닥뜨린 것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이었다. 남북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중론에 의한 분단이 아니었으며, 원님 아들과 같은 불합리한 타율적 권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온전한 한 단위로 존재했던 부부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아무 잘못 없이 의도하지 않은 이별을 맞은 것처럼, 유구한 역사의 시간동안 한 민족으로 존재했던 남북한이 부당한 권력 작용에 의한 분단을 맞게 된 것이다.

원하지 않는 분단 상황은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분단체제는 견고하게 고착되었다. 마치 마십과 그의 아내 사이에 놓인 50리 지름의 바위산처럼,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장벽이 남과 북 사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내를 되찾는 대가로 일정한 과제의 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바위산에 50리의 굴을 뚫는 과제가 제시되는 <마십굴>도 여타 관탈민녀형 설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과제의 제시가 아내에 의해 이루어지는 <왕이 된 새댁>이나 <우렁각시>와는 달리, <마십굴>은 이별 상황을 조장한 원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변별된다.

김종균은 <왕이 된 새댁>에서 아내에 의해 제시되는 과제들이, 함께 살게 된 상황에 인주하여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는 잘못을 저질렀던 남편의 행동에 의해 촉발된 이별을, 남편의 능력을 배양하여 왕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전인적인 훈련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보았다. 그에 이 서사의 맥락이 <운달>이나 <서동>의 서사와 같은 ‘남편출세뎡기형 서사’에 닿아있다고 본다.¹⁴⁾ 결론적으로 잘못이나 금기에 대한 대가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우렁각시>에서의 과제 수행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마십굴>에서 제시되는 과제는 부부의 관계를 침범한 원님 아들에 의한 과제로서 잘못을 벌충하기 위함도 아니고, 마십의 존재적 성장을 위한 배려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네가 저 벼랑에 굴을 파서 한 오십리쯤 뚫어노면 네 색시를 돌려주마”하고 갔다. 이 말은 물론 나무꾼을 놀리느라고 한 말이다.¹⁵⁾

위의 인용에 드러나듯이, 원님 아들은 마십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건을 내세워 그가 아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거대한 바위산은 그 자체로 원님 아들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것을 뚫어보라는 말은 마십과 자신의 힘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아내를 되찾아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원님 아들은 조건의 제시를 통해 일종의 분단서사를 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부부의 분단 상황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분단서사를 마십의 자기서사로 작동케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무력함을 일깨우고 포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이별의 상황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분단서사는, 마십의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확대되어 마십을 괴롭힌다.

그러나 나무꾼은 그 말을 끝이듣고 그날부터 그 벼랑에 굴을 파기 시작했다. 동네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백날 파면 뚫릴 것이라고 했다. 이것도 물론 놀리는 말이었다.¹⁶⁾

이웃들이 마십의 억울한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마십을 놀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리

14) 김종균, 「〈왕이 된 새댁〉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143~145쪽.

15) 임석재, 『임석재전집』 3권, 평민사, 1987, 219쪽.

16) 임석재, 『임석재전집』 3권, 평민사, 1987, 219쪽.

라 생각된다. 그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십의 미련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던 것일 수 있다. 비록 비아냥조로 놀리듯 말했지만, 불행한 마십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에 털어버리듯 이야기 했던 것인지 모른다. 어쩌면 자신들과 같은 신분의 마십이 당한 권력자의 횡포에 분노를 느꼈던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폭력을 당해도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다. 억눌러야 할 분노가 클수록 한마디 원망도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부각되고, 자신들을 억누르는 권력의 폭력성에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었다. 결국은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십이 아내를 되찾기를 바라면서도, 되지 않을 일로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마십의 모습에 더 큰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반대로 권력자에 항거하는 마십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그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마십의 도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 뺏은 조롱일 수도 있다. 바위산은 그 자체로 철옹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바, 그곳에 구멍을 뚫기 위해 단단한 바위에 정을 부딪치는 반탄력으로 마십이 받게 되는 충격은, 공고한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받게 되는 고통이다. 그렇게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해해져가는 마십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이기지 못할 저항으로 고통 받기보다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지배계급의 권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마을 사람들의 발언은 마십과 원님 아들과의 싸움에서 마십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 한다. 이것은 마십에게 심고자 한 원님 아들의 분단서사가, 그러한 상황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에게 ‘권력에는 맞설 수 없다.’라는 자기서사로 발현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하여 바위산은 그 자체로 마십의 고난과 원님 아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분단서사를 내포하기까지에 이른다.

원님 아들이 ‘굴 뚫기’를 조건으로 내세워 분단서사를 조장한 것처럼, 남북의 분단체제를 고착화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남북 통합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어느 때에는 폭력으로, 어느 때에는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서 파종된 분단서사는 사회전반을 통해 전파되고 확대되어 통일 회의론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한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퍼뜨렸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분단서사가 전파되어 있는 상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50리 지름의 바위산은 원님 아들로 대변되는 부조리한 질서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마십과 아내의 분단을 상징하는 견고한 장애물이다. 따라서 그것을 뚫을 수 없다는 마을사람들의 분단서사는, 그로 상징되는 원님 아들의 권력, 분단체제의 질서 그 자체를 극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이끌어낸다.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질서의 산물인 남북의 분단체제는 그 자체로 억압적 질서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좁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위산에 굴을 뚫어가는 마십을 조롱했던 이웃들의 시선처럼, 통일의 문제를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바라보는 시각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분단서사는 분단체제라는 부조리한 질서를 개개인의 차원에서 강하게 고착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마십굴>의 이별 상황은 남북분단 상황과 맥락이 닿아있다. 또 마십과 아내의 이별 상황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분단서사는, 남북의 분단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분단서사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에 통일의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분단의 상황을 고착시키고 있는 분단서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마십굴>의 이별 상황이 남북한의 분단서사가 지닌 일면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이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십의 행위에서 그 극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3.2. 마십이 지닌 인민영웅(민중영웅)의 형상을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마십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단순 명쾌하다. 앞을 가로막은 단단한 바위에 정을 찍어가며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마십이 취한 행동방식이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마십의 인물 형상을 만들고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고정옥의 논의를 통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작품의 슈제트는 주인공이 빼앗긴 안해를 찾아 행복한 생활을 다시 쟁취하려는 불붙는 희망을 안고 백날을 기약하고 배가의 노력으로 바위'돌을 뚫는 데서부터 고도의 긴장성을 띠게 된다. 미래로 통하는 한 줄기 광명을 안고 오늘도 래일도 암벽을 뚫는 단조롭고도 간고한 로동-그것은 바로 봉건적 굴욕과 억압 하에서 온갖 난관과 곤난을 참을성 있게 극복하면서 앞날의 행복을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계속하여 온 인민의 불패의 창조적 의욕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⁷⁾

여기서는 마십이 백일동안 바위를 쪼기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얽음새가 고도의 긴장성을 띠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바위산을 뚫어가는 마십의 행위가 결정적인 서사의 분기점에 놓여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이어가는 마십의 모습이 그의 인물 형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위산에 50리의 굴을 뚫어가는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매일이다. 그럼에도 마십은 아내를 되찾겠다는 염원으로 지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붙잡고 그 과정을 묵묵히 감내해 나간다. 고정옥은 이러한 마십의 모습에서 어떠한 고난가운데서도 묵묵히 삶을 영위해온 인민의 영웅적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만큼 선량한 마십의 인물 성격이다. <마십굴> 전설의 각편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십에 대해 '바보'임을 상징하고 있다.

옛날에 이 굴 근처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무꾼은 사람이 모자라서 남들한테 못난이 취급을 받았다.¹⁸⁾

황해도 안디(아인테), 황해도 사렴인디, 마십이, 이름이 마십인디, 마십이는 일자무식 일꾼 말이지¹⁹⁾

'모자란 사람', '일자무식'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고정옥은 '바보'라는 표현을 빼고, 근면함과 선량함으로 풀어서 설명한다.²⁰⁾ 이는 마십이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비상한 선량함이 그를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할 뿐이라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장권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설에서 50리 굴을 뚫는 마십의 형상은 봉건적지배에 순종하기만 하고 반항할 줄 모르는 무력한 존재인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마십에 대한 이러한 형상에는 안해에 대한 정이 깊고 로동에 근면하고 선량한 마십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민의 념원이 구현되어 있다.²¹⁾

이러한 판단은 주요하다. 바보놀음에 의한 우연의 산물로서 아내와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선량함, 즉 인민적 성품을 무기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낸 끝에 아내와의 재회를 이루는 마십을 '인민적 영웅'의 형상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 같이 착한사람'은, '바보라서 착한 사람'과 다르다. 바보라서 착한 사람은 요령이 없어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바보 같이 착한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요령을 피우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다. 요령

17)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9쪽.

18) 임석재, 『임석재전집』 3권, 평민사, 1987, 218쪽.

19)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4책, 515쪽.

20) 고정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마십굴>의 서사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마십이 바보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상징하고 있다. "마십은 온달과도 같이 《바보 마십》이라고 동리 사람들이 부른 산'굴'의 일개 초부다."-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7쪽.

21) 이복규, 『이흥기의 조선전설집 연구』, 학고방, 2012, 200쪽.

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善)’을 믿고 그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신념이 되고 신념대로 행할 수 있는 우직한 행동력을 형성한다. 또한 신념은 자기 ‘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능력을 형성한다.

마십은 바보 같이 선량한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고, 신념에 기반 한 우직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행동력은 마십이 바위산을 파서 50리의 굴을 뚫는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한다. 마십이 신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굴을 파내는 일이 선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우선은 아무런 잘못 없이 헤어졌다는 사실에서 아내를 되찾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 있었다. 또, 아내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마십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굴을 뚫고 나간 마십은 남편의 승리를 기원하며 치성을 드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²²⁾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부부의 존재성 문제와도 연관된다. 본래 하나의 단위 존재로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있던 마십 부부는, 이별의 상황을 통해 존재성을 훼손당했기에 다시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마십의 굴 뚫기는 그의 인간적 삶의 문제에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일의 지난함과 고됨은 마십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일을 완수하기 전에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마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는 일이 마십의 지상과제이며,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50리의 굴을 파는 일이라면, 다른 요령을 생각하기 전에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 마십의 행동방식이었던 것이다.

실상 원님 아들이 제시한 조건은 마십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십은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만 눈을 둔 채 굴을 파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십의 도전이 불가능하게만 보였다. 그리하기에 되지 않을 일에 매진하며 생고생을 자처하는 그가 미련하게 보이고 조롱의 말을 내뱉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십에게 또 다른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십은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커다란 가능성으로 승화한다. 이처럼 장애를 해체하여 가능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식 능력이 마십에게는 있었다. 50리의 바위굴을 파내는 조건을 듣고 그 어려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아내를 되찾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백날 파면 뚫린다.’라는 이웃의 조롱을 막막한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망적 외연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인식 능력이 결국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산 속에 숨어있던 동굴을 만나게 했고, 그 길을 통해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십이 동굴을 뚫어가는 과정은, 것처럼 신념에 기반 한 우직한 행동력과 긍정적인 인식능력으로 앞에 놓인 장애들을 해체하여 자신의 가능성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부조리한 지배체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내와의 분단 상황 그 자체를 상징하는 바위산은 마십의 손에 의해 조금씩 안쪽으로 파여 가고, 파이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마십이 아내를 만날 가능성은 커진다. 마을 사람들의 분단서사가 작동한 결과로서 마십으로 하여금 도전을 포기하도록 의도된 ‘백날’의 의미도,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제 마십의 공간으로 재구성된 동굴 벽에 새겨지면서 커져가는 마십의 성공 가능성을 나타내게 된다. 동굴이 파일수록, 백날 중 하루가 동굴 벽에 새겨질수록 마십을 억누르던 두 장애물은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마십의 존재적 힘으로 전환되어 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분단서사의 극복과정과 맞물릴 수 있다. 바위산처럼 견고한 분단체제의 질서는 그에 직면하여 뚫어내려는 신념적 노력에 의해 조금씩 해체되어 ‘소통의 길’로 변해간다. 그 길이 뚫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있는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라는 분단서사도 조금씩 해체되어 그 길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굴

22)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77쪽.

이 깊어지고 그어지는 금이 늘어날수록,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우리의 작업에 힘을 불어넣는 자부심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작업에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분단서사를 통합서사로 바꾸어가는 일이다.

마십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마십이 만들어가는 동굴을 ‘자궁’의 상징이라 볼 수도 있겠다.

우리 동네에는 깎아 세운 듯이 높다랗게 서 있는 벼랑이 있고 이 벼랑 한복판에는 말쑤굴이라는 굴이 있다. 그 굴 생김새가 마치 말쑤같이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는 모양이다.²³⁾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마십이 판 굴의 생김새가 암말의 성기 같다고 하여 ‘말쑤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속에서 마십은 묵묵히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존재적 힘을 키워가며 마침내 굴을 끝까지 뚫어낼 수 있게 되고, 지배계급에 항거할 수 없었던 미력한 존재에서 모든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의 변모를 이루어낸다. 이러한 존재적 변화는 이야기의 결말과 관련지어 의미심장하다.

나무꾼은 후원으로 나가서 보니께 저의 색시가 있어서 이 색시를 데리고 “내 색시 데리고 나는 간다”고 크게 소리치고 굴속으로 들어갔다. 원님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사령을 굴안으로 들여보내며 잡아오게 했다. 그런데 굴은 무너져서 사령은 다 죽고 말았다. 원님 아들은 다른 사령을 데리구 그 동네로 달려갔다. 와 보니까 나무꾼과 색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님 아들은 화가 나서 이놈 죽어 봐라 하고 굴에다 대고 불을 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굴안에서 물이 폭포같이 쏟아져 나와서 불을 다 꺼버리고 그 물은 어찌나 많이 나왔던지 원님 아들은 그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 이 굴에는 금이 백 개 뚜렷이 그어져 있고 굴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나오고 있다.²⁴⁾

결말에 이르러 마십은 자신이 뚫어낸 동굴을 따라가 자신의 아내와 재회한다.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내 색시 데리고 간다”라고 외치며 아내를 데려가는 마십은, 이미 원님 아들의 허락이 필요치 않은 유력한 존재로 변모한 상태이다. 그리고 부부는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부를 쫓아 들이닥친 사령들이 굴이 무너져 죽고, 굴 입구에서 쏟아져 나온 물에 원님 아들이 휩쓸려 죽게 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궁의 상징성을 지닌 굴속에 부부가 다시 들어간 상태는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굴속에서 마십은 존재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공고한 지배계급의 억압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 혼자서는 새로운 질서를 배태할 수 없었다. 서사적 맥락에 따라 그의 변화를 촉발시킨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아내를 되찾아 재결합을 이루어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성(性)적으로도 부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가 생성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로써 굴속에 부부가 들어가게 된 것은 낡은 사회 질서를 타파할 새로운 질서의 맹아가 ‘마십굴’이라는 자궁에 착상된 것을 의미하며, 굴에서 터져 나온 물에 원님 아들이 휩쓸려 죽음을 맞는 것은 ‘인간 해방’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양수’가, 동시에 부조리한 질서를 상징하는 기존 지배계급의 말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때 굴에서 나오는 물, 즉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양수는, 부조리한 질서에 대한 마십의 도전이 승리를 거두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된다. 이제 마십의 서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작용하게 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마을사람들의 분단서사는 마십의 서사로 보충되어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남북한 분단체제의 질서는 소통의 질서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게 된다. 마십의 성공은 그가 누구와도 다를 것 없는 보통 사람이었기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보통 사람으로서 거대한 장애에 맞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답답할 정도로 정직하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믿을 수

23) 임석재, 『임석재전집』 3권, 평민사, 1987, 218쪽.

24) 임석재, 『임석재전집』 3권, 평민사, 1987, 219쪽.

없을 만큼 ‘바보 같은’ 그 길이, 높은 지위나 특출한 재주가 없는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지만, 누구도 올곧게 나아가기 힘든 ‘보통의 길’ 말이다. 바로 이러한 인물 형상이 북한의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전형적 인민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민영웅’의 형상이라 하겠다.

마십이 보여주는 ‘인민영웅’의 형상은, 계급투쟁론적 시각을 벗어나서도 인간의 보편적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마십이 겪는 것과 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상황, 누군가는 마십과 같이 바위에 정을 들이대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또 바위를 뚫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바보 같은 것’이라는 주변의 야유에 꺾여버리기도 한다. 그만큼 요령을 부리는 것을 영리한 것으로,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바보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인지 모른다. 그러한 장애를 뚫고 성취를 이루는 이는, 마십처럼 작은 가능성을 붙들고서 묵묵한 신념의 망치질을 해나가는 인민적 품성, ‘바보 같은 선량함’을 지닌 사람이며, 그가 바로 전형적인 인민성을 지닌 ‘인민영웅’, 즉 ‘민중영웅’인 것이다.

구멍이 뚫린 바위산에는 곧 균열이 생긴 분단체제의 질서가 투영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구멍을 뚫어낸 마십의 서사가 분단서사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단서사를 극복하는 길도, 결국은 특별하고 그럴듯한 왕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분단체제의 질서가 크고 단단한 바위산 같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그 앞에 직면하여 끊임없이 굴을 뚫어가는 작업이 되겠다. 그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믿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수해 나가는 우직한 걸음이다. 그러면서 원님 아들의 조롱, 그것을 전파하고 확대시킨 이웃 사람들의 조롱을 희망으로 바꾸어 작동시켰던 마십처럼, 조금씩 우리의 분단서사를 통합서사로 바꾸어 나간다면, 마십이 바위산 속에서 이미 준비된 동굴 길을 발견했듯이, 단단한 장애물로만 보였던 분단의 벽속에 감추어진 통합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작용하는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십굴> 전설의 서사는 북한의 설화를 연구하는 우리 연구자들의 분단서사도 어느 정도 투영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 인민계급에 의한 체제의 성립을 표방하는 만큼, 인민의 창작물로 여겨지는 구비문학 분야에 큰 의미를 두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화에 의한 인민 교양에 주력하고 있다. 인민 교양 사업의 선봉에서, 사회과학원 주도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설화연구가 체제에 호응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도 분명하다. 설화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접한 많은 연구자들이 그로 인한 남북한의 관점 차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목격한 차이가 남북한이 설화 연구를 통해 소통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주한 장애물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재보기 위해 바위산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북한 설화에 대한 우리 연구의 실정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장애물의 크기를 확인할수록 그것을 뚫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엄두를 내기 어려워진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북한 설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 연구자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분단서사의 단면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마십굴> 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남북한의 연구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구전문학’²⁵⁾이라 지칭되는 구비문학분야에 대한 연구는, 남한에 비해 앞선 측면이 있다. 1971년

25) 이후로 구비문학 분야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언급할 때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구전문학’이라 명명하도록 하겠다.

에 남한에서 구비문학 전반에 대한 개론서인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이 출간된 것에 비해, 북한에서는 이보다 10년 가까이 앞선 1962년에 『조선구전문학연구』(고정옥, 과학원출판사)가 출간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구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시기적으로 남한에 앞서있었음을 반영한다. 북한 구전문학 연구의 선구자이자 『조선구전문학연구』의 저자인 고정옥은, 책의 첫 머리에 ‘위대한 예술적 창조자로서의 인민’에 대한 선언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당의 정책 노선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인민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적 역량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룩한 모든 정신적 보물들의 유일하고도 무진장한 원천이다.

인민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철학자이며 가장 월한 예술의 창조자이다. 지상의 모든 의의 깊은 비극들과 모든 위대한 서사시들은 인민의 집체적 재능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전 세계의 찬란한 문화사는 바로 인민의 지혜와 그의 창조적 역량에 의해서 개화 발전하여 왔다.

정신적 보물을 만들어 내는 인민의 창조적 위력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인민 창작에서도 찬란하게 발휘되었다. 작가 예술가들에게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인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복무하도록 고무 추동하고 있는 조선 노동당은 일찍부터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는 인민이라는 것》을 우리 작가 예술가들이 명심할 것을 교시하였다.²⁶⁾

이처럼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인민의 집체적 창작물’로서의 구전문학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구전문학이 지닌 ‘인민성’이 노동인민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명분으로 하는 북한 체제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는 것이었기에 그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장려되었으리라 예상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점에서 고정옥의 연구가 북한 체제에 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연구 성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전문학에 대한 고정옥의 연구는 당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한 체제의 호명과, 인민성을 구전문학의 핵심으로 여겼던 고정옥의 학자적 신념이 맞물린 결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²⁷⁾

이후로 『조선구전문학개요』²⁸⁾와 『조선구전문학연구』²⁹⁾라는 두 시리즈로 된 구전문학 개론서 출판이 이루어졌다. 의외로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북한의 제한된 연구 인력과 출판사, 당 주도로 출판이 이루어지는 등 여건상의 문제에 의한 것이지 구전문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이들 연구서는 대부분 고정옥의 선행 연구에 의거하고 있는데, 전자가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구전문학의 전반에 대한 교양서에 가깝다면 후자는 비교적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띤다. 두 개론서는 61년 출간된 『조선구전문학연구』와 달리 각각 ‘고대중세편’과 ‘항일혁명편’, 그에 해당하는 1·2권으로 편제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하여도 고정옥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26)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쪽.

《》는,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1951년 6월 30일(《김일성 선집》, 1954년 판, 제3권, 246 페이지.)를 본문에서 재인용.

27) 그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서를 해제한 신동훈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월북 이전에 이미 민요 연구로 일가를 이루었지만, 당시 우리 학계의 분위기는 아직 민요나 설화 등을 온전한 문학연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이었다. 그것은 주로 민속학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으며, 문학적으로는 기록 문학의 원초형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끄는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요의 문학적 가치를 힘주어 내세운 고정옥은 이방인파도 같은 존재였다. 그만큼 그의 노력은 외롭고 힘겨운 것이었다. 이런 학계의 사정과 함께, 현실적으로 구비문학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북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북한 학계에서 민중은 역사의 주체, 문학 창조의 주역으로 대접받고 있었으며, 고정옥이 추구했던 민중 주체의 문학관은 당연히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8집, 민족문학사학회, 1995, 227쪽.

28)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리동원, 『조선구전문학개요(항일혁명편)』, 사회과학출판사, 1994.

29)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2』, 문학예술출판사, 2005.

김종균은 “북한에서 구전문학의 또 다른 명칭으로 ‘인민창작’을 사용한 의식의 저변에는 인민이 존재하는 한 구두성(구술성)을 가진 이야기나 노래 등은 지속적으로 창작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고정옥이 주도한 현지조사 자료집 『인민창작1』³⁰⁾의 처음 항목이 ‘해방 후 군중가요’, ‘해방 전 인민가요’, ‘해방 전 이야기들’이고, 그 뒤를 이어 전설이나 민담 등이 수록 된 것에 대해, 구전문학이 고전문학의 한 범주가 아니라 예부터 당대에까지 인민들의 구술을 통해 창조한 문학이라는 입장에 충실한 편제라고 하였다.³¹⁾

이처럼 고정옥의 『조선구전문학연구』는 인민창작으로서의 구전문학을 집대성한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 구전문학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유력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마십굴> 전설에 대한 처음의 논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후에 출간된 두 개론서에서도 그에 준하여 <마십굴> 전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고정옥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른 두 개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마십굴>에 대한 북한 연구의 전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다.

고정옥은 <마십굴> 전설이 봉건통치계층에 대한 노동인민계층의 계급투쟁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마십굴》전설은 선량하고 근면하며 남이 곤경에 빠졌을 때는 자기 희생적으로 그를 구원하며 자기 앞에 가로 놓인 난관은 반드시 극복하고자 마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졌으며, 또 자기의 행복을 짓밟는 자는 그가 비록 생살여탈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를 끝끝내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격의 마십과, 그리고 슬기롭고도 인정이 두터우며 녀성으로서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그의 안해를 긍정적 주인공으로 하고, 인민을 착취하여 놓고 먹으면서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관료배들의 부패한 생활 습성을 대표하는 원의 아들과 그를 추종 방조하는 하례배들을 이에 대치시키면서 선량한 사람들의 자기 희생적 동정이 어떻게 악랄한 인간들의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유린되며 가난하나 평화스러운 인민의 생활이 어떻게 지배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동시에, 저열하고 악랄한 인간과의 투쟁에서 승리는 항상 정의의 편에 돌아 오고야 만다는 인민의 신념을 성과적으로 체현하고 있다.³²⁾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서사의 갈등을 계급갈등의 문제로 대치하면서, 계급의 문제는 선(인민)과 악(봉건 통치계급)의 문제로 확대된다. 이처럼 다소 도식적인 논리의 흐름과 강렬한 어조는, 익숙지 않은 남한 연구자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신동훈은 고정옥의 자료해석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계급투쟁론’의 시각에 주목하여, 부도덕한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민중, 즉 ‘인민’의 창조력과 도덕성에 대한 강한 신뢰가 때로 과장된 형태로 부각되기도 함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논조의 단호함에 비하면 자료해석의 결과가 정도를 벗어나는 예는 드문 편이라 부언하고 있다.³³⁾ 말 그대로 다소 과격한 논조를 접어두고 위의 해석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마십의 상황이 계급갈등적 요소를 포함함은 분명하다. 남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탈민녀형 설화들을 해석하면서 그러한 요소들을 무시하고서는 온전한 논의를 이루기 어렵다.³⁴⁾ 특

30) 고정옥, 『인민창작1』, 과학원출판사, 1961.

31) 김종균,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호, 국문학회, 2010, 208쪽.

32)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8~129쪽.

33)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화사연구』 8집, 민족문화사학회, 1995, 231~232쪽.

34) 최래옥은 <우렁각시>가 서기에 의해 원에게 정체를 들키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하인에게 걸치고 있던 옷들을 건네주는 과정에 대해 평민이 관에 재물을 수탈당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곁에서 속으로 차츰 허물어져 가는 약자, 민녀의 안타까운 저항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최래옥, 「관탈민녀형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장덕순선생학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81.

이수자는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에 나타난 구연자의 의식을 논하며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그리고 사회 부조리의 고발과 여기에 대한 복수의식 등이 중심이었고 도덕적 당위성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았다.-이수자, 「<우렁각시>형 설화의 연구-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7집, 이화어문학회, 1984, 183쪽. 김종균은 <왕이된 새샘이>가 중국 주나라 유왕때의 ‘포사(褒姒)’이야기에서 ‘웃지 않는 왕비’의 화소를 차용하고 있다고 보며, 그 본질의 의미는 근본을 훼손한 권력에 대한 보복과 함께 방탕한 국왕을 정치하는 데서

하나 <마십굴> 전설에서는 아내를 빼앗아간 권력자가 마십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은바 있다는 점에서, 그 부조리성이 더욱 극명하게 부각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마십굴> 전설을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연구한 고정옥의 논의는 오히려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인용처럼 선언적 언급에 그친다면 다소 허무한 논의가 될 수 있겠으나 그 논의를 뒷받침할 만한 나름의 근거들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3.2장에서 마십의 행동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끌기 위해 빌어온 논의는 마십의 행위를 통해 그 인물형상을 이끌어내는데 적합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마십의 인물 성격에 대한 그의 논의와 이후에 이어진 장권표의 논의는 본고를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였다. ‘바보 마십’이라는 인식이 ‘바보 같이 선량한 마십’으로 전환되면서, 마십의 행동 방식과 인물형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환상성에 대한 논의이다.

마십에게 승리의 현실적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였으나 인민들은 마십이 중도에서 자기의 로력을 포기하고 패배자로 될 것을 원치 않았다. 《마십굴》 전설에서의 중세기적 환상은 바로 이러한 정황의 필연적 산물이다. 정체모를 인물의 등장에 의한 예언적 복선, 그와 관련된 암벽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동굴의 비밀은 이 전설의 슈제트 선에 놓인 슈제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들로 된다.

인민들은 이러한 정체 모를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많은 경우에 생활의 난관에 부닥쳐 고민하는 주인공을 곤경에서 구출하며 이야기의 매듭을 푸는 살마리로 삼고 있다. 곤경으로부터의 주인공의 구출은 바로 설화의 주인공을 통한 인민 자신들의 념원의 달성을 의미한다.(중략)

《마십굴》 전설에서 정체모를 인물은 무제한한 로력으로써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백날의 로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인공을 도와 주고 있는 동시에 주인공의 의지의 힘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험함으로써 주인공의 념원이 실현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이야기의 매듭을 풀어 주고 있다.

이야기의 대단원에 가셔도 《이번》 들이 런던아 일어 남으로써 주인공으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한다.³⁵⁾

여기서는 조력자의 존재와 연달아 맞굴이 뚫어지는 사건에 인민의 념원에 의한 환상이 개입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설화가 흔히 지닌 환상적 요소의 서사적 역할에 대한 일정한 논리 체계를 제공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정옥의 ‘환상’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신동훈은, 그러한 시각에서 그가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미학적 특성’ 및 ‘시대적 조건’을 진지하게 따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환상’을 곧 ‘한계’로 간주하는 식의 단순논리가 아니라, ‘환상’과 같은 미학적 요소를 중세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규정 그 성격과 가치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⁶⁾

그런데 마십에게 “백날 파면 뚫릴 것이다.” 라고 한 인물을 신이한 조력자로 판단하는 것에 조금은 의문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작가에 의해 윤색되었다고 판단되는 북한 자료 둘 외에, <마십굴>의 각편들에서는 그러한 인물을 조력자로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믿었다.’라는 단서만이 있을 뿐, 오히려 『임석재전집』의 <말썽굴>에서는 ‘놀리느라 한 말이었다.’라는 단서가 덧붙여있고,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마십 이야기>에서는 해당 서사단락이 누락되어있다. 이는 <마십굴> 전설을 통해 전설의 서사 체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의욕적으로 덧붙은 해석이라 생각된다.

고정옥은 그러한 환상성이 결코 비사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환상 요소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석의 맥락이 조금은 마십의 승리를 빛바래게 하고 <마십굴> 전설의 계급투쟁 의식이 지닌 한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와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중균, 「<왕이 된 새샘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145~146쪽.

35)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29~130쪽.

36)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8집, 민족문학사학회, 1995, 234쪽.

같은 사실은 다음의 인용에 잘 드러나 있다.

봉건적 질서가 아직 엄연히 서 있고 인민 대중의 의식 수준과 역량도 아직 미약했던 조건 하에서 인민 창작이 많은 경우에 적의 패망과 인민의 승리를 개인적 관계에서, 그리고 환상적 형식을 통하여 묘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중략)

작품에서 환상을 통하여 주인공이 승리하며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예술적 특성은 우리 중세기 문학에서의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으로 된다. 환상적 형식은 결코 현실을 외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환상은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의 집중적 표현 형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환상 속에는 억압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통쾌한 복수와 함께 광명한 앞날에 대한 량만이 담겨 있다. 환상적 형식은 결코 작품의 비사실주의적 성격을 규정하는 척도로는 되지 않는다.

(중략) 전설은 또한 마지막에 가서 마십 부부를 굴 속에 폐색한 채 이야기를 끝맺음으로써 투쟁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따라서 마십으로 하여금 자기의 승리를 모르게 하고 있으며 청중들에게는 마십 부부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봉건 사회에 있어 인민들의 반항이 일반적으로 1대 1로 진행되지 못한 한 사실의 형상적 반영이며 또 이러한 대단원은 전설을 향토와 자연에 불가분리적으로 고착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³⁷⁾

환상성은 인민의 계급투쟁 의식을 반영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대의 사회적·인식적 한계를 보여주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약점은 이후의 연구에서 <마십굴> 전설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고정옥이 마십의 선함과 순진함을 인민성의 본질로 보고, 그러한 인민성이 봉건 지배계급의 횡포를 극복해온 민중의 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리동원은 그러한 선함과 순진함이 <마십굴> 전설의 본질적 한계로 작용했다고 본다. 물론 그도 <마십굴> 전설이 지닌 계급투쟁적 주제의식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설은 수안군 도하리 50리 굴의 유래를 설명함에 있어서 봉건사회의 착취관계와 지배계급의 비도덕적인 생활관계를 생활내용으로 주고있으며 농민의 죄상을 폭로하고 인민들의 지향을 실현시키는데 역점을 찍고 있다.³⁸⁾

하지만 리동원은 마십의 승리가 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파악한다. 마십의 승리는 그의 '선함에 대한 대가'일뿐, 그의 선함이 직접적으로 승리를 위한 힘으로써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에서는 마십을 그저 어질기만 하고 인간의 도덕적리념과 그 순결성만을 믿는 《선》의 체현자로 등장시켰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물로 형상하지 못한 전설의 본질적인 제한성이다. 말하자면 굴을 파라면 파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소원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자각한 인물로 형상되고있는데 본질적 약점이 있다.

전설은 이런 《선》의 체현자를 등장시켜놓고 그에게 동정을 보내며 결국 제3의 인물, 초인간적인 힘의 도움으로 그의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가 마련되도록 해결짓게 했다.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선악관계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권선징악으로 끌고나가 해결짓게 하였다.

이것은 중세전설이 선을 악과 대립시켜 극도로 과장하였거나 일면화 시킨데서 오는 것이며 사회계급적본질을 인물에 체현시키지 못하고 계급적 분석을 가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선의 지향을 실현하는데서 전설은 중세기적환상수법을 많이 쓰고있으며 해결에서 선의 승리를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전설은 50리 굴에 갇힌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관계와 착취자들에 대한 비판폭로의 주제를 실현시키고있으나 유교도덕적인 것을 절대화하면서 이에 인간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계급관계를 무디게 하고있으며 인물설정에서도 전형화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전설창조자들의 시대계급적인식과 세계관의 제약성과 관련되어있으며 또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데서 기존방

37) 고정옥 저·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원저는 1962년 출간), 130쪽.

38)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11쪽.

식과 논리, 도덕적리념에서 벗어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³⁹⁾

고정옥이 인민성의 전형으로 제시하였던 마십의 인물형상은, 이처럼 후대에 이르러 ‘전형화 되지 못하고 중세의 유교이념에 기대고 있는 무자각한 인물의 형상’으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조력자의 도움이라는 환상적 요소에 의거한 마십의 승리가, 그의 선행이 가진 원형적 힘이 ‘인민의 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된다. <마십굴> 전설을 통해 전설의 다양한 미학적 가치를 설명하려 했던 고정옥의 의도가 조금 어긋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마십굴>의 서사적 힘을 재고하는 일은, 마십을 전형적인 인민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고정옥의 논의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초인적 존재의 도움’이라는 윤색을 지우고 그것을 다시 마을 사람들의 조력으로 되돌리면, 굴을 뚫는 마십의 행위는 더욱 큰 갈등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며, 서사적 긴장감은 고조된다. 또한 100일째 날 맞굴이 뚫린 상황을, 이번이 아니라 바위산 속에 숨은 맞굴을 찾아낸 것으로 보면, 그 환상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극히 어렵지만 가능한 일에 대한 염원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마십굴>에 대한 북한의 연구는, 낯설고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 그로 인해 남북의 설화연구가 소통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 이 연구가 범박하게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연구가 접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소통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십굴>의 서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스스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길은 장애물을 정면으로 뚫어가며 더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보통 영웅’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장애’에서 ‘가능성’을 찾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남북한 설화연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차이’라는 이름의 바위산 속에 파고들어가 그 속에 숨어있는 ‘동굴 길’을 찾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장애로만 보이는 ‘차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차이’로 포장된 논의의 이면을 직접 대면해 보면, 그 속에 소통의 길이 숨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연에 드러난 이질성에 경계심을 갖고 막연한 편견으로 고개를 저을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더딘 걸음을 내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조그만 소통의 가능성들을 찾아가며 북한의 설화와 설화연구에 대해 파헤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미리 준비되어 있던 ‘동굴 길’을 만나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5. 결론

본고는 북한 지역의 <마십굴> 전설과 그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설화 연구가 소통의 지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는 북한의 구전문학 연구에서 <마십굴> 전설이 지닌 위치가 남다른데도, 그 서사를 통해 남북한의 분단서사의 일면을 드러내고 그 극복가능성을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자료의 한계와 연구 역량의 부족으로 범박한 논의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는 생각이다. 우선, 이야기 속의 부부 이별 상황이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음을 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통일 포기’라는 분단서사가 작품속의 마을 주민들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남북한 분단서사의 전모를 드러낸 것은 아니겠지만, 현 상황에서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단서사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내를 되찾기 위한 마십의 행동방식을 통해 남북한의 분단서사를 극복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야기 속 마십은 바보가 아니라 바보 같이 선택한 사람일 뿐이며, 신념을

39)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12~113쪽.

기반으로 한 우직한 행동력과,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찾는 긍정적인 인식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비록 특출한 지위와 재주를 지닌 바 없는 보통사람이지만, 50리의 굴을 뚫어가는 굳건한 신념을 통해 ‘민중영웅’의 전형적 형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산에 가로막힌 듯한 분단의 상황에서, 그러한 민중영웅의 행동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다소 허무하게 비춰질 수 있음을 안다. 뭔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마십의 형상이 보여주듯, 가장 기본적인 그 길을 가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 더 큰 의의가 있고, 또 누구도 올곧게 가기 힘든 길이라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해야겠다.

이러한 연구는, <마십굴>에 대한 북한의 논의를 적극 살핍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의 설화연구에 일정한 한계들을 지적하는 논의들도 많고, 남북한 설화연구의 관점 차이가 감당할 수 없이 커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바위산처럼 보이는 ‘차이’에 주저하지 말고, 직면하여 그 세세한 맥락을 살펴보면, 남한의 연구자들로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논의 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가능성들을 찾아 바위산에 굴을 뚫어 가며 소통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연구자들이 분단서사를 극복하고 통합서사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북한 지역의 설화 <마십굴> 전설의 서사를 통한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고찰」에 대한 토론문

홍나래*

위의 논문은 남북한의 설화연구가 소통할 가능성을 <마십굴> 전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문학계를 바라보는 우리 연구자들의 편견에는 일종의 분단서사가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는 그간의 시각을 반성하게 한 의의가 있습니다. 토론자로서 <마십굴>과 문학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논문을 읽으며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본 <마십굴> 해석의 수용

북한의 설화연구가 낯설다고 하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 혹 이에 바탕을 둔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그 의의, 위상과 한계가 연구자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마십굴>처럼 인민(민중)영웅 설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북한 학자들의 해석을 수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연구자들의 소통문제로 이 설화를 택한 것은 바위산을 뚫어서 ‘소통의 길’을 열었다는 설화의 내용 때문인가요?

북한의 설화 전승과 연구 관점의 차이라고 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탈북 학생들이 선호한 설화자료들의 차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전설은 지역성의 문제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에서 주로 다룬 자료들은 지배층에만 책임을 묻기보다 금기를 범한 과오를 되새김질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남북 설화연구의 경향성을 좀 더 분석하면 오히려 남북 설화연구의 거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본문(3.1항)에서 마십 부부의 이별상황을 남북 분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북한 학자들의 해석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남북 연구자들의 연구태도와 시각 차이는 근대사에 대한 해석에서도 드러날 것이므로 분단,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남한·북한 혹은 연구자의 입장을 구분해서 밝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마십굴> 해석의 문제

설화를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대입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서 선호한다면 이에 대해 밝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분단서사는 분단 체제라는 부조리한 질서를 개개인의 차원에서 강하게 고착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마십굴>의 부부를 남북한으로, 원님 아들을 ‘불합리한 타율적 권력’으로 해석한다면 이해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에 좌절한 서사들을 모두 ‘분단서사’로 본다면 오랜 기다림 후 재상봉하여 결합한 결말들은 분단서사의 극복으로 환원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십이 굴을 뚫은 것은 아내를 찾기 위한 것 결국 봉건적 착취와 억압·부조리를 깨부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바위산에 굴을 뚫어 가며 (남북 연구자간) 소통의 길을 만든다’는 표현은 자칫 설화에서 보여준 마십의 행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마십굴>전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분단서사와 극복이라는 주제로 묶으면서도 작품 소개와 분석, 북한에서의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분단서사 극복에 대한 작품 활용과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자료와 실질적인 예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설화 <구렁덩덩 신선비>를 통해 본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탐색

김정애*

<차례>

1. 서론
2. 분단서사의 문제
3.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4. 결론

1. 서론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시도는 여러 방법을 통해 모색되어 왔고 그 노력의 대부분은 체제 문제나 정치, 경제적 통합을 전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시류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¹⁾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사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간과되어 왔다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인문학’이 ‘소통, 치유, 통합’이라는 사람 중심의 통일 방법론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통일인문학의 취지에 입각하여 본 발표문은, 오랜 세월 구전되어온 설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어 온 만큼 장차 분단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문학’이 시류의 변화와 상관없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본 발표문에서 사용하는 ‘분단서사’의 개념은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남한의 분단 상황을 지속시키는 서사로만 국한하지 않으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미정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타난 분단서사를 그와 서사적 유사성을 지닌 설화와 견주어 논한 바 있는데, 이때 분단서사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서사로서 전쟁과 분단이라는 외적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 경험에 의하여 자극받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오래전부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관계를 단절시킬 것인지,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선택과 관련한 서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단정이 강하게 점철된 내용이 분단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가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 분단서사가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본 바 있다.²⁾ 또 정운채는 정몽주의 암살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과 이와 서사적 유사성을 보이는 설화들을 비교하면서, 애착심이 증오심으로 돌변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서사를 ‘분단서사’라고 명명한 바 있다.³⁾ 이러한 기왕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구비 전승되어 왔던 설화작품에서도 분단서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김성민, 「분단의 장벽을 녹이는,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철학과 현실』 85, 2010, 164~173면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코리아의 역사적 트라우마』, 도서출판 선인, 2012.

2) 강미정,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분단서사 극복 전망」,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2011.11, 27면.

3) 정운채, 「정몽주 암살과 복권에 대한 서사적 이해-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하여-」,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2012.5, 398~399면.

사의 일면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대한 극복 가능성 또한 설화작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애착심이 증오심으로 돌변하여 단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분단서사라는 점에서, 분단서사의 원형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부부관계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에는 배우자가 자기 이외의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려 한순간에 ‘남’이 될 수도 있는,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부부관계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일 수 있지만, 반대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많은 노력이 요구될 정도로 위태롭고 불안한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 한 순간의 잘못으로 화해 불가능한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분단서사의 원형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설화에서 단절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결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러한 관계와 원심(遠心)적 거리를 두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도 아울러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 절대 화해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던 체제도 용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발표문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발표문은 부부관계의 단절과 회복에 관한 내용이 소상하게 전개되는 설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낸다면, 이러한 원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인 남북한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발표문의 2장에서는 남북한이 대립하는 현상 이면에 잠재된 서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3장에서 도출되는 문제적 서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기 위해 필요한 서사가 무엇인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분단서사의 문제

선거 때마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견지하고,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남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북한과의 거리를 멀게 두든 가깝게 두든,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은 남한이 본래 북한과 하나였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관계가 여전히 경색되어 있고 통일에 대한 전망이 요원한 것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남한의 거리두기는 금강산 관광개발사업⁴⁾ 개시에서 중단에 이르는 일련의 사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은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던 중 1998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맺게 된 결실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남한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 남한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화해 기류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남한 관광객에 대한 북한의 처사는 분명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북한에 대

4)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유람선이 처음 출항한 이래 2000년 6월 현재 25만 명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남북경협을 위해 방북해 북한 당국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으나 1990년대 들어 북한 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다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3g0290n0>).

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온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어쩌면 입으로는 통일을 운운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는 드러내지 못하는 형국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그리고 장차 남북한의 관계는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까? 서론에서 언급한 바처럼, 단지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념의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없는 일일 수 있다. 이미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것이나, 현재 남한 내에서도 이념의 대립구도를 이루면서도 여전히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 이념의 통일이 근본적인 대안일 수 없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반면 남북한의 단절 상황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의거하여 이해해 본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서사로 변화될 때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라는 것이 강조되는바, 서사라는 용어는 텍스트의 차원이 아니라 텍스트를 떠받치고 있는 저변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운채는 문학치료학에서의 서사는 텍스트로 제시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제시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구성해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⁵⁾ 그리고 치료라는 것은 자기서사가 변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문학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작품서사와 사람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서사가 공명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⁶⁾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공명이 치료와 연관될 수 있는 이유는 작품서사는 자기서사는 모두 서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⁷⁾ 바로 이 점에 착목하여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서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자기서사를 진단하는 데에도 적용한다. 그러므로 문학치료학에서 자기서사의 변화, 즉 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서사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의거해 볼 때, 남북한의 관계 국면은 그 현상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서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대립관계를 추동하는 그 이면의 서사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기서사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적 자기서사는 작품서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분단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추동하는 잠재적 서사, 즉 분단서사를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본 발표문은 6.25전쟁의 발발 경위나 정치적 이유를 밝히는 데에는 논의의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남한과 북한의 단절을 견인하고 지속시키는 우리들의 시선을 서사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이를 통해 드러나는 남북한 상황을 서사적으로 이해해본다면, 설화 <엮질러진 물>을 거론해 볼 수 있다.⁸⁾ <엮질러진 물>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옛날에 주매신이라는 사람이 학자라서 글공부만 하고 있었다. 돈을 안 벌어오는 남편 대신 부인은 남의 방아도 찌우고 벼도 찌우어 식량을 벌어들였다. (2)어느 날 부인이 보리 댕 말을 모아 마당에 명석을 깔고 널었다. 부인은 주매신한테 비가 오거든 보리를 뜰에다 널라고 부탁하고는 일을 나갔다. (3)주매신이 책을 보다가 읽을수록 맛이 나서 천둥치고 소낙비가 오는 데도 보리 생각을 못했다. (4)부인이 일 갔다 와서 보더니 보리가 다 썩겨 가 하나도 없자 화가나 그 길로 일 잘하는 사람의 후살이로 갔다. (5)주매신은 친구들이 밤을 돌아가며 해 주어 공부를 같이 해서 나중에 과거 급제를 했다. (6)임금이 주매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지금은 곤궁하니 돈벌이를 하게 골살이를 하나 시켜 달라고 하여 주매신이 고을 군수로 나갔다. (7)주매신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길을 닦느라 흙을 나르는 사람 중에 옛 마누라가 있어서 수레를 멈추게 했다. 사연을 물어 보니 새로 얻은 남편이 병이 들어 눈에 다니며 피를 훑는 일을 하고 부역에도 나온다고 하였다. (8)주매신이

5) 정운채, 「리몬케년의 서사이론과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1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73면.

6) 문학작품에는 작품서사가 바탕을 이루고, 사람의 삶에는 자기서사가 바탕을 이룬다.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적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59~176면;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제2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10, 361~381면.

7) 결국 작품서사와 자기서사가 모두 서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이 바로 문학과 문학이 곧 사람이라는 관점을 확립한 것이라 하겠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면.

8) 설화 <엮질러진 물>을 분단서사의 차원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로는 강미정의 논문이 있다(강미정, 「영화 <웰컴투 동막골>을 통해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분단서사 극복 전망」,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2011.11, 27면. 28~29면).

하인을 불러 돈을 얼마 주며 가져가서 먹고 살라 하니, 부인이 아니라면서 주매신을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9) 주매신이 물 한 동이를 가져오라고 한 후 길바닥에 부은 후 다시 담으라고 하였다. 부인이 담을 수가 없다고 하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며 서로 이별을 하였다.⁹⁾

위의 이야기에서는 부부관계였던 두 사람이 회복 불가능한 남남이 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비가 오거든 보리를 뜯에다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일을 나갔지만 남편은 책 읽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리는 이미 비에 씻겨 내려간 뒤였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집을 나가고 일을 잘 하는 남자의 후살이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내는 가난의 악순환이 남편의 무심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고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 것이다. 그런데 남편 역시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면 다시는 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장원급제 후 골살이를 하러 수레를 타고 가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을 다시 따르겠다는 아내에게 엮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말하며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 요컨대 자신이 세워 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와는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공유하던 애착심이 어느새 증오심으로 돌변하여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되는 분단서사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제시한 금강산 관광사업 사례에서 남북한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즉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각각 남편과 아내로 치환해 볼 수 있다. 남편이 아내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보리를 비에 씻겨 내려가게 한 실수는 북한이 제한한 지역을 남한의 관광객이 넘어서 실수와 맞닿을 수 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린 사태는 북한의 과격한 대응과 상응한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아내를 거부한 남편의 태도는 북한의 과도한 대처에 맞서 남한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와 연결된다. 물론 이것은 비단 금강산 관광사업에만 대응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이 관계를 운영해 온 또 다른 국면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바꾸어 전개시켜 나갈 뿐 <엮질러진 물>이라는 서사의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협력적 관계를 철회하고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여전히 <엮질러진 물>과 같은 서사를 고수한다면, 남북한이 운운하는 통일의 당위성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결코 화해국면으로 옮겨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엮질러진 물>을 보면 부부사이에서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봄직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엮질러진 물>에 대입해 보는 것이 무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사태를 서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장차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아울러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분단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분단서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수록된 17편의 <엮질러진 물>을 살펴보면 단절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테면 17편 중 일부는 아내가 죽어서 매미가 되어 우는 것으로 이어지는 각편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이 죽어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17편 중 어떤 각편은 아내가 죽어 매미가 되어 전남편의 집에 와서 우는데 ‘너무 모질다’라는 소리를 내며 우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거슬러 남편이 매미를 죽이려 하나 죽이지 못하고 결국 찹도 없고 직장도 잃어 술에 의지하며 살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¹⁰⁾ 17편의 각편 중 아내가 죽은 뒤 매미가 되어 남편 집에서 종일 울었다는 각편이나

9)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설화편)』 2권,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 2184~2185면(『한국구비문학대계』 3-3, 대강면 설화38, 주매신 본처의 후회, 장갑성(남, 70), 458-462면).

10) (1)옛날에 갱피를 훑는 부인이 있었다. 부인은 뇌성이 쳐서 갱피가 다 떠내려가도 남편이 거들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다. (2)남편이 공부를 하여 알성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인을 보고 들에 서 마지기 곡물 피를 훑는 저 마누라 오나가나 갱피 자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3)부인이 남편을 보고 갱피 자루를 내던지고 자신도 데리고 가라면서 말물이나 소물이라도 시켜 달

매미가 된 아내 때문에 남편도 불행해졌다는 각편이 있다는 것은 이 설화의 서사가 부부의 단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단절이 서로에게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엮질러진 물>에 내재된 분단서사는 남한과 북한이 장차 서로를 파괴하고 응징하려 하여 중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음을 환기시킨다. 만약 현재 남한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자부하며 북한을 더욱 궁지에 몰게 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남한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분단서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다음 3장에서는 단절의 문제에서 회복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를 통해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3.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앞의 2장에서는 남북한의 관계를 <엮질러진 물>이라는 서사를 통해 이해해 보고자 했다. 이는 <엮질러진 물>이라는 분단서사가 현재 남북한의 관계에 잠재되어 있어 장차 회복 불가능한 단절 상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불행을 끼칠 수 있음을 진단해 본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에 대한 논의가 공허한 구호가 아닌 진정성을 담보한 실천지(實踐智)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한의 문제가 <엮질러진 물>과 같은 결말로 치닫지 않으려면 이제 <엮질러진 물>을 넘어서는 서사를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표문에서는 <엮질러진 물>과 같은 서사구조를 보이는 서사를 찾되, <엮질러진 물>과는 다른 선택을 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서사를 찾고자 했다.¹¹⁾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구렁덩덩 신선비>이다. <구렁덩덩 신선비>를 <엮질러진 물>과 비교하여 <엮질러진 물>의 서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된다면, <엮질러진 물>의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 남북한의 집단적 자기서사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렁덩덩 신선비>의 줄거리를 제시해본다.

(1)옛날 한 부부가 늙도록 아이가 없어 정성을 다해 백일기도를 올렸다. (2)어느 날 부인이 고추밭을 매다가 소변을 보았는데, 그 안에 실뱀이 들어간 뒤 태기가 생겨 구렁이를 낳았다. (3)뒷집에 사는 세 딸이 그 구렁이를 봤는데 첫째와 둘째는 침을 뱉어 뱉은 뒤 달아나 버렸고, 셋째는 구렁덩덩 신선비가 나섰으며 귀여워하였다. (4)구렁이는 노부부에게 뒷집 셋째 딸한테 장가를 가겠다고 고집했다. 노부부는 할 수 없이 뒷집에 가 청을 하였는데 셋째 딸은 흔쾌히 허락을 했다. (5)혼인 후, 구렁이는 셋째 딸에게 물 한 동이와 장 한 동이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 속에 들어갔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나온 구렁이는 인물이 흰 남자가 되어 있었다. (6)남자로 변한 구렁이는 공부를 한 뒤 과거를 보러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 자기가 벗은 허물을 셋째 딸에게 주며 잘 간수하라고 했다. (7)심술이 난 두 언니들은 동생에게 뜨거운 팔죽을 쑤어 갖다 주면서 실수로 신랑의 허물을 그 속에 빠트리게 했다. (8)그 뒤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자, 셋째 딸은 머리를 깎고 중 행

라고 하였다. 남편은 말뚝이도 종이 하고 소뚝이도 종이 한다고 하였다. (4)남편이 깨를 한 되를 주면서 땅에 흠어서 젓가락으로 다 주워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5)부인이 깨 한 개를 줘다가 갱피 자루도 던져버리고 남편을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애가 타서 죽어 매미가 되었다. (6)남자가 첩과 아들을 데리고 자고 있었는데, 매미가 벽에 와서 남편에게 모질다면서 울었다. 매미가 오줌을 찢끔 싸면서 꽃도 떨어지고 네 직장도 떨어지면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마찬가지로 했다. 또 매미는 짙 석단 적서놓았다가 오장천 만들어서 각설이 타령이나 해 보라고 하였다. (7)남자가 매미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 얼굴에 오줌을 찢끔 싸고는 도망 가버려서 죽이지 못했다. (8)남자가 직장도 떨어지고 첩도 가고 짙 석단을 이어서 오장천을 만들어 각설이 타령이나 하고, 구경 나온 술장사 집에 들어가 술로 배 채우며 불쌍하게 되었다고 한다(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설화편)』 2권, 도서출판 문학파치료, 2168(『한국구비문학대계』 7-4, 120-121면, 대가면 설화5, 매리이(매미) 이야기, 이태순(여, 65)).

- 11) 이와 관련된 문학치료의 개념은 서사의 다기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서사구조의 작품에서 저마다 다른 결말과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서사의 분기점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서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정운채, 「서사의 다기성(多岐性)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 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8.31, 107~138면).

세를 하며 신랑을 찾아 떠났다. (9)길을 가던 중 어떤 사람이 새에게 구렁덩덩 신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셋째 딸은 그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 대신 농사를 짓고 수확해 주면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10)셋째 딸이 대신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주자 그 사람은 산을 넘어가 보라고 했다. 셋째 딸은 그의 말대로 산을 넘었는데 그곳에는 떠 뿌리를 캐 먹고 있는 돼지가 있었다. 셋째 딸이 돼지에게 구렁덩덩 신선부님이 지나가는 것을 못 봤느냐고 물으니, 떠 뿌리를 다 캐서 아랫물에 씻어 윗물에 행귀 주면 대답하겠다고 했다. (11)셋째 딸이 부탁을 들어주니 돼지는 저 산을 넘어가 보라고 했다. 셋째 딸이 다시 산을 넘어가 보니 까치가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었다. (12)까치에게 구렁덩덩 신선부님을 못 봤느냐고 물으니, 구더기를 다 가려낸 뒤 씻어서 주면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13)셋째 딸이 그렇게 하니 다시 산을 넘으라고 했다. 까치의 말대로 산을 넘으니 한양의 어느 큰 저택이 있었는데, 그 집은 구렁덩덩 신선부가 새로 장가를 간 여자의 집이었다. 셋째 딸은 그 집으로 가 시주를 청하며, 시간이 늦었으니 처마 밑에서라도 자게 해 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14)마침, 셋째 딸이 그리운 마음에 밖으로 밝은 달을 보러 나온 구렁덩덩 신선부는 처마 밑에 있던 그녀와 만나게 되었다. 구렁덩덩 신선부는 셋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벽장 안에 몰래 감추어 두었다. (15)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도 검은 세숫물과 깨끗한 밥그릇을 수상히 여기던 종은 의심을 품게 되어 결국 집안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 (16)이것을 알게 된 구렁덩덩 신선부는 모든 식구들을 모아 놓고, 묵은 장과 새로 담은 장중에 어느 것이 맛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선비의 새 장인장모는 신선하지만 날 내가 나는 새 장보다는 감칠맛이 있는 묵은 장이 맛있다고 했다. 그러자 구렁덩덩 신선부는 벽장 속에 숨겨 두었던 셋째 딸을 데려와 과거의 이야기를 밝혔다. (17)이야기를 들은 새 장인장모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셋째 딸에게 높은 나막신을 신고 물 한 동이를 인 뒤, 이것을 엮지르지 않고 십 리 길을 걸어 보라고 했다. 셋째 딸이 그렇게 하여 새 장인장모가 인정을 했다. 구렁덩덩 신선부와 셋째 딸은 화목하게 잘 살았다.¹²⁾

앞서 언급한 바처럼 위의 내용은 셋째딸과 뱀신랑이 만나 부부가 되고 위기를 겪어 이별을 하게 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셋째딸과 뱀신랑이 만나 부부가 되고 뱀신랑이 뱀허물을 벗어 잘 생긴 선비로 탈바꿈하기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둘은, 뱀신랑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면서 자신의 허물을 절대 태우지 말 것을 당부하지만 셋째딸을 시샘하던 두 언니의 꾀에 넘어가 허물을 태우게 되고 결국 신랑이 다시는 셋째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다. 셋은, 셋째딸이 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신랑을 찾아 나서면서 갖은 고생을 겪는 내용이다. 넷은, 셋째딸이 신랑을 만나 자신이 셋째딸임을 확인시킨 후 함께 잘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간추린 위의 내용 중 두 사람이 단절하게 되는 대목은 두 번째 대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신랑이 뱀 허물을 벗고 셋째딸(이하 '색시')에게 허물을 잘 간수하라고 하는 데에서부터이다. 신랑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색시가 허물을 소홀히 대한 점은 분명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엮질러진 물>에서 남편이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당부를 소홀히 여겼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색시가 신랑의 허물을 잘 간수하지 못한 점을 용납하지 못해 아내와 결별하게 되는 신랑의 모습은 <엮질러진 물>에서 남편이 아내의 당부를 듣지 않아 보리가 비에 씻겨 내려가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후처로 시집을 가게 되는 아내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는 모두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여 그동안에 가졌던 애착심이 한 순간에 증오심으로 돌변함으로써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분단서사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구렁덩덩 신선비>에서는 부부관계의 단절 이유가 <엮질러진 물>보다 구체적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각편에서 색시의 언니들이 신랑의 허물을 태우는 위협적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신랑이 두 언니를 무척이나 경계한다는 점 등이 그렇다.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신랑의 약속 불이행이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의 관계 단절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복을 위한 책임은 신랑뿐만 아니라 색시에게도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즉 '본의가 아닌'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신랑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두 사람 간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상대

12)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설화편)』 1권, 288~289면(『한국구비문학대계』 5-3, 동진면 설화1, 구렁덩덩 신선비, 김계남(여, 54), 466-473면).

방과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을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다시 만나려 하지 않는 행동을 취한 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중요한 당부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저버릴 만큼 큰 잘못이었는지는 재고해 볼 일인 것이다.

이처럼 <구렁덩덩 신선비>에는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여 상대방과 단절하려는 배타적 태도가 드러나지만, <구렁덩덩 신선비>가 진정 <구렁덩덩 신선비>일 수 있는 이유는 단절 상태로 고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색시가 돌아오지 않는 신랑을 포기하지 않고 신랑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서고 또 갖은 고생을 겪게 되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혹자는 이 대목을 거론하면서 색시의 어리석음을 논하기도 한다. 이기적인 신랑을 찾아나서는 색시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과연 이러한 신랑을 찾아나설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은 이미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과 단절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분단서사가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엮іл러진 물>과 같은 서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렁덩덩 신선비>의 색시의 모습은 남북한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매우 돋보이는 요소일 수 있다. 즉 신랑이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린 내용까지는 <엮іл러진 물>과 유사하나,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색시의 적극적인 대처에 의해 <엮іл러진 물>과 전혀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색시는 신랑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신랑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난다. 신랑의 거처는 도무지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어느 누구도 쉽게 신랑의 거처를 알려주는 이가 없다. 농부의 일을 도와주고, 돼지의 떠 뿌리를 마련해 주고, 새의 먹이를 잡아주는 일련의 과정들은 신랑을 만나는 것이 매우 고단한 일이고 굉장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오랜 시간의 인내를 통해 간신히 남편을 찾았건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신랑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는 부부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배타성이 발현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대목이기도 하다. 즉 자기 이외의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배우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웬만해선 이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예상되는 우리의 반응은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된 이상 더 이상 신랑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유형의 서사와 같이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를 징치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색시는 놀랍게도 그 집에 들어가 시주를 받으러 가는 척하며 하룻밤 묵기를 청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색시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번 색시의 인내심이 발휘되는데, 그것은 신랑이 자기를 알아봐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해준 <도량넓은 남편>¹³⁾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나 이외의 다

13) (1)예전에 어떤 동리에 윗마을에는 김판서가 살고 아랫마을에는 이판서가 살았다. (2)그런데 판서와 판서끼리 다보니 조정에서도 만나고 동리에서도 서로 자주 만나게 되어 의종게 지내게 되었다. (3)김판서의 아들이 이판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글방에 다녔는데, 이판서의 딸이 초당에 있다가 김판서 아들이 공부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다. (4)김판서 아들 역시 이판서의 딸을 보고는 저런 색시한테 장가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5)일 년 동안 두 사람이 한 번도 고백은 하지 않고 늘 서로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러다가 이판서 딸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6)김판서 아들이 상사병이 걸려 집에 드러눕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 (7)결국 김판서가 아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마음대로 놀다가 실컷 유람을 하고 오라고 했다. (8)아들이 집을 나와 이판서의 딸이 시집 간 곳을 찾아갔는데, 그 집 앞에서 팔죽 파는 할머니를 만나 자신의 수양어머니로 삼았다. 그리고는 수양어머니에게 시집 간 이판서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9)수양어머니가 아들을 여장시켜서 방물장수처럼 꾸미고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10)방물장수로 변장한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의 여자들이 모여서 모두 가져온 물건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11)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안주인 마님이 방물장수에게 젊은 애들은 늙은이하고 자길 싫어하니 혼자 글방에 가서 자는 셋째 며느리와 함께 자라고 했다. (12)여장한 아들과 이판서의 딸이 같은 방에서 둘 다 윗도리를 벗어 놓고 눕게 되었다. (13)그러자 아들이 이판서

른 이에게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내재된 배타성을 극복하는 최고 지점을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즉 관계 지속을 위한 노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신랑은 자신이 비록 다른 여인과 살고 있지만, 그리고 고단한 과정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을 찾아온 색시이기에 그녀를 내치지 않는다. 오히려 반가워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 지경이다. 게다가 뒤늦게 확인되는 것은 신랑도 색시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색시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 색시를 버리고 돌아섰던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색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목은 장이 제 맛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이는 색시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색시를 전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신랑의 서사도 변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구렁덩덩 신선비>가 분단서사를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운채는 의도적으로 물리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덕을 기리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드러낼 때 이를 바로 통일서사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⁴⁾ <구렁덩덩 신선비> 역시 자신의 거부한 남편을 배척하지 않고 화합하고자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그 결과 재결합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통일서사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엮일러진 물>은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로 옮겨갈 때 회복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상에서 분석된 <구렁덩덩 신선비>의 내용을 남북한의 정세에 대입시켜 이해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사례를 <엮일러진 물>과 서사 비교를 해볼 적에, 남한은 남편에 북한은 아내에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엮일러진 물>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신랑을 북한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 남한은 장차 색시와 같은 서사가 요구된다. 여기서 색시의 서사에 대입해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은 색시의 서사가 장차 남한이 지향해야 할 서사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그 서사로 옮겨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색시의 언니는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제3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과의 통일을 저해하는 이유를 제3국 탓으로 돌리거나 북한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여전히 <엮일러진 물>의 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다.

딸을 어루만지면서 귀에다 대고 자신이 김판서의 아들이라고 했다. 서로 그리워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루 저녁을 유쾌하게 자고, 다시는 오지 않기로 약조를 했다. (14)닷새가 지나자 김판서 아들이 이판서 딸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또 찾아갔는데, 이판서의 딸 역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15)그런데 그 집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판서 딸의 큰 아주머니가 보아하니 방물장수가 분명 남자 같았다. 그리고 방물장수가 자기 막내 제수와 주고받는 눈짓을 보니 분명 좋아하는 사이임에 틀림없었다. (16)큰 형이 이판서 딸의 남편인 자기 동생을 불러서, “애! 너 제수씨 방에 늘 와서 자는 여자가 남자다. 어떡하니.”라고 말해주었다. (17)그러자 이판서 딸의 남편이, “형님 걱정할 것 없어요. 뭐 깊은 규중 속에 있는 놈을 그래 까짓거 죽여서 갖다 어느 토굴에 묻어 버리면 누가 알아요?”라고 했다. (18)형과 아우가 방물장수로 분한 김판서의 아들을 죽이기로 했는데, 아우가 자신이 먼저 방에 들어가 확인해 보겠다고, 형은 칼을 들고 방 문 밖에서 지키고 서 있으라고 했다. (19)그날 밤 형과 아우가 칼을 준비하여 이판서 딸과 김판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다. 형은 약속대로 방문 밖에서 기다리고 이판서 딸의 남편이 먼저 방에 들어갔다. (20)남편이 들어가니 방안에서 잠을 자던 두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밖에 서있는 형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물었다. “옷 좀 벗으시오.” 그리고는 더욱 큰 소리로, “아휴, 실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꼭 남잔 줄 알았더니 여자가 분명하니 잘못 봤시우.”라고 하는 것이었다. (21)아우가 밖으로 나와 형에게, “형님! 생사람 여럿 죽이겠우. 그 뭐하는 기여?”라고 했다. 그리고는 “여자들끼리 자니 나는 글방으로 간다.”며 가버렸다. (22)여자는 자기 남편의 아량으로 목숨을 건지자 큰 후회를 하면서 남편에게 더욱 잘하고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 (23)김판서의 아들도 모든 것을 후회하고는 그길로 나와 공부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24)그 뒤에 김판서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갔다가 이판서 딸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25)둘 다 모두 과거 급제를 하여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서로 말은 안하지만 늘 도와주고 챙겨주었다. (26)두 사람이 각각 영의정과 우의정이 되어 서로 집안끼리 흥왕하며 아주 잘 살았다(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설화편)』 1권,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 면(『한국구비문학대계』 4-3, 온양읍 설화19, 신랑의 아량, 조상목(남, 79), 57-65면).

14) 정운채, 「정몽주 암살과 복권에 대한 서사적 이해-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하여-」,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2012.5, 399면.

그런 점에서 북한과의 불안한 관계 속에서 남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는 남한이 앞으로 어떤 서사를 활성화시키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엮일러진 물>과 같은 서사가 작동된다면, 장차 회복 불가능한 단절은 물론 서로를 저주하며 서로에게 불행을 야기하는 결말이 예측될 뿐이다. 그러나 남한이 <엮일러진 물>에서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로 방향 선회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물론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고, 오랜 시간의 인내도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집단적 자기서사가 <구렁덩덩 신선비>와 공명하게 된다면, 이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노력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노력에 따라 북한의 집단적 자기서사도 공명을 일으켜 마음을 열 수 있는 미래 또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설화 <구렁덩덩 신선비>를 통해 본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탐색』에 대한 논평문

한순미*

설화, 다시 읽기

설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대의 역사와 호흡하면서 ‘다시 읽기’ ‘겹쳐 읽기’ ‘다시 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맥락으로 변형 혹은 생성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에 설화를 다시 읽고 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의 원형을 재발견하는 데에 머물지 않는 적극적인 작업이 된다. 설화 속의 다기한 분기점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분단현실의 문제점과 그 극복 가능성을 시도하려 한 것은 문학치료학과 통일인문학의 주요한 접점이자 지향점인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진지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발표문은 그동안 “‘사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간과되어 왔다는” 반성과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출발하여 “소통, 치유, 통합”이라는 사람 중심의 통일 방법론을 모색하려고 하는” 통일인문학의 큰 뜻을 열기 위한 탐색의 한 과정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오랜 세월 구전되어온 설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어 온 만큼 장차 분단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함축되어 있다.

저 먼 설화 속에서 분단 극복의 대안서사를 찾고, 우리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은 “단지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념의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방법론에 공감을 표하며, 글 속의 논점들에 대해 몇 가지 물음들을 덧붙여기는 것으로 토론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분단 트라우마 : 상처의 증증

분단서사라는 개념을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남한의 분단 상황을 지속시키는 서사로만 국한하지 않으려 한” 것은 분단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현실을 두루 진단하고 성찰하는 데에 유효한 시각을 준다. 분단서사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서사로서 전쟁과 분단이라는 외적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 경험에 의하여 자극받는 것”(강미정)이며, 또 그것을 “애착심이 증오심으로 돌변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서사”(정운채)가 결합된 양상으로 파악함으로써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대립하는 곳곳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보편적인 단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단 트라우마는 간결하게 환원할 수 없는 특수성과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보편성이 결합된 상처라는 점에서 간단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분단 트라우마는 그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함께 파악하지 않으면 남과 북, 혹은 좌와 우의 이원대립적 구도 안으로 좁혀질 염려가 있다.

* 전남대 감성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 가족 내에 좌우의 이념을 지닌 사람들이 동거하고, 손가락질 하나로 서로를 학살할 수 있었던 마을 공동체의 사례만 들더라도, 분단 트라우마는 중층적인 맥락이 결집된 상처 자국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족, 마을 공동체, 집단과 집단, 개인과 국가가 서로 얽혀서 형성된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사'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런 과정의 하나로 생각된다.

부부서사와 분단서사, 점점과 간극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발표문에서는 남북한의 단절 상황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의거하여 '부부서사'를 남과 북의 대치 국면과 소통 단절, 나아가 단절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로 삼고 있다. 남과 북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바꾸어 보면서 단절에서 회복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통해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설화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누구를 서사의 초점으로 설정하고 읽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셋째딸과 뱀신랑이 만나 부부가 되고 뱀신랑이 뱀허물을 벗어 잘 생긴 선비로 탈바꿈하기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둘은, 뱀신랑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면서 자신의 허물을 절대 태우지 말 것을 당부하지만 셋째딸을 시샘하던 두 언니의 꾀에 넘어가 허물을 태우게 되고 결국 신랑이 다시는 셋째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다. 셋은, 셋째딸이 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신랑을 찾아 나서면서 갖은 고생을 겪는 내용이다. 넷은, 셋째딸이 신랑을 만나 자신이 셋째딸임을 확인시킨 후 함께 잘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발표문)

<구렁덩덩 신선비>는 노부부-구렁이-신랑-언니들-셋째딸-신랑, 이런 순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조금씩 바뀌면서 전개된다. 발표자는 '셋째딸(색시)'을 중심으로 그녀가 갖은 고생을 겪고 신랑을 다시 만나 화합해가는 과정으로 읽고 있다. 부부 사이가 애착심에서 증오심으로 바뀌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색시가 신랑의 당부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신랑의 당부를 소홀히 여기는 색시의 태도가 결국 서로의 사이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야기의 초점을 신랑에서 색시로, 다시 색시에서 신랑으로 교차시켜 본다면, 부부 관계가 단절된 원인을 색시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애착심이 증오심'으로 돌변한 단절의 상황에서 둘 사이의 화합 혹은 화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치유서사'는 새롭게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잘못된 한쪽의 지속적인 노력보다 서로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한 '용서와 화해'의 서사가 더 큰 매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분단 상황은 '실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어긋남,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 더욱 커진 '오해와 불신'의 벽이 적지 않다. 더불어 '언니들의 꾀'와 같은 제3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도 남의 탓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분단의 경험들은 단지 남/녀, 부부서사로 국한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복잡한 국면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매개서사로써의 집단서사: 단절에서 회복으로

서사의 초점을 색시가 아니라 색시와 신랑의 상호 연관 속에서, 그리고 언니들의 피임과 같은 3자의 개입을 덧붙여 중층적으로 이해할 때 색시가 신랑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서고 또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인정’ 받으려고 하는 대목은 그 깊은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더욱 잘 이해된다. 그리고 그 ‘고생’의 길은 그만큼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로 읽힌다. 이러한 해석의 방향은 발표문에서 적고 있는 듯이, 색시가 겪는 “일련의 과정들은 신랑을 만나는 것이 매우 고단한 일이고 굉장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는 해석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아울러 “이제는 오히려 신랑이 색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즉 신랑의 서사도 변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이 <구렁덩덩 신선비>가 분단서사를 극복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간의 신뢰 회복을 통한 소통과 치유의 가능성, 여기에서 ‘통일서사’의 한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엮일러진 물>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신랑을 북한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 남한은 색시와 같은 노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색시에 대입해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은 장차 남한이 취해야 할 서사이지 아직 그 서사로 옮겨갔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북한과의 불안한 관계 속에서 남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는 남한이 앞으로 어떤 서사를 활성화시키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엮일러진 물>과 같은 서사가 작동된다면, 장차 회복 불가능한 단절은 물론 서로를 저주하며 서로에게 불행을 야기하는 결말이 예측될 뿐이다. 그러나 남한이 <엮일러진 물>에서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로 방향 선회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발표문)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서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문학치료학에서 ‘서사’라는 용어를 “텍스트의 차원이 아니라 텍스트를 떠받치고 있는 저변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정운채)는 점에 착안하여 “그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서사”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기서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의식이다. 발표문에서는 <엮일러진 물>에서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통일서사를 구성해 나가는 일은 그리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일한국을 위한 집단서사를 구축하는 일은 당위적인 요청이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서사를 구축할 것인가. 통일서사는 부부서사 이외에도 형제서사, 자매서사 등과 같이 많은 가족서사를 매개로 할 때 더 건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설화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을 통일서사의 씨앗들을 더 엿듣고 싶다.

우리는 1948년 여순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 안의 불안과 공포가 어떤 외부의 특정한 대상을 향해 투사되면서 학살의 명분을 획득한 ‘적’, 즉 ‘빨갱이의 탄생’(김득중)을 본 적이 있다. 이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듯이, 서사의 큰 줄기에 달라붙은 ‘감정과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통일서사를 마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북한을 어떤 감정과 이미지를 통해 떠올리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불안과 공포는 어떤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모든 질문은 결국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던지고 있는 물음들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계기로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고지전>을 통해 본 분단서사와 그 극복 가능성 전망

방유리나*

<차례>

1. 서론
2. 영화 <고지전>에 나타난 분단서사
 - 2.1. '고지전'의 생존자
 - 2.2. 12시간의 전투와 분단서사
3. 분단서사의 실체와 극복 가능성
 - 3.1. 오늬의 힘 겨루기
 - 3.2. 오늬의 힘 합치기
4. 결론

1. 서론

영화 <고지전>은 ‘한국 전쟁영화의 또 다른 성취’, ‘가장 높은 고지를 점령한 한국전쟁영화’, ‘정서와 테크닉 모두 한국전 영화의 만족스런 진화’¹⁾ 등의 평가를 받으며 국내에 개봉했다. 영화 <고지전>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그런데 <고지전>은 기존의 전쟁 영화, 분단 영화와는 그 맥을 달리한다. 단순히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액션 블록버스터를 지향하지 않는 블록버스터 영화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를 쓴 박상연 작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하다가 정전이 되고, 그럴 때의 당혹감에 끌려 그 부분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했다.²⁾ 더불어 <고지전>에서는 미화된 장면이 없다. 아름답고 처연하게 특정 감정을 붙잡아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대신 하나의 일처럼, 늘상 있던 생활의 일부처럼 하나둘씩 ‘절명’³⁾한다. 그래서인지 <고지전>은 전쟁영화의 새 흐름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하고 말았다.⁴⁾ 평론가들의 입장에서는 <고지전>을 비롯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위기라고 했었다. 블록버스터에 기대하는 바를 한편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센 액션, 전쟁의 스펙터클, 볼거리가 광활한 그런 영화. 하지만 장훈 감독은 이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 건국대학교 강사

- 1) <고지전>에 대한 『10아시아』 이지혜 기자, 『씨네21』 강병진 기자, 『씨네21』 주성철 기자의 한 줄 평.
- 2) “정전 협정만 2년 넘게 질질 끌다 보니 군인들이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된 거다. 그 당혹감에 강하게 끌렸다.” (박해은, 「[고지전①] 박상연 작가, “역사의 구멍을 채우는 쾌감”」, 『무비위크』, 2011.07.04.)
- 3) <고지전>의 시나리오에는 병사들이 죽는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 ‘절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 자리에 쓰러져 절명, 김수혁 절명, 오기영 그대로 절명, 신일영 절명 등. 이러한 ‘절명’이란 표현에 대해 박상연 작가는 “내가 의도한 건 사무적인 죽음이었다. 감정 없이 너무나 사무적인 죽음.”이라고 말했다. (박해은, 「[고지전②] 박상연 작가, “인간이 악한가? 전쟁이 악하지!”」, 『무비위크』, 2011.07.04.)
- 4) <고지전>은 장훈 감독이 연출한 것으로, 국내에는 2011년 7월에 개봉했다. 장훈 감독은 <영화는 영화다>로 데뷔하여 <의형제>로 관객수 550만명을 넘어선 이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작이었던 <고지전>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게다가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 소설인 <DMZ>의 작가 박상연이 <고지전>의 시나리오를 담당했기에 기대치는 더 높았다. 하지만 <고지전>은 관객수 290만명을 기록, 손익분기점인 300만명을 넘지 못했다.

전쟁영화에서 택하는 트라우마의 치유나 전우애를 강조하는 휴머니즘적 감동과 달리, <고지전>은 잔혹함과 허무함, 씁쓸한 연민을 자아내는 길을 선택했다. <고지전>은 남북 분단의 비극을 다룬다고 하면서도 그 결말은 남북이 평온하게 잘 사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끝났는지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는 박상연 작가의 말처럼 <고지전>의 핵심은 어떻게 끝나느냐를 보여준 12시간 전투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객의 평은 극과 극이었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끝내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그 전투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이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12시간 전투를 그려낸 30분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럼에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녹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지점은 금기화된 어떠한 욕망이 시각적으로 재현됨으로써 야기된 감정들은 아닐까.⁶⁾ 그리고 이는 곧 우리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근원적인 대결의식, 경쟁을 부추기고 단절을 조장하는 분단서사와 맞닿은 지점이지 않을까. 분단서사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분단 상황을 다룬 것이 아니다. 분단서사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을 자극시키는 특정 상황과 맞닿았을 때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고지전>이 수용되는 그 기저에는 전쟁 상황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외에 사람들 안에 자리한 분단서사가 활성화되어 영화의 서사에 반응하게 되는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여 <고지전>의 서사와 조용하게 되는 우리의 분단서사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고지전> 내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 및 분단서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분단서사의 실체와 극복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영화 <고지전>에 나타난 분단서사

<고지전>은 방첩대원이던 강은표가 악어중대로 진출되어 인민군과 싸우다가, 전쟁이 완전 종료된 시점에서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먼저 <고지전>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1) 1953년 1월. 판문점에서 진행 중이던 휴전 협상은 영토 문제로 인해 또 다시 연기되었다. 강은표는 인민군과

- 5) 장훈 감독의 전작 <의형제>에서는 북에 가족을 두고 남파한 공작원의 상황과 자식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된 상황을 연결시키며, 이들이 의형제처럼 공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린 바 있다. <의형제>가 분단 현실에서 꿈꿀 수 있는 ‘환상’을 말한 것이었다면, <고지전>은 그와 달리 냉혹한 ‘현실’의 문제로 돌아온 것이다.
- 6) 대중적인 영화들은 시대적, 문화적 금기의 경계선 상에서 그러한 금기를 지키고자 하는 순종적 태도와 위반코자 하는 욕망을 넘나들면서 쾌락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박지연, 「영화에서의 재현의 폭력」, 『비폭력연구』 3, 경희대학교비폭력연구소, 2010, 75~102면을 참조할 것. 이러한 것을 문학치료학적으로 설명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한 집단서사의 허용치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서사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자기서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사간 조응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7) 정운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특징을 갖는 서사에 대해 분단서사로 명명하기도 하였다.(정운채, 「정몽주의 암살과 복권에 대한 서사적 이해 : 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하여」,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386면 참조.) 또한 강미정은 분단서사와 실체 현실 문제에 대해 ‘우리 삶에는 오래전부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관계를 단절시킬 것인지,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선택과 관련된 서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단절이 강하게 점철된 내용이 분단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가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 분단서사가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다.(강미정,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분단서사 극복 전망」,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27~28면 참조.)
- 8) 영화 <고지전>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전개된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제외시키고, <고지전>에서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강은표(신하균 분)를 중심으로 줄거리 정리를 하였다.

내통한 사람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고 악어중대로 갔다. (2) 강은표는 악어중대에서 친구 김수혁과 재회했다. 2년 전, 강은표는 김수혁과 함께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그 뒤로 소식을 알 수 없었다. (3) 강은표는 악어중대와 함께 애록고지를 재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애록고지 14병커에서 국방군과 인민군이 물품을 주고받는다는 사실과 그 주동 인물이 김수혁임을 알게 되었다. (4) 강은표는 주변을 조사하던 중, 인민군 저격수 차태경을 우연히 마주쳤지만 민간인 여자로 알고 그냥 보내주었다. (5) 애록고지는 몇 차례 주인이 또 바뀌었다. 강은표와 김수혁, 남성식 등은 14병커에서 인민군이 넣어진 음식과 물품을 나눠 가졌다. 그 안에는 인민군이 남측의 집에 보내는 편지와 사진이 있었는데, 김수혁은 사진 속 여자가 예쁘다면서 사진을 가져갔다. 사진 속 여자는 강은표가 개울가에서 만난 여자, 곧 차태경이었다. (6) 고지전이 계속되던 중, 김수혁이 차태경을 잡기 위해 대원들을 데리고 수색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성식이 총에 맞았지만 김수혁은 한 발 더 쏘아 차태경을 잡는다며 그냥 내버려뒀다. 결국 남성식은 죽고 차태경은 부상을 입었다. 강은표는 차태경을 붙잡았지만 전에 우연히 만난 여자임을 알고 죽이지 못했다. (7) 강은표는 남성식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둔 김수혁에게 분노했다. 김수혁은 남성식을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전쟁이며, 그동안 수많은 남성식이 죽어갔다고 말했다. (8) 한편 악어중대의 한 병사가 신일영 대위에게 총상을 입고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년 전 포항에서 신일영이 아군 일부를 죽여 탈출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떠올랐던 것이다. (9) 애록고지를 사수하라는 중대장의 무리한 명령에 김수혁은 중대장을 쏘서 죽였다. 신일영은 중대장이 되어 대원들을 데리고 후퇴했다. (10) 김수혁은 차태경을 발견했지만 얼굴을 확인하고는 머뭇거렸고, 결국 차태경의 총에 맞아 죽었다. (11)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는 방송이 나왔다. 개울가에서 악어중대와 인민군이 마주쳤지만 서로 잘 가라면서 보내주었다. (12) 잠시 후 연대장이 와서 휴전 협정의 효력은 12시간 후부터 발휘되니, 그 동안 총격전을 펼치라고 명했다. 인민군 측에서도 12시간 총격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13) 안개 속에서 대치하던 악어중대와 인민군은 전선 야곡을 합창했지만, 안개가 걷히자 서로를 향해 돌진해 죽이기 시작했다. (14) 강은표와 차태경은 다시 마주치게 됐고, 결국 강은표는 차태경을 찔러 죽였다. (15) 양측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강은표와 현정운은 14병커에 왔다가 마주쳤다. 무전기에서 정전 협정에 따라 모든 전투 행위를 중단하라는 방송이 나왔고, 현정운은 한참을 웃더니 숨이 다해 죽었다. (16) 강은표는 병커 밖으로 나왔다. 날이 밝은 애록고지에는 병사들의 시신이 가득 했고 강은표는 홀로 애록고지를 빠져나왔다.

영화는 크게 네 부분의 내용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인민군과의 내통자를 조사하기 위해 악어중대에 간 강은표가 김수혁과 재회하고 애록고지 14병커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의 부분으로 단락 (1)~(4)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김수혁과 악어중대원들에게 분노하던 강은표가 그들의 상처인 포항 사건을 알게 되기까지의 부분으로 단락 (5)~(8)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악어중대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김수혁이 죽고 남북 휴전이 되기까지의 부분으로 단락 (9)~(11)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마지막 12시간 전투를 벌인 뒤 강은표 혼자 살아남게 되기까지의 부분으로 단락 (12)~(16)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전개 내용	해당 단락
①	강은표가 악어중대에서 김수혁과 재회하고 애록고지 14병커에 대해 알게 됨	(1)~(4)
②	강은표가 악어중대원들 공동의 상처인 포항 사건을 알게 됨	(5)~(8)
③	김수혁이 죽고 난 후 남북 휴전 협상이 체결됨	(9)~(11)
④	12시간 전투 이후 강은표 혼자 살아남음	(12)~(16))

여기서는 <고지전>의 서사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택하려고 한다. 하나는 <고지전>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의 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지전>이라는 작품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맺는지를 보는 것이다.

2.1. '고지전'의 생존자

영화 <고지전>에는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물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는 '고지전'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다. 강은표가 악어중대로 간 애초의 목적은 첩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결국 끝까지 남아서 적을 죽이고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되었다. 악어중대에 가장 이질적이었던 존재가 마지막에는 제일 동화되어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강은표가 보이는 변화의 지점에는 김수혁, 차태경, 현정윤 세 인물이 놓여있다. 이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은표가 목격한, 혹은 갈등을 겪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강은표와 김수혁의 관계 : 군법 적용의 불가

김수혁은 강은표의 대학 동기이자, 2년 전 전투에서 헤어진 뒤 소식을 모르던 친구였다. 그런데 김수혁은 이등병에서 대위가 되어 악어중대의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강은표가 놀랐던 것은 김수혁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2년 전의 김수혁은 전장에서 싸우기보다 십자기를 붙잡고 '살려주세요'를 연발하고, 은표를 끊임없이 찾는 '어리버리'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수혁은 '죽여주세요'를 기도하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다.

김수혁 옛날엔 살려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죽여 주세요...해.

강은표 누굴?

김수혁 누구든...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날꺼니까.

강은표 (본다).....⁹⁾

친구를 만난 것에 대한 강은표의 반가움은 이내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건 강은표의 애초의 목적과 연결된다. 애록고지의 14병커에서 인민군과 악어중대원들의 서신 내지는 물품들이 오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인민군과의 교류는 '죄'인 관계로 강은표는 그들을 처리해야 했지만, 우선 묵인했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알아낸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김수혁의 말에도 강은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김수혁이 '정당성'이라 주장한 것 안에는 '상관 살해, 명령 불복종, 적과 내통'과 같은 군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적군이 아닌 아군에 대한 보호, 사람들의 따스한 감정을 다독여주는 모습은 김수혁을 비롯한 악어중대원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강은표는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② 강은표와 차태경의 관계 : 사람 혹은 적군을 대하는 태도

강은표와 차태경의 관계 또한 눈여겨볼 만 하다. 차태경은 강은표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강은표와 차태경의 직접적인 만남은 네 차례 이루어진다. 처음의 만남은 강은표가 차태경의 실체를 몰랐을 때이다. 그때의 강은표는 차태경을 우연히 개울가에서 마주쳤지만 민간인으로 알고서 그녀를 보호하고자 했다. 위험한 곳이니 이곳엔 오지 말라면서, 미군에게서 받은 초콜릿까지 주면서 가도록 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은 강은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차태경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쓰러지고 2초 뒤에 총소리가 난다고 해서 '2초'라는 별명이 붙은 인민군 저격수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강은표는 쉽게 차

9) <고지전> 시나리오, 23면. 이후 시나리오 인용시 '시나리오'라 표기하고 인용 면수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태경을 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친구 김수혁을 차태경에게 잃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때에도 강은표는 차태경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는다. 이미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방송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김수혁의 품에 있던 차태경의 사진을 전해주는 것으로 슬픔을 전할 뿐이다. 마지막 만남은 최종 격전지인 애록고지의 전장에서이다. 그전까지와 다르게 강은표는 차태경을 칼로 찔러 죽인다. 죽이는 그 순간에 비록 시선을 피하지만, 강은표 또한 ‘생존’을 위해서 차태경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③ 강은표와 현정윤의 관계 : 싸움의 이유와 전쟁의 끝

강은표와 현정윤은 크게 두 번의 만남을 갖는다. 첫 번째는 현정윤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때이다. 그때 현정윤은 강은표와 김수혁을 비롯한 국방군 포로들을 풀어주었다. 전쟁은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며, 너희들이 지는 것은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 했다. 그로부터 3년 뒤, 모두가 다 죽어나간 애록고지에서 강은표는 현정윤에게 되묻는다. 왜 싸우느냐고. 그런데 <고지전>에서 서로의 대결 상황은 처음 시작이 어찌했느냐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왔. 2년 넘게 대치된 고지쟁탈전에서 대결의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무의미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강은표에게 ‘너무 오래 돼서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현정윤의 대답은 의미 없는 대결, 그럼에도 하고 있는 경쟁, 승자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영화는 강은표가 홀로 일어나오며 최후의 승자인 것으로 그렸다. 표정은 암울하지만 결국 고지의 주인이 된 강은표가 애록고지를 내려왔다. 그런데 시나리오에서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지 끝을 맺지 않았다. 영화에서 전투 중단 방송 후 현정윤이 죽은 것과는 다르게 강은표와 현정윤은 방송 후에도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대치한다. 우리들의 전쟁이니 우리가 끝내겠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아직도 고지를 향한 쟁탈은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애록(AERO-K)은 여전히 분단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KOREA)이기도 하다.¹⁰⁾ 내면의 전쟁, 개개인들의 전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2. 12시간의 전투와 분단서사

강은표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그와 같은 입장이 되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 관객 또한 ‘고지전’을 관찰했을 뿐이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동참해야 하는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그 대목은 단락 (12)에서 (16)에 이르는 마지막 12시간 전투이다. 사실 영화는 단락 (11)까지의 내용에서 끝내도 괜찮았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공식적인 휴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협상이 체결되기까지 수많은 남북의 병사들이 죽어나갔고, 더군다나 김수혁은 그 자신이 잠깐 마음을 품고자 했던 차태경의 총알에 의해 내장까지 쏟아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김수혁의 죽음은 더운 감정을 좀처럼 내보이지 않던 <고지전>에서 유일하게 긴 슬픔을 이끌어낸 대목이기도 했다. 심지어 모르핀을 맞으며 감정을 느끼려 하지 않던 신일영도 김수혁의 죽음 앞에선 주사기를 쏘지 않고 그동안의 참아온 눈물을 다 흘렸다. 그런 뒤 개울가에서 몸을 씻고 집에 갈 준비를 하던 악어중대원들은 북측의 병사들과 마주쳤지만 그냥 보내주기까지 한다. 마치 이 전쟁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그동안 다들 애썼다는 듯이. 게다가 강

10) Q: 예전에 ‘애록 고지’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나? A:알고 물어보는 건가?(웃음) 이미 인터넷에 영화를 본 관객들이 ‘애록의 비밀’을 올렸다고 하던데. 미리 알려주면 영화의 재미를 떨어뜨릴 것 같다. ‘애록’이라는 이름에 중의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귀엽히는 정도로 하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새로운 이름이 보일 것이다.(웃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박혜은, 「[고지전②] 장훈 감독, “애록 고지의 비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비위크』, 2011.07.22)

은표는 김수혁이 간직하고 있던 차태경의 사진을 김수혁을 죽인 장본인 차태경에게 돌려준다. 만약 이 상황에서 영화가 마무리됐다면 비록 동족끼리 싸웠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며, 분절된 상태라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훈훈한 결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는 비공식적인 기록, 오전 10시부터 협정문의 효력이 발휘되는 오후 10시까지의 12시간에 대한 전투를 담았다. 12시간 전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화 전체의 서사는 달라진다. 이는 곧 영화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서사의 갈림길¹¹⁾이기도 하다. 이때 감독이나 제작자는 의도적으로 12시간 전투를 선택했다.¹²⁾ 그리고 그 순간 영화에서는 ‘관찰자’로 있던 강은표마저 ‘참여자’로 만들어버렸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그야말로 ‘고지전’이 되면서, 이제까지 따스한 온정을 가지고 있던 그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 강은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옳고 그름에 따라, 선악의 논리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강은표 또한 ‘고지’에 들어서서 싸우게 되면서는 바뀌게 된다. 본인이 구축해놓은 이해의 틀거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은표는 애록고지를 점령한 최후의 1인이 되었다. 격한 리얼 다큐 버라이어티의 서바이벌에서 혼자 살아남은 것이다.

말하자면 12시간 전투의 설정은 강은표 내면에 있던 폭력성, 상대와의 대결을 통해 고지를 점령한 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시나리오의 영어 제목이 ‘the Front Line’이 아닌 ‘the Lord of the Field’라는 점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전선’은 싸움터만이 아닌 ‘전선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자’를 판별하는 공간 또한 되는 것이다. ‘악어중대’라고 하는 이름 또한 이를 짐작케 한다. 12시간 전투가 시작되기 전, 중대장 신일영은 사기가 떨어진 대원들을 북돋기 위해 악어의 습성에 대해 말을 한다.

신일영 악어는 50개정도 알을 낳는다. 그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짐승한테 먹힌다. 그리고 간신히 알에서 나온 새끼악어 대부분이 또!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고 고작 한두 마리가 어른 악어로 자란다.

모두들

신일영 근데.. 근데 말야.. (갑자기 목소리 높이며)그 한두 마리가! 50개의 알 중에 살아남은 고작 한두 마리가!! 늪을 지배한다!! 그게 악어다!

모두들 (뜨겁게 보며).....

신일영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다. 이렇게 전선이 교착된 그 2년 6개월 동안에 3백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가 악어구! 우리가 전장을 지배한다!! 알겠나!!

모두들 (뜨겁게 보며)에!!

신일영 누가 가장 강한가!

모두들 악어!!

신일영 누가 가장 독한가!

모두들 악어!!

신일영 살아서 집에 가자!!¹³⁾

11) 서사가 시작되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사의 방향은 달라져 전혀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 따라 가느냐, 숨어버리느냐의 문제 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갈림길에서 결정된다.

12) 이에 대해 장훈 감독은 영화 속 ‘병사들’이 느꼈을 감정과 ‘관객’이 느낀 감정이 동일하기를 원했다고 했다. “휴전 이후 냇가에서 남북한 병사가 만나서 “잘 가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실질적으로 영화의 엔딩이라고 본다. 다시 마지막 열두 시간 전투를 지시받은 상황에서 영화 속 인물과 관객이 받는 느낌이 동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싸워야 해?’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하고자 감정의 호흡을 조절했다. 남북한 군사가 ‘전선야곡’을 부르고 나서는 그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차갑게 전투에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렸다.”(박혜은, 「[고지전②] 장훈 감독, “애록고지의 비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비위크』, 2011.07.22.)

13) 시나리오, 135~136면.

‘전장을 지배’하는 ‘악어’가 되는 것. 이는 악어중대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이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 된다. 이처럼 <고지전>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며, 누군가 한 쪽이 죽어야만 진짜 끝이 날 수 있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는 곧 상대방과의 단절을 조장시키며 그에 따른 경쟁을 합리화하는 분단서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고지전>에 나타난 분단서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지전>과 서사적으로 유사한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는 설화들과 견주어 보고자 한다.

3. 분단서사의 실체와 극복 가능성

앞 장에서 <고지전>은 적이 된 두 집단이 공존하지 못하고 끝내 한 집단이 소멸할 때까지 대결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작품으로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집단이 원래는 같은 집단에 속했다는 것이며,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두 존재가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대결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오늬 힘내기’ 유형의 설화는 함께 살펴볼 만하다.

‘오늬 힘내기’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신화적 접근을 통해 신들의 인격화 과정과 관련된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두 명의 신이 존재할 수 없으며, 체제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¹⁴⁾ 물론 애초에 이 둘은 하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되묻는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¹⁵⁾ ‘오늬 힘내기’ 유형의 설화는 남매가 특정 내기를 통해 서로의 능력을 시험하고 여기서 지는 사람은 죽는 이야기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지속 가능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분리되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여기는 분단서사의 논리가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대결의 과정이 서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오늬 힘내기’와 관련된 설화들이 어떤 식으로 대결을 다루는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고지전>의 분단서사가 갖는 의미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3.1. 오늬의 힘 겨루기

‘오늬 힘내기’와 관련하여 『문학치료 서사사전』에는 <오늬 힘내기와 동생 편 든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설화가 10편, <오늬 힘내기와 동생 걱정하 누이>라 할 수 있는 설화가 8편, <오늬 힘내기와 미륵이 된 누이>라 할 수 있는 설화가 3편씩 정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남매의 대결을 통해서 승자를 가리고 있는데, 승패의 과정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살펴보려는 설화는 <오늬 힘내기와 동생 편 든 어머니>로, 기본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힘센 오누이가 있었는데 누이는 나중에 남동생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 항상 그것을 염려하였다. 하루는 남동생이

14) 오늬의 혼인으로부터 비롯된 창세신의 모습이 혼인 관계를 벗어나면서 힘겨루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누이의 죽음 내지 동생의 승리는 남성신과 여성신의 대립으로 파악한다. 여성신의 약화와 이에 따른 가부장적 남성신의 차이를 다룬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강은혜, 「한·중·일 신화의 오늬모티프 형성과 변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124~154면 참조.)

15) 이강엽은 오늬 힘내기 설화를 비롯한 짝패(double) 설화가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을 기대하기보다 ‘어떤 식으로 다시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서로 같은 근원에서 출발한 두 인물을 짝패로 배치하여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둘이 한데 어우러진 원만(圓滿)하고 구족(具足)한 삶을 동경하는 이야기”가 짝패를 다룬 작품들의 핵심이라 본 것이다. (이강엽, 「설화의 짝패 인물 연구」,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45~76면 참조.)

누이가 있으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 누이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다. 남동생이 나막신을 신고 서울에 갔다 올 동안 누이는 성을 쌓기로 했는데 먼저 끝내는 사람이 진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누이는 남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성을 거의 다 쌓아서 이제 문만 달면 되었다. 남매의 어머니가 보니 아들이 내기에서 질 것 같아 팔죽을 쑤어 딸에게 먹고 하라고 하였다. 누이는 어머니의 심중을 알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말씀이라 어쩔 수 없이 팔죽을 먹었다. 그 사이에 남동생이 돌아와 누이가 내기에서 지고 죽게 되었다. 남동생은 누이를 죽이고 난을 일으켰지만 난이 실패하여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다.¹⁶⁾

여기서는 남동생, 누이, 어머니라는 세 인물이 등장한다. 남동생과 누이는 서로의 능력을 겨루고자 내기를 벌이고, 그 과정에 남동생의 편을 들고자 한 어머니의 계획에 의해 누이는 죽게 된다. 남동생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기를 하고 그에 따라 누이를 제거한다. 반면 누이는 본인의 뜻과 다르기에 망설이며, 급기야 자신의 뜻 보다는 남동생과 어머니의 뜻에 따라 죽음을 선택한다. 하지만 홀로 남은 남동생 또한 최종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데는 실패하고 만다. 대결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다.¹⁷⁾ 이에 대해 곧 상대방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와 함께 해야 함을 말하는 서사라 보기도 한다.¹⁸⁾

이러한 오누이의 대결은 <고지전>에서 남북의 대결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 <오누이 힘내기와 동생 편 든 어머니>에서 대결의 시작은 동생을 염려한 누이의 걱정과 누이를 경계한 동생의 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곧 힘의 논리가 누구에게 더 강한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고지전>에서 남북의 병사들이 누가 고지를 차지할 것인가에 따라 서로가 경계하며 대결하는 것과 함께 볼 수 있다. 그런데 설화에서는 이러한 대결 과정에 어머니가 개입한다. 누이의 죽음은 동생과 둘만의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을 관장하는 더 큰 존재의 개입이 있던 것이다. <고지전> 또한 남북 병사의 상층에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영화의 표현대로 그들의 ‘땅따먹기’에 따라 병사들은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과연 ‘윗 세력’의 개입에 따른 갈등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서로를 죽여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고지전>의 12시간 전투는 반드시 외부 존재의 개입으로만 일어나는 갈등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오누이 힘내기와 동생 걱정한 누이>를 살펴보려 한다. 다음은 기본 줄거리를 정리한 것이다.

힘센 오누이가 있었는데 누이는 힘자랑을 하지 않았지만 남동생은 힘자랑을 하고 다녔다. 누이는 남동생이 힘자랑을 하며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남복을 입고 남동생이 힘자랑을 하기 위해 나간 씨름판에 찾아갔다. 그리고 남동생과 씨름을 하여 가볍게 이기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남동생은 오늘 씨름판에서 어떤 놈에게 졌다며 억울해했다. 그러자 누이가 아까 씨름판에서 남동생을 이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해주었다. 남동생은 누이를 죽일 생각으로 내기를 하자고 하였다. 남동생은 자신이 무등산 한 바퀴를 돌고 올 동안 누이는 도포 한 벌을 만들어 놓으라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누이는 바느질을 잘해서 남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도포 한 벌을 다 만들었지만 일부러 옷고름 한 개를 떼어버렸다. 남동생이 돌아와 보니 누이가 도포를 완성하지 못했기에 누이를 죽여 버렸다.¹⁹⁾

16) 어머니는 누이에게 팔죽 대신 누룽지, 흰죽, 밥, 떡, 콩을 주기도 하고 아프다고 피병을 부리기도 한다. 남매가 서로 싸우다가 내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딸 아홉이 너무 거세어 하나 있는 아들을 못살게 구니 어머니가 흥계를 꾸며 내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남매가 모두 장사라서 한 사람은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누이가 남동생을 없애기 위해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리 : 나지영)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2324~2327면 참조.

17) 이러한 실패는 곧 역모를 꾸미려다가 잘 되지 않는 좌절된 민중영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때에는 이몽학이나 정여립 등의 역사적 인물과 결합되어 제시되기도 한다.

18) 이강엽, 「설화의 짝패 인물 연구」,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45~76면 참조

19) 누이가 남복을 하고 씨름판에 나가 남동생을 이겼다는 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남동생이 누이를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나중에 남동생이 늙어서 병에 걸렸는데 어지러워서 대문 기둥을 붙잡고 있다가 발로 기둥을 잘못 차는 바람에 지붕이 무너져 깔려 죽었다는 경우도 있고, 남동생이 돌로 다리를 놓으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는데 누이가 남장을 하고 행인처럼 지나가다가 쉽게 다리를 놓아주는 경우도

여기서는 어머니의 개입 없이 누이와 남동생 둘만의 관계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대신 이들은 한 번의 힘겨루기를 한 상태에서 두 번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애초에 누이가 남동생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베풀었던 행동은 결국 누이를 죽게 만들어버렸다. 남동생에게는 자신의 강함이 증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자신보다 강한 누이가 보여준 관용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각편 중에는 남동생에게 깨우침을 주는 데까지만 진행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된 경우도 있으나²⁰⁾, 대체로 동생은 누이가 자신보다 더 센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이를 죽이기 위해 내기를 한다. 물론 <오뎬 힘내기와 동생 편 든 어머니>에서처럼 누이 스스로 동생에게 저준 것이나, 이 또한 동생보다 센 누이의 ‘강함’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고지전>에서는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품어주는 모습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한 사람은 인민군 지휘관 현정운으로, 그는 강은표와 김수혁을 포로로 잡았다가 풀어주었다. 이때 현정운은 누이의 위치에서 강은표와 김수혁은 동생의 위치로 비견될 수 있다. 현정운은 강은표 일행에게 ‘어리버리들’이라 칭하며, 그들의 나약함을 꼬집고 힘을 키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둘은 훗날 현정운 부대에 위협적인 두 인물이 되었다. 또 다른 사람은 강은표로,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대한 온정적 태도가 꽤 오래 유지되어 나타났다. 강은표는 인민군 저격수 차태경을 몇 차례나 그냥 보내준다. 차태경이 남성식을 죽였을 때에도 그에 대한 당혹감과 연민으로 죽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 결과에는 어떠한 보답도 없었다. 살아남은 차태경은 자신을 살린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자 했다. 그리하여 강은표가 살린 차태경은 강은표 주변 인물을 위협하고, 심지어 강은표 본인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한다. 이는 <오뎬 힘내기와 동생 걱정된 누이>에서 동생이 목숨을 부지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누이와 대결을 하려는 것과 견주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대결의 끝은 궁극적으로 둘 중 하나가 죽어 최후의 승자가 가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승자를 가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선 설화와 달리 설화 <오뎬 힘내기와 미륵이 된 누이>에서는 이들의 대결과 죽음이 또 다른 차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기본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없이 자란 오누이가 있었다. 하루는 누이는 못을 메우고 남동생은 절을 짓는 내기를 하여 지는 사람이 죽기로 하였다. 누이가 일부러 천천히 못을 메워 남동생이 세운 절이 못에 비쳤다. 누이가 내기에서 지고 죽게 되자 남동생은 누이가 죽는 것을 못 본다고 어디로 가버렸다. 죽은 누이는 미륵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공을 들이면 자식을 낳기도 했다.²¹⁾

여기서는 부모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누이와 동생이 나온다. 이들의 내기는 절을 짓는 어떤 과업을 완수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도 강자와 약자는 존재하고 있다. 다만 서로를 죽이겠다는 의지, 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과 더불어 대결에서 진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른 설화와 차이를 보인다. 앞선 설화들이 승리한 자, 비록 반체제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구성한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패배한 자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대결에서 패배한 이는 미륵이 되어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존재로 거듭나게 됐다. 죽은 이가 죽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람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맞닿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다. 비록 내기에 따른 것이지만 이때의 죽음 헛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있다. (정리 : 나지영)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2320~2323면 참조.

20) [한국구비문학대계] 6-9, 38-39면, 화순읍 설화1, 김덕령 오뎬 힘내기, 조기현(남, 50) ;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575-577면, 악양면 설화51, 최장수 누이의 힘, 노봉현(남, 80)

21) 누이가 토막 하나를 훔쳐서 남동생은 토막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고도 그냥 절을 지었는데, 다음날 누이가 동생에게 찾아가 토막 하나가 없다고 하자 동생이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방정맞게 말한다고 하여 누이가 스스로 자기가 판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 불국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정리 : 나지영)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2323~2324면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오늬의 힘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결을 왜 하느냐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늬의 힘 대결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설화에서는 그 원인이 뚜렷하게 얘기되지 않는다. 단지 힘을 겨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막는 누이를 제거하기 위해,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혹은 별 다른 이유 없이 서로를 견주며 최고의 승자를 점한다.²²⁾ 어찌 되었든 상대방이 다른 한 쪽에 비해 힘이 세며, 그 존재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흐름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결국 누이가 아무리 동생을 살려주려 하고, 깨우쳐 주려 해도 이들의 대결은 한쪽의 죽음으로써 마무리된다는 점은 ‘오늬 힘내기’ 유형의 공통된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누이 또한 대결에 응했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누이는 대결 상황 속에 놓여 자신의 힘을 또한 겨뤘다. 기본적으로 ‘강자’인 누이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에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가르침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누이는 ‘강자’의 위치에서 동생을 ‘약자’로 대하여 출발하고 있다. 비록 누이가 내기에 저서 죽었다고는 해도 누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은 자명했다. 그러하기에 오늬의 힘내기는 그 끝을 맺을 수 있었다. 누이 혹은 동생이 지거나 이기거나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어머니의 개입이나 금기 위반, 역사적 인물의 합리화, 질서 체계를 위한 어찌할 수 없는 희생으로만 보기에는 이러한 힘의 논리가 강력히 지배하고 있다. 이는 <고지전>에서 끊임없는 ‘겨루기’가 일어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처리 방식이다. ‘오늬 힘내기’ 유형에서의 누이의 죽음은 곧 누이의 ‘희생’으로 마무리된다. ‘어머니의 개입’으로 인해, 혹은 ‘동생을 위해’ 일부러 ‘이길 수 있음에도’ 저 주는 것. 그러한 희생을 통해 ‘오늬 힘내기’를 접합에 있어서는 통쾌함이나 후련함보다는 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배가된다. 이러한 비극적 결말과 애통함은 동생과 누이의 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보게 만드는 것이다. ‘오늬 힘내기’와 관련한 일련의 설화들이 <고지전>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지는 지점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오늬 힘내기’ 유형의 설화에서는 분단서사를 밑바탕에서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통합된 지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자극하였다. 하지만 <고지전>의 경우 우리 안에 철저하게 자리하고 있는 분단서사를 계속해서 직시하게 한다. <고지전>에서는 분명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음에도 12시간 전투를 배치하여 모두를 전멸시킴으로써,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주지 않았다.

3.1. 오늬의 힘 합치기

오늬의 대립에는 그들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오늬의 대립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제를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곧 그들이 양립할 수 있는 지점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 대립의 이유 자체를 그들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는 데서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오늬의 힘내기가 아닌 오늬의 힘 합치기로 옮겨갈 때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존재에 압도되지 않고, 주변 인물이나 상황에도 남매가 서로를 분절된 상태가 아닌 포용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완벽한 형태의 극복은 아닐지라도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서사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들고자 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기본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삼 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남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해 주고 밤중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22) ‘오늬 힘내기’의 대결 이유가 분명치 않은 부분을 들어, 오늬가 하나의 신격이었다가 변모되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여성신과 남성신의 대결 구도에 따라, 신들의 대결이 전설적 성격이 가미되면서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지영, 「<오늬 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221~259면 참조.)

는 어머니가 메밀묵을 얻어 오다가 호랑이와 마주쳤다.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메밀묵을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러면 아이들이 굶어야 하니 안 된다고 했지만 호랑이가 계속 위협을 하자 할 수 없이 주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머니의 팔과 다리까지 잘라 먹더니 결국 어머니를 다 잡아먹어 버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했다. 그런데 남매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였다. 호랑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여 목소리가 변한 것이라며 문을 열라고 하자 남매가 그러면 문구멍으로 손을 넣어 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남매는 손을 봐도 어머니의 손이 아닌 것 같아서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랑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여 손이 상한 것이라며 문을 열라고 하였다. 남매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었다. 호랑이는 갓난아이부터 돌보아야겠다며 갓난아이를 데리고 뒷방으로 갔다. 그런데 남매가 엿들으니 뒷방에서 갓난아이가 우는 것이었다. 남매가 호랑이에게 갓난아이가 왜 우느냐고 물으니 호랑이가 귀여워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은 남매는 호랑이에게 지금 똥이 급해서 밖에 있는 변소에 가야겠다고 하였다. 호랑이가 안 된다면 뒷목에서 그냥 누라고 했지만 남매는 방에서 누면 아버지한테 혼나서 안 된다고 하였다. 호랑이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자 남매는 우물 근처에 있는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 숨었다. 잠시 후 갓난아이를 다 잡아먹은 호랑이가 남매를 찾아 밖으로 나왔다. 우물에 비친 남매를 본 호랑이는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오빠가 열린 아랫집에 가서 기름을 얻어 몸에 바르고 올라왔다고 하였다. 호랑이가 오빠의 말대로 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려고 하였는데 자꾸 미끄러지지만 하였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여동생이 아랫집에서 자귀를 얻어 올라왔다고 말해 버렸다. 호랑이가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자 남매는 하늘을 향해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면 성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하며 기도를 했다. 하늘에서 남매를 불쌍히 여기고 성한 동아줄을 내려주어 남매는 동아줄에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다. 화가 난 호랑이가 하늘에 대고 “하느님, 저 아이들과 내가 만나야 하니 저를 살리시려면 성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하며 아이들처럼 기도를 했다.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다. 호랑이도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는데 반쯤 가다가 동아줄이 뚝 끊어져 버렸다. 수수밭으로 떨어진 호랑이는 수수에 똥구멍을 찢려 죽고 말았다. 그래서 수수가 빨갛게 된 것이다. 한편 하늘에 올라간 남매는 누이는 달이 되고 오빠는 해가 되었다. 그런데 누이가 오빠에게 밤에 다니기가 무섭다며 바뀌 달라고 하여 오빠가 달이 되고 누이가 해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해가 된 누이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바늘로 눈을 콧코 찢어서 그런 것이다.²³⁾

여기서는 누이, 오빠, 어머니, 호랑이가 등장한다. 그런데 호랑이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어머니라고 다가오는 호랑이를 호랑이로 파악하고 떨쳐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보호해주는 어머니로 인식하고 둘 다 잡아먹힐 것인가는 오늬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 상태에서 자칫 힘 겨루기를 했다가는 계속된 경쟁 속에 서로의 단절만을 야기한 채 고착될 수밖에 없다. 만약 누이나 오빠 둘 중에 한 사람이 호랑이의 존재에 대한 의혹을 떨치고 그대로 관계를 맺으려 했다면, 오늬 둘 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해도 거기서부터 비롯된 세상은 ‘해’와 ‘달’이 온전하게 자리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늬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공간을 ‘호랑이굴’로 인식한 순간, 둘의 힘은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합쳐지게 된다. 두 사람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있던 보호자를 새롭게 인식할 때, 둘의 성장과 그에 따

23) 오늬가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와서 우물에 비친 오늬를 보고 조리조리 건질까 함지로 건질까 중얼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나무 위에서 웃어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 오늬 중에서 오빠는 호랑이에게 참기름을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다고 말해서 호랑이가 미끄러지게 했는데 누이동생은 호랑이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올라왔다고 말한 경우도 있고, 아들이 소나무 위로 도망 쳤다가 호랑이가 어떻게 소나무 위에 올라갔느냐고 묻자 썩은 새끼줄로 올라왔다고 하며 썩은 새끼줄을 호랑이에게 던져 주어 호랑이가 그것을 잡고 올라가다가 우물에 떨어져 죽은 경우도 있고, 하늘에서 새 줄에 달린 두레박이 내려와 오늬를 구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늘에서 쇠줄이 내려와 오늬를 구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하늘에 올라가 선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늘에 올라간 오늬에게 하느님이 먹을 것을 주었는데 오늬가 그것을 두고 싸우다가 오빠가 동생의 눈을 찢려 동생의 눈이 먹는 경우도 있고, 하늘에서 호랑이에게 받은 성하고 반은 성하고 반은 썩은 줄을 주어 호랑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다가 썩은 부분에서 떨어져 죽은 경우도 있고, 호랑이가 흩어머니를 꼬여 내어 흩어머니가 자식들을 버리고 산에서 살다가 딸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 찾아왔는데 호랑이 밥으로 주려는 것을 딸들이 알게 되어 나무 위로 도망친 경우도 있고, 호랑이 대신 늑대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호랑이 대신 여우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호랑이 대신 계모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호랑이가 으르렁 대는 것에 놀란 아이들이 쓰러지자 호랑이가 다 잡아먹은 경우도 있다. (정리 : 강미정)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3(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3396~3417면 참조.

른 새로운 세계 건설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4. 결론

참고문헌

- 장훈 감독 작, 영화 <고지전>, 2011.07 개봉
- 박상연, <고지전> 시나리오, 1~144면.
-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 3(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 『무비위크』, 『씨네21』
- 강미정,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분단서사 극복 전망」, 『통일인문학논총』 52,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1
- 강성률, 「장훈 감독의 영화세계 - 속살 아픈, 강한 남성들의 대결: ‘장르 틀’ 비틀기」, 『공연과리뷰』 제74호, 현대미학사, 2011, 43~52면.
- 강은혜, 「한·중·일 신화의 오뉘모티프 형성과 변화」,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16,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02, 124~154면 참조.
- 김지미, 「분단 상흔을 소환하는 두 가지 방법-<고지전>과 <풍산개>-」, 『황해문화』 통권 제72호, 새얼문화재단, 2011.9, 322~332면.
- 박지연, 「영화에서의 재현의 폭력」, 『비폭력연구』 3, 경희대학교비폭력연구소, 2010.
- 서유석, 「[영화 리뷰 <고지전>] 한국전쟁의 중심 ‘애록고지’ 그 곳에서는...」, 『통일한국』 2011년 9월호(통권 제333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60~61면.
- 신정아, 「영화 <고지전>과 전쟁의 실재」, 『기호학 연구』 제31집, 한국기호학회, 2012, 201~226면.
- 이강엽, 「설화의 짝패 인물 연구」,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 이지영, 「<오뉘 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정운채, 「<단군신화>의 웅녀를 통해 본 <누드모델>의 마리안느」, 『영화와 문학치료』 제4집, 201008, 329~345면.
- 황인성·태지호, 「영화의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그 재현 방식에 대하여 :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포화 속으로>, 그리고 <고지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공군 후원 특별세션 『전쟁영화의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담론』, 한국언론학회, 2012, 3~21면.

「영화 <고지전>을 통해 본 분단서사와 그 극복 가능성 전망」에 대한 토론문

고정희*

방유리나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영화 <고지전>에 나타난 분단서사를 분석하는 내용도 무척 흥미로웠고, <오뉴 힘내기> 유형 설화와 비교하는 논의도 이 영화의 분단서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문의 결론이 없어서 선생님의 논지를 잘 파악했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단서사가 <고지전>의 핵심서사인가?

발표문에서 분단서사란 ‘상대방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특징을 갖는 서사를 지칭합니다. 또한 ‘서사의 주체(강은표라는 인물)’와 ‘작품 자체의 결말’을 중심으로 <고지전>의 분단서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지전의 관찰자였던 강은표가 12시간 전쟁을 기점으로 고지전의 참여자로 변해 가는데, 이 변화가 바로 그의 내면에 있던 폭력성(분단서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또 어느 한 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결말에는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분단서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영화에서 ‘분단서사’를 발견해야겠다는 의도가 없었을 때도, 영화가 그렇게 읽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서 ‘양립불가능한 상대방과의 대결’은 인물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 있는 외적 환경입니다. 특히 정전 소식에 크게 환호했던 이들이 다시 12시간 전투에 투입될 때 그 마지못해 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도 이 장면에서 ‘또 싸워야 해?’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하고자 감정의 호흡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죽으러 가는 길’도 남이 시켜서 가야하는 양진영의 군사들을 보면서 토론자는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는(以心爲形役)” 존재의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는 강은표에만 초점을 맞추어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영화의 시작에서 강은표는 상관들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뱉다가 악어증대로 전출되었는데, 영화의 끝에서 결국 그도 자신의 속마음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차태경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 이 영화는 보기에 따라서는 ‘주체의 욕망’과 ‘타자의 강요’라는 틈바구니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절명하는 인간의 비극을 그렸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영화의 서사를 해석하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분단서사’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고지전>과 <오뉴 힘 내기> 유형 설화의 공통점

발표문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두 존재가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인민군을 과연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두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념과 지배집단이 다른 ‘윗 세력’에 의해 각각 호명된 이들은 뿌리부터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아무리 편지와 사진, 술과 담배 등을 교환하며 온정을 나누더라도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같은 뿌리’란 기만적인 온정주의를 내세울 때에나 운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뉴이’는 정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남동생보다 힘이 센 누이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일부러 내기에 지고 죽음을 감수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때 누이의 운정은 기만적이지도 않으며, 뿌리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을 고려한다면 <고지전>이 지닌 분단서사의 특징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오늬 힘 합치기’가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분단서사의 극복이란 ‘양립불가능한 두 존재’가 파탄에 이르지 않고 상대방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때 ‘대결’ 구도에서 ‘힘 합치기’ 구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발표문의 입장은 ‘양립불가능한’이라는 전제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분단서사의 극복이라기보다는 회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서사라기보다는 분단서사와 무관한, 다른 유형의 서사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의 질문들은 발표자께서 ‘분단서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드린 질문들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양립불가능’을 분단서사의 전제조건으로 보시는지의 여부입니다. 발표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여쭙게 되어 송구합니다.

여성 전쟁체험담 사례를 통해 본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과 대응방식

박현숙*

<차례>

1. 머리말
2. 여성 전쟁체험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
3. 전쟁체험에 대한 여성의 대응방식
4. 맺음말

1. 머리말

여성의 전쟁체험은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참전을 하거나 후방에서 숨어 지내는 남성들에 비해 겪게 되는 경험들이 매우 다양하다. 여성들이 후방에서 겪은 무수한 고초는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는 무고한 수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체험은 여성들의 가슴 한켠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의 상흔을 남긴다. 이 트라우마는 전쟁을 체험한 여성 개개인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 개개인의 역사를 펼쳐 모으면 그 잔혹한 전쟁의 역사를 살아온 여성들의 보편적 트라우마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 전쟁체험담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전쟁체험 구술 연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역사적 분야나 구술사적 분야에 서¹⁾ 점차 문학 분야로²⁾ 확대되고 있다. 전쟁체험담은 일상적 삶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상을 깨알같이 열거하기 때문에 사회·역사적 접근이나 구술사적 접근에서 간혹 놓칠 수 있는 구술담화의 문학적 부분까지 담아낸다.³⁾ 따라서 여성의 전쟁체험담은 전쟁이라는 역사를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문학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쟁체험을 내면화하고 기억으로 재구성해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성과 여성의 서사의 특성을 대비적으로 밝힌 기존의 연구들⁴⁾ 보다 세분화하여 ‘여성’의 내면화된 서사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여성 전쟁체험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서사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쟁의 어떤 서사가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피폐하고 참혹한 전쟁이라는 역사

* 건국대학교 강사

- 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성숙,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상」,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안태운, 「딸들의 한국전쟁-결혼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본 미혼여성들의 한국전쟁체험」,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윤정란,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안태운, 「후방의 ‘생계전사’가 된 여성들: 한국전쟁과 여성의 경제활동」, 『중앙사론』 제33집, 2011.
- 2) 김중균,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한정훈,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신동훈, 「역사경험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특성-6.25체험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23호, 국문학회, 2011;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 3) 역사경험담의 문학적 가치를 가늠하는 세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신동훈, 앞의 논문, 2011, 21쪽).

(1) 체험의 질	체험의 역사적 전형성과 절실성. 체험에 깃든 삶의 깊이와 진정성.
(2) 기억과 재현	경험내용 및 관련 상황의 정확한 기억을 통한 폭넓고 생생한 재현.
(3) 표현 능력	사연의 서사적 구조화. 구연의 흡인력과 형상적 표현의 재미.

- 4) 신동훈, 앞의 논문(2012).

적 삶을 여성들이 어떠한 태도와 대응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시대의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구원의 서사를 찾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은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한 여성들의 전쟁 구술담화 자료를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자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를 주 대상으로 삼으며, 기타 다른 책이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하기로 한다.

2. 여성 전쟁체험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

2.1. 여성 고난의 서사

남성은 전쟁을 전방에서는 총을 들고, 후방에서는 깊은 곳에 은둔하면서 겪은 체험이라면, 여성은 남편,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무게감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총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야 하는 전쟁의 체험이다.

전쟁 통에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다.

[결혼]

우리 친정부모가 저기 산 밑에 저그 산 밑에. 산 밑엔 그때는 인공들이 그러고 산 밑에가 있다가 산 밑에 동네로 와가꼬 전부 다 가지가 목을 짓을. [청중: 인공들이?] 하도, 다 가지가. 소도 가지가고 닭도 가지가고 돼지도 가지가고, 갖고 가서 산에 가서 잡아 목을라고 가지가. 그래 가지가고 처녀도 있으믄 가지가부러. [청중: 처녀를 뺏혀?] 집이 갖다가 인민군 맨들어가꼬 텔꼬대닐라고 가지가분당게. 인민군이 잡아간다고 나를 열여덱에 열령 여워부렸어 요리.⁵⁾

[임신]

딱 총을 내 배때기 있는 데다 딱 대고 배는 인제 요로코 불렀응게. 신랑있응게 뺏을 거 아녀. 공계 인자 인자 확 대고는 삼메타 거리로, 말은 인자 삼메타 거리로 총을 쏜다고 허드만 말 듣기에. 근디 삼메타 거리로 서서 대고, “너 옳은 대로 말허라”고 그러드라고, 배때기 봉게 옳은대로 말허라고 그려.⁶⁾

[출산]

애기를 낳어도 불도 못 췌어 방에다가. 그양 문에다가 우리가 또 집이 가양집이 되야가꼬 인공새끼들이 들와서 말썽 부릴까 무성게 문에다가 불 안 나가게 애기 젓줄라믄 담요를 이렇게 딱 처가꼬 가만히 젓 췌서 얹히고 인자 불 안 나가게. (청중: 그때는 호롱불인디) 호롱불이라도 비치믄 온당게 그놈들이. 아주 귀신같이 와. 담요로 개리고 젓도 주고 그랬당게. 공계 내가 철이 없지 있겠소 이놈의 애기가, 담요를 개리고 애기 젓을 준디 이놈의 애새끼가 막 울어. 웅게 그냥 막 이 뺨 때리고 저 뺨 때랑게 그양 더 운디. 귀가 애랑게 그놈을 그냥 내가 그놈을 그 지랄허고 췌어. 그 애린 놈을 갖다가.⁷⁾

여성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성스럽게 치러져야할 통과의례가 결혼, 잉태, 출산이다. 그리고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전쟁 통의 여성의 결혼은 살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치러진다. 서경림 제보자의 경우에는 매일 마을로 습격해 약탈을 일삼는 빨치산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서두른 결혼이다. 여성들은 이 외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나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시키기도 한다.⁸⁾ 이렇게 시작된 전쟁 통의 결혼 생활은 여성에게 고난의 시작이다.

5) 서경림(여,80세);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012. 7. 27), 박현숙, 박혜진, 조홍윤, 황승업 조사.

6) 이희순(여,83세);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012. 7. 27), 박현숙, 박혜진, 조홍윤, 황승업 조사.

7) 앞과 같음.

결혼을 해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남편이 없다. 서경립 제보자의 남편처럼 남성은 군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동굴이든 땅굴이든 숨어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남편 없는 집안의 여성은 가장이었고, 가족의 부양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세상에서의 임신은 감당하기 힘든 또 하나의 짐이 되거나 남편이 있는 여성이라는 증거가 되어 남편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남편의 사상은 어떠한지? 끊임없는 의심을 받게 하는 위협의 수단이 된다. 이희순 제보자의 경우에는 군인 남편이 광주에 왔다는 소식을 당숙에게 전해 듣고 계란과 김밥을 싸서 무거운 만삭의 몸으로 오십 리 길을 걸어서 광주까지 남편을 만나러 간다. 시집와서 줄곧 떨어져 지내야 했던 남편과의 짧은 만남의 행복도 잠시, 돌아오는 길에 인민군 검문에 걸린다. 만삭인 여인을 보고 인민군은 단번에 남편의 존재를 의심하고 만삭의 배에 총부리를 겨누며 어디를 다녀오는지, 왜 다녀오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 질문을 쏟아낸다. 자신과 태아의 목숨은 물론 남편의 목숨까지 이희순 제보자 입에 달려 있다. 그 공포의 순간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혼자 사는 당숙모 밥해주고 오는 길이라고 말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한다.

전쟁 중에 출산 역시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밤이면 빨치산의 습격이나 국군 폭격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불빛을 숨겨야만 한다. 그런데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숨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이희순 제보자는 소리가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요로 아기를 싸운 채 젖을 먹인다. 답답한 아기는 울음을 터트린다. 당황한 제보자는 젖먹이의 뺨을 때린다.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다. 담요를 가리고서라도 젖을 먹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안창순 제보자의 경우에는 반공호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기 울음소리로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홀로 밖으로 나와 땅바닥에서 출산을 한다.⁹⁾ 이는 모정의 비정함이 아니다. 여성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한 명의 목숨보다는 다른 여러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한 더 큰 모성적 선택인 것이다.

여성들은 갓 결혼한 신부가 되어도, 만삭의 무거운 몸이 되어도, 갓 출산한 몸이 되어도 전쟁 중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여성들은 그 몸을 해서도 자신보다는 가족 부양의 책임을 우선으로 살았다. 여성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난을 떠나고, 피난처에서 갇은 고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감내해 낸다.¹⁰⁾

눈 올적에 어드럴 때 바람이나 불고 추우면 이놈이 얼어가지고 장작개미야. 집이 들어가면 내 살이 살인지 아닌지 얼어서 몰라. 그러면 이거 다 훌훌 벗어놓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따스 물에다 씻지 말아. 따스 물에 씻은 안돼 얼음 배긴다 얼음 배겨. 따스 물에다 씻지 말래.

새암에 가서 찬물 가운데서 새암 솟아오르는 물은 뜨뜻히잖아. 피다가 다라에다가 놓고 들어서서 활활 시쳐 몸뎡이를 다. (……) 아 그렇게 해서는 내기곤 이불속에 들어가서 이불이나 있어? 이불도 없지. 다 태우고 나왔는데. 모다 누구라 저 껌테기는 아파서 눕지. 숨 저 명주냥고 저 명주 허드레기 알아요? 그걸 이렇게 숨 맨들은거 그거를 한 채 주더라고. 아이 그놈이 갖다가 덮고 그 놈 덮고 살았어. 겨울에 그 놈 덮고 그럭하고 살았지. 그래서 죽지않고 그래도 벌어

8) 안태운(앞의 논문, 2007, 65-70쪽)은 구술조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결혼한 여성들의 결혼 동기를 외로움과 공포, 장녀로서의 책임감, 마지막 선택 혹은 타협으로서의 결혼으로 분류하고 있다.

9) 애가 그때가 낳을 때가 되서. 방공호를 들어가 서 낳으면, 저기 저 우리 식구들은 못 들어가잖아. 나 때문에. 그래서 인제 나와 가지고 씨리문에 들어가는데다 흙이다 데고 그전에는 짚에다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짚도 없고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다 흙에다 그냥 막 낳고서 이거 죽을러나 죽을테면 죽어라. 어떡하냐. '나도 시방 죽게 생겼는데. 너는 죽는 게 어땠고 나는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낳고서 한참 있으니, "이이잉" 울어요. 그래서 '아 애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그냥 일으켜 세워서 한 주먹하다가 밤구덩이에다 넣고 그냥 갖다 왔죠. 비행기는 저기 땡기지. 잉 불켜 놓으면 거기다 쏜다는데 어떡해 불을 켜요. 못 키지. 그래서 땅바닥에다 뉘나왔더니, 낮에 보니까 본색을 보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안 죽대. 그러더니 가가 잘 커서 잘 살아요(안창순(여, 84세); 충남 공주시 하대3구 마을회관(2012. 6. 21) 박정열, 유효철, 김명수 조사).

10) 이성숙은 피난은 생존의 몸부림이었지만, 또 다시 전쟁이 터지면 피난 가지 않겠으며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을 것이라는 제보자들의 말을 빌어 피난길에 여성들이 겪은 삶의 무게와 고통의 혹독함을 읽어내고 있다(앞의 논문, 140쪽).

먹고 살았어요. (……) 어떤 날 그냥 아침에 나오면 눈은 이렇게 썩는데 어드러해. 먹을 건 없으론 날이 한참 굶어서 나오니. 밥 얻으라 밥. 산넘어 저동네 큰 동네야 진천이라고 [조사자 : 아 충북 진천?] 진천, 진천. 우리 사는 이 동네든 저 산너머는 큰 동네가 있어. 막 내려가는 거야 막. 등그러 내려가. 짹짹 미끄러지든 그냥 나무새로 미끌어지면 산인데 그냥 얼음지치기해 내려가. 내려가 동네가 개바닥에가 똑 떨어지면 동네야. 산 밑에 동네. 집집마다 일르고 밥을 풀 적에 땀기면요. 이런 말바가지로 하나야.¹¹⁾

시집살이담 중 일부로 전쟁체험담을 구술한 신씨할머니는 전쟁 때는 악이 올라서 아무리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한다. 신씨할머니는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들 밥을 해 먹이느라 농사도 지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현몽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들을 데리고 친정집 근처로 피난을 나와 움막을 짓고 살았다. 친정집에서 밥해먹으라고 닷 되 쌀을 주면 넉죽 주는 대로 받아먹을 수만은 없는 것이 전쟁 상황에서의 생활 도리이다. 두 되는 밥해 먹고, 세 되는 떡을 만들어 팔러 다녔다.¹²⁾ 겨울에는 언 발이 동상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찬 샘물을 받아 몸이며 발을 씻어야 했고, 주변에서 얻은 이불 한 장으로 가족들이 겨울을 나야 했다. 또한 떡마저 만들지 못하는 날에는 얼음 언 산을 미끄러져 가면서 억척같이 산을 넘어 밥을 빌어 와서라도 가족들은 먹이고 부양했다. 이 보다 더한 고생을 한 여성들은 부지기수다.

이처럼 여성들은 죽고 싶어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온갖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전쟁의 일상을 혹독하게 살아나왔다. 전쟁 속에서 나가 아닌 가족, 타인을 아우르며 살아온 고생담은 여성들에게 6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진저리가 처지는 경험으로 남아 있다.

2.2. 가족상실의 서사

여성제보자들은 전쟁체험담을 구술할 때, 억울함에 분노하고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다.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닌 '가족'의 문제에서 더 그러하다. 좌익, 우익 이념갈등으로 일어난 전쟁에서 자신의 사상과 이념과는 무관하게 가족이 희생되었을 때, 그녀들의 가슴깊이 내재된 한이 구술과정에서 그대로 전해져 온다.

금계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새로 시집은 각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자 명주로 며느리가 해온 한복을, 이쁜 한복 입고 계신다. 이장 반장 나오라고 항게로 나가야제. 좋아 마치. 대사 침선 반란군들 잘 먹여가꼬 형사 죽었다고 그 큰 소리만 할라든 마음 아퍼요 (당시의 기억에 목에 메임) 형사 죽었다고 죄 없이, 아무 죄도 없고 참 아주 선량하신 양반을. 원 동네 사람 다 모이놓고 요런 작대기가 다 뿌러지도록, 명주옷이 착착 갈라지도록 뚜드려 그 앞에서. [조사자 : 사람들 보라고?] 인자 이 우리 대한민국 형사 죽었다고 잘 먹여서. 대사치고 잘 먹여가꼬 이장이 요렇게 반란군을 옷 건어다 줘서 키와가꼬 죽었다고 그르니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소리가 떨리며) 아들을 때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소. 그래가꼬 딱 묶어서 개 꼬집어가듯이 꼬집어 가부렀어 인자.¹³⁾

고영 제보자는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에서 태어났다. 제보자의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밤에는 반란군이 와서 밥해 달라고 하고 소 끌고 가면, 낮에는 토벌대가 반란군에게 밥해줬다고 괴롭혔다는 '밤에는 인민공화국, 낮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다.¹⁴⁾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홉 살 어린 제보자는 무명옷 안 입고 명주옷만

11) 신씨(여, 89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2008. 11. 30), 박경열, 나주연, 김아름 조사.

12) 윤정란의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나선 여성의 삶에 관한 논의(앞의 논문, 103쪽)에서 여성의 장사는 대부분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남성의 부재, 무능력, 가족의 무능에 의한 것으로 남성 가족의 부재로 생활전선 투사로 나서야 했다는 설명을 통해서도 당시 여성들이 가족부양 책임을 지고 온갖 고난을 감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3) 고영(여, 74세); 전남 담양군 창평면 (2012. 7. 24), 박현숙, 박혜진, 조홍윤, 황승업 조사.

14) 1948년 2월 유엔이 삼팔선 이남 단독 선거를 결정하면서 2.7구국투쟁, 제주4.3사건, 여수순천사건 등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반대 투쟁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리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섰다. 이

입고 살고, 철없이 마냥 어린 양을 피우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제보자가 철이 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버지 억울한 죽음을 지켜보고 난 뒤부터다.

제보자 마을에 큰오빠의 결혼잔치가 열려 즐겁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던 날, 느닷없이 반란군 30여 명이 마을이장인 부친을 찾아와 옷을 30여벌 구해달라고 한다. 그들은 그 옷을 갈아입고 마을주민으로 위장하여 마을에 상주하게 된다. 어느 날 꾀감을 사러온 이웃주민이 낯선 사람들을 발견하고 지서에 신고하여 반란군과 토벌대 사이에서 큰 총격전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토벌대원 한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부친은 누명을 쓰게 된다. 반란군을 먹이고 마을에 주둔 시킬 목적으로 아들 결혼잔치를 열었다는 거다. 그리고 제보자의 부친은 부모, 자식,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작대기가 부러지고, 잔치 때 입느라 새로 맞춘 고운 명주옷이 다 찢겨질 정도로 매를 맞고, 개 끌려가듯 지서로 끌려간다. 그렇게 끌려간 부친은 심한 고초를 당하고, 얼마 후 사람형상이 아닌 뻗뻗한 나무토막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어린 나이에 경험이지만, 제보자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여 구술했다. 그만큼 제보자에게는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으리라. ‘그때는 만월동이란 데는 그양 그 반란군들이 와서 그렇게로 인공이 와서 그른다고만 했제. 세상물정 모른 사람들이여’하는 말에서는 이념과는 무관한 부친의 누명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이 녹아난다. ‘반란군들이 그때는 주도를 밤에만 한 시상이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들어서 보고를 갔으르는 그렇게 죄가 적은디. 남이 와서 봉게 아 만월리는 반란군들이 겁나 들어와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살림을 하고 살드라 그르니’하는 말에서는 부친이 직접 고발을 했더라면 목숨만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부친을 잃은 딸의 아쉬움과 한탄이 묻어난다.

제보자는 그때의 충격과 상처를 자신의 경험만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소리가 떨리며) 아들을 때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소’라며 구술하는 목소리의 떨림에서 제보자가 자신의 자녀서사에서보다는 자식의 고초를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조부모의 부모서사에서 더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보자의 상처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 자녀서사는 물론이고 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부친의 자기서사, 남편을 잃은 모친의 부부서사, 아들을 잃은 조부모의 부모서사까지 아울러 내재화되어 크나큰 전쟁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전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여기 저기 우리 작은 아버지가 빨갱이었어. 약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동네사람들이 다 땅을 파구 시골에 서 인제 사는데 그그다 인제 감춰놔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냥, 빨갱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청중: 빨갱이 집이가 있으면 못 살어] 그래가지고 구멍이까지 알려주면서 형 자수시킨다고 그래가지고서네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 아군이 오는데 그냥 그놈들이 잡어간 거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빨갱인데 데려가 가지고 (……) 어디를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뭘 저거해 가지고 일주일만 있으면 인제 우리 아군이 오는데 그래가지고서네 인제 다 그 사람들이 다 빨갱이 들어가구는 인제 빨갱이 우리 작은 아버지를 잡어도 놓구 우리 어머니더러 와서 보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

그래서, “죽일래면 죽이고, 맘대로 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을매나 두들겨 뺐는지, 다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인천바다에 가서 썩 죽었다고 그래.

[조사자: 아, 그때 돌아가셨어요?] (조금 격앙된 어조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인제 붙잡아 가가지고 그놈들이 어떻게 죽였겠지. 그래, 우리 작은 아버지도 인제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인제 다 들어와 가지고 인제 다 아니까는 죽였다 그러더라고. [조사자: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했어.¹⁵⁾

때 대대적인 군경 토벌대에 의한 빨치산 토벌작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낮에 군경 토벌대가 들어오면 태극기를 게양하고, 밤에는 인공기를 달아 빨치산의 약탈을 모면하려는 어쩔 수 없는 처세가 빚은 말로 이때부터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김진환, 『빨치산, 또하나의 전쟁』,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149-150 쪽).

15) 허00(여, 72세); 전남 나주시 공원리 (2012. 2. 13), 심우장, 박혜진 조사.

조사자가 전쟁체험담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위제보자의 첫 마디는 ‘아휴, 나는 6.25라면 지긋지긋해’이다. ‘6.25’라는 말만 들어도 그녀를 몸서리치게 만드는 사연은 이렇다.

제보자의 부친은 우익 활동을 하고, 숙부는 좌익 활동을 했다. 숙부는 형을 자수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 숨겨주었던 형을 밀고한다. 동네 빨갱이들도 형이 은거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줬는데, 혈육인 동생이 밀고를 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제보자의 부친은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만다. 다시 전세가 역전되었을 때, 우익 활동을 하던 부친의 친구들이 좌익 활동을 한 숙부를 죽인다. 한 가정 내 형제간의 이념대립으로 빚어진 비극담이다. 하루아침에 부친을 잃은 딸의 심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두 아들의 상잔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을 모친의 심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사연이다.

부친과 숙부와 이념갈등으로 빚어진 이 비극적 사연은 제보자의 직접 경험담이 아니다. 모친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간접 경험담이다. 그런데 제보자는 자신의 전쟁체험담 중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구술한다. 조사자가 부친을 잃고 난 뒤 모친이 고생이 많았었다면서 전쟁 중의 모친의 고생담 구연을 유도해 보았지만, 제보자는 그때 친정어머니의 고생이 말도 못했다면서도 정작 실제 모친의 고생담이나 자신의 경험담은 단 한 마디도 구술하지 않고, 부친과 숙부의 비극적 사연만 되풀이 한다. 이는 제보자가 직접 경험한 전쟁 중의 그 어떤 고생보다도 전해들은 부친을 비극적 사연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말이다. 이는 조모, 모친의 직접 경험이 제보자에게 어느 순간 내재화되어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쟁하면 마치 직접 경험처럼 ‘아휴, 나는 6.25라면 지긋지긋해’, ‘그래 나는 6.25라면 정글해’하면서 몸서리쳐지는 기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보자가 구술과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일주일만 있으면 인제 우리 아군이 오는데’이다. 숙부가 일주일만 기다려줬더라면 부친은 죽음을 모면했을 거라는 거다. 부친을 잃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의 한이 짙게 배어 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부친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숙부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난다. 제보자는 부친이 숙부를 숨겨줬는데 ‘그놈은 그렇게 못됐게 즈그 형을 그렇게 자수시킨다고 구렁이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알르켜 쥐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형을 그렇게 죽여’¹⁶⁾라며 격분한다. 그렇다고 숙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할머니도 인제 같은 아들이지만, 그놈은 죽어야 된다고, 형갓다 그렇게 헨 놈은 죽이라고, 열 번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할머니도 같은 자식이잖아. 근데도 막 죽이라 그랬더라.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죽었나봐’라면서 모친에게 전해 들었을 조모의 언행을 빌어 숙부 죽음에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 또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사망했다는 증거도 없으니 부친의 생존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보이기도 한다.¹⁷⁾

제보자는 짧은 구연시간 동안 전쟁 중의 자신의 고생담보다는 부친의 비극적 회생에 대한 분노, 울분, 원망, 희망 다양한 감정을 드러낸다.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질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제보자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날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은 부친의 사연이 자신의 그 어떤 경험보다 강렬하게 내재화되어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제보자들은 온전히 자기서사로서 상처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가족, 주변인들의 서사까지 아울러 내재화하여 깊은 상처로 간직하는 경향을 보인다.

16)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동생이라면 어떻게든지 자수시키고 저거 할래고 그래가지고 지붕 꼭대기에다가 판자를 해가지고 그전에 우리가 제제소 했었거든 크게 인제 이천에서. 그래 인제 꼭대기에다 인제 거기다 숨겨놓고 그랬었대, 우리 아버지는 인제, 아주 활동을 안했기 땀에 사상만 인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빨갱이었지 활동은 안했지, 그런데 이냥 빨갱이가 쳐들어오니까 활동을 해기 시작한 거지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형은 그렇게 하물며 자기를 숨겨줬는데, 그놈은 그렇게 못됐게 즈그 형을 그렇게 자수시킨다고 구렁이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알르켜 쥐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형을 그렇게 죽여.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다 망했어.

17)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빨갱이가 붙잡아 갔기 때때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아직은 모르는 거지. 그게 죽었다는 저거를, 증거가 없었으니깐. 그냥 그렇게 있어요.’

2.3. 사선(死線)의 공포 서사

여성들은 특정한 전시 상황에서의 남성의 경험과는 달리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선(死線)을 경험한다. 사선(死線)에서 경험한 공포는 여성의 전쟁체험담 중 가장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참전 경험이 있는 남성제보자들은 전사를 경험할수록 날아오는 총알의 소리만 듣고도 그 총알이 날아온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들의 사선의 경험은 자신의 영웅성을 과시하는 윤택한 수단이 된다.¹⁸⁾ 하지만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전쟁의 총알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포감은 극대화된다. 이렇게 경험한 공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중심으로 기억이 확장되어 나감으로써 트라우마의 상흔은 더욱 깊어진다.

우리는 3번 타자야. 근데 2번 타자까지 다 죽었을 때 우리는 3번으로, 우리 이군이 또 들어와서 배타고 나왔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때 내가 일학년, 이학년 때 1.4후퇴 때 나왔으니까.

근데 다 이렇게 포승을 쳐가지고 우리집 앞으로 가면서 우리집을 요렇게 쳐다보는데, 친구네 집이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저거다 죽으러 가는데. 포승을 지구서는 꼬챙이를 이렇게 나무로, 어렸으니까 생각이 다 나지. 나무로 된 거 빨리 안 가면, 그걸로 이렇게 등어리를 찔러요, 빨리 가라고 그래 그 사람들도 자기네 가족을 아프게 죽였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우리 민주당들도 다 그렇게 잡어다가 많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고—, 내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면 아주 눈물 나오. 우리도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¹⁹⁾

전쟁당시 아홉 살이었던 박춘자 제보자는 인공시절 부친의 우익활동으로 인해 포승줄에 묶여 총살당하러 가는 친구가 자신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집 내부를 쳐다보던 친구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제보자가 총살장으로 끌려가던 친구를 지켜본 것은 다음 총살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였다. 제보자는 죽기 전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흘리던 친구의 눈물을 보고, 총알도 아깝다고 곡괭이에 찔러 죽임을 당했다는 다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사상범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총살현장을 두 눈뜨고 목격해야 했다. 제보자는 다음 총살대상자로서 예정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어른들의 이념전쟁으로 무고하게 죽어간 어린 동료들에 대한 가슴 시린 기억으로 구슬리는 중간 중간 전쟁이야기는 하기 싫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 그때의 힘겨움이 그대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박춘자 제보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예정되고 다가올 추상적 공포라면 고영 제보자의 경험은 죽음과 직면한 순간에 느끼는 사실적 공포이다.

아 거기서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봉아리 한나를 잡고 있네. 요쪽에서는 반란군들이 쏘고 요쪽에서는 반란군한테 쏜다고 군인한테서 쏘고 요요, 온천 앞에가 이렇게 큰 또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복구해가꼬 담도 좋게 싸고 벽도 해놓고 그랬드만. 그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하천이었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천에 엉덕에가 었었어. 수대로, 궁게 막 내려 쏘는 거여 그냥. 탄이 그냥 막 휘휘휘휘—해서 그냥 막 쏟아져.

궁게 내가 우아래 꺼머니 입어놔서 저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너 맘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니가 꺼머니 입고 이려고 있음게로 군인은 반란군인중 알고 쏘고 반란군은 군인인중 알고 쏘고 이렇게 꺼머니 입은 사람이, 너맘시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겠다”²⁰⁾

18) 신동훈은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살핀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서 남성의 전쟁기억 속 깃들여 있는 것은 이념과 욕망으로 전쟁경험을 일종의 ‘훈장’으로 여기는 과시성을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남성들은 자기와 타자를 구분짓는 ‘분리 서사’를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앞의 논문, 2012, 293-303쪽).

19) 박춘자(여, 74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013. 1. 18), 박현숙, 조홍윤, 남경우 조사.

20) 고영(여, 74세); 앞과 같음.

고영 제보자는 군인들이 반란군의 동정의 살피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모르고 모친과 함께 늘 그래왔듯이 생계를 위해 담배 주우러 사람들을 따라나선다. 그때 반란군과 군인들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난다. 어린 제보자와 모친은 사람들이 숨어있는 하천에 함께 숨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제보자 때문에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 거절한다. 제보자의 모친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총탄이 쏟아지는 산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 군인을 만난다. 그런데 제보자 모녀를 거절했던 하천에 숨은 사람들은 모두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 제보자는 ‘나 가라고 하던 사람들이, 나 맘시 피해를 본다고 나를 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라는 구술에서 그때의 공포와 천운으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제보자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니가 꺼머니 입고 이려고 있음게로 군인은 반란군인중 알고 쏘고, 반란군은 군인인중 알고 쏘고 이렇게 꺼머니 입은 사람이, 너맘시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겠다’고 한 말과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었으니 어쩔 것이냐고 (.....) 요렇게 다 나서가고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시켰으니 어쩔 것이냐고’ 하는 군인의 말에서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죽음의 공포만큼이나 큰 상흔이 된다. 사전에서 경험한 공포의 상흔은 제보자 모녀가 죽은 시체들을 목격하고 난 뒤 한참을 악몽에 시달렸다는 대목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여성들의 이러한 전쟁 후방의 사선(死線) 경험은 다양하다. 반란군에게 밥해줬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뻔한 현장에서 엮고 있던 아기가 울어준 덕에 가까스로 살아나는가하면,²¹⁾ 친정으로 피난 가다가 산에 있다는 이유로 반란군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려던 찰라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한 경찰의 질문 한마디에 살아남은 사례도 있다.²²⁾ 아들이니까 살려놓자는 경찰의 말 한 마디에 눈물이 한도 없이 흘렀다는 제보자의 말에서 사선(死線)에서의 공포감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 제보자는 군인에게 소년단에 가입했던 오빠가 있는 곳을 말하라며 협박을 당하는데, ‘이따가 총을 들이대고 찰카닥찰카닥-하고, 칼도 갖다 내한테다 가슴에다 들이대고’²³⁾ 하는 표현과 같이 머리에 겨눠진 총의 ‘찰카닥찰카닥’소리는 평생 제보자에게 공포소리로 내면화되어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의 전쟁 후방의 사선(死線) 경험은 ‘군인들 또 저그 뒤에 쫓아올까 무섭고 그런 세상을 다 살았어, 우들도, 그러고, 아이고, 말도 못해. 그런 세상을 살았당개, 참말로’라는 황동임 제보자의 말처럼 깊은 트라우마로 아로새겨져 있다.

3. 전쟁체험에 대한 여성의 대응방식

3.1. 생활 속 여성 영웅 서사

여성들은 피폐하고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대응방식으로 살아갔는지, 전쟁 트라우마를

21) 응 몰살을 시켜버리고 근데 나는 얘기를 여그 짓이 난다고 보듬고 간 것이, 몇 번을 죽일라고 끌고 나가더라고. [조사자: 그 큰앵니까?] 야. 그놈이 예수두 살 먹었어 시방, 딸인디. [조사자: 큰딸?] 어. 근디 이려고 데리고 나가갓고 죽일라고 하도도이, 얘기가 막- 올른 차마 못 죽이더만. 차마 어찌고 막 여기만 착- 끄시다 그냥, 거기다 팍- 갓다 쫓아 박아 부러 그냥. 질질- 개만어로 끄지다 그양 (박현자(여,76세); 전남 나주 다도면 방산리 (2012. 2. 20), 심우장, 박현숙, 박혜진, 조홍윤, 황승업 조사).

22) 그러더만 어떤 아저씨가, 경찰 하나가 얘기를 딸이냐고 물어봐, 아들이냐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니께, 그면 아들인게 여그서 살려놓자고 하대, 그 경찰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열-마나 가슴 떨고 눈물도 그양 한없이 흐르고, 그래놓고는 인자 가라고 그러네. 인자. 어머니 집이로 가라고 그래서 그 식구를 다 데고 친정예를 갔어. 가가, (말을 못 잊고) 맘이 떨려 죽겠다.(황동임(여,85세); 전남 나주 다도면 방산리 (2012. 2. 20), 심우장, 박현숙, 박혜진, 조홍윤, 황승업 조사)

23) 국정자(여,79세); 전남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2012. 2. 21), 심우장, 박현숙, 박혜진, 조홍윤, 황승업 조사

어떻게 치유의 서사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임판례 제보자의 전쟁 상황 속 삶의 태도를 한 번 보자.

임판례 제보자는 경찰가족으로 온갖 수난을 겪으며 살았다. 부친은 총소리가 들리면 어린 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겁이 많아 어린 딸에게 숨겨달라고 재촉하고 어린 딸은 부친을 검불로 덮어 숨겨준다. 열다섯 나이에 오라비 무사히 피난 다니라고 망태기 하나, 호미 하나 들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가족을 대표하는 노역도 마다하지 않는다. 큰오빠가 경찰로 순직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이 위험해질까봐 오빠의 죽음마저도 쉬쉬하며 반란군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지냈다. 하지만 가족이 위험에 빠질 땐,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반란군들이 너인가 와서 조사를 하드만.

“아들이랑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인자 아들네들 둘은 순경들이 잡아가부렀다고 하고, 순경들보다가도 좋게 순경이라고 허문 우들도 죽여부렀게 개새끼들이라고 하라고 허드랴. 개새끼들이 잡아가부렀다고 했어. 그러고는 인자 우리 성님도 따라가부렀는데 메누리는 없냐고, 메누리도 그때 딱 애기엽고 따라가버렸다고, 그리고 인제 이려고 우리 네 식구만 있다고 그랬어. 그래놓게 나보다가 텔꼬 어디로 갑디다. 따라가자고, 그래가꼬 강개는 아이 쌤, 우리 동네 노강 쌤이 이려고 높은디 고놈에다 빠져 죽일란다고 말 안 불으른. 아이 말 불을 것이 뿔 있어. 아씨리 우리 어매가 다 했는디. 뭘 말을 또 허라고 뭘 말을 불으라고 허냐.

“죽일란 죽이고 말란 마쇼, 쌤에서 죽이른 당신들도 죽어. 먹는 물에다 사람 빠져 죽이른”

[조사자 :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예. 재간해도 그랬당게. 그렇게 나보고 똑똑하다고, 가시내 재간한 게 똑똑하게 말한다고 죽인다고 허드랑게. 죽여부리자고²⁴⁾

반란군이 찾아와 아들의 행방을 모친에게 묻자, 모친이나 올케 대신 어린 제보자가 나서서 개새끼들(순경)이 잡아갔다고 겁없이 둘러댄다. 거짓말임을 의심하는 반란군이 어린 제보자를 쌤에 빠뜨려 익사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죽일란 죽이고 말란 마쇼, 쌤에서 죽이른 당신들도 죽어. 먹는 물에다 사람 빠져 죽이른’이라며 거침없이 당찬 모습을 보인다.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지키려는 제보자의 거침없는 행동에서 영웅적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영웅성은 남성들이 전장에서 무용담을 구술하는 과시욕과는 다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을 드러낸 것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책임지고 짊어져야 한다는 삶의 태도로 때로는 순종적으로, 때로는 억세고 거칠게 대응하며 참혹한 전쟁을 감당해 왔다. 비록 그러한 대응방식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임판례 제보자의 전쟁에 대한 모든 기억은 많은 여성제보자들이 보이는 특성처럼²⁵⁾ ‘나’에게만 향해 있지 않다. 그녀의 전쟁 기억은 주로 경찰로 순직한 큰오빠를 비롯한 가족과 얽힌 자신의 고생담과 가족의 수난담이지만, 순경 밥해줬다가 죽음 당한 당숙, 반란군 피해서 바다 건너 도망 온 마을사람, 아기 거꾸로 업고 달아난 이웃사람, 결혼 날 받아 놓고 죽은 사람, 억울하게 연락병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마을의 지체장제인까지 주변의 억울함, 웃음, 애환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상 속 전쟁의 현실이 흘러가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것이 순리라 생각하고 맞춰가며 살아갔다. 밤에 빨치산이 내려와 밥을 해 내라고 하면, 밥을 해줬고, 옷을 내놓으라고 하면 옷을 내주었다. 남편이나 아들 숨겨줬다고 끌려가 당하는 고초를 그대로 견디고 버텨내었다. 토벌대와 빨치산이 번갈아 가며 시

24) 임판례(여, 77세);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2리 (2012. 2. 7), 심우장, 박혜진 조사.

25) 신동훈 연구(앞의 논문, 2012, 301쪽)에 따르면 여성들의 전쟁기억은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인식한다고 한다. 여성들의 전쟁기억 속에는 언제나 남편, 자식, 시댁식구, 친정식구 등 내 몸 이상으로 주변을 신경 써서 감당해야 하는 존재였고, 그들을 마음속에 넣어둔 채 그들을 짊어지고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집간 여동생을 찾아와 친정오빠의 행방을 대라며 맨살에 인두를 대며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딸, 여동생은 아버지, 오빠를 대신해 자발적으로 노역을 나가 반공호를 판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 겨울에도 산 넘고 강 건너 장사를 다니고, 나무껍질을 벗기러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한다. 강제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가족들을 데리고 토굴을 파서 그 속에서 몇 해를 살기도 한다. 전쟁 상황에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안간힘,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떠난 구약노정에서 온갖 시험과 시련을 감내해 낸 바리공주,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갖은 핍박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토굴 속에서도 묵묵히 세 아들을 길러낸 당금애기의 모성과 다르지 않다.

그 속으로 난 장사를 땡기는 거야. 그 속애가 다 집이 있으니까,

“어떡해요. 아이고 이준니 저 인민군 봐 인민군 총탄을 봐. 인민군 총탄을.”

“괜찮아요. 총알알도 사람 알아보고 쏘는 거야. 나 무슨 죄있냐? 난 죄라곤 안졌어 나는. 산중에 살면서 나는 산신님만 믿고 살은 사람인데. 나 머리위에 산신이 있어요. 나 살려요. 이리지나고 저리지나고 총탄을 해도 안쏘아. 진짜 안쏘아.”²⁶⁾

신씨할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이 산 저 산 넘어 다니며 떡을 팔았다. 그런데 옆 사람이 인민군 총탄에 사시나무 떨 듯 떨어도, 자신은 지은 죄가 없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총알도 사람을 알아보고 쏘는 거라면 말이야. 그런데 신씨할머니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총알이 왜 무섭지 않겠는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다고 해서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다니는 거다. 신씨할머니는 자신이 산신님 믿어서 살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녀를 살린 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가족, 주변을 아울러 돌보는 포용의 삶, 진실한 삶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처참한 삶을 감내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여성을 어찌 하늘이 안 도울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쟁 상황에서 온갖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삶의 태도와 민간신화의 여신, 바리공주와 당금애기의 삶의 태도가 맞닿아 있다는 거다.

‘한참 동네에서 한참 빠져 나왔는데 가진 곡식은 많지, 안 들어가져. 해는 바람바람 넘어가는데 어떡하나?’하고 산꼭대기는 해가 넘어가 내려오는데 어떡하나 하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죽겠더라고 여기서 죽누나 싶어. ‘나 죽는건 괜찮은데 애들을 어떡하나. 아들 형제를 여기서 죽이느냐.’

싶어서. 진짜 악독이 오르니까 눈물도 안 나오대. 눈이 막 또랑방울같아져. 막 초랑허니 그냥 겁이 나서 독이 올라요. 해는 점점 산그늘은 자꾸 내려오지. 해는 없어지지. 산이 맥혀서 컴컴해 들어오는데 어떡해야 옳으나 저기를 건너다 보니 군인이 하나 건너와. (……)

“내가 사는 동네이름은 다리성 산인데 상리꺼정은 들어가야죠. 윗상리는 못들어가도 아랫상리꺼정은 들어가야 거기서 자고 우리 집을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건너가는지 몰라 이력하고 있어요. 빠지면 죽을 것만 같아서요.”

“예. 잘하셨습니다. 내가 건너들이게.”

“이렇게 추운데 건너오셨는데 어떻게 또 건너가요?”

“건너드려야지, 살려 들어야지.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 안 살려드리면 누구를 살려요.”

이 딱 장담을 하더라고. 처음에 자기 군화를 탁 놓더니 그 맨 것도 벗어서 군화위에다 얹혀 놓더니 우리 큰아들을 아이 그런데 그 광어리가 있잖아. 곡식이 하나도 안 넣은 광어리가. 그 광어리를 내가 애기를 업고 그걸 이고 나왔다고. 근데 거기서 자루 하나를 꺼내서 머리위에다 놓고 가셔도 내가 못이고 애기 업고 못 건너가.

그러니까 광어리를 어깨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서, “가만히 계세요. 이거 제가 갖다 놓고 와서 아주머니를 업고 갈게.” 그래²⁷⁾

신씨할머니가 한 번 장사를 나가면 오일이고, 일주일이고 물건이 다 팔려야 집으로 돌아온다. 하루는 신씨

26) 신씨(여, 89세); 앞과 같음.

27) 신씨(여, 89세); 앞과 같음.

할머니가 삼일 만에 물건을 다 팔았는데, 산에 얼음이 녹아 물이 안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밭이 묶여 있었다. 가족들 걱정에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물건 팔고 마련한 곡식을 이고, 작은 아이는 업고 큰 아이를 앞세우고 산으로 간다. 해는 점점 지고, 총알도 자신을 피해간다고 역적같이 장사를 다니던 신씨할머니가 ‘나 죽는건 괜찮은데 애들을 어떡하나. 아들 형제를 여기서 죽이느냐’라며 체념하려고 할 때, 우연히 군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군인은 신씨할머니와 아이들은 물론 물건까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무사히 건네준다. 신씨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군인에게 몇 번이고 어디에 사는 누군지를 물었지만 군인은 ‘아주머니는 잘 가셔서 잘 사시면은 그걸로 나는 행복하니깐 그걸로 가세요. 어여 가세요. 잘 가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신씨할머니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덕을 입고 내가 살았어요’라며 군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성 전쟁체험담에서 신씨할머니와 같이 사선(死線)에서 타인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긴 사연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고 감내하는 여성들의 삶에 조력자가 불쑥 나타나는 건 신씨할머니가 군인을 산왕대신이 보낸 것이라는 믿는 것과 같이 우연이 아닌 필연일지도 모른다.

요런 이야기 헐라고 안 죽어. 요런 이야기. 글안했으면 저저 옥굴 화순 온천 그 또랑에서 죽었어야 맞아. 그랬으면, 그때 죽어부렀으면 간단하제. 근디 기필 살아가고 그 역경을 다 겪고 아이구메 지나간 일 돌아보기 싫어 진짜. 요 이야기를 해도 손이 벌벌벌 떨려. 어즈게 힘들게 살았는지. 궁게 그 피난 대넘서 그 고생을 했기에 여그 와서도 그렇게 안 착같이 그냥 몸뻘 하나를 못 사입고 떨어진 놈을 집고 집고 기워 입어가꼬 누가 몸뻘 하나를 사준선 요렇게 살아서 뭣 헐라냐 헐디다.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딸까장 그래도 저렇게 눈 띄었어. 그렇게로 지금을 질로 편하게 댔어 인자.²⁸⁾

고영 제보자는 자신이 반란군과 국군의 총격전에서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경험을 남기기 위한 필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때의 고생은 기억하는 것만으로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있지만, 그때 견디고 이겨낸 역경으로 몸뻘 한 벌 사서 떨어지면 기워 입으면서 악착같이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편하게 되었다고 고단한 삶을 잘 이겨낸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한다.

여성들이 전쟁이라는 역사가 준 아픔이자 상처를 좌절의 서사가 아닌 무수한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감당해내고 이겨낸 긍정(희망)의 서사로 받아들일 때, 고영 제보자처럼 가족과 자신을 지켜낸 삶에서의 영웅이자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궁게 닫힌 마음 문이 서서히 열려 치유의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다.

3.2. 포용과 통합을 통한 구원의 서사

이념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전쟁의 역사는 이념과는 무관하게 하루 일상을 살아왔던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많은 여성들이 전쟁 상황에서 겪은 사선(死線)에서의 무수한 죽음의 공포, 고초, 가족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했지만, 그와 동시에 가슴 속 깊이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 그만큼 역사가 개인에게 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원망과 분노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삭이고만 있으면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포용과 통합의 서사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고영 제보자의 모친의 삶의 태도를 잠시 보자.

우리어머니가 전에는 그 신분들이 오르는 입저택이라고 요런 요 모직에다가 막 엮도 해오고 떡도 해오고 허요 이. 근디 그 군인들을 그 와중에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남자여 아주 여장부여. 돌아가셨지마는. 그 와중에도 무섭

28) 고영(여, 74세); 앞과 같음.

도 안 했등가 떡가래를 그냥 종이애다 뽕뽕 몰아서 막 군인들을 줌션, “시장하신티 잡숨서 허시라”고

“우리아 뉘 죄가 있소마는 그 이롭게 군인들이 생각기는 우리가 죄가 많은디 우리로 해서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험션 막 주셨대요. 궁게 그런 인연으로 배가 고팠는디 그분들도 그 떡을 주시고 그 음식을, 남은 음식을 주고 그양, “우리는 죄가 없지마는 나라에서는 우리를 죄로 취급을 허니 별 수가 없이 당한다”

는 그 말씀을 허신 것이 너무 감동됐다고 와서 전화를 해 고리. 이자 그 우리 아버지한테로, 있는 지서으로, 시방 말하든 화순군이여 화순군으로 넘어가부렀어. 그래가꼬는 막 죽어불르는 물 한 바가지씩 콕 찌끄러가꼬, 찌꺼른 살아난다 드만. 막 해가꼬 한, 한 이십 일간을 거그서 못나오셨어요. 그 인자 그 양반들이 늘 막 이롭게 전화를 험서, 말을 함서 그래가꼬 그 덕으로 오신디. 당신 발로도 못 오고 그떡에는 차도 없으게로 저 왔어 저 와. 화순서 둠병제라는 재를 넘 어서²⁹⁾

고영 제보자의 부친에 얹힌 비극적 사연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사연을 정리한다.

고영 제보자의 부친은 큰아들 결혼식에 쳐들어온 반란군들의 협박에 못 이겨 음식과 옷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작대기가 부러지고 명주옷이 찢겨질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지서로 끌려간다. 이유는 반란군을 대접하고 마을에 들이기 위해 아들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친은 반란군과 내통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죄목이 그러하면 끌려가서 당할 고초는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하고도 남음이다. 보통사람 같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끌고 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분리의 서사를 선택할 법도 하다. 하지만 제보자의 모친은 군인들에게 그저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는다. 배고픈 군인들에게 엿과 떡을 해다 주고, 음식을 갖다주면서 그들의 논리와 상황에 충분히 동조하고 이해해 준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지마는 나라에서는 우리를 죄로 취급을 허니 별 수가 없이 당한다’는 진심을 말한다. 제보자의 모친이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의 손을 내밀었을 때, 군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들은 모친의 말에 감동을 받았으면서 제보자의 부친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제보자의 모친은 원망의 대상을 포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충분히 읽어주는 포용의 서사로 대응함으로써 이념갈등으로 악이 올라있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돕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로 어머니가 손을 잡고, “죽으믄 우리나라 죽제 념을 피해줘서 쓰잖나?”

그러고 인제 내 손을 그냥 끌코 막 총탄은 쏘아진디 어디를. 요로코 봉게로는 그 속에서도 짙어지고 그 산예를 올라 가드랑게. 군인 찾아서 올라가.

그렇게로 어머니가 손을 잡고, “죽으믄 우리나라 죽제 념을 피해줘서 쓰잖나?”

그러고 인제 내 손을 그냥 끌코 막 총탄은 쏘아진디 어디를. 요로코 봉게로는 그 속에서도 짙어지고 그 산예를 올라 가드랑게. 군인 찾아서 올라가. [조사자 : 어머니가?] 이자 사람들이.

궁게, “차라리 우리도 저 사람들을 따라가자”

어머니가. 눈이 수북허니 왔는디 눈을 한 주먹씩 집어먹음서 배도 고프도 목도 마룻게 죽을 일이제. 막 겹은 나고 총소리는 하도 쏘아징게. 궁게로는 눈을 한 주먹씩 요로고 집어먹고, “엄마 나는 못 가졌어”

막 금서 주저앉을라고 허믄, “너뎡시 다른 사람이 죽은디 너는 죽어도 괜찮히고 나는 죽어도 괜찮허지만 너뎡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봉게 기피 가야한다”는 거야 거그를.

그래가꼬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허고 눈을 한 주먹씩 집어먹고 거그를 올라강게로 군인들이 있어요.³⁰⁾

위 인용문 역시 2장 사선(死線)의 공포 서사에서 인용했던 고영 제보자 사연의 연장이다. 제보자가 모친을 따라서 담배를 주우러 갔다가 반란군과 군인이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모녀가 사람들이 몸을 숨긴 곳에 같이 숨으려 하지만, 사람들은 제보자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 그때, 모친의 태도는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모친은 ‘죽으믄 우리나라 죽제 념을 피해줘서 쓰잖나’면서

29) 위와 같음.

30) 위와 같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제보자의 손을 잡고 총탄이 쏟아지는 곳으로 옮기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배고프고 목말라서 못가겠다고 주저앉는 딸에게 너도 나도 죽어도 괜찮지만, 이 자리에 그대로 놀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면서 딸에게 눈을 한 주먹 집어 먹이고 끌고 올라간다. 제보자의 모친은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 몰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내가 죽고 딸이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보다 못하다는 전시상황에서도 모친은 나가 아닌 타인, 사람을 먼저 생각한 처사다. 그들을 쫓아내던 사람들에게 왜 너희만 살려고 하나? 나도 같이 살자고 덤뻐다면, 혹은 그들을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제보자 모녀는 그들과 함께 몰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의 모친은 딸의 검은 옷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용했기에 총탄이 날아다니는 그 위험한 길을 딸과 함께 오를 수 있었고, 그 길이 사즉생(死即生)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족 간이라도 원망을 품으면 그 상처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남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분리의 서사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일수록 포용과 통합의 서사는 더욱 필요하다.³¹⁾

여그 여 주포 있는데 저그 있어. 구주포라고 근디 거기장 내뻐. 야- 우리 어매도 내뻐고 나도 내뻐고 내뻐디. 나는 그래도 내뻐다고 했어도 잘 못 따라가졌드만 어매를. 못 따라가졌어. 어매는 담박질을 잘 친디. 그렇게 애기 엮은 각시도 인자 담박질을 잘 치고 그래가꼬 십리 밖에나 쫓겼어 인자 거그를. 주포라고 헨 디를. 여그 와가꼬 못 강게.

그래가꼬 가봉게 우리어매는 어디로 가불고 없고

“아이 우리 어매 어디로 갔냐?”

고 형게는 모린다고 해.(청중 웃음)

그래가꼬 내중에는 인자 요로고 찾아봉게 여그 여 가동이라고 거그 뒷산에가 올라가까 소리허드랑게. 거그서 순경 들허고 같이.

“시상에 나는 뛰어놓고 한자만. (청중 웃음) 혼자 가서 있냐?”

고 뭐이라고 했제 어매보다.

“내 앞에 간 중 알았제 누가 뒤에 온 중 알았냐”고 궁게

“앞에 갔으믄 앞에 갔시믄 어디가 죽어부렀겼구만. 저 총 맞아서”

그렇게 웃드라고.³²⁾

임판례 제보자는 반란군을 피해 모친과 함께 도망친다. 그러나 딸보다 모친의 달음박질이 더 빠르다. 그 순간 딸은 모친을 잃어버린다. 뒤늦게 찾아온 딸에게 모친은 먼저 앞에 간 줄 알았다는 등, 딸이 앞에 먼저 갔으면 총에 맞아 죽었을 거라는 등 핑계를 대며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이 모녀에게는 이런 상황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봉화가 피어오르고 총소리가 들리자 제보자의 모친은 두 딸에게 논두렁으로 숨으라고 한다. 하지만 두 딸은 엄병 치고 모기 물고해서 그곳은 숨기 싫은 장소다. 그래서 자매는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근처 할머니집으로 피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모친이 막내아들만 데리고 피난 와 있었다. 당시 어린 마음에 제보자는 ‘아이 어매가 우들 논두렁으로 가라 해서 갔는디 우들한테 안 오고 어디가 뭇 허고 인제 오냐?’ ‘아이 근디 우들은 떠어놓고 고러고 어매만 나가서 막둥이만 텔꼬 여가 았었구만’ 하면서 모친에게 원망조로 따진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그때를 기억하며 구술할 때는 그때 섭섭하지 않았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섭섭한 것도 없고 뭇 헨 것도 없고 다 나만 살라고 형게 그때는. 소용 없 당게’라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누구나 그랬다면 모친의 행동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다. 더 나아가 ‘우리 오

31) 문학치료학에서는 인간관계의 방식에 따라 서사를 가르기서사, 밀치기서사, 되찾기서사, 감싸기서사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분리의 서사는 가르기, 밀치기서사, 포용과 통합의 서사는 되찾기, 감싸기서사로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용어의 대체 가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2) 임판례(여, 77세);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2리 (2012. 2. 19), 심우장, 박현숙, 박혜진, 조홍윤, 황승업 조사.

빠들 살릴라고 그랬제. 우리 어매가. 아들 살릴라고 아들 하나 죽어불고는 한이 되갸 (.....) 큰 아들 갖다가 그래불고 형제. 집안, 큰 대종손인데 죽어부렀제. (.....) 그렇게 이주 얼마나 거시기 했겄소' 라며 모친의 행위를 대변하며 모친의 감정까지 내재화시켜 통합의 서사로 나아간다.

이렇게 여성들의 전쟁체험담의 서사가 포용과 통합의 서사로 나아갈 때, 가족상실의 트라우마의 극복과 치유의 여지가 생긴다. '그 인공을 그렇게 당했어도 어부지만 애매하게 그렇게 가셨제. 우리들은 아예 그냥 아무 거시기가 없어. 그렇게 막 총탄이 앞으로 숭숭 쏟아지고 그래도 우리 식구는 안 죽었어'라고 구술하는 고영제보자나 경찰가족이었어도 큰 오빠 외에는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없다고 구술하는 임판례 제보자의 모습에서 그 여지를 찾을 수 있다. 여성제보자들은 전쟁에서 얻는 가족상실의 트라우마로 인해 전쟁은 떠올리기도 싫지만, 적어도 온갖 고난을 감당한 결과로 나머지 가족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으며 자정적인 치유의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다.

여성제보자들이 전쟁체험을 나, 가족 그리고 타인의 삶까지 이해하고 끌어안으려는 포용과 통합의 서사로 재구성해낼 때, 비로소 전쟁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극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여성 전쟁체험담을 기반으로 여성이 기억하는 전쟁의 서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성들의 전쟁체험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서사만 기억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신과 가족이야기, 다른 사람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가족이야기, 직접 목격한 주변 사람들 이야기,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주변 사람이야기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서사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의 서사까지 자신의 전쟁체험으로 내재화함으로써 기억하여 재구성해내는 전쟁체험의 서사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깊고 풍부하다.

지금까지 분석한 전쟁체험 구술담화 속에는 여성들의 전쟁체험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여성들이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내재된 부정적 감정이다. 남성들이 부재한 생활 속 전쟁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피난, 가족부양 등의 버거운 책임감으로 감당해 내야만 했던 여성으로서의 고난에 대해 그러하다. 또, 많은 여성들은 전쟁 중에 아무런 죄도 없는 선량한 아비가 누명으로, 피난 가던 어린 동생이 총격으로, 남성의 이념적 사상으로 자녀를 처참하게 잃어야 했다. 여성들이 전쟁체험 구술에서 역올한 죽음에 대해 한이 서린 분노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이런 가족의 상실에 대해 그러하다. 또 사선(死線)에서 직면한 죽음의 공포에 대해 그러하다. 이러한 전쟁의 부정적 감정은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깊은 상흔을 남긴다.

전쟁체험은 여성들에게 온갖 고통을 주며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도 전쟁 상황 속에서의 그녀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전쟁 상황에서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버겁다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줄줄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짊어지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내해낸다. 이렇게 감내해낸 그 삶이 곧 영웅서사가 되고, 그 서사는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여성제보자들은 분노와 원망의 사건들을 포용과 통합의 서사로 받아들이고 감내함으로써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많은 전쟁의 상흔들을 자정적으로 치유해 내고 있었다.

물론 여성의 모든 전쟁체험담의 서사가 극복의 서사를 담고 있지는 않다. 분명 극복되지 못하고 분리의 서사에 멈춰 머물지 않은 전쟁의 상흔에 현재까지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그 힘겨운 삶을

감당하고 살아낸 서사를 지닌 것만으로도 그들의 치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의 맥락에서 전쟁체험담의 접근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문학치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제적 트라우마 극복방안을 전쟁체험담에서 찾아가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성 전쟁체험담 사례를 통해 본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과 대응 방식」에 대한 토론문

심우장*

두 세대가 흘러간 상황에서 이제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문학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구술체험담은 전쟁 치유의 문학을 보다 실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현숙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핵심적인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 자료의 성격

○ 전쟁에 대한 서사를 남자는 전방에서 총을 들고 후방에서는 은둔하면서 겪은 체험으로 한정하고 여성은 남편 또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체험으로 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조사된 한정된 방식의 자료에서 기인하는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지금 전쟁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젊은 시절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연령대로 추정해보면 젊은 남편이나 젊은 아버지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성 제보자는 가족, 주변인들의 서사까지를 아울러 내재화하여 깊은 상처로 간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쟁 체험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 체험담 일반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험담 속에서 형상화된 여성의 모습을 바라공주나 당금애기와 견준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전쟁체험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서사화 전략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B. 트라우마 증상

○ 트라우마에는 증상이 있게 마련인데, 전쟁과 관련하여 체험담에서 포착할 수 있는 트라우마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양한 양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구연의 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본다면, 예를 들면 이야기 구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죄책감을 갖고 구연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를 하면서 구연할 수도 있고, 때론 아무렇지 않은 척 구연할 수도 있고 또 웃으면서 구연할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군인들 또 저그 뒤에 쫓아올까 무섭고 그런 세상을 다 살았어, 우들도 그러고, 아이고, 말도 못해. 그런 세상을 살았당게, 참말로’를 통해 트라우마가 깊게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상처를 건드려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과 트라우마는 구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C. 트라우마의 존재

○ “너때시 다른 사람이 죽은디 너는 죽어도 괜찮히고 나는 죽어도 괜찮히지만 너때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게 가피 가야 한다”라 한 것을 두고 트라우마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포용과 통합의 서사로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한 자기 소신을 밝힌 부분으로 애초에 여기에는 트라우마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자매는 버려두고 막내아들만 챙겨서 할머니집으로 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구연하면서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지 무겁게 구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애초에 트라우마와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여성 고난의 서사를 논하면서 “62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진저리가 쳐지는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고생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 것과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 생기는 트라우마는 구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D. 종합

○ 전체적으로 미리 구성된 틀에 여성 전쟁체험담을 끼워 맞추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강한 인상을 주는 역사적 체험을 일단 트라우마로 전제하고, 심각하지 않게 이야기되는 서사를 치유의 서사로 병치시키려는 의도가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 특징과 그 문학치료 가능성

박재인*

<차례>

1. 서론
2.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3. 설화에 대한 반응으로 본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
 - 3.1.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 검사 결과
 - 3.2. 탈북여성B가 잘 이해하는 작품서사와 그녀의 자기서사
 - 3.3. 탈북여성B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서사와 그녀의 취약점
4. 탈북여성B에 대한 문학치료의 주안점과 치료 가능성
5. 결론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구성하고 인간적인 행복을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하 탈북여성)의 수가 확대되면서¹⁾, 탈북여성 대한 연구 역시 특성화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과 지원 방안을 제시한 연구²⁾를 비롯하여, 탈북여성의 가족 내 역할 문제 및 사회 적응 문제에 대한 논의³⁾ 등 탈북여성의 탈북 경험과 새터에서의 적응 문제가 핵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인신매매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 문제와 남한 입국 이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거나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못한 대상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⁵⁾ 이에 더하여 모자 입국 사례의 증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해체 문제와 모자 가정 빈곤화 가능성⁶⁾ 등 그 문제 제기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탈북여성의 외상 경험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심리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그들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발표된 바 있다. 탈북여성의 외상 경험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히며, 사회복지적 제언을 제시한 논의⁷⁾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혹은 그들에게 보이는 공격성,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1)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이탈주민 현황(2012년12월)에 따르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여성의 비중이 2000년 이후로 46%로 급증하였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는 총24,614명의 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이 72% 가량 된다.
- 2) 백영옥, 「중국 내 탈북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제6권1호, 2002, 241~264면.
- 3) 장혜경·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한국여성개발원, 2000; 안연진,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 임인숙·윤인진, 「북한 이주민의 성 역할 태도와 부부권력의 변화와 지속」, 『가족과 문화』제20집3호, 2008, 99~126면.
- 4) 강차연, 「중국내 거주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여성연구논총』제21권, 2006, 39~53면.
- 5) 조영아·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제10집1호, 2005.
- 6) 박정란, 「성인지적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의 여성 새터민 취업지원방안」,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에너지·새터민·의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제3차 통일학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2008. 11. 27.

긴장, 불안감 등을 다면적 인성 검사(MMPI-2)를 통해 진단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⁸⁾

외상 경험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견해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증명되어 왔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탈북여성이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발견하는 데에 큰 성과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안 제시는 아직 구체성과 효용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문제에 대한 자각을 유도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과정을 문학과와 서사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는 문학치료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탈북여성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몰두하지 않고, 탈북의 경험과 새터에서의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경험이 그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자기서사를 건강한 방향으로 강화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자기서사의 건강성이 사람의 인생살이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전제에 충실한 문학치료 활동이자, 연구이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특정한 경험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람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자기서사의 건강성 회복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증진시켜서 탈북 경험과 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탈북여성B를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자기서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구체화하면, 그 강점은 극복 의지가 결핍된 탈북자에 대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취약점은 그녀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개선강화시킬 만한 작품서사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를 근간으로, 총 5회기에 걸쳐 탐색된 탈북여성B의 설화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녀의 자기서사를 탐색하고, 치료과정을 진행하였다.

2.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2008년에 입국하여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여성B를 대상으로 매주 한 번 총 5회기의 문학치료 활동을 진행하였다.⁹⁾ 이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프로그램¹⁰⁾이며, 그 상세 내용

7) 김미자,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7집1호, 2010, 1~18면;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1호, 2011, 161~204면.
8) 김희경,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5집3호, 2010, 311~329면; 최빛나김희경,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집1호, 한국심리학회, 2011, 195~212면.
9) 이 프로그램은 통일인문학연구단 부단장 정운채(국어국문학문학치료학 교수, 문학치료최고전문가)와 HK연구교수 강미정(국어국문학문학치료학 박사, 문학치료최고전문가)의 구상으로 기획되었다. 연구자(국어국문학문학치료학 박사수료, 문학치료전문가2급)는 매 회기 이전에 주의사항을 지도 받았으며, 매 회기 이후에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왔다. 이와 같이 상위 문학치료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일은 문학치료전문가 내지 문학치료사의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10) 이 프로그램은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에 활용된 16개의 설화 작품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이 16개의 설화작품의 줄거리는 뒤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자	<간 뺏길 뻔한 전처 아들>	부	<고부곡어항천>
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부	<호랑이 눈썹>
서	<내 복에 산다>	서	<지네 각시>
사	<효불효 다리>	사	<도량 넓은 남편>
남	<역적 누명과 회초리>	부	<지붕에 소 올리기>
녀	<여우 구슬>	모	<칠십생남비오자>
서	<여색 멀리하는 신하 깨우친 임금>	서	<복 빌린 나무꾼>
사	<여인과 목욕하고 금부처가 된 남자>	사	<장모가 된 며느리>

은 다음과 같다.

1회기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으로 자기서사 진단 실행
2회기	16개의 작품서사 중 피검자가 잘 따라간 작품들에 대한 반응 탐색
3회기	16개의 작품서사 중 피검자가 잘 따라가지 못한 작품들에 대한 반응 탐색
4회기	문학치료사가 16개 작품서사의 중요 요소 제시
5회기	지금까지 문학치료 활동에 대한 정리

이 프로그램은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 검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¹¹⁾은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근거하여, 서사의 주체가 맺는 인간관계의 특성에 따라 서사영역별(자녀·남녀·부부·부모서사)로 나누고, 서사의 주체가 인간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서사양상(가르가밀치가되찾가감짜기서사양상)으로 나눈 것에 근거하여 선별된 작품서사들로 구성되어 있다.¹²⁾ 그리고 상정된 서사의 주체가 주어진 문제 상황을 극복하여 행복한 결말을 취하는 구조의 16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이 진단도구는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간단한 방식으로 대략적인 자기서사의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세 개의 서사 분기점을 지정하여 다양한 경로의 서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서사분석형으로 문항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피검자의 자기서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¹⁴⁾

게다가 이 진단도구의 문항은 피검자가 16개의 작품서사를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검자가 진단서사를 잘 따라간다는 것은 제시된 진단서사와 가까운 위치에서 피검자의 자기서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검자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작품서사의 경우는 그 또한 피검자의 자기서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¹⁵⁾

자기서사진단도구를 통한 검사를 마친 이후 2회기와 3회기에서는 16개의 설화작품에 대한 치료대상자의

11) 이는 정운채가 개발한 자기서사진단도구의 하나로, 이 진단도구 설계 과정은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12.31, 361~397면을 통해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고, 진단도구의 형식은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화교육학회, 2009.2.28, 125~160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 진단도구를 사용할 때에 기본적으로 원래의 검사지에 충실하였으며, 단, 서사분석형으로 형식을 조정하였고, 필요에 따라 몇몇 문항들은 수정하였다.

12) 이 진단도구는 피검자의 자기서사에 부모·가르·자녀·남녀·부부·부모서사로부터 자녀·남녀·부부·부모서사에 이르는 열여섯 개의 서사영역 각각에는 다양한 수준의 서사들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 열여섯 개의 서사영역에서 각각 어떤 수준의 어떠한 자기서사가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연역적으로 체계화된 서사영역과 양상에 기초한 문항들이기 때문에 피검자의 자기서사의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 이 진단도구에 활용된 16개의 작품서사는 모두 인간관계의 주체가 궁극적인 성공에 이르고 있는 서사이기 때문에, 이 작품서사들이 높은 수준의 서사로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4) 서사분석형 진단도구는 각각의 작품서사에 3개의 분기점을 지정하여, 4갈래의 서로 다른 서사 경로를 선택지문으로 제시한다. 3개의 분기점은 각 서사영역 별 그 인간관계의 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선정되어서 그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이 유의미할 수 있다.

제시한 총 4개의 선택지문에서 그 중 한 갈래는 본래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서사 경로이며, 다른 두 갈래는 본래의 이야기와 다른 서사 양상을 제시하는 서사 경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시한 서사경로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시하는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역시 인간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15) 그리고 이 진단도구에 반영된 16개 서사영역과 양상은 나(self)와 세상(world), 법칙(principle)과 소망(desire), 확신(confidence)과 의혹(doubt), 추구(pursue)와 초극(transcendence)의 개념 체계에 의거해서 연역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검자가 선택한 작품서사를 통해 피검자의 자기서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체계를 주목하여 자기서사의 특징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12.31, 361~397쪽. 참조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2회기에는 탈북여성B가 비교적 잘 따라갔던 작품 8개, 3회기에는 비교적 잘 따라가지 못한 작품 8개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였다. 여기에 반영된 문학치료의 기술은 대상의 자기서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품서사에 대한 문학치료 활동을 먼저 시행한다는 점이다.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회기에서 문학치료사는 대상이 잘 따라간 작품서사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깊이 있는 이해에서 비롯된 선택인가를 점검하면서, 혹시 몰이해의 지점이 발견되면 그 진단서사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 3회기에서 문학치료사는 대상이 잘 따라가지 못한 작품서사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무엇이 작품서사에 대한 몰입과 이해를 방해하였는지를 포착하는 데에 주력한다. 대상이 어떤 지점은 잘 이해하였는데, 어떤 지점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대상의 자기서사를 분석하는 일에서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되며, 특히 대상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 요인은 대상이 지닌 특성 내지 취약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⁶⁾ 이렇게 2~3회기에서 발견되는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가 지닌 특징은 치료 과정의 주안점이 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활동 과정에서 문학치료사의 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특별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작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었다.¹⁷⁾ 반면 문학치료사는 대상의 말 뿐 아니라, 표정, 어조까지 살피는 등 그 반응을 기억하는 데에 집중하고, 회기별 대상의 반응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에 몰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특징이다.

대상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2~3회기를 마친 후에, 4회기에서 문학치료사는 2~3회기에 포착된 자기서사의 특징을 중점으로 하여, 대상이 누락시켰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중요한 서사적 요소들을 상기시켜주면서, 각 작품서사의 의미를 전달해준다. 이 치료과정에서는 대상이 잘 따라간 서사가 전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잘 따라가지 못한 서사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역시 문학치료사의 역할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교육과 훈계 방식이 아니라 문학연구자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대상에게 접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5회기에는 문학치료 활동을 경험한 대상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문학치료 활동의 의의를 대상 스스로 상기시켜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주입적인 방식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스스로 작품서사에 몰입하고 자기서사와 작품서사를 소통시키고 그 개선의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주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설화에 대한 반응으로 본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

16) 자기서사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작품서사에 대한 이해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서사접속능력에 관한 문학치료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와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아들여 해석할 때에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가 일치할 적에는 서사의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메시지의 왜곡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발신자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와 수신자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가 일치하지 않을 적에는 서사의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메시지의 왜곡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의 왜곡 문제는 서사의 일치 여부 문제로 치환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지 왜곡의 원인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정운채, 「서사접속 및 서사능력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제2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07, 153~170면.)

17) 이 문학치료 활동에서 문학치료사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한정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문학치료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소통을 통해 자기서사의 미약한 지점을 작품서사로부터 제공받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학치료는 치료대상이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작품 속에서 충분히 몰입되어 작품 속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활동 시간 내에는 치료대상이 충분히 작품서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문학치료사는 그러한 여건을 제공하는 일에 충실하고, 치료대상의 자연스러운 반응 표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영된 문학치료 원리는 작품서사에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서사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치료사는 제공된 작품서사를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대상의 반응을 중시해야 한다. 자기서사의 어떤 지점과 관련이 되어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인지 그 반응 각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3.1.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 검사 결과

다음은 1회기에 진행한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진단 결과이다.

서사영역 별 자기서사 진단 결과			서사양상 별 자기서사 진단 결과		
진단서사 영역별		결과	진단서사 양상별		결과
자 녀 서 사	<간 뺏길 뻔한 전처 아들>	66.6	가 르 기 서 사	<간 뺏길 뻔한 전처 아들>	66.6
	<해와 달이 된 오누이>	33.3		<역적 누명과 회초리>	0.0
	<내 복에 산다>	66.6		<고부곡어항천>	33.3
	<효불효 다리>	66.6		<지붕에 소 올리기>	33.3
	평점	58.2		평점	33.3
남 녀 서 사	<역적 누명과 회초리>	0.0	밀 치 기 서 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33.3
	<여우 구슬>	33.3		<여우 구슬>	33.3
	<여색 멀리하는 신하 깨우친 임금>	33.3		<호랑이 눈썹>	100.0
	<여인과 목욕하고 금부처가 된 남자>	33.3		<칠십생남비오자>	66.6
	평점	24.9		평점	58.3
부 부 서 사	<고부곡어항천>	33.3	되 찾 기 서 사	<내 복에 산다>	66.6
	<호랑이 눈썹>	100.0		<여색 멀리하는 신하 깨우친 임금>	33.3
	<지네 각시>	66.6		<지네 각시>	66.6
	<도량 넓은 남편>	66.6		<복 빌린 나무꾼>	66.6
	평점	66.6		평점	58.2
부 모 서 사	<지붕에 소 올리기>	33.3	감 싸 기 서 사	<효불효 다리>	66.6
	<칠십생남비오자>	66.6		<여인과 목욕하고 금부처가 된 남자>	33.3
	<복 빌린 나무꾼>	66.6		<도량 넓은 남편>	66.6
	<장모가 된 며느리>	33.3		<장모가 된 며느리>	33.3
	평점	50.0		평점	50.0
총 평점		50.0 (점)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 검사 결과 총 평점이 50.0점으로,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는 인간 관계 문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서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태로 진단되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사영역 별 진단 결과 탈북여성B는 부부서사영역에서 66.6점으로, 자녀서사영역에서 58.2점으로 진단되었다. 특별히 발달된 서사영역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녀는 자신이 대하는 대상이 바라는 소망에 집중하여 관계를 지속하는 일¹⁸⁾과 대상이 정한 법칙에 순응하는 일¹⁹⁾에 대하여 능숙하다고 판단된다.

18) 부부서사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학치료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부부서사의 주안점은 지속이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실제의 부부는 지속만이 아니라 순응의 문제도 일어나고 선택의 문제도 일어나고 양육의 문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서사라고 할 적에는 지속이 주안점인 서사만을 가리킨다. 부부가 왜 지속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남녀로부터 일종의 다른 세계, 다른 영역, 다른 관계로 옮겨 간 것이 부부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냥 남자가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고 좋아하고 이럴 때에는 지속을 의무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부터 지속은 중요한 의무가 된다. 결혼은 곧 관계의 지속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웃집에 아무도 이사 오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면서 평생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거짓이고 위선이다. ... 이쯤 해서 우리는 배타적인 관계에서의 관계의 지속이라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 관계의 배타성에서 그 지속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배타성을 무너뜨릴 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그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포용할 수 있을 때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19) 자녀서사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학치료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자녀서사 영역에서는 순응이 주안점이다. 그런데 순응

남녀서사영역은 총 평점 보다 낮은 24.9점이기 때문에 다른 서사영역에 비하여 이 지점에는 취약한 면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남녀서사의 주안점인 ‘나’의 ‘소망’, 즉 현실적인 제약을 떠나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문제²⁰⁾에 대하여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녀서사영역에 비하여 자녀서사영역, 부부서사영역의 작품들에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주로 ‘나’보다는 ‘세상’, 즉 그녀의 관심과 에너지가 자신보다는 대상에게 집중되는 성향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녀서사영역의 작품들에 호응하지 못하고 자녀서사영역, 부부서사영역의 작품들에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소망’보다는 ‘법칙’, 즉 하고 싶은 바 보다는 해야 되는 바를 주안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사 양상²¹⁾ 별 진단 결과 그녀는 비교적 밀치기서사와 되찾기서사가 발달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밀치기서사와 되찾기서사의 공통분모는 관계 맺는 대상에 대한 의혹을 발동시키는 일이며, 감싸기서사와 가르기서사의 경우는 관계 맺는 대상에 대한 확신을 발동시키는 일이다. 그녀는 의혹을 발동시키는 일에 능숙한 편이며, 확신을 가지는 일에 미숙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가르기서사에 취약한 특징을 보였는데, 가르기서사는 ‘나’와 ‘대상’, ‘소망’과 ‘법칙’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점과 선, 악, 시, 비, 호, 불호에 대해 추구하는 바가 힘찬 면이 특징이다. 그녀는 관계 맺기에 있어서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취약하다고 진단될 수 있다.

진단서사 별로 그 결과를 정리하면, 그녀는 <호랑이 눈썹>에서 원래의 서사 경로 그대로 따라갔으며, 반대로 <역적 누명과 회초리>에서 원래의 서사 경로를 모두 비껴가는 선택을 하였다.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는 비교적 <호랑이 눈썹>과 같이 부부밀치기서사가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역적 누명과 회초리>와 같은 이성가르기서사는 그녀의 미숙한 지점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라는 주안점은 자녀의 위치를 유념해서 추출한 것이다. 자녀로서 세상과 관계를 맺을 적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순응이라는 것이다. ...결국 자녀서사에서 순응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힘과 규범인 셈이다. 여기에 순응을 잘하면 잘 살게 되고 번듯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순응을 잘 못하면 잘 살기도 어렵고 성장하기도 어려워져 특히 사회로부터 배척 받는 인물이 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순응은 자포자기나 무기력이나 대처능력 상실과는 거리가 먼 순응이다. 오히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할 때의 순응이다. 순응을 잘 해야 성인군자가 될 수가 있지, 순응을 잘 못하면 성인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순응을 분리독립과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며, 오히려 순응을 잘해야 분리독립도 잘 된다고 볼 일이다.”(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8.30, 247~278면.)

20) 남녀서사영역에 대한 기본적 문학적치료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남녀서사의 주안점은 선택이다. 이 선택은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다. 자녀서사와는 에너지 방향이 다르다. 그리고 이 자녀서사의 순응은 순응해야 할 것이 매우 거대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남녀서사의 선택은 선택해야 할 것이 거대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거대한 것으로 다가오면 선택할 수 없다. ... 그래서 남녀서사는 나라는 주체가 뚜렷이 서고 자아가 확립되는 지점을 아주 침예하게 드러내는 서사인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는 바로 남녀서사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 그것이 이 성에너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남녀서사에서 성적 능력, 성적 욕구, 성적 매력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서사에서는 다른 서사영역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규범이 전면에 나서면 남녀서사는 작동이 멈추거나 매우 위축된다. ... 우리에게 남녀서사가 중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 그러한 서사에 접속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은 윤리나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이 남녀서사의 특별한 힘이다.”(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8.30, 247~278면.)

21) 서사양상에 대한 문학적치료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르기서사와 감싸기서사는 선악(善惡), 시비(是非), 호오(好惡)에서 그 기준이 분명하다. 반면에 밀치기서사와 되찾기서사는 선악, 시비, 호오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혹을 품어서 처음과 나중이 달라진다. 그리고 가르기서사와 밀치기서사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선(善), 시(是), 호(好)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착해야하고 옳아야하고 좋아야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되찾기서사와 감싸기서사는 부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의 긍정적인 면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마련된 기준이나 판단이 확고할 때에는 주로 가르기서사나 밀치기서사가 전개된다. 그런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되찾기서사나 감싸기서사가 전개된다. 긍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서사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기서사나 밀치기서사는 보수적인 서사이다. 반면에 되찾기서사나 감싸기서사는 진보적인 서사이다. 진보적인 서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서사인 것이다.”(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8.30, 247~278면.)

3.2. 탈북여성B가 잘 이해하는 작품서사와 그녀의 자기서사

보다 정밀하게 자기서사를 분석해내기 위하여, 먼저 1회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회기의 반응 탐색 결과와 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기서사진단 검사 시에 모든 분기점에서 원래의 서사 경로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작품서사에 대해 완전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서사진단도구에서 100% 잘 따라간 작품은 <호랑이 눈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자기서사는 <호랑이 눈썹>과 유사한 면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에 2회기 때 드러난 그녀의 반응을 근거로 하여 잘 따라간 작품에 대한 그녀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작품서사에서의 핵심 지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2회기에 탐색된 그녀의 작품에 대한 반응과 견주는 방식으로 자료에 접근하면 중요한 지점이 발견될 것이다.

<호랑이 눈썹>²²⁾은 부부서사영역의 배우자밀치기서사이다. 대상의 소망에 주목하여 관계를 지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사의 주체가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대상과의 관계를 밀쳐내어 성공하는 결말에 이르는 작품서사이다.²³⁾

대상(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가난’에서 시작되었으며, 서사의 주체는 가난 극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백인제 고개를 넘어 형상이 아닌 실체를 볼 수 있는 ‘호랑이 눈썹’을 얻었다. 그리고 서사의 주체는 호랑이 눈썹으로 인하여, 가난의 원인이 사람과 닭이라는 자신과 아내의 관계 부조화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주체는 자신과 배우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이별을 하고, 이별 후에도 서로를 보살핌으로써 관계의 지속을 영위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 작품서사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때로는 이별이 행복을 되찾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서로의 행복을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진정한 지속의 원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2회기에 탐색된 탈북여성B의 반응으로 <호랑이 눈썹>의 작품서사에 대한 몰입도와 이해도를 확인할 수

22)(1) 어떤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자 가난한 남자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향간의 소문에 백인제라는 고개를 혼자 넘으면서 죽지 않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도는 것이었다.

(2) 가난한 남자가 혼자 그 고개를 넘다가 바위에 앉아 있는 신선 같은 노인을 만나 호랑이인 줄 짐작하고 왜 나를 잡아먹지 않느냐고 묻자 노인은 자기는 사람은 잡아먹지 못한다면서 자기의 눈썹을 하나 뽑아 주며 그것으로 저기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라고 했다. 가난한 남자가 그 눈썹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모두 짐승이었다.

(3) 가난한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기그릇 등짐을 힘겹게 지고 가는 사람 내외를 만나 그 호랑이 눈썹으로 두 내외를 보았더니 남자는 장닭이고 여자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남자는 비로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4) 가난한 남자는 그 부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다시 호랑이 눈썹으로 자신의 아내를 살렸더니 아내가 암탉이었다. 그리하여 자기네 부부도 서로 짝이 맞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음을 알았다.

(5) 가난한 남자는 사기장수 내외와 한 방에서 자다가 자기 아내와 사기장수 아내의 자리를 바꾸어 놓고 불을 켜 다음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살라면서 사기장수와 아내를 쫓아 버렸다. 그리고서 가난한 남자는 사기장수 아내와 같이 살았다.

(6) 가난한 남자는 사기장수 아내와 같이 산 지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 미안한 마음이 든 남자가 예전에 억지로 쫓아냈던 사기장수와 자기의 옛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도 함께 산 지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을 쫓아낸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었다.

23) 정운채는 자기서사진단도구의 문항 설계 당시 이 작품의 서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난한 남자의 주요 관심은 모진 ‘세상’과 뜨거운 ‘소망’이고,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정체에 대한 ‘의혹’이 주조를 이루며, 기존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로 아내와의 관계를 영위하고 있다.”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문학』 제41집, 겨레문학회, 2008.12.31, 361~397쪽.)

있었다. 그녀는 주체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백인제 고개²⁴⁾를 넘는 지점에 매우 몰입되어 있었다.

(정적)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이기도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모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모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같았어요.²⁵⁾

그녀는 이 설화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지점에 호응하고 있었다. “되게 애는 좋았어요”, “한 번 이런 모험을 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라며, 그러한 모험에 흥취를 느끼는 바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문학치료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들어, 작품서사가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녀는 자신이나 가족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감행해왔는지 장황하게 이야기하였다.

저희 집 그래서 며칠 밤에 다 거지가 됐죠. 거지가 되다니니까. 저희 할머니가 자식이 많아요. 일곱 식구(웃음). 일곱 형제인데, 딸 셋에, 남자 넷인데, 저희 엄마가 제일 맞거든요. 그래서 모험을 해요. …… 그제 오 년이 안 되고 이삼 년 정도 되니까, 그제 일어서드라구요. 삼촌 넷이 다 돈 벌고, 이모 둘 나가 돈 벌고, 엄마는 막 모험적인 장사를 하고²⁶⁾

그녀의 성공담에서 <호랑이 눈썹>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위의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자신의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의 모험과 가족들의 협력을 들고 있었다.²⁷⁾ 가족 구성원들의 합심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치료학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서사에 따라 특정한 경험을 자기 방식으로 지각하고 기억한다고 보고 있다.²⁸⁾ 그녀가 과거의 성공담에서 모험정신과 합심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은 것을 보면²⁹⁾,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호랑이 눈썹>의 서사적 의미가 어린 그녀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여성B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때로는 이별이 행복을 되찾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잘 소화하는 편이었다.

이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 제가 조금 좀 감정이 메말라 있는 애라고 애들이 자꾸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는 어차피 할 수 없다. 내 삶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삶도 중요하니까. 다 같이 잘살자고 하는 거니까.³⁰⁾

24) 설화에서 이 고개는 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 고개를 넘어야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고개인데, 이 고개를 혼자 넘어가도 살아 돌아온 사람은 팔자가 바뀐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가난한 남자가 가난한 자신의 팔자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 고개를 홀로 넘어 간 것이다.

25) 2013년 1월 20일 2회기 녹취본.

26) 2013년 1월 20일 2회기 녹취본.

27) 그리고 그녀는 북한에서 외갓집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합심’을 거론한 바 있다. “며, 할아버지 할머니 합심해서 돈 벌고, 어찌되니까 쪽 잘살게 됐어요.” (2013년 1월 20일 2회기 녹취본.)

28) 정운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각기억사고의 과정에서 미치는 요인들과 견주어서, 문학치료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서사’의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심리학에서는 지각이 ‘주의(attention)’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수행된다는 점, 기억의 활동은 ‘스키마(schema)’가 강력하게 관여한다는 점,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은 서브루틴(subroutine)과 청크(chunk)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견주어서 지각기억사고의 그 체계화(organization)과정에 주목하면, 자기서사는 개념 주도적인 지각처리에도 관여하고, 작업기억의 체계화나 청크형성에도 관여하며, 청크를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사고과정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운채, 『심리학의 지각, 기억, 사고와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 『문학치료연구』 제2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07, 9~28면.)

29) 그녀가 말하는 시점은 그녀가 10살 미만 때 일이다. 어린 그녀의 눈에 외갓집이 부자였던 이유와 어려웠던 집안 형편이 나아지는 이유로 협력과 모험정신이 각인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그녀는 자신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니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즉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작품서사의 의미를 잘 소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별 후에도 서로의 행복을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진정한 지속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그녀에게 이 작품에서 혹시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아니요. 그게 좀 의아했던 점은 왜 남편이 마누라를 바꿨을까. 닭이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었어요. 왜 바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³¹⁾

이와 같이 그녀는 서로가 잘 살기 위해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별의 문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앞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목숨을 걸고 백인재 고개를 넘어야 하는 일이나,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나 모두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며,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작품서사의 중요한 지점이며 서사의 논리적인 흐름이다. 부부의 이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까지 해야 되었나 하는 갈등이 그러한 일관성 없는 반응을 표출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부부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작품서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³²⁾

그리고 그녀는 자기서사진단도구 중 <호랑이 눈썹>의 제3분기점에서 원래의 서사 진행에 따라 이별한 부부가 다시 전 배우자를 찾으려 했다는 서사 경로³³⁾를 선택한 바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선택에 대한 판단도 분류되어야 한다. 이별 후에도 서로의 행복을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진정한 지속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한 결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당장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작품서사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호랑이 눈썹>을 통한 진단 검사 결과(1회기)와 이에 대한 반응(2회기)을 종합하여 그녀의 자기서사를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호랑이 눈썹>과 유사한 형태의 자기서사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기서사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문학치료 활동 과정 중에 성공에 대한 열망을 자주 내비쳤는데, <호랑이 눈썹>과 같은 자기서사의 영향으로 그녀가 남한 사회에서의 성공 의지와 자신감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그녀의 자기서사에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는 문제에 대해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관계로 묶여있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진정한 지속에 대해서도 미숙한 측면이 발견되었다.

3.3. 탈북여성B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서사와 그녀의 취약점

자기서사진단검사서 <호랑이 눈썹> 이외에, 그 이하의 점수로 진단된 작품들의 서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다. 2~3회기를 거쳐 여러 지점이 발견되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그녀의 자기서사와 가까

30) 2013년 1월 20일 2회기 녹취본.

31) 2013년 1월 20일 2회기 녹취본.

32) 1회기 자기서사진단 검사 결과 그녀는 대상과의 관계에 확신을 갖고 그 관계를 가르는 가르기서사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진단되었는데, ‘이별에 대한 수용’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그녀의 특징과 진단결과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33) (6-2) 가난한 남자는 자기장수 아내와 같이 산 지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자 예전에 억지를 부려 쫓아낸 자기장수와 자기의 옛 아내를 찾아 나섰는데, 그 두 사람도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을 쫓아냈던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자기서사진단도구 중)

은 거리에 있는 <호랑이 눈썹>의 서사적 의미와 관련된 사항만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그녀의 자기 서사가 지닌 특징에 주목하여,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역적 누명과 회초리>를 통해 드러난 그녀의 취약 점은 다음과 같다.

(1)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반응과 ‘강자의 횡포에 대한 공포’

그녀는 항상 성공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강렬했었다. <호랑이눈썹>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기 서사는 그녀의 주된 특징인 성공에 대한 열의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강한 의지의 그녀가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작품으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있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³⁴⁾는 자녀서사영역의 부모밀치기서사이다. 대상의 법칙에 순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사의 주체가 부모라는 존재적 위치의 대상에게 의혹을 품고 대상과의 관계를 밀쳐내어 성공하는 결말에 이르는 작품서사이다.³⁵⁾

대상(부모)에 대한 의혹³⁶⁾은 호랑이가 아기를 잡아먹는 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서사의 주체(오누이)는 호랑이의 횡포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로 호랑이를 속이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데에까지 성공하였다. 호랑이가 오누이의 방식을 따라하여 나무에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늘에 빌어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고, 또 다시 오누이의 방식을 따라한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받고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결말에 이른다.

이 작품서사는 가장 자애로운 모습(어머니)으로 위장한 포악한 대상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시작으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의 결단을 내렸다는 점과, 강력한 대상의 횡포에 대해서 대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길을 도모하면 모면할 수 있다는 데에 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작품에서 하늘이 오누이에게 내려준 새 동아줄과 호랑이에게 내려준 썩은 동아줄은 우리에게 정당한 소망은 성취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는 결말은 그들의 정당한 소망이 성취된 바가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또한 우리에게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1회기 자기서사진단 검사에서 그녀는 3개의 분기점 중 두 부분에서 다른 서사의 경로를 선택하였다. 호랑

34) 오누이가 어머니와 어린 동생까지 잡아먹은 호랑이를 피하여 하늘이 내려준 새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줄거리의 실화이다.

(1) 오누이와 어린애를 집에 두고 일하러 갔던 어머니가 떡을 얻어 이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먹고 어머니 옷을 입고 와서 오누이에게 어머니 왔다고 문을 열고 하였다.

(2) 오누이가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자 호랑이는 추운데 떨어져 목소리가 변했다며 얼른 들어가서 아기 젖 줘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3) 호랑이가 아기를 안고 구석으로 가더니 무엇을 오도둑 오도둑 깨물어 먹는 소리가 나서 오누이가 뭘 먹느냐고 하니 호랑이는 오다가 부엌에서 밤 한 톨 얻어서 깨물어 먹는다고 하였다.

(4) 김새를 알아차린 오누이가 똥이 마렵다고 하자 호랑이는 그냥 마루에 누라 하였으나 아버지에게 매 맞는다고 핑계를 대고 나와서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5) 아이들을 찾던 호랑이가 느티나무 위에 있는 오누이를 발견하고는 누이의 말대로 도끼로 찍으며 올라왔다.

(6) 오누이는 하늘에게 빌어서 내려온 새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는데, 오누이의 흉내를 낸 호랑이는 흰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수수깡 밧에 떨어져 죽었다.

35) 정운채는 자기서사진단도구의 문항 설계 당시 이 작품의 서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러한 오누이의 주요 관심은 역시 모진 ‘세상’과 엄숙한 ‘법칙’이고, 호랑이를 대하는 시선은 ‘의혹’이 가득한 시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12.31, 361~397쪽.)

36) 이 의혹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위장한 호랑이이며, ‘어머니’ 자체일 수도 있다.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머니일 수 있으며, 호랑이를 어머니 내면의 악의적 욕망이라고 이해하여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부모와 같은 존재(나쁜 엄마)로 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나 서사의 주체(오누이)가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강력한 악인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위를 보존하고, 해와 달과 같은 존재로 성장하였다는 데에 그 서사적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가 어머니로 위장하여 오누이를 찾아왔고, 오누이가 문을 열어주자, 호랑이는 몰래 아기를 잡아먹었다는 지점까지는 원래의 서사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기를 잡아먹으면서 내는 소리에 아이들이 무엇이나고 묻자, 호랑이는 부엌집에서 얻어 온 밤을 먹는다고 핑계를 대었다. 여기가 두 번째 분기점인데, 원래의 서사는 ‘(4-1) 김새를 알아차린 오누이는 똥이 마렵다는 핑계를 대고 나와서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이다. 그런데 탈북여성B가 선택한 서사 경로는 ‘(4-2) 오누이는 우리들도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마당의 느티나무에 올라갔다.’이다. 분명히 진단도 구 문항에 호랑이가 아기를 잡아먹었다고 제시되어 있는 데에도, 그녀는 오누이가 호랑이의 말을 받아들이며 먹을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서사를 따르는 일에 방해하는 요인은 ‘배고픔’에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주는 강렬함에, 호랑이가 아기를 잡아먹은 사건이 주는 긴장감을 미뤄두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주목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누이가 자신들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서사 경로를 선택하였다고 분석된다.

이어 호랑이가 오누이의 방식을 따라하여 느티나무에 올라왔다는 세 번째 분기점에서는, 원래의 서사 경로는 ‘(6-3) 오누이는 하느님에게 빌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고, 호랑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흰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수수깡 밭에 떨어져 죽었다.’인데, ‘(6-2) 오누이는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는데, 죽은 오누이의 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를 선택하였다. 결국 그녀는 비극적 결말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녀가 만들어 낸 비극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반응과 원래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그녀의 몰입도와 이해도는 3회기에서 탐색되었다. 그녀는 이 설화가 북한에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열어 달라고 그제, 북한에도 이런 설화가 있는데. …… 호랑이 손이니까, 이건 엄마 손이 아니예요 이러니까, 호랑이가 화가 나서 문을 뚫고 들어간 거기에서 잡아먹힌 이야기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먹히지 않았을 까.³⁷⁾

그녀는 이 이야기의 앞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결말로 기억하고 있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북한에서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문학치료학적 관점으로 볼 때 비극적 결말로 이 이야기를 접했다는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일 보다는, 탈북여성B가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앞부분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자기서사와 가까운 지점에 있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회기에서 그녀는 호랑이에 대해 관심을 표현한 바 있다.

비유를 한다면 사회에서 약자는 힘 센 자한테 어차피 먹히게 돼있으니까, 힘 센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거나 죽일 것이고, 웬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동화를 만들어 낸 사람도 거기에 비유를 해서 만들지 않았나.³⁸⁾

그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호랑이로 꼽으며, 호랑이와 오누이의 관계를 사회 계층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에서 약자는 ‘어차피’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녀에게 내재된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대한 논리와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37) 2013년 1월 27일 3회기 녹취본.

38) 2013년 1월 27일 3회기 녹취본.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며³⁹⁾, 심지어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⁴⁰⁾

이렇게 보면 그녀가 본래의 서사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서사를 구성했던 요인으로 ‘강자에 대한 공포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인 서사의 구조를 뒤엎어 버릴 만큼 그녀에게 강자의 횡포에 대한 공포심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포악한 대상의 횡포로부터 절대 극복될 수 없다는 서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더욱 몰입하고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녀는 강자의 횡포에 대해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같은 극복의 서사보다는 비극적 좌절의 자기서사가 더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호랑이 눈썹>의 자기서사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서사 진행에 있어서 문제 극복에 대한 에너지의 강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강자와의 대립 문제에서는 <호랑이 눈썹>과 같은 극복의 서사가 작동되지 않고, 좌절의 서사가 작동되는가 하는 모순이 발견된다.⁴¹⁾

그녀는 탈북을 추동 시킨 배경이나, 탈북 과정, 혹은 타국에서의 체류 경험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⁴²⁾ 그녀가 말하지 않는 영역에서 심리적 외상의 흔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을 것을 가정하면, 강자에 대한 공포심과 좌절의 서사는 더욱 문제적이다. 외상의 경험으로 인하여 그녀의 내면에 전복이 이루어져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자기서사를 형성하였을 수도 있지만,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자기서사가 영향을 미쳐서 외상에 의해 형성된 공포심이 더욱 강렬하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³⁾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자기서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그녀는 자주 권력이나 재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강자에 대한 공포와 좌절의 서사가 작동하여 그녀의 강점인 ‘성공에 대한 열의’를 추동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력 등 물질적인 것에서 힘을 찾는 일이 되며, 그녀의 강점 ‘성공에 대한 열의’는 자신의 취약한 지점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시 다른 것에 의존하려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그녀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또 다른 경험이 <호랑이 눈썹>의 서사를 미약하게 만들고, 강자의 무력에 대한 공포심이 자국되어

39) “호랑이도 도끼로 찍고 올라갔으니까 잡아 먹히지 않았을까. 호랑이 되게 올라가는 시간이 빠르잖아요. 하늘에 소원 비는 시간이면 능히 잡아 먹히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과 추측으로?” (2013년 1월 27일 3회기 녹취본)

40) “해와 달이 되는 거요? 어떻게 인간이 죽어서 해와 달이 될까요? 저는 기독교라서, 해와 달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죽어서 해와 달이 됐을라면, 이젠 또 눈물나게 그런 동화도 아니고 그냥 낚새를 알아채고 스티나무에 올라가서, 현 동아줄이고 새 동아줄이고 해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는 것은 이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13년 1월 27일 3회기 녹취본)

41) 그녀는 <호랑이 눈썹>에 대하여 이야기할 당시, 북한에서 가세가 기울어지자 학교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일화와 집안 어른의 사상 문제로 일류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일화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성공에 대해 열망을 품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강자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 그들 보다 높은 자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지와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개입된 강자에 대한 공포심은 서로 상반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2) 그녀는 연구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중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하였다고 하면서, 그때가 끔찍해서 다시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다. 그녀는 강력하게 각인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자의 횡포에 대한 공포심은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한 것일 수 있다.

43) 이와 유사한 맥락의 견해를 밝힌 연구가 있다. 최빛내김희경,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집1호, 한국심리학회, 2011, 195~212면.에서는 탈북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외상 경험 중 가장 강력한 공포를 유발하는 사건은 강제 복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에 강제 복송 경험자들의 비중이 낮으며, 탈북여성의 외상 경험 자체보다는 성격문제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힌다. 심리학에서 성격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문학치료학에서는 자기서사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문학치료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서사를 강화시킨다면 그녀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는 성공의 길을 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역적 누명과 회초리>에 대한 반응과 ‘대상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거부감’

<호랑이 눈썹>에 대한 반응 분석으로 보아 그녀는 서로를 위한 이별과 이별 후의 진정한 관계 지속에 대한 지점에 미숙할 가능성이 있다. 그녀의 이러한 성향은 그녀가 단 한 구절도 따라가지 못한 <역적 누명과 회초리>에 대한 반응에서도 잘 드러났다.

<역적 누명과 회초리>⁴⁴⁾는 남녀서사영역의 이성가르시서사이다. 나의 소망에 주목하여 선택을 하는 문제에서, 주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대상(이성)에 대하여 강한 자기 확신을 품고 대상과의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었다는 결말에 이르는 작품서사이다.⁴⁵⁾

선비의 회초리는 밤에 남몰래 찾아온 여인의 욕망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의 확신과 함께, 맹목적이고 강렬한 그녀의 마음을 접게 만드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거절로 그녀는 좋은 집에 시집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의 회초리에 대한 뜻에 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으로 아들들에게 그를 변호하게 함으로써 그를 구제한다는 결말을 맺는다.

이 작품서사는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 줄 수 있는 성적 욕망은 조절되어야 안정된 삶의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애정문제에서 때로는 결연한 거부가 서로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데에 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은 서운할 수 있지만, 나의 애정적 욕망을 저지시키고 진실을 말해주는 거절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는 서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회기의 자기서사진단 검사에서 탈북여성B는 진단도구에 설정되어 있는 3개의 분기점에서 모두 원래의 서사와 다른 경로를 선택하였다. 그녀는 “선비가 밤에 찾아온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지만 이내 곧 이별하게 되었고, 이에 상심한 여인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가도 선비를 잊지 못해 상사병에 걸렸다. 선비는 역적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여인이 남자의 몰락을 통쾌하게 여기고 감옥에 찾아가 선비에게 그 통쾌함을 표현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사를 구성하였다.

그녀가 구성한 복수형<역적 누명과 회초리>는 애초부터 선비가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이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환한 지금처럼 아니고 등잔불이니까, 정을 나누지 않았을까. 정을 나누었다 했고, 원래 밤에는 여자가 이뻐 보이잖아요.”⁴⁶⁾라고 하였다. 주체와 대상에게 불행을 안겨 줄 수 있는 성적 욕망은 조절되어야 한다는 서사적 의미보다는,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원래의 서사와 다른 경로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44) 야심한 밤에 자신을 찾아와 받아달라는 여인을 회초리로 가르쳐 돌려보낸 남자가 후에 역적이라는 누명에 고생하게 되자,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하여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1) 한 선비가 종일 글을 읽었는데 앞집 처녀가 선비의 글 읽는 소리에 반해서 남몰래 찾아왔다.

(2) 선비는 처녀에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여 처녀의 종아리를 때렸다.

(3) 처녀는 종아리를 맞고 그냥 돌아갔다.

(4) 그 뒤 처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모두 큰 벼슬을 하였다.

(5) 선비가 나중에 벼슬을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다.

(6) 그 소식을 들은 삼형제의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처녀 때 종아리 맞았던 이야기를 하며 그 선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삼형제의 적극적인 변호로 선비는 무사할 수 있었다.

45) 정운채는 자기서사진단도구의 문항 설계 당시 이 작품의 서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비의 주요 관심은 순수한 ‘나’와 뜨거운 ‘소망’이고, 처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정체에 대한 ‘확신’에 차 있으며, 처녀와의 관계는 기존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12.31, 361~397쪽.)

46) 3회기

당장은 서운할 수 있지만, 나의 애정적 욕망을 저지시키고 진실을 말해주는 거절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는 이 설화의 서사적 의미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2회기에서 그녀가 드러낸 선비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녀는 “왜 회초리를 들어. 똥끼 있어 보여.”,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남자다움이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음. 싫어요.”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가 행실이 부적절하다고 소문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고 자신의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답을 넘어 찾아온 여인이 그만큼 간절해 보였을 수 있다, 그러면 회초리로 역정을 내면서까지 쫓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 남자에게 그렇게까지 애정을 요구하는 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⁴⁷⁾ 여자의 자존심을 수호하는 문제는 20대 여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면모라고 인정되더라도, 선비에 대한 불쾌감은 유의미하다.

그녀는 여인을 돌려보낸 선비의 처사가 그녀의 행복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하였다.

내가 찍었던 거랑, 상상했던 거랑, 실제 내용이 영 다른 걸 보니까, 그때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하나, 지조를 남자가 지켜줬기 때문에, 여자가 선비를 더 좋아하고, 역적으로 몰렸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 신체적인.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시집을 아주 못 사는 데로 갔으면 모르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다 벼슬을 하고, 뭐 하니까. 어찌 보면 여자가 더 잘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이 남자가 거절함으로써. 그래서 더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나.⁴⁸⁾

자신의 생각과 작품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애정문제에서 때로는 결연한 거부가 서로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었다는 이 작품의 서사적 의미는 잘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회초리는 아주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지가 선비면 선비지, 왜 회초리까지 들고 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라고 덧붙이며 그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보면 여인이 선비의 몰락을 통쾌하게 여겼다는 서사 구성은 바로 이러한 불쾌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복수형 <역적 누명과 회초리>의 자기서사와 관련된 ‘대상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설화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서도 자주 확인되었다. 그 대상은 다만 이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에까지 확장되어 있었다.⁴⁹⁾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기여했더라도, 우선은 애정적 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더 앞서고 모습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민감함은 복수형 <역적 누명과 회초리>의 자기서사가 지닌 취약점을 보여준다.

또한 복수형 <역적 누명과 회초리>에서 드러난 그녀의 취약점은 <호랑이 눈썹>에서 드러난 ‘이별을 수용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의 취약점과 연결된다. 1회기의 자기서사진단 결과에서 그녀는 ‘나’보다는 ‘세상’, 즉 대상에 대해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일에 더 능숙할 수 있으며, 대상의 소망과 대상의 법칙을 주안점으로 삼는 방식이 더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서사의 경향성 또한 ‘대상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별을 수용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같은 특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서사를 지녔다면 그녀는 실생활에서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자신의 애정이 거부당하는 일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함이 발동되어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불쾌함이나 분노를 표현하여 인간관계의 단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왔던 탈북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⁵⁰⁾

47) “저는 왜, 제 입장에서, 굳이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좋아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안 좋아하거든요. 둘 다 같이 좋아하던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줘야 더 오래가기 때문에. 노 하면, 알겠다 하고, 바로 오케이 하고, 다시 나왔을 거 같아요. …… 저는 충분히, 남자가 노 하면은, 여자가 존심이 있는데, 그냥 나가면 되죠.” (3회기 중)

48) 3회기

49) 주로 자녀서사영역의 작품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난 특징으로 차후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밝히겠다.

50) “MMPI-2에서 II유형의 프로파일을 보이는 탈북여성들은 과도하게 예민하고, 타인을 잘 믿지 못하며, 화를 잘 내고, 걱정되고 긴장되어 있으며, 화를 잘 내고, 부적절감과 불안감, 소심함 등의 임상적 특징을 보일 수 있고, 성격적으로는 공격성

실제로 그녀는 많은 이들과 있었던 관계의 문제를 토로한 바 있다. 그리고 연애문제에 있어서 그 욕망을 부인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 심지어 “제 인생에 사랑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남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등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했었다. 상처받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차단해버리는 것으로 해석된다.⁵¹⁾ 자신의 실제 욕망과 상반된 표현으로 보호막을 치는 모습은 그녀의 자기서사가 지닌 취약점, ‘대상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별을 수용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이 발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4. 탈북여성B에 대한 문학치료의 주안점과 치료 가능성

탈북여성B는 자기서사진단검사 결과,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서사를 발휘할 수 있는 편은 아니라고 진단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 작품을 접할 때마다 자신의 현재 상태와 유사한 인물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작품서사에 대한 몰입도가 강한 편이었다. 그리고 성실하게 5회기를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작품서사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열의를 보였다.

그녀는 3회기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가슴이 좀 뚫리는 기분이 든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리고 4회기의 약속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잡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이어 5회기에서는 과거의 미술치료 경험을 들면서 그때는 실망스러웠다고 하였고⁵²⁾, 문학치료는 설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소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녀의 반응은 불쾌함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4회기 때에 두 차례 ‘멘붕⁵³⁾이 온다’는 표현을 한 바 있다. 그녀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효불효 다리>와 <도랑 넓은 남편>에 대해 그 서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서, 그녀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다고 고백하였다.⁵⁴⁾ 그러고서는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4회기를 마쳤다.

5회기에서 연구자가 문학치료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였더니, 그녀는 다음과 같이 그때를 회상하였다.

전 주.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쑤시고, 심기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⁵⁵⁾

이러한 불쾌한 자극은 그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그녀의 불쾌한 반응은 작품서사에 대한 거

이 높고, 자아도취적이고 성숙한 방어기제 및 다양한 방어기제를 동원하여 내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응적인 대처방법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경, 「탈북 여성의 MMPT-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여성』제15집3호, 2010, 311~329면)

51) 실제로 그녀는 여타 남녀서사영역의 작품들에 대한 반응에서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역시 차후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52) 그녀는 미술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얘기할 수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어찌라고.”라면서, 그 실망감을 표현한 바 있다.

53) 멘탈이 붕괴된다는 속어로 황당하거나,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54) “이 이야기를 들으니가 멘붕이 되네요. 머리가 헤롱헤롱 되네요. 지금 기억이 싹 안나고, 헤머가 뻥 친거 같네요. 아 뭐, 그런 욕망은 이해가 되요. 아빠가 외롭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지금 짚어 못내겠어요. 멘붕이 와요, 거기서. 왜 이러지.”(<효불효 다리>에 대한 반응)

“뭐지. 어디에서 멘붕이 왔지? (연구자 : 효불효다리? 내복에산다?) 내복에 산다도 멘붕까지는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김판서 아들에서, 아 되게 이게 부글부글 끓어요. 이럴 때는 휴식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미칠 거 같아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성격이 워낙 거친 데다가, 더 거칠어질거 같아서. 관계에 있어서 그냥 되게 짜증이 나요. 그냥 짜증나요.” (<도랑 넓은 남편>에 대한 반응)

55) 5회기

부감이면서도, 내면에 확고하게 굳어진 어느 부분이 자극되는 것에 대한 신체화 반응일 수 있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왜곡된 지점이 자극되면서 나오는 불쾌함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반응은 그녀가 변화를 허용하기 시작한 전초일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그녀는 <호랑이 눈썹>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서사가 발달한 편이었고, 특정한 관계에 묶여있지 않아도 대상의 행복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속의 서사가 미숙한 편이었다. 비극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같이 강자와의 대결에서 좌절하는 서사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으며, 복수형 <역적 누명과 회초리>와 같이 대상의 거절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과 복수의 서사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4회기에는 탈북여성B가 몰입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작품서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그녀의 자기서사가 드러낸 취약점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그녀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와 그에 대한 반응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4회기에 연구자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서사적 의미를 설명해주고, 특히 그녀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지점이었던 부분을 전달해주었다. 호랑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힘이 센 호랑이에게 오누이가 힘으로 대결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주었으며, 정당한 소망은 성취된다는 동아줄의 의미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사람들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그녀는 강자와의 대결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면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서 강하게 호응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 하나가 많아야 한다”⁵⁷⁾고 대응하며, 권력이나 재력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5회기에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러한 확신을 표현한 바 있다.⁵⁸⁾ 강자에 대한 공포심과 권력 내지 재력에 대한 그녀의 의존성은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여성B의 이러한 특징은 다른 탈북여성에게서도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김희경은 탈북 여성과의 상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권위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⁵⁹⁾ 강자에 대한 공포심을 주목한 문학치료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반면,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그런 높은 사람이 되는 거라면 멋있네요”⁶⁰⁾라고 반응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여타 자녀서사영역의 인물들이 대상에 대한 큰 포용력을 발휘하고 큰 부자가 되었거나, 하늘의 복두칠성이 되었다는 결말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르게 “멋있다.”, “크, 멋있네.”라며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성공에 대한 열의가 강한 그녀에게 크고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결말은 꽤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다.

또 다른 그녀의 취약점이었던 대상의 거절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과 복수의 서사(복수형 <역적 누명과 회초리>)와, <호랑이 눈썹>에서의 진정한 관계 지속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된 지점이 포착되었다. 4회기에서는 이러한 서사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일에 이전보다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

56) 문학치료 경과 제시는 자기서사진단검사 결과와 2~3회기 반응 탐색에서 파악되었던 그녀의 취약점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지점에 대해서만 살펴도록 하겠다.

57) 4회기

58) “역시 권력? 그렇게 생각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이 사회는 아는게 힘이고, 권력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에 있든가, 아니면 돈이 많던가 그래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영화도 요즘에 되게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애매하게 감옥에 몇 십 년 가고, 그런 걸로 내가 돈이라도 많아야 되겠구나. 아는 게 힘이고, 가진게 많아야겠구나.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상한 건가요?” (5회기)

59) 김희경,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5집3호, 2010, 311~329면.

60) 4회기

이 보였다.

연구자가 4회기에 <역적 누명과 회초리>의 서사적 의미를 전달하자, 그녀는 연애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의 애정적 욕망을 저지시키고 진실을 말해주는 거절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는 서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아,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자가 막 다가오면 막 겁나네요.”라면서 수용하지 않는 방어적인 모습을 일관하였다. 그리고 선비에 대해서 “멋있는 건지, 샌님인건지. 감동도 못 받아보고, 받고 싶지도 않네요. 부담스러워요.”라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호랑이 눈썹>의 서사적 의미를 전달할 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5회기에 와서 그녀는 문학치료 활동을 마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뭔가를 인생에 있어서 한번은 모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호랑이 눈썹같이. 그리고 인생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한번은 매달려야 되겠구나. (연구자:매달려야 되는 건 아니고, 매달릴 때도 있다는 거) 네. 그렇고.

이렇게 그녀는 3회기 때 자신의 애정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연구자는 4회기 때에 <역적 누명과 회초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탈북여성B가 애정적 요구를 하는 여성에게 강한 불쾌함을 표현했던 것을 들어 때로는 사람이 현실을 미워두고 맹목적으로 이성에게 다가설 때도 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다. 그러한 여성의 욕망을 이해하기 때문에 선비가 회초리를 들어서까지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사실은 간절하게 원하는 애정적 욕망이 자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⁶¹⁾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변화 지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왜간한 일은. 부탁을 해도 좀 명령식으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내 또래 애들이랑 뭐. 애들이 하긴 하면서 되게 재수없겠죠. 왜 이렇게 명령식이나. 그런게 좀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말? 이쁘게, 상처 안 받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상처 안 받게 해야되겠다. 그, 됐던 거 같아요.⁶²⁾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였다. 그녀의 취약점이었던 ‘대상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별을 수용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에 의해 단절된 마음이 어떤 갈등들을 야기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모양이었다.

연구자는 5회기 때에 자기서사진단 검사 결과를 알려주며, 그녀의 취약점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해심을 발휘해주는 포용력과 아량이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 그럴 만 했겠다 하면서 애긴 안하죠. 그리고 과정보다는 이때까지 결과물에 많이 치우쳤던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도, 결과에 많이 치우치지 말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 비중이 그 결과물에 더 많지 않을까.⁶³⁾

이때에 그녀는 실질적인 면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대상

61) 이에 연구자는 훌륭한 대상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모험을 해보고, 지금은 탈북여성B의 주변에 그러한 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럴 때는 오히려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힘을 쓰는 편이 나으며, 자신이 똑바로 서 있어야 연애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남녀서사의 주안점에 해당한다.

62) 5회기

63) 5회기

에 대해 배려한 인물들을 거론하며, 실리와 상관없이 대상의 잘못을 묵인해주거나, 먼저 그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인물들의 아량을 설명하였다. 그들이 포용력을 발휘한 결과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거나, 그 덕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역적 누명과 회초리>와 <호랑이 눈썹>에서의 진정한 관계 지속의 원리가 지닌 힘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여전히 그녀는 “뭐 그냥 헤어지면 끝이 아니에요?”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자는 강요하는 태도를 보일 수 없어서 인정해주는 반응을 보였더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야 해주죠.”라고 하였다. 여전히 잘 소화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지만, 이전의 민감한 태도는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5회기에서는 <도량 넓은 남편>에서 아내의 외도를 묵인해준 남편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달라진 지점이 있었다. 2회기에서는 남편의 묵인에 대해서 권력의 문제로 이해했었다가, 4회기에서 서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미련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남편의 도량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5회기에서는 “멋있네요.”라고 변화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어 그녀는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굴어 왔는지를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제가 좀 뭐지, 안 봐도 됐을 것들, 겪지 않아도 됐을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확 단혀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고, 막 애들이 나는 니가 좋다, 그러면 이 새끼 미친거 아니야? 이래요. 내가 왜 좋은데, 이렇게 툭기 많고, 쌀쌀맞고, 여자 같지가 않은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⁶⁴⁾

어떤 경험에 의해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왜 마음을 닫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스스로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으며, 그녀의 말대로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예전보다 건강한 자기서사로 회복할 가능성을 발견한 지점이기도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적인 문학치료 활동을 진행한 사례보고이다. 자기서사진단검사를 시작으로 하여, 16개의 작품서사에 대한 몰입도와 이해도를 바탕으로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를 분석하였다. 이어 작품서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취약점에 대한 문학치료를 진행하였고,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 변화지점이 발견되기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그녀의 자기서사가 지닌 특성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할 예정이며, 심화된 문학치료 활동을 시작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64) 5회기

‘탈북여성B의 자기서사 특징과 그 문학치료 가능성’(박재인)에 대한 질의문

정충권*

이 글은 문학치료학의 방법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로서 탈북여성의 트라우마와 사회 적응 문제를 다룸으로써 특히 그들이 자기서사를 건강한 방향으로 강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 문학치료 연구 결과를 담은 글이다. 그 구체적인 문학치료학의 방법은 ‘자기서사진단도구-서사분석형(16문항)’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5회기의 과정을 통해서이다. 연구자는 전 과정을 제어하면서 집요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로서 B의 자기서사를 찾아낸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향후 치료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기대가 된다. 질의자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틀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편 것이라 발표자에게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읽으면서 연구 목적 혹은 대상과 연구 방법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

먼저, 탈북여성 B의 정체성과 설화 이해의 맥락 가늠의 문제이다. 탈북여성 B는 속어들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다시 말해 현대 한국문화 속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단순히 탈북 여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문화를 내면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여성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B는 호랑이와 오누이의 관계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연상해내고 있는데 이는 그 나름대로의 해석 맥락 하의 서사 이해이다. 그렇다면 B가 살아온 지난 날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용 맥락을 지니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서사를 B의 취약점으로부터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강자의 횡포에 대한 공포와 대상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거부감을 추출해 내고 있지만 말이다.) <역적 누명과 회초리>설화는 오늘날 한국 여성도 B와 같은 이해를 할 여지가 많은 작품이라 생각된다.

2.

글을 읽어가면서 B의 서사를 탈북자로서의 그것으로 보고자 하는지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그것으로 보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물론 이 연구의 목적이 탈북여성의 트라우마와 현대 한국 사회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다. 그리고 한 인간의 자기서사는 특정 범주의 것으로만 한정하여 논하기에는 너무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접근 방법상 기본 축은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호랑이 눈썹>과 <역적 누명과 회초리>로부터 탈북의 경험을 관련짓거나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겠기 때문이다. 설혹 그것을 그렇게 관련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자 하는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B는 탈북자이면서 여성이고 인간이며 이제는 한국인이라 해야 할 수 있다. ‘탈북인’과 ‘여성’ 등 두 층위를 따로 설정하여 다루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단도구 문제도 있고 하니,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하나 추가하여 질의드릴 것은 이해심을 발휘해주는 포용력과 아량이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연구자가 진단한 B의 취약점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이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탈북 청소년의 적응 문제와 분단서사

-탈북 청소년 A의 전교회장 당선 사례를 중심으로-

나지영*

<차례>

1. 서론
2. 탈북 청소년의 A의 전교회장 당선 사례와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와의 비교
3. 탈북 청소년 A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 구상
4. 결론

1. 서론

탈북 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남한학생의 10배가 넘는다고 한다.¹⁾ 탈북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높은 중도탈락률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 이렇게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학교 생활이 힘든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³⁾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업 문제가 있을 것이고⁴⁾, 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1) ‘북에서 온 아이들은 어, 남한의 학생이랑 비교했을 때 0.01프로 밖에 안되요. 남한의 초중고 학생과 북한에서 온 초중고 학생을 수치상 비교하면 남한 학생의 0.01프로 밖에 안되는 학생들이 지금 공교육에서 어, 중도탈락하는 비율은 남한 학생의 10배가 넘어요. 0.01프로 밖에 안되는 아이들이 중도 탈락률은 남한 학생의 10배가 넘으니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티는게 힘든게 힘든 거죠.’ (‘새터민청소년그룹홈’ <가족>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2013.1.28.)
 - 2)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의 중학교 취학률은 51.2%이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18.9%에 그치고 있다. 남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98%, 대학 진학률이 80%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낮은 취학률은 이후 이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문제를 예측하게 한다.’ (김연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191면.)
 - 3)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위험은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나, 정착기간,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적 변인보다는 자존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성취 역량인식,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208-209면.)
 - ‘탈북 아동, 청소년은 성인 탈북자처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아동, 청소년들이 북한에서부터 기근과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탈북과 중국에서의 떠돌이 생활, 북으로의 강제송환, 재 탈북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오랫동안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진 성인보다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문화를 맞이한 아동과 청소년은 문화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제9권 3호, 한국놀이치료학회, 2006, 24면.)
 - 이기영은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①학업부문에서의 부진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②교사(학원 강사 포함)와의 관계 ③진학 및 진로설정에 대한 비 구체성 ④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인간관계형성의 문제점 ⑤친우관계형성에서의 어려움 ⑥탈북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⑦적응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천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175-224면.)
 - 4) ‘장기간에 걸친 학습공백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학력에 맞추어 자기 나이보다 훨씬 아래의 학년으로 배치되는데, 한두 해 정도 낮추는 것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기에 자기보다 서너 살, 많게는 대여섯 살씩 어린아이들과 같은 반에서 배우게 되면 매우 자존심이 상하여 학교에 다니기 싫어지기 쉽다. 게다가 교육내용이 편이하게 다르고, 학습의 방식도 다른데다가, 실제로 학력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219면.)
-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의 72.7%가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학

외에도 인간관계의 문제, 개인의 성향, 심리적 문제, 제도적 문제⁵⁾ 등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맞춰서 많은 연구들에서는 교육이나 임상 프로그램⁶⁾ 등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 또는 남한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⁷⁾ 보다 본격적인 실천 방안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기왕의 논의들은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성찰과 사회화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결핍에만 치중하는데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라는 큰 구조적 문제 안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탈북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주변화하고 가해하는 다수의 일반 청소년 및 사회적 태도의 문제점을 깊이 천착해 보면서 국제이해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한 논의도 있다.⁹⁾ 이러한 논의들은 탈북 청소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때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을 적용한다면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¹⁰⁾ 문학치료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 자체보다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서사’에 주목한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서사’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문학치료학의 서사는 일종의 ‘가치관’이나 ‘신념’같은 개념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서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¹¹⁾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으로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서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서사를 ‘분단서사’라고 상정하고 있다. 그냥 서사라는 용어를 써도 되지만 분단서사라고 명명한 것은, 탈북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보다

업 따라가기’를 꼽았다고 한다. (유가효·방은령·한유진,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5호, 2004, 186면 재인용.)

- 5) ‘남한사회의 제도적 지원은 입국초기 2개월간 통일부 하나원에서 오리엔테이션 교육, 북한에서의 수학 연한에 맞춘 남한 학교편입학 보장, 그리고 정규학교를 다닐 경우 학비를 지원하는 수준의 소극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법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 구조적 성격의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적 노력에 비해 그 지원 대상도 소수이고, 효과도 미미한 편이다.’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4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215면.)
- 6) 나용선, 「북한이탈주민자녀(청소년) 사회적응 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8, 2011, 5-30면 ; 금명자 외,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 강효림,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우울불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9-74면 ; 신형마정여주, 「탈북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체험연구」, 『심리치료』 제6권 제2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06, 81-102면 ; 윤지혜·오영림,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성장(PTG) 체험연구-탈북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2호, 한국청소년학회, 2010, 49-82면.
- 7) 박운숙·윤인진,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41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07. ; 김현정·엄진삼·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사회복지연구』 3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 8) 이정우, 「탈북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사회과 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45,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6, 195-219면.
- 9) 강순원, 「국제이해교육은 탈북 청소년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국제이해교육연구』 7,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2, 71-98면.
- 10)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탈북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접근한 필자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지영,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본 탈북 청소년의 자기서사 진단 사례 연구」,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11. ; 나지영, 「설화 <내 복에 산다>의 재창작을 통한 탈북 청소년의 문해력 신장 사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2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02.
- 11)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서사가 될 수 없지만, ‘혼자 된 부모가 외로워 할 때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도이다.’는 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큰 구조적 틀 속에서 보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에게도, 그리고 탈북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 사람 또는 집단에게도 ‘분단서사’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실제 관계 속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것이다.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면에 깔려 있는 서사가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분단서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의 거대한 판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의 1차적인 목표는 얼마 전 서울 모 중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던 분단서사의 실체를 드러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남한의 학교에서 탈북 청소년이 전교 회장으로 당선된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 A는 학교 선생님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분단서사의 한 유형이 작동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의 2차적인 목표는 탈북 청소년 A가 앞으로 남한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교 회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다.

2. 탈북 청소년 A의 전교 회장 당선 사례와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와의 비교

2.1. 탈북 청소년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

탈북 청소년 A는 2010년 11월 혼자 남한으로 들어와 2011년 3월부터 ‘새터민청소년그룹홈’ <가족>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에 중학교 3학년이 된다.¹²⁾ A는 남한에 오기 전에 한 번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 탈북 이후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는데, 여전히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어려워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성격이 활발하여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중학교 2학년 때에는 학급 회장을 하기도 하였다.

2012년 2학기 말에 A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2013년도 전교 회장 선거를 하게 되었고, A는 출마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자진하여 전교 회장 후보로 나섰다. 그런데 A가 전교 회장 후보로 나서자 학교 측에서는 반대를 하였고 A의 담임선생님은 A에게 회장 후보에서 물러날 것을 권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자신의 보호자이기도 한 ‘새터민청소년그룹홈’ <가족>의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끝까지 선거에 나섰고, 7명의 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표차리로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A가 당선된 이후에도 학교 측에서는 A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A가 전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학교 측에서는 탈북 청소년인 A가 전교 회장을 맡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A가 물러나기를 강력하게 바란 것이다. 그러나 A와 A의 보호자는 끝까지 전교 회장직을 맡기로 하였고, 2013년 새학기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필자는 A와 A의 보호자(‘새터민청소년그룹홈’ <가족> 대표), 그리고 A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두 분을 각각 인터뷰 하면서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 중 한 분은 A가 전교회장으로 출마한 2012년도 담임 선생님이셨고(이하 ㉠선생님)¹³⁾, 또 다른 한 분은 A가 전교회

12) 필자는 2011년 6월에 지인으로부터 A가 남한 생활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1년 6월부터 12월 까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문학치료 활동을 하였다. 그 후에는 한 달에 최소 한번 정도는 그룹홈에 방문하여 숙제나 시험공부를 도와주기도 하였고, A 외에도 그룹홈에 거주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금까지 꾸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13) A의 2012년도 담임선생님은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셔서 이메일로 답변을 주셨다.

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2013년도에 A의 담임선생님(이하 ㉔선생님)을 맡게 될 분이다. 지금부터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A가 전교 학생 회장으로 당선된 과정을 탐색해 보겠다. 이때 네 사람을 인터뷰한 시간의 순서에 상관없이, 실제 일어난 일의 순서에 맞추어 인터뷰의 내용을 재배열 하여 정리할 것이다.

① A의 이야기 : A가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A를 만나 애초에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어, 해보고, 회장 선거 이런거 해보고 싶었고, 맨처음 들어왔을 때 형, 선배들이 시위하고 그러는게, 아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했고, 음. 북한에서 왔으니까, 삼촌도 이야기하다가 내가 회장에 나가면 북한에서 온 학생 중, 내가 만약 전교회장 된다면 최초래요. 일반 학교에서 최초, 그것도 되게 그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13.1.14)

A는 전교 회장 선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 번 나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배 전교 회장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북한에서 온 학생 중 최초로 남한 학교의 전교 회장이 된다는 점 때문에 선거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A는 처음 인터뷰를 한 이후 몇 차례의 만남을 더 가지면서 보다 상세하게 자신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다.

원래 전교회장 선배가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연설하고 이런게 아, 나도 저기 서면 멋있어 보이겠다. 해보고 싶었어요. 저거 해보고 싶다. 옆에 친구들도 나가 나가면 뽑아주겠다. 요즘 애들 그렇다 하면서 옆에 후보 애들이 좀 그렇다 하면서 옆에서 추천도 해주고, 그래서 나갔어요. (2013.2.18)

무슨 회의더라. 그 학생 회장들만 각 반 대표들만 모이는 회의 한 학기 동안 나갔어요. 거기서 회장이 연설하고 하는 거 보고 하고, 이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회장이 다 지시하고 그런 거 짜는거 있잖아요. 이번달은 이거 어떻게 하고 찬성하는 사람 손 들라고 하고 그러면 손들고 그런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2013.2.18)

A는 2학년 때 학급 회장을 하면서 각반의 회장이 모두 모여서 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그 회의는 전교 회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했는데, 각반의 회장들을 대표하여 앞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선배 전교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전교 회장이 앞장서서 여러 일들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저런 자리에 서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A가 애초에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② ㉔선생님 이야기 : A에 대한 평가

필자는 방학 기간 동안에 A의 담임선생님이었던 ㉔ 선생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㉔ 선생님께서는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니 대신 이메일로 질문에 답을 해주시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A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A가 이번에 전교 학생 회장으로 당선 된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올해 담임이 되어서 보니 열의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능력이 따라 주지 못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

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중재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나 10여 년 간의 이질적인 문화적 체험 탓인지 부딪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은 많지만 너무 늦어서 발전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3.2.6)

㉔ 선생님은 A가 열의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아직 능력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여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A는 2012년에 학급의 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었는데, ㉔ 선생님은 A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처음 학급 회장에 당선되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고 주위에서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A는 시키는 일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 눈을 비비고 보게 되었죠. 그러나 제 자신도 선입견이 있던 탓에 좀 고등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에는 회장 대신에 부회장이나 다른 학생을 시킨 일도 많았습니다. 좀더 일을 편하게 하려는 안일한 생각에서였죠. 그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A는 의욕은 있으나 그걸 뒷받침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2.6)

㉔ 선생님도 자신이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에는 학급 회장인 A보다는 부회장이나 다른 학생에게 대신 일을 맡겼다고 하였다. A가 실제로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친구들이 A와 사이 좋게 지내면서도 몇몇은 은근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중단이 많았다는 사정이 있지만 어찌 되었건 현재 여러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A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참 도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잘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문화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의 추천으로 학급 회장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였으나 곧 여러 부분에서 부딪치니까 스스로도 포기하는 면이 보였습니다. (2013.2.6)

또한 ㉔ 선생님은 A가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몇몇에게는 은근히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반 아이들에게는 A가 경쟁 상대가 아닌 한참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일단 성실하게는 해 나갈 것이지만 회장으로서의 능력, 카리스마를 기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학생 회장이 잘 하지 못 한다고 해서 학교가 안 돌아간다고나 하지는 않으므로 많은 선생님들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기르고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실력을 쌓으라고 충고하고 책도 주었지만 결국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개인적으로는 A가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2.6)

㉔ 선생님은 A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리더십을 기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A가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해도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마디로, ㉔ 선생님은 A가 학생회장의 일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③ A의 이야기 : 담임선생님의 반대

필자는 A에게 출마 과정 중에서 부딪혔던 반대에 대해 물어보았다.

담임 선생님이 되게 그랬죠. 안나갔으면 좋겠다. 안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나가겠다 결심했으면 나가는데, 돌려 말하는데 결국 안나갔음 좋겠다. 되면 회의, 학생, 회의도 다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나가 말도 모르고 애들 앞에서 말하다 끊기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고민 좀 하고 출마하라고 그랬어요. (2013.1.14)

A의 담임선생님은 A가 전교 회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자 A를 따로 불러 A가 마음을 돌리기를 권유했다고 한다. A가 제대로 전교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 걱정이 되어 A의 출마를 반대했던 것이다. A는 담임선생님이 반대를 했을 때, ‘내가 나가는 이유는 내가 북한에서 왔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였다.

A는 전교 회장 후보 연설을 할 때에도 자신이 출마하게 된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다음은 A의 회장 후보 연설문의 서문이다. A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쓴 뒤에 A의 보호자가 문장을 다듬고 좀 더 수정을 해주었다고 하였다.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너무도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저도 그 힘든 나라에서 살아가기 힘들어 한글도 잘 모르고 배운 것이 없어 뭐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으로는 밭 짓는 일과 산에서 나무를 베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할 줄 아는 거라곤 비천하기 그지없던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 변화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생겼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겼고,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지낸 시간들이 지금도 가슴 벅차옵니다. <A의 회장 후보 연설문 일부>

A는 위의 연설문을 참고하여 회장 후보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A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A와 같이 살고 있는 또 다른 탈북 청소년에게 왜 A가 당선이 된 것 같냐고 물었을 때, 그 탈북 청소년은 A의 회장 후보 연설이 남달랐었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들은 다 비슷하고 뻔한 이야기만 하였는데, A의 연설문은 뭔가 남다르고 특별했다는 것이었다. A가 했다는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은 북한에서 왔으며, 부모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나같은 사람도 전교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④ ㉠선생님 이야기 : 학교 측의 입장

필자는 평소 A를 잘 알기도 하고, 2013년도에 A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될 ㉠ 선생님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 선생님께서는 A가 전교 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만 보면 전교 학생 회장이라는 것은 대표 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올해 우리반에 학생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번 이상은 외부에 나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예를 들면 서울시 논술 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모의 재판에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A가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영어 한번 써볼래?’ 했더니 영어를 못써요. 야구장을 한 번 텔꾸 갔는데 거기서 kiss time을 못 읽더라구요. 애가 다른 사람 다 웃는데 혼자 못 웃는 거예요. ‘영어 못읽어?’ 하니 못읽는 데요. 그래서 무슨 기회가 있어서 영어 한 번 써봐 a,b,c. 근데 못 쓰는 애예요. 이제 막 한글 막 댄 애라서 영어나 수학적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원 주고 6500원 물건 사면 얼마 받아야 되 그러면 그것도 아직 계산을 잘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런 아이가 학교의 대표로 어디를 가면 우리 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개는 부모님이 안계시잖아요. 어쨌든 삼촌이라는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학생 회장의 부모님이 학생회 총 학부모 협회의 회장이 되시거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담임 선생님도 거부를 한 번 하셨거든요. 안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개가 출마했다고 해서 애만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했어요. 누구나. (2013.2.14)

㉠ 선생님께서는 A가 전교 회장에 출마한다고 하였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 했는지를 자

세히 들려주었다. 전교 학생회장은 그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다양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고, 외부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도 해야 하는데, A처럼 학업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 학교 대표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도 걱정이 되는 일이었다고 하였다. 전교 학생회장의 부모는 자동적으로 학부모 협회의 회장이 되는데 A에게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례가 그 3년전에도 성적이 50프로정도 되는 아이가 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를 맡아먹었어요. 한국에. 학교가 좀 많이 안좋아졌어요. 학생회가 제대로 안돌아갔어요. 학생회가 하는 일이 꽤 많거든요. 그게 잘 안돌아갔어요. 학생회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또래 상담부터 시작해갔고, 학생회장이 학교 대표로 아니면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 학생회장이 다 개입을 해요.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애가 대표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연설문을 써야 되고 이런 건데, A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 전에 공부 못하던 애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와’ 하고 애들한테 인기 많은 애였지 그런 추진력이나 그런 능력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A도 추진력은 별로 없거든요. 리더십이 조금 많지는 않은 아이인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부회장 된 애들이 리더십이 훨씬 좋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한 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다 더 상황이 안좋은 애가 회장이 되려고 하니까 저희는 극구 반대를 했던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입장에서는요 (2013.2.14)

또한 ㉔ 선생님은 3년 전에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전교회장이 되어 여러 가지로 학교의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학교에서 3년 전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전교회장이 되어 학생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년 전 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은 학생이 전교 회장이 되려고 하니 학교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㉔ 선생님은 무엇보다 A에게는 추진력, 리더십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에 부회장으로 당선된 아이들이 더 뚝뚝하여 A가 부회장에게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A보다는 A와 함께 이번에 전교 부회장이 된 두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이었다.

솔직히 잠시 심각했어요. 출마하고 당선 됐을 때는 혼란스러웠죠. (웃음)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키우지 뭐.’ 저희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착해요. 잘 키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학급에 반장을 뽑을 때 뚝뚝한 애를 뽑아야 담임이 편하거든요. 뚝뚝한 애가 안뻘히면 담임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학생회장을 잘못 뽑으면 선생님들이 불편해요. 그런 이미지가 아마 다 있으니까. 한번 경험이 있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2013.2.14)

학교 선생님들이 A가 전교 회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A가 뚝뚝하지 못한 아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㉔ 선생님도 그렇고 ㉕ 선생님도 그렇고 A는 능력이 한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A가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선생님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㉔ 선생님과 ㉕ 선생님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A보다는 A와 함께 임원일을 맡고 있는 다른 학생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㉔ 선생님은 이러한 학교 선생님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호기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호기심. 1학년 쪽에서 애가 좀 으쌰으쌰를 잘했어요. 그쪽에 호응을 좀 많이 받았고. 애들하고도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북한에서 온 애치고도 애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2013.2.14)

이 부분에서는 A 역시도 자신이 회장으로 당선된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의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하였다.¹⁴⁾

또한 A가 다른 탈북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교우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생님들도 A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탈북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A의 장점을 리더의 자질과 연결 짓지는 않고 있었다.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켈 중요한 건 우선 리더십이 있으려면 똘똘해야 하거든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아주 모자라요.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우선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쪽 삼촌의 입장에 서는 공부에 초점을 잘 안맞추시거든요 사실은. 잘 적응하고 많은 경험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래서 근데 A처럼 뭔가 리더십이 필요한 일을 하려면 우선 많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어디가서 잘하고 하는데 말하는거 대화해보셨잖아요. 똘똘한 느낌이 안들거든요. 무슨 지식이 좀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착해요.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요즘은 조금 게을러 졌어요. 약간 게기는 것도 좀 있고 제가 농담삼아 니들 요즘 나태해진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북한에서 바로 왔을 때 느낌과 몇 년 지난다음에 느낌이 좀 다르니까 자기네들도 여기 좀 찾아 드는거죠. 아주 착하기는 하고 명랑하고 밝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씩 게을러 지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2013.2.14)

㉔ 선생님도 ㉕ 선생님처럼 A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키우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리더십이 있으려면 똘똘해야 하는데, A는 똘똘하지 못하기 때문에 A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학업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단은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⑤ A의 이야기 :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서 받은 상처

A에게 선거 과정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때 A는 담임선생님 외에도 자신이 전교 회장에 나서는 것을 반대한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다.

어느 쌤은 어느 반에 들어가서 A를 왜 뽑냐, 왜 추천했냐고 애들한테 각 반 애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해요. 애들한테 사인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반 애들한테 왜 A 추천했냐고, 왜 싸인 해줬냐고 그래서 그말을 나한테 와서 알려줬어요. 디게 기분 나빴어요., 그 선생님 이름까지 다 알려주고 (2013.1.14)

A는 전교 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각반을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수의 아이들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A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선생님 다른 반 수업에 들어가 A를 위해 사인을 해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소리를 했다고 하였다. A는 그 이야기를 다른 반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전교 회장으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축하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여 많이 섭섭했었다고 하였다.

담임선생님은 되게, 선거운동 하는 기간이나 한 후에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 되게 반대했는데 제가 됐으니까. 제가 된 거 알면서, 제가 맨 앞자리 앉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해줘서 되게 섭섭했어요. 나중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런 식으로. (2013.1.14)

A는 자신과 담임선생님의 관계가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였다. 당선된 소식을 듣고 반 아이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는데 담임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서 섭섭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로 A를 불러서 축하한다고 하시며 여러 조언도 해주었다고 한다.

⑥ A의 보호자 이야기 :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의 이야기

14) ‘우리 집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애들도 많고, 나랑 같이 놀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제가 축구 엄청 좋아하니까 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2013년 1월 14일 A 인터뷰 중에서)

A의 보호자는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있었던 학교 측과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다.

A가 그 회장을 출마하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빠하는 학생이었어요. 뭐 잘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빠해주는 선생님이었는데, A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 아이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 아이들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난 그애들이 이빠다 인데, 어? 애가 회장을 하려고 해? 앤 거기에 머무르고 정채되어 있어야 내가 도움을 주고 이빠해준 아이인데 그 수위를 넘은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말려달라. (2013.1.28)

A의 보호자는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학교 선생님께서부터 전화가 와서 A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였다. A의 보호자는 A가 전교 학생 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일이 기존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반대에 부딪힌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의 기준에서 A는 많이 부족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인데, 그런 아이가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는 당연히 이런애고 불쌍한 애고 도와주어야 하는 애고 적응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아이가 왜 회장에 나오냐는 거죠. 다시말하면은 어, 왜 전체 사회 놓고 봤을 때 학교라는 또 작은 사회가 있잖아요. 그 사회에 포진되어 있는 기득권층이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그런 기득권층, 기득 세력 그쪽 자리에는 당연히 이런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루트,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A가 확 깨버린 거죠. 어 당연히 회장이면은 회장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회장 엄마는 이렇게 저렇게 학교에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단 하나라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A가 나왔으니 학교 입장에서든 좋게 말하면 걱정인거고 나쁘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화가 난 거죠. 누가 학교 학생 회장을 누가 어떤 사람이 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정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2013.1.28)

A의 보호자는 학교의 전교 회장은 어떤 기준을 가진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정해 놓은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은연중에 정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당연히 학생회장이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 중에 어느 하나도 갖추진 못한 A가 출마를 하게 되었으니 학교 측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였다는 것이다.

A의 보호자는 A의 사퇴를 권하는 학교 측의 전화를 받고 절대로 A는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 보란 듯이 학교에 나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였다.

학교는 변해야 되요. 변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다니는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부드러워요.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하려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번엔 느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화났죠. 그래서 아, A한테도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고, 강조한 것은, 학생 회장은 공부 잘 하는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니가 보여줘라. 니가 떨어졌으면 결과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니가 되었을 경우 니가 다른 아이들보다 두 세배 노력하고 더 많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서 니가 되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했던 선생님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해라. 복수란게 뭐냐면 니가 잘하는게 복수다. 어, 내가 재가 되기를 싫어했는데 재가 됐는데 너무 잘하네. 그게 바로 그 선생님들한테 복수하는 거다. 니가 되는 것을 찬성하고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다. 하지만 니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었을 거다. 니가 열심히 함으로써 니가 되는 것을 찬성했던 선생님들이 반대했던 선생님들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거기서 학교가 변화하는 시발점인거다. 이미 학교는 변했다. 니가 됐으니까. 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다양한 아이들이 아,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싶어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니가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모두에게 기회는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니가 보여주어야 되는 거고 한번 해보자. 나도 회장 엄마 열심히 해볼테니까 해보자. (2013.1.28)

A의 보호자는 A에게 ‘복수’를 하자고 했었는데, 복수라는 것은 A가 다른 선생님의 편견과 예상을 뒤엎고 전교 회장의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뜻했다. A의 보호자도 그 ‘복수’가 성공하기 위해 더 보란 듯이 학부모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A의 보호자는 자동적으로 학생회 학부모 모임의 회장이 되어 A 못지않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김장 담그기, 시험 감독, 회의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면서 A의 보호자는 전교 학생 회장의 학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하였다.

저도 불편했고 학교도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가 됐는데 학생 회장의 학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처음 학교를 갔는데 사실 저도 조금 뻘쬘했고 어색한 거예요. 웬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어색하긴 어색했지만 어쨌든 그걸 이기자고 A하고 약속한 거니까. 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A와 저는 열심히 했죠. 와가지고 막 말도, 입에서 막 말도 안떨어지는데, 괜히 말도 한 번 건네보고 사람들한테. 뭐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구요. 조금씩. 그러더니 학교에서도 아, 이번 에 학교 회장 삼촌이라고 소개도 해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젠 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A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제 차례인 거죠. 제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근데 일부로 보란 듯이 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되는데. 뭐, 안되는건 아니지만 학교 간부 수련회 갈 때도 고기하고 애들 먹을까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서포트 해줄 사람이 있다는걸 보여주는 거죠. (2013.1.28)

A의 보호자는 학교측에 A에게도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있었다. 처음 전교 회장의 학부모로서 학교에 갔을 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불편했지만, 일부로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학부모가 할 일이 더 많대요. 아이들이 해야 될 일보다 학부모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그 학부모는 전 회장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A 삼촌 그냥 A랑 같이 등하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1년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부모 감독관도 집어 넣어요. 선생님과 학부모가 2인 1조가 되어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다 일찍와요. 엄마들이 다 밥을 안먹고 와요. 하다못해 떡이나 김밥이라도 해가야 되요. 학교에선 그런 걸 해가지 말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죠. 안해갈 수 없죠. 자기 밥 못먹고 오는 엄마들이 태반인데 그걸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 해야 되요. (2013.1.28)

A의 보호자는 아무리 학교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교 회장의 학부모로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였다. 하다못해 학부모 회의 모임을 한 번 해도 전교 회장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간식이라도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 측에서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A의 보호자는 전교 회장의 학부모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애초에 학교에서 A가 전교 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 선생님이 전화해서 반대하고 뭐하고 했던 것은 화가 나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였지만 막상 되고 나니까 아, A는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제가 하려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이게 좀 힘든 맞벌이 부부의 가정의 아이들이 했다면 아, 이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학교는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A가 나갔을 때 누구나 할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도전하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해서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기뻐고 A도 기뻐했는데 그 뒤의 후폭풍? 갑당해야 될 것들은 아, 역시 여지까지 이루어졌던 관행이라든지 분위기를 뛰어넘기는 아직은 무리수구나 힘들구나. 이걸

나 혼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전체 대한민국 분위기 학교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힘들겠구나. (2013.1.28)

A의 보호자는 전교 학생 회장의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 만약 부모가 제대로 지원해주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가 전교 회장이 되었다면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일단 A가 전교 학생 회장이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새롭게 감당해 나가야 할 어려움과 도전의 연속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전체 대한민국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차별 등을 넘어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 분위기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뭐 배려라든가 부족하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관심을 안갖고 있으니깐 그게 약간 문제인거죠. 관심 안 갖는 것도 그렇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거조차 무서워 하니까 이 사회는, 사실 바뀔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지. 내가 열심히해야지라는 마음만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2013.1.28)

A의 보호자는 여전히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차별이 강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A가 전교 학생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A의 당선을 반대하는 시선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개인 혼자서만 노력을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⑦ A의 이야기 : 전교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의 이야기

A에게 처음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A를 만났다. 한 달 뒤에 만난 A의 상태는 그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한 달 전의 A는 자신이 이제 막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여 흥분한 상태였다. A는 전교 회장으로 당선 된 것이 확정된 순간에는 탈북 이후에 가장 가슴이 떨리며 기분이 좋았었다고 했었다.¹⁵⁾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난 A는 점차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고민도 많아지고 기분이 우울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3학년되면...다른 사람이 칭찬 하면 해줄수록 막 아후, 한숨만 나와요. 뭐, 대구도 내려갔을 때 대단하다 뭐 그러고 막,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는데, 칭찬 받을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2013.2.14)

A는 처음 전교 회장으로 출마하여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이 주는 관심을 고마워하며 즐겼었다. 그런데 막상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자 점차 주변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마음이 무거워 진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감정의 기복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다.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우울해지고, 예전에 비해 우울해지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A 자신이 전교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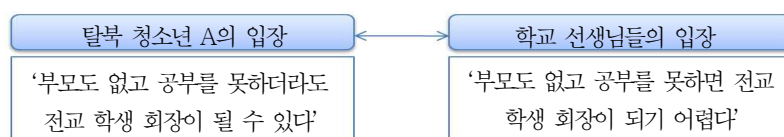
애초에 A가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된 강력한 동기는 멋있어 보이는 자리에 오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자신도 전교 회장의 자리에 서면 멋있어 보이겠다는 생각이 출마를 하고 싶게 만든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이

15) 뭐라하지.. 나..이게 막,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떨린 것 같아요. 진짜로 떨린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떨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막, 애들이 다 박수쳐주고, 너무 좋았어요. (2013.1.14)

었다. 그래서 전교 회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전교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분발하였는데, 막상 전교 회장의 자리에 서게 되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떠오르면서 막막해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A에게는 전교 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전교 회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탈북 청소년 A의 전교 회장 당선 사례와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와의 비교를 통해 보는 분단서사

지금까지 A의 전교 학생 회장 당선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 상황은, 상대방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과, 높은 지위에 올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입장의 대립이다. 먼저 탈북 청소년 A의 입장에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선입관을 갖고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자리에 올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족한 아이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아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우리에게 더 큰 부담과 짐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A가 전교회장으로 이미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A가 사퇴하기를 종용한 것이다.

이러한 A의 전교 회장 당선 사례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제 상황과 비슷한 문제 상황이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가 있다.¹⁶⁾ <어사가 된 막내사위>는 고아였던 거지 소년이 대감집 막내사위가 되면서 온갖 구박을 받다가 나중에 어사가 되어 자신을 구박하던 처갓집 식구들을 혼내준다는 이야기이다.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전반에 걸쳐있는 핵심적인 문제 상황은 막내사위와 처갓집 식구 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서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막내사위와 처갓집 식구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대표적인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어느 대감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딸은 시집을 보냈고 셋째 딸만 아직 시집을 보내지 못했다. 대감은 관상을 잘 보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관상이 좋은 사윗감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2)대감의 지인은 길거리에서 고아인 거지 소년을 발견하는데, 관상이 좋아서 대감의 막내 사위로 추천을 해주었다. (3)대감은 어쩔 수 없이 거지 소년을 막내 사위로 받아들였지만 막내딸과 함께 집에서 나뭇아 따로 살게 하였다. (4)그 뒤 막내사위는 처갓집 식구들에게 온갖 구박과 무시를 받으며 살았다. (5)막내딸은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막내사위에게 집을 떠나 10년간 공부를 하고 오라고 하였다. (6)막내사위는 10년간 공부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마침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여 두 처남이 서울에 올라가고 있었다. (7)막내사위는 두 처남을 따라 서울에 올라갔는데, 두 처남은 막내사위를 무시하면서 못

16)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 해당하는 설화 각편들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13편 가량 확인된다.

마땅해 했다. (8)과거 시험날이 되었는데 두 처남은 낙방하고 막내사위만 합격을 하였다. (9)막내사위는 어사가 되어 처갓집으로 돌아가 자신을 무시했던 처갓집 식구들을 혼내주었다. (10)그 뒤에는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을 도와주며 잘 살았다.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서 처갓집 식구들과 막내사위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막내사위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점에 있었다. 처갓집 식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과 비슷한 출신이어야 하는데, 막내사위는 고아에다 거지였다. 아무도 막내사위를 자신들과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막내사위에게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단지 출신이 비천하기 때문에 막내사위는 온갖 무시와 구박을 받게 되었다.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의 무시와 구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는 길 밖에 없었다. 여러 각편에서 막내사위의 부인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면서 막내사위에게 반드시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한다. 그런데 각편에 따라 막내사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13편 중 6편의 각편에서 막내사위의 아내가 막내사위에게 10년간 집을 떠나 공부를 하고 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¹⁷⁾ 1편에서는 아내가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한다.¹⁸⁾ 이렇게 전체 13편중에서 7편에는 막내사위가 열심히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러나 나머지 각편들에서는 막내사위가 집을 떠나 공부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막내사위가 원래 타고난 실력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¹⁹⁾

우여곡절 끝에 막내사위는 두 처남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두 처남들은 막내사위가 자신들과 같이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다. 6편의 각편에서 처남들이 막내사위를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난다.²⁰⁾ 막내사위가 자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서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막내사위가 대신 글을 써주어 처남들이 과거에 합격한다는 각편들이 있기도 한데,²¹⁾ 이 순간에도 처남들은 끝까지 막내사위를 무시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다. 막내사위가 자기들보다 뛰어난 글솜씨를 보여주는 데도 여전히 막내사위를 무시하려 드는 것이다. 심지어 막내사위가 어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도 두 처남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막내사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각편도 있다.²²⁾

17) 주달업(남, 71), <처갓집에 나팔 소리 들려 준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3-3, 89-95면 ; 선수모(남, 81), <가난한 셋째 사위의 등과(登科)>, 『한국구비문학대계』 6-4, 676-682면 ; 이찬구(남, 69), <계묵(桂墨)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6-2, 490-500면 ; 양덕환(남, 65), <병조판서 된 막내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1-8, 125-128면 ; 황말돌(남, 74), <신유복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173-178면 ; 박영만(남, 84), <둥둥 내 사랑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8-3, 653-666면.

18) 이기백(남, 71), <셋째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7-6, 715-718면.

19) 김정균(남, 88), <권불심년>, 『한국구비문학대계』 6-2, 49-56면 ; 김세원(남, 62), <정승된 곰보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7-8, 515-525면 ; 김갑임(여, 64), <신유복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7-8, 426-430면 ; 장광태(남, 73), <훈장의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5-4, 902-905면 ; 김경규(남, 79), <사위 괘시한 처가>, 『한국구비문학대계』 3-1, 174-178면 ; 양승환(남, 70), <조진사의 막내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5-1, 382-392면.

20) 처남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막내사위의 돈도 빼앗아 가고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김세원(남, 62), <정승된 곰보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7-8, 515-525면), 과거 보러갈 여비 마련하려고 친정에서 쌀 훔치다 걸려서 두들겨 맞고 난 후, 처남들은 같이 과거를 보러 가면서 옆에 앉지도 못하게 하거나(김갑임(여, 64), <신유복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7-8, 426-430면), 처남들이 막내사위를 무시하며 툭툭 치거나(장광태(남, 73), <훈장의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5-4, 902-905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처남들만 말을 타고 가고 막내사위는 걸어서 가거나(김경규(남, 79), <사위 괘시한 처가>, 『한국구비문학대계』 3-1, 174-178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처남들이 거지같은 놈이 따라 온다며 호령을 하고 따돌리거나(황말돌(남, 74), <신유복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173-178면), 처남들이 막내사위를 따돌리고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도 비웃기만 하는(양승환(남, 70), <조진사의 막내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5-1, 382-392면)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21) 김정균(남, 88), <권불심년>, 『한국구비문학대계』 6-2, 49-56면 ; 주달업(남, 71), <처갓집에 나팔 소리 들려 준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3-3, 89-95면 ; 선수모(남, 81), <가난한 셋째 사위의 등과(登科)>, 『한국구비문학대계』 6-4, 676-682면 ; 이찬구(남, 69), <계묵(桂墨)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6-2, 490-500면.

이러한 처갓집 식구들과 막내사위와의 갈등은 막내사위가 어사 출동을 하였을 때 종결된다. 막내사위가 자신을 무시했던 처갓집 식구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자 비로소 막내사위에게 잘못했다고 빌면서 사과를 하는 것이다. 7편의 각편에서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 버릇을 고친다는 내용이 나온다.²³⁾ 대부분 막내사위가 일단 처갓집 식구들을 혼내주어 버릇을 고치고 난 뒤에는 같이 잘 살려고 했다는 결말로 이어지지만, 벌을 내린 뒤에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으며 살게 되었다는 각편도 있다.²⁴⁾ 그런데 처갓집 식구들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처갓집 식구들을 도우며 살게 되었다는 각편도 있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했던 처남들에게 벼슬자리까지 내려준다.²⁵⁾

이렇게 각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막내사위는 처갓집 식구들의 무시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였고, 마침내 성공을 하였을 때 일단 자신을 무시했던 처갓집 식구들을 혼내준다는 것이다. 마치 어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더 큰 힘을 가져서 강제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 마냥, 자신을 무시했던 처갓집 식구들에 대한 처벌이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둘째, 처남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막내사위가 자신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순간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내사위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끝까지 막내사위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막내사위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무릎을 꿇게 만들기 전까지는 막내사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 설화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끝까지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과, 자신을 무시하는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얻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입장이다.

앞서 서사는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는 경향성과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사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을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태도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정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약 각각의 두 가지 현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상황이 유사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관계의 대립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두 현상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사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과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양쪽 입장의 태도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과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사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서사를 구성하는 작업은,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던 분단서사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사는 처남의 입장과 막내사위의 입장에서 각각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처남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서사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 막내사위가 자신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들의 글을 대신 써주는 상황에서

22) 이기백(남, 71), <셋째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7-6, 715-718면.

23) 부인이 자기를 무시한 성님들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끌어내고, 막내사위는 장인장모를 묶었다가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김정균(남, 88), <권불잡년>, 『한국구비문학대계』 6-2, 49-56면.), 처갓집 식구들에게 길을 닦게 하고 고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김세원(남, 62), <정승된 꿈보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7-8, 515-525면.), 막내사위가 동서 둘을 하인으로 삼고 나중에 곤장을 치는 경우도 있고(김갑임(여, 64), <신유복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7-8, 426-430면.), 처갓집 식구들을 전부 때려 묶어놓고는 목을 베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선수모(남, 81), <가난한 셋째 사위의 등과(登科)>, 『한국구비문학대계』 6-4, 676-682면.), 처남들이 즐기던 잔치상을 때려 부수는 경우도 있고(장광태(남, 73), <훈장의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5-4, 902-905면.), 처갓집 식구를 버릇을 고쳐주었다는 경우도 있고(이천규(남, 69), <계목(桂墨)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6-2, 490-500면.), 버릇을 고친 뒤에 다시는 상종도 안하고 살았다는 경우도 있다.(김경규(남, 79), <사위 팔시한 처가>, 『한국구비문학대계』 3-1, 174-178면.)

24) 김경규(남, 79), <사위 팔시한 처가>, 『한국구비문학대계』 3-1, 174-17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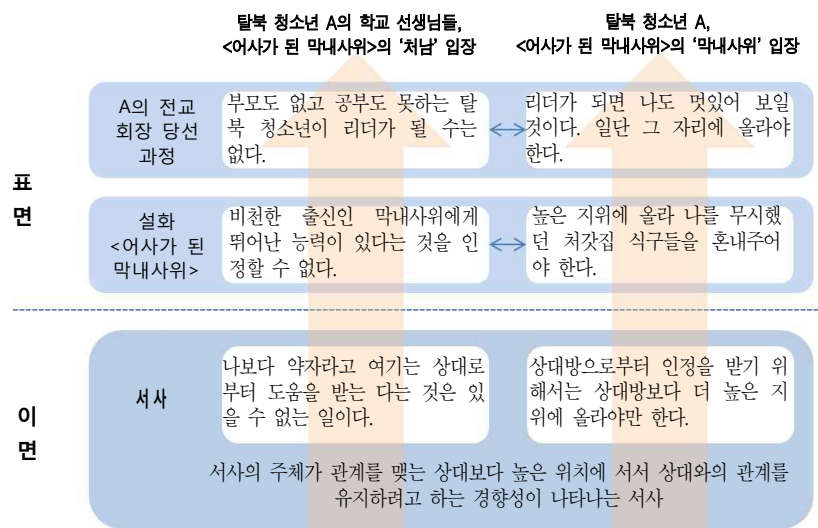
25) 양승환(남, 70), <조진사의 막내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5-1, 382-392면. ; 이기백(남, 71), <셋째 사위>, 『한국구비문학대계』 7-6, 715-718면.

도, 또는 막내사위가 급제를 하여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서도 처남들은 끝까지 막내사위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처남들은 막내사위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A의 사례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은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A는 절대 전교 회장감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였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A가 회장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였고,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에는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현실적인 우려들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사실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분단서사의 한 유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약자로 인식되는 상대방이 그 위치를 넘어서서 오르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서사가 작동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막내사위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서사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는 특징이 나타난다. 막내사위가 어사가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처갓집 식구들을 벌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일단 내가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막내사위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서사가 A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처남의 입장과 막내사위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서사 모두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한 분단서사는 서사의 주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사의 영향을 받는 입장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상대방이 계속 자신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그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서사는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

3. 탈북 청소년 A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 구상

2장에서 탈북 청소년 A의 전교 회장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던 분단서사를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서사와 비교하면서 밝혀보았다. 일차적으로는 남한 사회에 깊이 깔려 있는 분단서사의 한 유형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분단서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단서사를 가지고 있는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하는 탈북 청소년의 입장에도 분단서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텍스트 자체에서 탈북 청소년이 한 행동과 막내사위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동일한 서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사는 심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사가 밖으로 표출될 때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A는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한 이후에,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우선 전교 회장이 되고 난 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잡생각이 많아졌고, 둘째, 최근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우울한 상태에 빠질 때가 많고, 셋째, 화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잦아져서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A가 최근에 겪게 된 이러한 일들은 전교 회장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는 전교 회장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거나 마음의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오히려 매일 기쁘고 흥분된 상태였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르고 나니 앞일이 막막해진 것이다. 그래서 전교 회장이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한다는 말을 들으면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A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학치료프로그램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시작으로 장치는 남한 사회에 깔려 있는 분단서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해야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A가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일, A가 전교 회장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A의 서사를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A가 처해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A의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문학치료프로그램 구상에 앞서서,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치료법이 인간의 장점을 강조하고 책임성과 계획을 중시하여 현실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하여,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은 치료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 서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서사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대상자도 자기서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대상자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 역시 자기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이 치료대상자의 변화와 함께 현실의 변화도 기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²⁶⁾

위의 인용문은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방법론과 근본적으로 갖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 중에서 특히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은 치료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 서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서사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26)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제2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10, 367면.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학치료학적 접근법에는 치료대상자에게만 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대상자가 몸을 담고 있는 현실에도 서사가 있다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적응을 하며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그 사회의 서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A를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한 현실의 서사, 즉 분단서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을 구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A가 자신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던 서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A의 서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셋째, A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서사가 개발되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A에게 어떠한 서사가 마련되어야 A가 현실의 문제를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넷째, 작품 감상과 창작 등의 활동을 통해 A가 새로운 서사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A가 현실의 서사를 이해하는 과정, 즉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던 분단서사를 이해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다.²⁷⁾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를 감상하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서 A의 서사가 갖는 특징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앞으로 A의 서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드러날 것이다. <어사가 된 막내사위>를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활동은 총 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①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감상을 통한 분단서사 이해하기

먼저 필자는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서 막내사위가 급제를 하여 어사가 되어 처갓집에 돌아갔다는 대목까지 들려주고 난 뒤에, A에게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았다.²⁸⁾ 여기서 A는 예전에 막내사위가 당했던 설움을 처갓집 식구들이 어느 정도는 느끼게 해주어야 된다고 하였다.²⁹⁾ 그 다음 필자는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각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그 중 더 마음에 드는 결말을 고르게 하였다. A는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을 혼내준다는 결말을 더 마음에 들어 했다. 필자가 그러한 결말을 갖고 있는 <어사가 된 막내사위>라는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묻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답하였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 작품을 잘 이해하면서 공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서사와 그 작품의 서사가 서로 비슷하거나 같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³⁰⁾ 따라서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A의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 대한 반응을 이해해 본다면, A의 서사와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서사 간에 상동성이 존재한다고 해

27) 차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논의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28)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각편을 보면, 이 대목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대부분은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결말로 가지만, 막내사위가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고 처갓집 식구들을 돌보며 살았다는 결말도 있다.

29) 그냥 똑같이 해주지는 않는데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면, 어쨌든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서만 바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30) '우리가 문학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을 할 적에 이 문학작품의 작품서사가 우리의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인생살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서사가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품서사와 자기서사 사이에 상동성이 존재할 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상동성이 공감과 감동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조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작품 및 작품서사에 대한 공감은 자기서사가 무엇인지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서사와 일치하거나 자기서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공감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감은커녕 이해도 못하고 일종의 거부감마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제2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10, 371~376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A에게 설화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물어보자, A는 막내사위가 10년간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자신도 지금 학생 회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 공부 실력을 다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기도 막내사위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마음만 있고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 나오는 처남들이 왜 그렇게 막내사위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막내사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 A는 처남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또 다른 탈북 청소년 B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자기도 때로는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 나오는 처남들처럼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더 즐기면서 이러면서 알면서. 요즘따라 B형 한테 되게 미안해 졌어요. 요즘 잡생각이 많은 거 같아요. 이상한 생각도 하면서. B형이 기분이 되게 나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생들한테 되게 무시당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사과하고 그러긴 하는데. B형은 그렇게 안나오는거예요. 본인은,, 화내고 화내지 않아도 될 걸 화내고 그런데서 갑자기 막 그래요. 난 또 성격이 욱 하는 성격이라서 나도 같이 화내고 B형 그런 거 고치면.

B는 A와 함께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B는 그룹홈에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 중에서도 유독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하였다. A는 평상시에 B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잡혀 있어서, 자기도 B를 무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A는 요즘 들어서 B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워낙 모든 사람이 B를 무시하는 분위기이고, B 또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막상 B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B 자체도 계속 무시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B는 형이면서도 형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 좋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다시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A는 서사의 주체를 바꾸어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처갓집 식구들 입장에서 <어사가 된 막내사위>를 다시 감상할 수 있었다. 처갓집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이번에는 주위에서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 나오는 처남들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A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이 전교 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도, 자신의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A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신이 말도 잘 못하고 학업 수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A는 학교에서 가끔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애들이랑 언어 그런 거 무시당할 때 있고요, 개그로 넘기죠 그냥.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게 더 낫죠.

A는 학교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럴 때에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개그로 넘기려고 한다고 하였다. A의 담임선생님도 A가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A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였다. A 나름대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예전에 A는 자신은 원래 ‘강짜’를 많이 부리는 성격이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지만, 남한에 온 이후에는 자신의 원래 성격을 감추고 최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³¹⁾ A는 남한에서는 일단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

하면서, 최대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다. 아마 그것이 A가 다른 탈북 청소년에 비해서 적응을 잘하는 편인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A가 전교 회장이 되려고 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자신이 남한 사회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원래 성향을 억누르면서 참고 지내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기회만 제공된다면 자신도 약자의 위치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코자 하는 소망이 강력하게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②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각편을 활용한 A의 서사 개선 방향 탐색

A와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또 다른 각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어사가 된 막내사위> 중에는 마지막에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처갓집 식구들을 잘 돌보며 산다는 각편이 있다. A에게 그러한 각편에서는 어떻게 막내사위가 자신을 무시했던 처갓집 식구들을 벌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 A는 어차피 혼내주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아서 혼내주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그러한 A의 대답에 호응을 해주고 난 뒤에, 그럼 이 경우에 막내사위는 왜 어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 같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A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이번에는 반대로 처갓집 식구들을 처벌하는 막내사위는 왜 어사가 된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A는 막내사위가 자신을 무시했던 처갓집 식구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그렇다면 막내사위가 어사가 되려고 한 목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다시 말해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는 이유가 남보다 강한 힘을 가져서 과시를 하려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르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A는 필자의 정리에 동의를 하였다.

필자는 A에게 학생회장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A는 아직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필자는 A에게 앞으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글로 써볼 것을 제안하였다. A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썼다.³²⁾ A는 주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썼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는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A는 자신이 예전부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항상 일관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저 되게 그런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끌고 싶다는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랑 친

31)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처음 A를 만났을 때 A와 나누었던 대화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 들어와서 착한척 하는 거예요. ㅎㅎ (필자 : 착한척 하려고 어떻게 하는데?) 앉아있죠 아무말 안하고 앉아있죠. 놀때 놀고 말싸움을 안해요. 저 사실 말싸움 많이 걸거든요. 계속 웃고 그러죠. 웃어주면 이렇게 나쁜 말해도 웃어주면 더 나쁜 말 못하잖아요. 지금 그냥 웃어줘요.’ (2011.6.14.)

‘사람 차별하는 건 어디서나 같은 거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차별을 안한다 안한다 하면서도요.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노골적이고 심하구요. 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애들이 말을 걸으면서 조심하는데 다른 애들에 대해서는 심해요.’ (2011.6.21)

‘여기까지 와서 북한처럼 살면 안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괜찮은데..너무 웃어서 친구들이 짜증난대요.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웃고 싶어서. 거울 보면 웃고 싶었어요. 남한 오면서.’ (2011.6.21)

32) A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생님들이 마음편이 시킬 수 있는 나 2. 어디까지나 모범적이어야 한다. 3. 말로만 하지 말자. 4. 약속을 지켜라. 5. 기분 나빠도 웃어야 한다. 6. 기초 7. 활발해야 한다. 8.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 9.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10. 생각 11.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한다.

한 친구 사이에 다룰 때도 있어요. 모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고치고 있어요...제가요 다른 사람한테 지휘받고 그런걸 한번도 받아본 적 없잖아요. 늘 혼자서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버릇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혼자 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다했잖아요. 근데 막 삼촌이 이거하라 저거하라 그럴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맨처음 왔을 때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맨처음 왔을 때 아,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서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된다, 그랬는데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혼자 멋대로 하고 그래요.

A는 자신에게 예전부터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강력한 성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A는 탈북하기 이전에 그 어떤 어른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을 했었다. 탈북도 혼자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였다. A는 친아버지의 얼굴은 본적도 없고 어려서 친어머니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며, 장님이었던 양아버지와 이복 동생 둘을 몇 년간 자신이 돌보며 살았던 경험도 있었다. 이렇게 A는 이제까지 한번도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누가 자신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며 지휘를 할 때라고 하였다. 자기 안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성향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번에 전교 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A는 자신의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처음에는 사이가 좋다가 나중에 가서 틀어지는 것은 다 자기가 너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그나마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³⁾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A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좋아하지만, 막상 리더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는 이번에 전교 학생 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학급의 회장이었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반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제멋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서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었다고 하였다.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을 벌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서사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작용하고 있는 서사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 막내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을 벌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잘 살게 된다는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서사는 리더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진심으로 감복하며 따르게 될 수 있다.

4. 결론

33) 생각지 못하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막 탄 친구들이랑 싸우고 나에게 와서 막 말하거든요. 이케 막 와서 고민 된다고 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열심히 들어주지만 하는데 애들이 그걸 되게 좋. 되게 고맙다고.

탈북 청소년의 적응 문제와 분단서사 -탈북 청소년 A의 전교회장 당선 사례를 중심으로-

장만식*

이렇게 토론자로 불러 주신 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서둘러 읽고 두서없이 토론문을 작성한 데에 미리 미안한 마음 전한다. 먼저 발표자의 논문에 대해 정리하고,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함을 들춰보고자 한다.

발표자는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으로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서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면에 깔려 있는 서사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서사를 ‘분단서사’라고 규정하였고, ‘분단서사’는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에게도, 그리고 탈북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 사람 또는 집단에게도 ‘분단서사’가 깔려 있어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실제 관계 속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분단서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의 거대한 판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 글의 1차적인 목표는 탈북 청소년 A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던 분단서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2차 목표는 A가 앞으로 남한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교 회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논문을 읽고 드는 몇 가지 궁금한 생각들이다.

1. 분단 서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리된 설명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 A의 분단서사, A의 보호자의 분단서사, A와 관계된 교사들의 분단서사, A와 관계된 남한 사람들의 분단서사 등의 서사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2.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사가 분단서사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핵심적인 서사가 분단서사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A가 애초에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박한 바람일 것인데, 이러한 바람과 실현 과정이 청소년 시기의 정체성 확립과 밀접히 관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청소년들의 본능적 충동이 확실히 자아정체감 문제와 관련된다는 에릭슨의 말을 상기해 볼 때 더 그럴 듯하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장과 변화, 사회적 압력과 요구 등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전 단계까지는 회의 없이 받아들였던 자기존재에 대해 새로운 경험과 탐색이 시작되고, 동아리(클럽), 위인들이나 주변의 존경할 만한 인물, 문학이나 예술 속에 나타난 인물, 연예인 등의 개인이나 소속 집단에 대한 동일시의 현상이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동일시로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발달시켜 나간다.

그런데 A는 교사들과 그 주변의 심리적 상황에 의해 자아정체감 형성·발달에 있어 위기가 온 것이다. 학생회장 선거 과정과 선거 전, 선거 후의 상황 속에서 부정적 정체감을 형성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온 것이다. 만약 이 시기의 혼란과 방황, 고민 등을 해결한다면, A는 소속감, 인정, 타인에 대한 관심, 협동의 태도, 자립적

* 상지대학교 외래교수

태도, 삶에 대한 희망적 태도, 충실성, 자아정체감 등을 확립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A는 권위에 대한 반항, 윗세대에 대한 적개심, 비행, 고립과 지나친 의존적 태도, 공허감과 자기회의, 방황, 역할혼미를 경험하게 되며, 일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는 A가 발표자와 만남을 가지는 동안 최근에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을 볼 때 더욱 의심이 간다. 그 어려움의 호소는 위기에 의한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 분노, 압박감 등’이며, 이러한 심리적 측면이 혼란과 충동적 말과 행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A의 전교 회장 선거 전, 중, 후의 전과정에서 A가 겪는 심리적 갈등의 핵심은 자아정체감의 형성 발달과 왜곡된 서사에 의한 억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차별의 서사가 심리적 장애와 갈등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의 핵심에 부차적으로 분단과 탈북 관련된 왜곡된 인식이나 경향으로 인한 억압적 상황이 개입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3. <어사가 된 막내 사위>와 A의 전교 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분단서사가 동일하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발표자는 대체적으로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막내사위는 처갓집 식구들의 무시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였고, 마침내 성공을 하였을 때 일단 자신을 무시했던 처갓집 식구들을 혼내준다는 것이다. 마치 어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더 큰 힘을 가져서 강제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 마냥, 처갓집 식구들에 대한 처벌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둘째, 처남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막내사위가 자신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순간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내사위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끝까지 막내사위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막내사위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무릎을 꿇게 만들기 전까지 막내사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 설화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경향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과 자신을 무시하는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얻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입장과 대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설화의 처갓집 식구들 특히 ‘처남’들의 심리적 상황과 교사들의 심리적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저는 전자의 인물들은 아마도 ‘열등감, 수치심, 분노, 질투, 슬픔과 우울, 불안 등과 죄의식죄책감의 반대급부 등’일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심리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과하게 얘기해서 교사들의 ‘수월성 교육, 편리성, 관료성, 비교육적 관행 등’과 관련한 서사에 의한 갈등과 심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설화나 발문이 얼마나 적절했나에 대한 평가나 논의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전개되어야한다. 그럴 때 더욱 정확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4. 진단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 구상과 관련한 생각이다.

위 생각들과 더불어 갈등의 핵심을 자아정체감의 형성 발달과 왜곡된 서사에 의한 억압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차별의 서사가 심리적 장애와 갈등의 원인일 수도 있고, 부차적으로 분단과 탈북 관련된 왜곡된 인식이나 경향으로 인한 억압적 상황이 개입된 것일 수도 있다면, 이러한 점이 조금 더 진단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 구상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적절한 설화를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어 위와 같은 문제적 상황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진단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 구성 모두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충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에서 찾는 분단 트라우마 극복 방안

김종균*

<차례>

1. 머리말
2. 한국전쟁 체험담의 성격과 양상
3.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말하기 방식과 서사
4. 통합서사를 지향하는 말하기 방식과 서사
5. 분단 트라우마의 극복 방안 : 분단서사에서 통합서사로
6. 맺음말

1. 머리말

20세기 들어 우리 민족에게 가해진 가장 큰 시련은 일제강점과 남북의 분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엄청난 비극으로 자리하였다. 역사의 연결고리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맞물려 발발하였고, 21세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휴전이라는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표면적으로 집단적인 사회구조에 악영향을 미쳤고, 내밀하게 개인들에게는 치절한 상처를 주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의 근원은 분단과 한국전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거대한 부조리로서 한국전쟁의 폐해는 지금의 한국인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하면서 나쁜 영향을 뿜어내고 있다. 그 양상은 정치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도 남북갈등·남남갈등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고, 개인의 삶에서도 전쟁의 상처와 외상에 대한 후유증이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 분단과 전쟁으로 야기되어 우리의 현재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처를 분단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명명할 수 있다.

분단 트라우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 개인들이 사건을 겪은 특수한 일부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라는 점에서 집단적인 문제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서도 분단과 전쟁에서 비롯된 갈등의 요인들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은 분단 트라우마의 표면화라고 과감하게 진단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단과 한국전쟁 사건이므로 전쟁이후 지속적으로 이야기거리로 인구에 회자되어 왔다. 우리의 문예활동의 소재로도 적극적으로 원용되어 전후소설이나 전쟁영화 등의 대중문화에서 갈등의 요소로, 삶의 모습으로 그려냈다. 특별한 예술적 장치를 빌리지 않더라도 분단과 한국전쟁 이야기는 현재 70대 후반 이후의 노년층의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서사로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곧, 한국전쟁 체험담은 현재의 이야기문화에서 역사 사화(史話)와 같은 위상으로 구비 전승되고 있다. 70대 후반 이후의 노년층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구술방식이나 향유의식에서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남북 분단과 갈등의 최고점에서 서로를 살상한 치절한 이야기이지만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쯤으로 순탄하게 구술되다가도, 남북 정세가 적대적으로 급변하면 작금의 상황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돌변하게 된다. 분단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구술방식과 향유의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다. 곧 전쟁체험담의 구술방식과 이야기의 내용에는 분단 트라우마가 깊이 개재되어 있고, 이러한 트라우마는 분단인식을 고착화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류에 따라 다면성을 드러내는 한국전쟁 체험담과 그 구술 상황에서 분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체험담에 대한 접근은 구술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¹⁾ 국가 주도 전쟁사 기술에서 누락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은 지역의 실상을 밝히는 방향²⁾에서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잊히고 묻힌 사건들의 전모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전쟁의 또 다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문학의 영역에서는 한국전쟁 체험담의 문학적 특성과 구술방식 등에 관심을 둔 연구³⁾가 있어 이 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전쟁의 또 다른 실상을 밝히고, 체험담의 존재 양상과 문학적 특성에 대해 주목하였지만 체험담 속에 자리한 분단 트라우마의 양상이나 치유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이에 발표자는 이 지점에 착목하여 연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⁴⁾ 한국전쟁이나 분단 사건에 관련된 체험담을 통해 분단 트라우마의 양상들을 진단해 내고, 더 나아가 그 치유 방안으로 체험담 구술의 상황에 주목하여 ‘구술 치유’ 개념에 대해 고민하였다. 일련의 과정에서 체험담 구술을 통한 분단 트라우마 치유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술 치유는 개인의 문제 상황에서보다는 국가나 민족, 집단 차원에서 벌어진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간직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론으로서 여타 치료방법론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예후는 구술의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느끼기에 구술에 임하기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상태가 되었다고 본다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강력한 트라우마가 일회적인 구술로 사라지는 경우는 희박하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자신이 간직한 고통을 다른 사람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타인이 구술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는 가운데 동병상련의 위안을 얻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⁵⁾ 이러한 위안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동일한 트라우마를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의 장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술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다면 어느 정도 치유나 회복의 예후를 보인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⁶⁾

1)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인문학논총』 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이임화,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2)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 제38집, 한국역사학회, 2000.

이용기, 「마을에서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역사문제연구소, 2001.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3) 신동훈, 「역사경험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특성-6.25체험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24호, 국문학회, 2011.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4) 김중군,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김중군, 「구술을 통해 본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논총』 51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1.

김중군,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탈북 트라우마의 현재적 양상」, 『코리아의 역사적 트라우마』, 도서출판 선인, 2012.

김중군,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5) 이러한 견해는 소설 연구에서 서사적 치유 이론과 상통한다. “치유의 관건은 그 트라우마의 내용을, 그 맺힌 사연을 발설하여 풀개끔 말문을 띄워주는 데 있다. 말문이 트이면 고통스런 기억을 공유한 이들 간에 모종의 연민과 함께 일체감이 이루어질 것이며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들조차도 그 담론의 장에 함께 어우러질 법하다.”(장일구, 「역사적 원상과 서사적 치유의 주체학-5.18 관련 소설을 사례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263쪽).

그렇다면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전쟁 체험담의 담론화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체험담의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서 그 말하기 방식과 서사의 내용에 주목하여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한국전쟁 체험담의 성격과 양상

한국전쟁 체험담이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맺는 시기 동안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시기로서 그 영역을 제한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얹혀있다. 한국전쟁은 1945년 해방 이후 38선으로 분단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좌우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4.3사건과 여순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38선 인근에서는 6.25 이전에도 국지전 성격의 소규모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 시점을 6.25로 두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휴전이 1953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리산을 중심으로 웅거한 빨치산들의 활동은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으므로 개전과 휴전으로 체험담의 영역을 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분단 이후부터 빨치산의 활동이 종결된 1953년 이후까지로 확대⁷⁾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성격으로는 남북이 총칼을 겨눈 전쟁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국가폭력이 가해진 4.3이나 여순 사건 등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체험담의 양상은 제주도 4.3사건 관련 체험담, 여순사건 관련 체험담,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진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 체험담, 6.25이전 38선 인근에서 있었던 국지전 체험담, 그리고 본격적인 한국전쟁 체험담, 휴전 후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의 체험담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전쟁 체험담의 성격을 구명하는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치부를 건드리는 일일 수 있고, ‘건드리면 덧나는 상처’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 체험담의 구술에서 분단 트라우마의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성격, 말하기 방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체험담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온전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체험담의 구술은 구술자가 어느 한편-남한의 입장, 체제 옹호의 논리, 더 나아가 반공의 논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험담 구술의 성격이 분단 트라우마이고, 한국인의 비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을 겪는 가운데 전세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그 사이에서 암흑 속에 전깃불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넌 어느 편이냐?”고 묻는 극단의 상황⁸⁾에 처한 경험은 일반적이다. 상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극한의 공포 체험인 것이다. 그 결과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세상은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영원한 불안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⁹⁾ 이를 전쟁문학 작가는 ‘마음 속의 지뢰밭’으로 표현¹⁰⁾하기도 하였다.

6) 김종근,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7) 빨치산 토벌의 종료 지점을 1953년 9월에 지리산 빗집에서 이현상이 사살된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최후의 빨치산이라고 하는 정순덕은 1963년 11월에 체포되었으므로 현지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는 더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이청준의 <소문의 벽>에 극한 공포로 그려지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쟁시기 빨치산과 경찰이 번갈아 가며 점령한 마을의 어린이가 암흑 속에서 전깃불을 들이대며 “넌 어느 편이냐?”고 묻는 공포의 상황을 겪은 후 강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내용이다.

9) 초등학교 시절 막내아들의 학부형이 된 아버지는 뒤늦게 학교 교정에 동상을 세워주고 싶어 하였다. 이미 마을 유지들을 중심으로 충무공상, 신사임당상, 독서하는 여인상, 각양각색의 동물상들이 콘크리트 재질로 설립된 상태였다. 남은 것은 반공소년 이승복상 밖에 없었다. 대치의 학교에는 이승복 어린이상이 오독하게 서 있는데, 지리산 밑에 자리한 초등학교에는 그것만은 없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막내에게 미안해 하셨다. 동상을 세워 아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하는데 차마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세상이 언제 다시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진행형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한국전쟁 체험담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구술자들 모두가 어느 한 구석은 감춘 상태에서 구술에 임한다. 그 결과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구술은 진행될 수 있고, 한쪽 편에 편중된 입장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영웅화하는 경향도 갖는다.

전세에 따른 가해와 피해의 반복 순환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인심의 변화가 가장 참혹함으로 다가왔고, 이 가운데 불신의 조장이 가장 큰 핵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전쟁 체험담에서 대체적으로 보이는 양상은 전쟁 중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이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지방 빨갱이들의 복수와 그에 대한 재복수의 반복이 더 큰 공포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한국전쟁 체험담의 구술에서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인의 체험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쟁소설에서 작가가 허구화를 피하는 가운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술자도 남들이 겪은 이야기를 본 대로, 들은 대로 구술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남들의 이야기를 구술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를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온정에 대한 기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 전쟁 체험담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의 비극 속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태는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개연성을 가진 이야기들이 체험담으로 주로 구술된다는 말이다. 피난 도중 우는 아이를 버리거나 질식시킨 이야기나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이야기, 양측으로부터 수탈당한 이야기 등은 반복적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개연성을 띤 체험담 구술의 확산을 통해 극단의 전쟁 시기에 가해자로서 자신이 행한 행위가 대단한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담론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일단 담론의 장이 형성되고 나면 그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 놓을 수 있을 것이고, 회복의 기미를 엿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한국전쟁 체험담의 내용이나 구술 상황은 이처럼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 구술하는 서사의 내용이나 구술 방식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꼼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¹¹⁾ 그렇지만 다면적 양상이 구술자의 성별에 따라 확연히 구별된다고 보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체험담의 서사 내용과 말하기 방식을 지향은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경우와 통합서사를 지향하는 경우로 이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식을 고착화하고 적대감을 강조하는 체험담은 분단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승리자나 강자의 입장에서 구술하는 무용담류를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전쟁의 피해에 주목한 이야기들—피난이야기, 수탈당한 이야기, 학살당한 이야기는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면서, 양비론을 펼치기도 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수궁하는 경향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통합서사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구술자의 입장에 따라 이야기가 분단서사가 되기도 하고 통합서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양분의 요인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구술자의 처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정치사회적인 요인이 일정정도 해결된다면 이후의 문제는 구술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곧 말하기 방식과 레퍼토리의 선정에서 분단서사보다는 통합의 서사를 지향하도록 계도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가운데 분단 트라우마의 극복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아베의 가족>, <남이섬> 등으로 한국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상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전상국 작가의 표현이다.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의 성격에 대한 많은 조언이 있었다(2013년 2월 17일, 김유정문학촌에서 구술, 신동훈·김종균 외 조사).

11)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3.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말하기 방식과 서사

대체로 한국전쟁 체험담은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술될 것이라 예측된다. 특히 한국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전쟁에 참전한 남성 구술자들은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무공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구술서사의 내용이나 구술 방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참전 용사로서 국가에서 포상을 받은 경우는 더욱 더 체제 수호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면서 전쟁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반공의식이 결여된 존재들로 진단하고 자신의 무용담이 계도의 수단이 되기를 소망하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전쟁을 체험한 노년 남성들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구술 현장에서는 마치 반공 쫓기대회에 나선 연사의 입장이 되기도 한다.

저도 군대 가고 6.25때 갔다 왔지만 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군대 가니까 제가 저, 그래니까 단기 83년도에 6.25 나는 해에 갔습니다. 가니까 예, 지가 하사관으로 갔는데요, 그 사병들이 너무 이가 많아서 이를 잡는데 예? 저, 이, 내가 처음으로 그거를 봤어요. 그래 분대원들이 이를 잡는데 뭐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를 잡느냐? 불에 태워라. (청중 웃음)그래가지고 분대원들이 다 불에 태웠어요. 예?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또, 우리 인민군하고 저 직접 싸웠어요. 저 강원도 화천에서. 저, 양구에서요. 육박전이 벌어지며는 개들은 야간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주간으로는 안 쳐들어오구요. 그래민 인민과 한국군과 구별을 못 해요. 예? 총, 칼, 칼, 총 ??니께 모자를 베껴봅니다. 모자를 베껴 머리를 세요. 인민군은 깡, 뽕뽕 깎았어요. 한국군은 질렀구요. 그래 뽕뽕 깎았으면 서로 죽이고 그래요. 예? 이러한 전투를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 좌경으로 빠져나가요. 예? 그런데 대학교수가 어? 나 보고 통일 될라고 뭐, 6.25를 이북에서 했다. 그러한 그 허매, 허무맹랑, 예? 개들이 비행기, 썩썩이로 일곱 대로 왔어요. 여의도가 비행기장이 있었어요.

와서 공격을 해서 너무 지금 저로서는, 군대생활 5년 했습니다. 전투에서만 어, 그저 쉬혼 될 때까지 예? 일설에 있었어요. 양구에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저, 중공군이 와서 후퇴를, 우리가 후퇴를 해면은 먼저 말타고 와서 높은 고지에 올라와서 피를 봅니다. 그래민 우리는 그냥 앞에 몰르죠. 아무거, 저, 인민군, 저, 중공군이 와서 포위됐다고. 그래 파발총 가지고 확확 쏩니다. 그때는 사단이고 군단이고 생전 저, 본부가 다 천막이 있었어요. 그래 천막에 와서 말 타고 와서는 파발총으로 다 때립니다. 그래민 다 도망갔어요. 그때 화천이었어요. 저, 저, 인제 원통리서. 그러한 저게 했는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적에 지가 할 수, 분해서, 분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썩썩이가 인민군 썩썩이가 왔다는 것도 몰를 거예요.

저는 그때 열여덟 살에 군대 나갔습니다. 학도병으로. 예? 가서는 5년을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경으로 빠지는 걸 잘 생각해서가지고 요다음에 투표했을 적에 좌경으로 안 빠지게 자알 생각들 해가지고 해주시요.(청중 박수)¹²⁾

이 체험담은 2006년 6.25를 맞아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한 ‘자유발언대-6.25를 맞으며’에서 구술된 내용이다. 구술자는 참전용사로서 전쟁 당시 겪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에피소드로 구술하고 있는데, 구술의 의도를 현재의 젊은이들이나 일부 지식인들이 좌경화되고 있는 것이 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의 북침설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인공군 비행기의 서울 상공 출현을 증언하고 있다. 서사의 전개는 전쟁의 참상을 ‘사병들이 이를 잡는 풍경’이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그리다가, 강도를 더하여 진지에서 있었던 피아를 분간할 수 없는 야간 육박전의 긴박한 상황을 그리고, 중공군의 총격을 피해 도망을 쳐 목숨을 건진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가 겪은 전쟁의 참상과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구술한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의 사실성은 자신이 겪은 체험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 사실을 통해 청중들은 전쟁의 참상을 상상하게 되고 구술자의 국가 체제를 수호한 무공에 대해 찬사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서사의 구술 의도가 전쟁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난에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12)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성』3, 민속원, 2009, 419~420쪽.

있다.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장치로 전쟁 체험담이 활용되는 경우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시국관에 대해 비판할 때 이러한 분단서사로서의 전쟁 체험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집안에서 자식이나 손자들을 대할 때는 강도가 약하다 가도 노년층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담론이 형성되는 장에서는 세대 갈등의 도구로서 분단서사가 질게 투영된 전쟁 체험담을 과감하게 쏟아내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대 갈등의 조장 장치로서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전쟁 체험담은 이야기의 말미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를 시켜서 투표의 상황에서도 잘 판단하라는 정치 선동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전쟁 체험담은 세대갈등과 더불어 종국에는 이념 갈등의 상황으로 끌어가면서 또 다른 전쟁을 지저에 깔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전쟁 체험담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시기에 관 주도로 조사된 전사(戰史)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 방식이다.¹³⁾ 참전용사들의 체험담 중 가장 빈번하게 조사되는 사건이 퇴각하는 인민군을 사살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은 총상을 입고 길거리에 누워 죽어가는 인민군에게 총상을 가한 것일 수 있다. 총을 들고 퇴각하는 인민군을 쫓고 있는 자신도 공포에 떨고 있었으므로 죽어가는 패잔병을 보자 영겁 곁에 발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관 주도의 ‘향토수호전사(鄉土守護戰史)’를 기술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쟁 영웅의 무용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나 관 주도의 전사 자료집들이 무상으로 보급되어 읽히는 가운데, 전쟁 체험담은 적을 죽이는 무용담 주축으로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전쟁 체험담은 구술자가 어느 한편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해서 구술하기를 강요받았고, 그러한 조사 작업을 국가나 관에서 주도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분단서사를 이야기의 주요 내용으로 채울 것이고, 적대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술에 임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전쟁 체험담 구술은 정치 논리에 순응하면서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악순환의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통합서사를 지향하는 말하기 방식과 서사

체험담의 존재 가치는 사실을 기반으로 당시의 삶의 모습을 진실되게 담아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체험담에는 전쟁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으면서, 처절했던 전쟁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삶의 진실이 담기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비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체험담은 종전이 된 상황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휴전 정국이므로 상대를 적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구술된 서사나 구술 방식은 분단서사를 지향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전쟁 체험담에서 통합서사로 단정할 수 있는 이야기나 구술 방식을 찾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통합서사의 의미는 화합이나 평화의 메시지를 오롯이 담고 있는 서사라고 말할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는 방식으로 구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단지 극단적인 상호 적대성을 벗어나 이야기와 말하기 방식으로 보는 수준이다.

그 양상은 전쟁의 처절한 참상을 고발하는 경우, 생존을 위한 양쪽을 넘나든 처세를 변론하는 경우, 온정주의의 입장으로 전쟁의 참상을 보듬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13) 하동향토수호전기편찬위원회, 『하동향토수호전기』, 하동군, 1987.

<전쟁의 참상 고발-성폭력 피해>

6.25 때 내가 하도, 하도 엄청난 얘기라서 내가 한번 하고 싶네. 이젠 어데서 내, 언제 어디 가도 내가 공개하고 싶었는데, 6.25 때 말하자면은 미군들이 많이 안 들어 왔어요? 6.25 전쟁 때. 그래 미국 놈들 처음 들어올 때 아이구, 여자들하고 마 강탈을 온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 삼십 명 여자들 막 한집에 모아놓고 밤에 자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막 혼차 있는 영감들은 있으면 가면 막 가서 배를 폭 찌르고,

“여자 내놓으라.”

고(조사자: 미군들이요?) 예. 아, 미군들이 그랬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청자: 미군들이 침에 그랬어요?)예. 그랬는데 난중에는 막 돌아댕기, 이 한 이십 일간 숨어가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중략)

그래도 미군이 그래 들어오고 우리 참 대동아 전쟁을 해줬기 때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살지 (청자: 맞아.) 그분들 무시하면 안 돼지. (웃음) 안 그래요?(조사자: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무서라. 별 일 다 있었어요.¹⁴⁾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한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위협이 덜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약자로서 배고픔과 추위 등의 막아낼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사지로 내몰린 형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들에게 전쟁은 성적 유린이라는 공포를 가장 크게 안고 살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인 것이다. 이 이야기 구술에 나선 여성은 고향인 마산에서 겪었던 전쟁 체험 중 가장 두려웠던,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고발하고 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하도 엄청난 사건을 보았으므로 한번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고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구술한 서사에서 폭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묘사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비롯한 처녀들이 위기를 모면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쳤다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피해가지만 구술 방식에서 감추어진 서사를 감지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자를 내놓으라고 노인들을 위협하는 상황과 숨어 지내기가 겁갑하여 들에 나왔다가 미군에게 잡혀서 죽기 살기로 발악했다는 상황을 통해 말하지 않은 진실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의 전쟁 체험담에서 문제는 서사의 말미에 심각성을 드러낸다. 강력한 고발 의지를 드러내고 피해 사실들을 감추기 식으로라도 언급했건만 마지막에서는 그래도 우리를 구해준 미군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나가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자 한 의지의 너머에 미군이라는 고마운 구원자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삼가야 한다는 심리적 통제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발 의지는 전쟁이라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다시는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담론화 과정에서는 더 큰 메시지 전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결국 한국전쟁 체험담에서의 통합서사 지향은 여전히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클 때야 어쨌가니? 반란군 따세 나가도 들으가도 못하고, (머리를 헝클며) 팽-상 머리 가 못 땀고, 머리로 헤풀고 저늑이면 뭐, 반란군이 들온께, (얼굴을 만지며) 막 얼굴에다 거망칠을 해갖고, 젤-로 무서워라 한 건 염병을 무서워라 해. 염병을, 반란군이. 그래갖고 인제 아랫집이 그, 두임이 솟은 집이, 후보 영감이라고, 홀애비 영감이 있었어. 그 밑에 가 팽-상 (웅크리며) 오구리고 누웠어 인자. 반란군이, 마악 배곁에 옥신각신하고 염생이 잡아먹니라고 꺾꺾끼리고 난리를 칠 거시, 우리 친정에는. 집이 크게 그때는. 그으 아랫집이 그, 우두막집이 그 후보 영감, 똥구녕에 가 누, 누웠는 거라 인자.

그 가 누, 다 떨어진 요, 그 누우가 있으면 우웬동 옛날 [조사자 : 반란군들이 처녀들을 건드리나요?] 아 처녀야 뭐, 환장을 하지. 군인이나, 전투순경이나 군인들이나 반란군이냐 마, 처녀 있는 집이야 하면 고만, 집중을 하는 거이라 거 그서 고마.

궁께 인, 그뻘 인자 조금 젊었으이 꼬라지는 반다승-하이. 환장을 하고 고마 잡아가면 우절 끼이라? 무서워서. 궁께 그 마, (얼굴을 문지르며) 마악 꺼멍칠을 막 요상하게 해갖고, 머리는 헤풀고.¹⁵⁾

14)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2, 민속원, 2009, 421~423쪽.

전쟁 체험 중 성적 유린에 대한 공포는 미군에게 한정된 내용은 아니었다. 지리산 인근에서 긴 세월동안 전쟁의 공포를 체험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산중에 웅거한 빨치산과 토벌대로 나선 군인, 경찰들도 모두 위협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전쟁은 정상적인 인간을 비정상적인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게 된다는 고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서사이다. 이러한 입에 담기 힘든 사건들은 당사자인 여성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인 약자로서 전쟁을 겪어내면서 당한 말 못할 외상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방식이 죽기 전에 한을 풀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구술이 통합서사의 오롯한 양상이 될 수는 없더라도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담론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통합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된다.

<전쟁의 참상 고발 - 양쪽으로부터의 수탈>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이야기 중 다수가 전쟁 시기 인민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약탈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쟁 시기에 식량의 조달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고픔의 공포는 총탄의 위협에 버금가는 것이었음을 구술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아, 무서운 세상 많이 살아, 어데 뭐 밥을 제대로 먹었는 줄 알아? 저녁에, 보리 곡식 양식 두 되 구해놓고 어디, 집 사방 처마 밑에 (위쪽을 가리키며) 저런 디 열놓면, 아침에 보면 싹! 만리경으로 보는 갑소, 범왕, 저런 디는, 싹 둘라 가버리고 읍어, 아무긔두, 뭐 자귀경(?)을 했는가 뭘 했는가 뭐, 싹 둘라가버리. (위쪽을 가리키며) 저-게서 만리경으로 봐, 그런게 그마 해거름- 되면 인자, (위쪽을 가리키며) 저-그서 인자, 우리가 범왕 있을 때 인자 밭을 매면, 말하자면 시방 시간, 시방 시간으로 한 다섯 시나- 되면, (위쪽을 가리키며) 저- 건네로 온다고, 줄-줄이 내려 와. 그마 유격대들, 줄-줄이 내려왔다 인자 동네 근처 어데 있다가 밤에 오는 모냥이라. 못 전디. 뭐 도-저히 승길 수가 없어. 참-말로, 그때 안 죽고 모도 산 것만 해도 고맙지.

근데 뭐 (위쪽을 가리키며) 저, 범왕 저런 디는 (두 손을 동그랗게 모으며) 요-만한 도구, 도가지 한 개도 없어. 싹-군인들이 와 다 뚜덜이가 깨빠리고 반란군 준다고, 목는다고, 아-무긔두 없응께 소금 한 되, 보듯이 통목 저다가 소금 한 되 사다가, 소금국 풀어갖고 밥 위에 찌갓고 (떠먹는 시늉을 하며) 기양 묵고¹⁵⁾

지리산 인근에서 조사된 이 이야기에서 구술자는 전쟁의 체험 중 빨치산과 토벌대의 민간인 수탈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반란군으로 불리는 빨치산들은 험준한 지리산 중에 숨어 지내면서 밤마다 보급투쟁을 나와서 숨겨 둔 식량을 약탈해 갔고, 그에 비해 보급이 이루어진 토벌대의 군경들은 빨치산의 보급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인들의 집을 불사르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삶을 위협하였다.

전쟁은 군인들에게는 서로를 죽여야 하는 비극이지만 민간인들에게는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약탈당하는 더 큰 비극이라는 이야기이다. ‘낮에는 국군에게 당하고 밤에는 공비에게 당하는’ 전쟁은 결국 모두가 나쁜 사람들이고 악의 존재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양비론의 서사와 구술 방식이 통합서사일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역시 이와 같은 양비론적인 구술 담론화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고발하고 전쟁불가론을 확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쟁 중 처세에 대한 변론>

한국전쟁 시기에 인공치하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바닥빨갱이’로 불리면서 득세하여 가해자

15) 2008년 12월 29일, 경남 하동 화개 용강, 이귀례(여, 1935년생) 구연, 김종균 외 조사.

16) 2008년 12월 29일, 경남 하동 화개 용강, 이귀례(여, 1935년생) 구연, 김종균 외 조사.

로서 활동을 하였고, 군경이나 공무원의 가족들은 피해자로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초를 당했다. 수복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 철저하게 복수를 감행하였고, 가해자였던 ‘바닥빨갱이’는 죽임을 당하거나 고향을 등지고 타관으로 흘러가야 했다. 이들은 모두 신봉하는 사상을 따르거나 국가의 수혜를 받은 입장이므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상이나 공직과 무관한 민간인들 중 언변이 뛰어나거나 마을일을 맡아했던 사람들은 두 체제 속에서 마을 일을 맡게 되어 전쟁 후 모호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 체험담에서 일군을 이루면서 구술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적을 지금에 와서는 ‘이국충신’으로 미화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인공시절 ‘여성동맹위원장’을 지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의 구술 방식은 ‘시절이 그러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세에 휩쓸려 분단서사를 지향하는 구술로 일관하는 경우에 비해 의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이 학생 놈들이 그것을 알고는,

“하이, 이국충신님 모셔왔다.”

그래 내가 이국충신 말을 들었어.

“우리 나라 한국 정치 때는 국민을 위해서 성인 교육을 가리쳐서 그 무식한 대중을 가르친 분인데, 그렇게 충신노릇을 한 분이 인민공화국을 보고, 오닌계 우리 나라 지도책이 되었다. 근게 이북에도 충신, 우리 나라도 충신, 이국충신이다.”

허구서는,

“사람 양심이, 목심이 그릉-게도 아깝소?”

[청중 웃음] 허문서 막, 그 학생놈들이 막 나를 그냥 몽둥이로 때릴라구 얹어놀라구 그러. 다른 사람이 얹어져서 두들겨 맞는다, 그 다음 차례가 나여. 아- 그래 그 사람이 인제 일어나서 저리 끌고 가. 인제 저- 가들 다가 데리꾸가. 불기작 몽둥이로 두들겨서. 그러구는 나를 막 꼬집어 가. 아- 갈라구 허는 찰라에 문이 빠긔이 열려. 아- 그러드니 우리 면장, 축진대장, 아- 그 축진대장이 들어오더니 우루루 허드니 내 손목을 잡드니,

“조동지-.”

그러어. 동무라고 안 허고, 동지라 그러. 아- 그러드니 아- 그 축진대장이 날더러, 학생들을 보고 뭐라 허느냐 하면,

“이 분이 사상이 틀려서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은 강제로 선출이 되얏고 갔다 와서면 지도책 노릇을 하면서 자기 재종동생, 경찰, 대한민국 경찰을 자기 집에 숨겨 났다가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리러, 저리러, 지시한 양반이 이 양반이다. 그런디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다스려야지. 무조건, 끝만 보고 다시리면 쯔나? 조동지 갑시다.”¹⁷⁾

이 이야기에서 ‘이국충신’의 의미는 인공시절에 면 지도책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활동하던 중 수복이 이루어져 학도호국단(?)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면서 들었던 비난의 말이다. 그런데 구술자는 구술의 상황에서 전쟁 시기 자신의 처세를 미화하는 용어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구술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자신의 살아온 생애담을 풍부한 서사를 갖추어 구술하는 유능한 이야기꾼이다. 6.25가 나자 경찰로 근무하던 재종동생이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자 대청마루 지하에 숨겨 주고 있었는데, 인민위원장이 불러서 면 지도책 교육을 받고 오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하는 수 없이 지도책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였는데, 후에 수복된 후 청년들에게 ‘이국충신’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때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축진대장이 나타나 사실을 밝히고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내용이다. 비교적 긴 서사이고 입담이 좋아서 흥미진진하게 구술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에서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의 또 다른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 시기를 잘 살아낸 사람들은

17)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2, 민속원, 2009, 369~370쪽.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야기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통합서사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념이나 욕망 갈등의 정점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쟁의 의미를 무화시키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사람의 도리를 올곧게 행하면 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전쟁 체험담이라 할 수 있겠다.

<적에 대한 온정적인 자세>

앞서 언급한 전쟁 체험담의 성격에서 어느 한편의 입장이 되어 구술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분단 체제 속에서는 대부분이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구술에 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구술의 현장에서는 인민군에 대해서 적대감을 풀고 ‘순박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온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온정은 통합서사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인자 그 사람이 빨치산으로 나가놓이께, 그 사람, 왜 그러냐하면은 좌우간 불러다가 때리니까 매 맞기가 싫어서 도망을 가는 기지. 도망을 가는 기라. 그래놓이 그 사람 부인도 인자 우찌 되서 그 산에 갔느냐 하면은 남편이 산에 간께 장근 잡아다가 장근 여자를 오락해가지고 괴롭히이께

‘내가 고마 산에 가야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그래-, 저, 정순득이가, 그래 신문에도, 부산일보에도 많이 나왔다고, 잡히고 나서 결국 총에 맞아 가지고 안 죽고 다리 절단하고 이래가지고 살아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무기 정역을 받았다가 감영돼가지고 이십 년인가 얼마 받았다가, 십, 내가 알기로는 한 십팔 년 쯤 살다 나왔거든. 나왔는데 그래 그 사람, 그, 그때 그, 부산일보 내가 한 번 본께, 자기도 털어놓고 기도하고 이바구를 하는데 매에 못 이겨서 간 거라. 장근 불러다가 인제 남편 빨개이 나가고 없으니께 장근 부르니께, 그러니께 인제

‘아이고 그만 내가 장근 불러 가가지고 고초 당하는 것 보다 고마 나도 산에 가야되겠다.’ 싫어서 그래 산에 갔지. 그래서 그 정순득이라고 그 제일 뒤에 잡혔다 아이가.¹⁸⁾

마지막 빨치산으로서 1963년에 체포된 정순득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얹힌 이야기는 현재까지 인구에 회자되는데, 마지막 빨치산이 토벌되었다는 사실이 세간을 놀라게 하였고, 그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으며, 더 나아가 그가 여자 빨치산이 된 사연이 남편을 찾아 들어갔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랐다. 구술자는 그 사연을 『부산일보』 기사를 통해 보았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빨치산이 되었다고 매번 잡아다가 괴롭혔기 때문에 빨치산이 된 것이라고 온정적인 입장으로 구술에 임하고 있다. 위낙 애틋한 사연이었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회자 방식이 분단서사를 극복하는 한 양상으로 가능함을 보게 된다. 전쟁이나 분단의 사건이 국가적이거나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적대 감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지만 주변의 애틋한 사연으로는 충분히 온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을 비극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¹⁹⁾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온정적인 감정 상태가 이와 같은 구술에서도 가능함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연을 담은 이야기를 발굴하여 담론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분단서사가 통합의 서사로 대체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마지막 빨치산 정순득에 대한 온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단상이다. 특히 정순득에 의해 피해를

18)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9, 민속원, 2009, 284~285쪽.

19) 1965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남과 북>고 같은 영화가 예가 될 수 있다.

입은 지역 주민의 글이라 그 화해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16살의 순박한 새색시가 17살 남편을 찾아 임신하고, 다시 만난 신혼의 남편은 만난지 20일 만에 국군에 의해 죽었다. 어린 새색시는 복수심에 불타 짐승같은 빨치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양민을 죽였다. 그리고 자신도 총을 맞고 한 쪽 다리를 잃었다. 친척도 아는 이도 없이 외다리로 버티며 수용시설을 전전하며 모진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한다. 총을 맞고 생포된 때가 30살이었으니, 지금은 68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임신한 것도, 남편의 죽음도, 표독한 공비로 산 13년도 그녀의 선택은 아니었으리라. 16세 신부가 결혼 6개월 만에 산으로 찾아가 남편과 지낸 20일...; 우리의 슬픈 역사의 한자리이다.”²⁰⁾

5. 분단 트라우마의 극복 방안 : 분단서사에서 통합서사로

이상에서 통합서사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이야기와 구술 방식을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야기나 구술 방식이 통합서사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그 서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분단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통합서사의 대안적인 사례를 제시해 본다. 이러한 통합서사의 담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집단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단서사를 견어내고 통합과 화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곧 구술 치유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 체험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생애담 방식으로 구술하는 경우는 개인이 간직한 분단 트라우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구술의 과정에서 회복을 얻게 된다면 치유의 단계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이나 상처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털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구술 치유 방법으로 개인적인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 가능하다고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오히려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에 좀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방식은 거듭 언급한 것처럼 통합서사를 구술을 통해 담론화하고 그 것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전쟁 체험담은 개연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듣은 이야기’, ‘본 이야기’²¹⁾를 통해 사실을 객관화하고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전쟁문학에서 전쟁을 소재로 다루는 방식과 상통한다.

“얘기 다 듣구 왔다.” 이기여.

“형도 잘못된 게 하나두 없구.”

자기 미누라한테 하는 말이,

“이- 내가 데리고 살던 여자지만 이 여자는 잘못된 게 하나두 없다.” 이기여.

“우리 어무니가 선심을 베풀은 거밖에 없다.”

이 말이.

“우리 어무니가 잘 할라고 한 건데, 그 자기가 죽었다는 게 살은 게 이게 병이지 뭐 다른 게 있어.”

그라니께 이- 가라앉으니까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인제 말문 열리는 거.

“이거 내가 자네한테 죄 지은 걸 따지면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나두 이렇게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다 됐는데 하튼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자네 식구를 데리구 갔시믄 난 좋겠다구.”

그게 또 원칙 아니여, 그 사람은 쥐야지. 그래 이 사람 그러는 기지,

20) 화개면지 편찬위원회, 『화개면지』 상, 화개면, 2002, 196쪽.

21) 자신이 체험한 경험담이 아니라 남에게 듣거나 본 이야기이므로 2차적 경험담으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다(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나는 이쪽 나이가 젊으니까 알-미든지 장가를 갈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이 이 사람은 나는 인저 인연 이 끝났으니까 이젠 누가 잘못도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전장 일어난 게 잘못이지 다른 거 아-무도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 이겨여.

전장이 잘못이지 누가 워면 놈이 군인 가고 싶어 갔어. 나라가 위기에 닿았으니까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구 자기 부인한테두,

“당신두 말이지 아-무 생각 하지 말구 이, 현재 이 남편을 섬기구 잘 사는게 결국 나나 우리 어머니한테두 잘 하는 거라구.”

애기를 하니께, 그 사람두 제발 데려가라구 사정하구, 이 여자가,

“오늘 저녁에 당신이 만약에 나 안 데려가면 나는 이 세상에 오늘 저녁에 끝이다 이겨여. 내가 죄는 죽은 죄를 졌지만은 인저 나는 죽어두 당신 집에 죽는다.”

이겨여. 옷자락을 붙들고 안 놓는 거, 나 데려가라구. 안 데리구 갈라면 죽이구 가라 이겨여.

그래서 모두들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아는 거, 이웃 동네니께.

“자네가 암만 저거해도 이 사람을 데려가야지 안 된다고. 널 모래 따질 것도 없이 이 시간에 데리구 넘어가라구.”

그래 데리구 왔어. 그- 안 그래 그거. [청중 : 그렇지.] 또 장가를 들은들 뭐 하나고. [청중 : 들었어도, 그만 못하-.] 어. [청중 웃음] [청중 : 그만 못하-.]

그- 데리구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 자기 셋이 끌어안구 실컷 울었어. 이게 다- 누구 때미 그런 거냐. 이거지 사실은. 그땐 다른 게 아니여 이승만이라고 김일성이 그 두 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왜 아- 우리나라 동족끼리 어떤 놈은 싸우고 싶어 싸웠어. 그제 다- 비극이여. 우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큰 비극이예요. 그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 통일전장을 서로 한다고 했지만 김일성이하고 이승만이하고 둘이는 우리나라 완전 그렇게 맨들어 놓은 거여. 참- 그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어-. 한두 없어요.

(중략)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봐요, 동작동. 그 다- 그기가백한 사람덜이요, 다 그거. 거기에 못, 못 앉힌 사람이 더 많아요, 무명용사가 더 많아요, 6.25 사변 때.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절대 우리는 그것은 잊어서는 안, 안된다고 생각해요.²²⁾

이 이야기는 청주지역의 유능한 이야기꾼이 한국전쟁 시기에 인근 청원군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접하고 구술한 내용이다. 6.25 때 청상과부의 아들이 혼인을 하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 나갔는데 실종이 되어 실종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든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청상으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며느리의 강한 거부감을 무릅쓰고 혼자된 며느리를 이웃 마을 상처한 부잣집으로 재가시킨다. 그런데 휴전이 되자 실종된 아들이 총을 지니고 휴가를 나온다.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은 아내를 행방을 묻지도 못하고 며칠을 지내다가 처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하니, 어머니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말한다. 그날 밤 아내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웃마을로 건너가니 재가한 남편이 병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독경을 하고 있었다. 군대에서 전사한 전 남편의 혼령이 새로 만난 남편에게 씌여 병이 들게 했다고 독경하던 법사는 남편의 혼령을 가두어 퇴치하겠다고 한다. 마당가의 짚단 속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던 남편은 기가 막혔지만 두고 본다. 아내는 법사가 혼을 가두겠다고 하자 불쌍한 전 남편의 혼령을 암흑 속에 거둘 수는 없다고 절규하고, 법사는 마당가 짚단 근처로 달려오며 혼령을 잡는 시늉을 한다. 놀란 남편이 엉겁결에 총을 발사하게 되고 국청은 난장판이 된다. 모든 사실 밝혀지자 새로 만난 남편은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는데 전 남편은 도리가 아니라고 극구 사양한다. 아내는 울면서 전 남편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아내를 데려가라고 종용한다. 아내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내용이다.

전쟁 체험담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극적인 내용이고, 뛰어난 구술자의 능력으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전쟁 체험담에서 종종 찾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실종이나 잘못된 전사통지서를 받고 재가한 여성이 전 남편이 살아 온 상황에서 운명의 기구함을 토로하는 사

22)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성』6, 민속원, 2009, 150~157쪽.

레는 개연성을 가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구술자는 이러한 개연성을 가진 이야기를 화해와 통합의 서사로 엮어서 구연하고 있다. 청상으로 늙을 며느리를 염려하여 재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어머니, 홀로 남을 시어머니를 걱정하여 극구 재가를 거부하는 며느리,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와 아내가 보이지 않음에도 조급하게 묻지 않는 아들의 형상이 지극히 유순하고 인간적이다. 갈등의 해결 단계에서도 화합을 지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불쌍하게 죽은 남편의 원혼을 암흑 속에 가두지 말라고 애원하는 아내, 살아 돌아온 아내의 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데려가려는 재혼한 남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체념하는 남편, 그 상황을 보고 아내를 데려가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야기를 화합의 서사, 포용의 서사, 통합의 서사로 만드는 설정이다. 그리고 구술자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쇄기를 박는다. 이 모든 것이 전쟁에서 비롯된 비극이고, 위정자들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그리고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무명용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된다고.

비록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은 아니지만 듣고 본 이야기를 이처럼 완벽한 통합의 서사로 만든 구술자의 능력과 구술 방식은 구술 치유에서 지향하는 대안적인 이야기로 충분하다. 전쟁에서는 개연성이 있는 사건들이 일정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로 구술하는 과정에서 위의 예처럼 통합의 서사로 구술하고자 한다면 전쟁 속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크나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론을 형성하여 널리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가운데 분단을 고착화하는 서사는 통합을 지향하는 서사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한국전쟁체험담 구술에서 찾는 분단 트라우마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영익*

한국은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전쟁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국가이다. 한국은 반도체, 정보통신, 선박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의 경제 강국이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이 언제나 정신적 안정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듯이 생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화적 욕구가 창발한다. 한국이 GDP 순위로 상정되는 강국을 넘어서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화적 자원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 트라우마와나 위안부 문제와 같은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고 생각된다.

김종균 교수는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서 구술치유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구술 방식을 구술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체험을 구술하면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 분단서사와 통합서사로 구분하고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술의 전체 흐름이 전자에서 후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분단서사를 걷어내고 통합서사를 제시하는 것이다. 김 교수의 발표 내용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몇 가지 토론 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구술 치유는 개인의 문제 상황에서보다는 국가나 민족, 집단 차원에서 벌어진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간직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론”이다. 현대인 다양한 종류의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힐링 테라피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치료, 철학치료, 문학치료, 시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영화치료, 명상치료, 숲치료, 요가치료, 동작치료, 웃음치료, 아로마치료, 여행치료 등. 김 교수는 이런 테라피 목록에 구술치유를 추가하는데 이런 제안에는 ‘치료로서의 구술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구술치유는 분단 트라우마에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나는 김 교수의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 마음의 병 중 어떤 것들은 사회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는 마음의 병을 신체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치료해 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했듯이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참살이(well-being)이 구현된 상태이다. 최근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알랭 에랭베르의 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우울증을 단지 자아의 경제라는 관점에서만 관찰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울증을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는 사회의 원자와 파편화로 인한 인간적 유대의 결핍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울증의 사회적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병철이 보기에 현대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피로사회이다. 그렇다면 전쟁 트라우마의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가? 분단 트라우마의 서사구조는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는가?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8가지의 체험담들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공통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구술치유적 접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만일 누군가를 독방에 감금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면 그 사람은 극도의 불안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인지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은 본질적으로 내러티브 체계로 진화된 것”이거나(“Life as

*강원대 인문치료사업단 HK교수

Narrative”, Jerome Bruner), “인간은 스토리텔링 동물이다”(Storytelling Animal, Jonathan Gottschall).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 놓음으로써 정신적 안정감을 느낀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의 시간이다. 시간은 내러티브된 시간이고, 내러티브의 기호적 중재를 통해 구조화된 시간이다(리콰르, 『시간과 내러티브』). 현상학이나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나를 위해 타자가 만든 것이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부여 구조에 체화되어 있다.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구술치유의 과제는 전쟁 체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 통합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구술치유에서 의미부여의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김 교수는 개인적 전쟁 체험을 역사적이고 공동체적 담론의 장으로 전환 가능한 이유로 “전쟁의 비극 속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태는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치료 모형을 제시한다. “일단 담론의 장이 형성되고 나면 그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 놓을 수 있을 것이고, 회복의 기미를 엿볼 수도 있다”. 정리하면, 개별 체험담의 구술 -> 개연성을 토대로 한 담론의 장 형성 -> 치유를 통한 사회 통합. 여기서 우리는 피해자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하는 구술치유가 얼마나 치유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발표문에 제시된 사례들에서 구술자들은 전쟁의 와중에서 온갖 고초를 당했는데, 구술치유가 ‘피해자들만의 담론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의 사과일 텐데, 구술치유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